

평택문화원史

1953년 개원 | 평택문화원 개원 68주년

68

평택문화원史

평택문화원史

1953년 개원 | 평택문화원 개원 68주년

평택문화원

평택문화원



平澤文化의 中心 -

평택문화원

17901(우)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277
Tel 031.655.2002 Fax 031.654.8807
www.ptmunhwa.or.kr



7 88993 98361 6
ISBN 978-89-93983-61-6

비매품/무
03090

평택문화원史

68

평택문화원史

HISTORY OF
PEYONGTAEK CULTURAL CENTER

평택문화원史

1953년 개원 | 평택문화원 개원 68주년

68



평택문화원



- 평택문화원 심볼 : 평택문화원 마크는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도안하여 독립 법인으로 운영되는 전국 의 모든 문화원에서 공통으로 활용하고 있다. 전체 모형은 문화원을 상징하는 '문 (文)'자, 나라꽃인 무궁화 모양으로 문화원의 무궁한 발전을 상징한 것이다.
- 외원 꽃잎 다섯은 헌신과 창조와 노력과 존중과 협동을 뜻한다.
 - 나라와 지역사회에 헌신하는 문화원
 - 향토의 새 문화를 창조하는 문화원
 -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노력하는 문화원
 - 창의력의 원천인 개성을 존중하는 문화원
 - 더불어 손잡고 협동하는 문화원
- 내부의 원과 5개의 획은 꽃술로, 영원한 생명력과 알찬 결실을 상징하고, 중심부에서 문자가 사면으 로 뻗어나간 형상은 전국문화원이 연합회를 중심으로 굳게 결집되어 무궁한 발전을 이룩한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일러두기

1. 기획 방향과 구성

○ 《평택문화원史》는 1953년 사설 평택문화원 개원에서부터 1967년 평택문화원 정식 창립 이전의 구성, 1971년 평택문화원 창립, 1981년 송탄문화원 창립, 1989년 평택군문화원 창립, 1995년 통합 평택문화원 출범, 그리고 현재까지 이어지는 자료를 연도순으로 정리하여 표기하였다.

○ 《평택문화원史》의 편집 방향은 평택문화원의 발전과정과 활동성과 등을 조명하는데 역점을 둬으로써 지방자치시대에 지방문화원이 갖는 위상과 역할, 정체성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 《평택문화원史》는 문서와 사진 자료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했으며, 평택문화원사 관련 자료는 평택문화원과 이미지뱅크코리아에서 발굴 및 수집한 자료를 기본 토대로 구성했다.

○ 평택 각 지역에서 추진했던 문화원의 활동 상황과 변천 과정에 따른 옛 기록은 당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했으며, 외래어 및 현재 사용하지 않는 용어는 일부 수정하여 수록하였다.

2. 서술의 범위와 원칙

○ 《평택문화원史》의 공간적 범위는 평택문화원을 중심으로 각 지역별 활동상황을 핵심적으로 서술했으며 시간적 범위는 기록으로 남아있는 자료를 토대로 1950년대부터 초창기부터 2021년 7월 말까지로 하였다.

○ 《평택문화원史》는 평택시를 대상으로 서술하되 전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앞부분에는 한국문화원연합회의 개괄적 부분을 서술하였고 이후부터는 평택문화원의 역사와 활동상황을 배치하였다. 특히 평택문화원의 활동은 3개 시·군 통합 이전에는 평택군과 송탄시, 평택시로 나누어 각각의 역사와 함께 평택문화원, 송탄문화원, 평택군문화원 중심으로 기술했으며, 3개 시·군 통합 이후에는 평택문화원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 각 주제의 특성에 맞게 시간의 범위를 설정해서 기술하였다. 내용적인 면에서 혼선이 있는 부분은 공신력을 가진 《평택군지》, 《송탄시사》, 《평택시사》, 《소사별》, 간행물, 정기총회 자료 등 기록으로 남은 공식 자료를 토대로 수록하였다.

○ 기획 의도를 고려하여 해당 주제가 요구하는 범위에 부합하도록 서술했으며, 평택

문화원의 역사, 역할과 정체성 등 전체적인 부분에서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였다.

○ 본문에 활용된 내용 가운데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야 이해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처와 각주의 사용은 최대한 자제하고 참고자료로 명기하였다.

○ 집필 내용은 대부분 연도를 확인해서 정확한 자료를 기재했으나 간혹 해당 연도 확인이 불가능한 자료가 있을 경우 후일 이 책을 토대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확인이 어렵다는 문구를 넣어 자료를 그대로 수록하였다.

○ 본문 내용 중 ‘초등학교’ 명칭은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변경된 1996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그에 맞게 기술하였다.

○ 본문 내용 중 ‘평택시문화원’이 사용된 시기가 있었으나 전체적인 통일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평택문화원’으로 통일하였다. 그러나 연혁에서는 ‘평택시문화원’이 사용된 시기에는 고유 명칭을 그대로 기술하였다. ‘문화예술회관’ 명칭도 통합 이전에는 평택시문화예술회관, 송탄시문화예술회관, 평택군문화예술회관으로 기술하고, 3개 시·군 통합 이후에는 평택시남

부문화예술회관, 평택시북부문화예술회관, 평택시서부문화예술회관으로 기술하였다.

3. 저작권과 출처 표기

○ 《평택문화원史》 원고의 1차 저작권은 평택문화원에 있으며, 사진 1차 저작권은 평택문화원과 이미지뱅크코리아에 각각 있다.

○ 《평택문화원史》에 수록된 내용과 도표, 사진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하며,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 별도의 원저작자가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구한 후 사용해야 한다.

○ 《평택문화원史》 원고 및 사진을 사용해 2차 저작물을 만들 경우는 필자와 사진 저작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목 차

일러두기	6
발간사 이보선 평택문화원장	16
축간사 정장선 평택시장	18
홍선의 평택시의회 의장	19
홍기원 국회의원	20
유의동 국회의원	21
김태웅 한국문화원연합회장	22
김대진 경기도문화원연합회장	23
이용식 (사)한국예총 경기도연합회 평택지회장	24

화보 : 평택문화원 68년의 발자취	27
---------------------	----

I. 한국의 지방문화원

1. 지방문화원의 태동	1) 설립	90
	2) 조직체계	90
	3) 재정	91

4) 시설 및 기자재	91	
2. 지방문화원의 발전과정	91	
3. 한국문화원연합회	1) 한국문화원연합회 조직	94
	2) 한국문화원연합회 연혁	96
	3) 한국문화원연합회 사업	97

II. 평택문화원 창립기(1953~1972년)

1. 사설 문화원의 개원과 운영	102	
2. 평택문화원 창립 당시 문화예술 환경	103	
3. 평택문화원 창립과 활동	1) 사단법인 평택문화원 창립	108
	(1) 사단법인 평택문화원 창립총회 (1971년 2월 20일)	108
	(2) 평택문화원 임시 이사회(1971년 3월 10일)	109
	(3) 평택문화원 제1차 이사회(1971년 3월 20일)	110
	2) 사단법인 평택문화원 설립허가	112
	(1) 사단법인 평택문화원 설립허가 신청	112
	(2) 사단법인 평택문화원 창립 임원	113
	(3) 사단법인 평택문화원 창립 정관	116
	(4) 평택문화원 1971년도 세입·세출 예산	122
	(5) 평택문화원 1971년도 사업계획	124

- (6) 평택문화원 창립 당시 등록 인장
(관인, 직인, 사인, 계인) 125
- 3) 평택문화원사 건립 126
- 4) 한국문화원연합회 가입 127
- 5) 지방문화원 사업자 신고 128
- 4. 평택문화원 창립기 연혁(1953~1972년) 128

III. 평택문화원 개척기(1973~1985년)

- 1. 평택문화원 조직운영
 - 1) 1973년 사업과 활동 132
 - (1) 평택문화원 1973년도 세입세출 예산 132
 - (2) 평택문화원 1973년도 사업계획 134
 - 2) 1974년 사업과 활동 135
 - (1) 평택문화원 제1차 임시총회
(1974년 9월 27일) 135
 - (2) 1974년 평택문화원 정기총회
(1974년 12월 29일) 136
 - (3) 사단법인 평택문화원 제2기 임원 현황 138
 - 3) 1978년 사업과 활동 139
 - 4) 1980년대 평택문화원 140
 - 5) 평택군립도서관 및 전시장 운영 142

- 6) 평택군민의 날과 소사벌백중놀이 143
- 7) 《평택군지》 편찬 144
 - 1) 평택농악 발굴 및 육성 147
 - (1) 평택농악 발굴과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147
 - (2) 평택농악의 체계화 150
 - (3) 평택농악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151
- 2. 무형문화자원 발굴 및 전승
- 3. 평택지역 예술단체 활동 지원 152
- 4. 평택문화원 개척기 연혁(1973~1985년) 162

IV. 시·군 분리와 문화원(1986~1994년)

- 1. 시·군 분리와 행정의 변화 166
- 2. 평택문화원의 운영 및 활동
 - 1) 통합 이전 평택문화원의 조직 및 운영 169
 - 2) 평택문화원 부설 평택향토사연구소 172
 - 3) 평택문화원의 활동 및 역대 사업 173
 - (1) 우리고장 얼 찾기 운동 173
 - (2) 경기도민속예술경연대회 출전 174
 - (3) 종합문예지 《소사벌》 발간 177
- 3. 송탄문화원 창립 및 활동
 - 1) 송탄문화원 창립 182
 - 2) 송탄문화원 조직 및 운영 184

- 3) 송탄문화원 부설 송탄향토사연구소 190
- 4) 송탄문화원 활동 및 역대 사업 192
 - (1) 《송탄문화》 및 《향토사》 발행 202
 - (2) 《송탄시사》 발간 210
- 4. 평택군문화원 창립 및 활동
 - 1) 평택군문화원 창립 211
 - 2) 평택군문화원의 조직 및 운영 218
 - 3) 평택군문화원 부설 평택군향토문화연구소 220
 - 4) 평택군문화원 활동 및 역대 사업 220
 - (1) 《평택문화》 및 《평택군현지》 발간 222
- 5. 통합 이전 3개 시·군 문화원의 연혁
 - 1) 평택문화원 연혁(1986~1994년) 227
 - 2) 송탄문화원 연혁(1981~1994년) 230
 - 3) 평택군문화원 연혁(1989~1994년) 240

V. 시·군 통합과 문화원(1995~2003년)

- 1. 3개 시·군 통합 및 행정의 변화 244
- 2. 통합 평택문화원 출범
 - 1) 통합 평택문화원의 조직 및 운영 248
 - 2) 평택문화원 부설 평택향토사연구소 259
 - 3) 평택문화원의 활동 및 역대 사업 259
 - (1) 《평택시사》 발간 265

- (2) 기타 발간사업 268
- 3. 통합 평택문화원 연혁(1995~2003년) 268

VI. 평택문화원 도약기(2004~2021년)

- 1. 평택문화원 조직의 체계화
 - 1) 평택문화원 임원 현황 275
 - 2) 사업비 및 사업 규모 확대 293
- 2. 평택문화원의 활동 및 목적 사업
 - 1) 전문 인력과 문화회원 확대 296
 - 2) 종합문예지 《소사벌》 복간 297
 - 3) 지역사의 체계적 정리 300
 - 4) 평택시문화관광해설사 양성 301
 - 5) 문화예술 프로그램 및 교육사업 303
 - 6) 웃다리문화촌 오픈과 활동 305
 - (1) 서탄초등학교 금각분교의 역사 305
 - (2) 폐교의 무상 임대와 시설 개보수 306
 - (3) 웃다리문화촌 오픈 309
 - (4) 초창기 웃다리문화촌 운영(2006~2010년) 310
 - (5) 웃다리문화촌 도약기(2011~2020년) 317
 - (6) 웃다리문화촌 전환기(2021년 이후) 319
 - 7) 평택시티투어 운영 321

8) 주한미군 문화교류 사업..... 322

9) 문화유산(향교) 활성화 사업..... 324

10) 평택의 사라져가는 마을조사 사업 325

11) 전통문화 발굴 및 보존, 활성화사업 327

12) 학술토론회 333

13) 발간사업 333

 (1) 《평택시사》 편찬 334

 (2) 평택지역 읍·면지 발간 336

 (3) 평택인물지 발간 337

 (4) 평택학 자료집 발간 337

 (5) 연속 단행본 발간 338

 (6) 비연속 단행본 발간 339

 (7) 연속 간행물 340

 (8) 평택학 조사 및 연구 활성화 341

 (9) 기타 고유사업 344

14) 한국소리터 운영 345

15) 평택문화원사 및 향토사료관 건립 추진 347

3. 지역사회 연계로 역량 강화 349

4. 무형문화자원 발굴 및 전승

 1) 평택민요 발굴 및 육성 352

 (1) 평택민요 발굴과 경기도무형문화재 지정 352

 (2) 평택민요 전승 및 육성 354

2) 평택거북놀이 발굴 및 육성 355

5. 평택학연구소 활동 357

6. 평택문화원 도약기 연혁(2004~2021년) 362

Ⅶ. 평택문화원의 과제

1. 평택문화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379

2. ‘평택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 381

3. 평택문화원의 조직 혁신 383

4. 평택의 문화자원 플랫폼 구축..... 384

5. 평택학의 거점 및 콘텐츠 저장소 역할 강화 385

6. 평택문화원사 및 향토사료관 건립..... 386

집필후기 390

참고문헌 394

발 간 사



전쟁의 상흔(傷痕)이 채 가시지 않은 1953년 지역문화 창달(暢達)이라는 기치로 평택문화원이 개원하고 1971년 사단법인 설립되어 올해로 개원 68주년 사단법인 설립 5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를 맞이하여 지역문화의 역사적 사실과 민속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보존하며 계승하기 위한 과정의 흔적을 하나하나 담아 지역문화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평택문화원史》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동고서저(東高西低)의 한반도 지형에서 수도권 서남부에 위치한 평택은 예부터 내륙 깊숙이 바닷물이 유입되고 광활한 간석지(干潟地)가 펼쳐진 땅이었습니다. 넓은 해안선과 수로를 통해 고려 후기와 조선시대에는 몽고와 왜구의 침입이 잦았고 청일전쟁의 소사벌전투와 한국전쟁에서 후방이었지만 피해를 많이 본 곳도 이곳 평택이었습니다. 1970년 이전까지 해도 농경지가 부족하고 물을 얻기 어려워 모내기철을 놓치고 호미묘를 심거나 메밀을 심어 연명하는 등 경제기반이 약하고 생산력이 낮았던 이곳이 지금은 평택항, 고덕국제신도시, 브레인시티, 삼성전자 등 경제와 해군 2함대, 공군작전사령부, K-6(캠프햄프리스), K-55(평택오산미공군기지) 등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평택문화원은 훌륭한 역사와 전통문화를 탄생시킨 선조들의 정신을 본받아 평택이 국제문화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문화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통과 민속을 복원하고 발전시키며,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고, 우리지역의 유구(悠久)한 역사와 문화가 향토문화 속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연구하고 기록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평택에 산다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평택문화원의 의무이며 《평택문화원史》를 발간하게 된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평택문화원은 개원 이후 열악한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노력하며 지켜내 가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초심을 잊지 않는 자세로 더딜지라도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며 성과를 거뒀습니다. 평택문화원은 이미 1971년 군청 앞 단독 문화원사 건립을 통해 평택지역 최초의 공립 도서관인 평택군립 평택도서관과 미술전시관, 결혼식장 등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시세(市勢) 확장에 따른 평택시 행정 업무 공간 부족으로 문화원사를 시(市)에 내어주고 지금까지 단독 원사를 확보하지 못

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아쉬운 일입니다.

지금까지 평택문화원은 평택농악, 평택민요, 거북놀이의 육성과 문화재 지정, 소사벌단오제를 개최하며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또한 평택시사, 평택인물지를 비롯해 지역사와 지역문화를 담은 단행본을 발간하였으며 부설 기관인 평택향토사연구소(현 평택학연구소)를 설립, 운영하며 지역문화에 대한 깊이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2006년에는 생활친화적 문화공간으로 웃다리문화촌을 개관하여 전시와 예술체험을 통해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享有)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웃다리문화촌은 지역문화브랜드상을 비롯해 수 많은 상과 신문, 방송을 통해 폐교를 활용한 성공적인 문화예술 공간의 모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문화관광, 문화유산 활용, 한미문화교류, 마을기록, 학술행사 등 여러 사업을 통해 평택문화원은 지역문화 활성화의 중심이었습니다. 문화의 품격은 문사철(文史哲)을 기반으로 하는 인문학적인 인식과 사고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순하고 단면적인 문화 소비를 지양하고 장기적이고 고차원적인 문화 정책으로 품격 있는 문화도시로 갈 수 있도록 평택의 역사에 기반하고 '지방문화원법'에 준한 다양한 지역의 문화콘텐츠를 개발을 통해 시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문화기반시설로의 평택문화원의 역할을 다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모두의 노력과 지역문화의 숨결이 담긴 《평택문화원史》 발간을 위해 도움주신 정장선 평택시장님, 홍선의 평택시의회 의장님과 자료 부족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집필 활동에 애써준 박성복, 임봄 집필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지역문화와 평택문화원 발전을 위한 열정으로 노력해주신 전임 원장님과 임원님 그리고 평택문화가족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2021년 12월

평택문화원장 이보선

축 간 사



평택문화원 개원 68주년과 창립 50주년을 56만 평택시민과 함께 축하드리며, 그 동안 걸어온 발자취를 조명한 《평택문화원史》 발간을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택시는 지금 급격한 사회변화와 인구증가로 빠르게 국제적인 문화도시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평택문화원은 우리고장의 지역 문화를 선도해왔으며,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기록하고 보존함으로써 우리 고장의 정통성을 확보해 나가는데 앞장 서 왔습니다.

특히 평택문화원은 1953년 6.25 전쟁 직후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지방문화원을 개원하여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수 많은 사업을 펼쳐왔으며, 이 같은 사업은 지방행정기관인 평택군과 평택시, 송탄시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추진해와 평택의 문화예술 기틀을 몇 단계 드높이는데 크게 기여해왔습니다. 특히 평택농악을 국가무형문화재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이르게 했으며, 평택민요를 경기도무형문화재로 발전시켜 평택을 전통문화가 샘솟는 도시로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이와 함께 평택문화원은 사라져가는 지역 자원을 조사, 발굴, 기록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전국 어느 지방문화원보다 많은 아카이브를 구축해 평택의 미래 자산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역문화란 지역민의 총체적 삶을 표현하는 하나의 가치수단으로써, 문화의 수준이 곧 한 지역의 위상이나 삶의 질에 대한 평가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지역문화의 맥을 이어 나가고 새로운 향토 문화 창달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주신 평택문화원 이보선 원장님을 비롯한 역대 원장님들과 평택학연구소 박성복 소장님, 여러 이사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19로 힘든 상황에서 문화와 예술이 흐르고 시민의 삶이 풍요로운 명품 도시로 만들어 가기 위해 평택시도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평택문화원이 평택의 미래비전을 함께 제시하며, 시민들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높여가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평택시장 정상선

축 간 사



안녕하십니까. 평택시의회 홍선의 의장입니다.

우리시 향토문화 창달과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설립된 평택문화원이 개원 68주년 및 창립 50주년을 맞게 된 것을 56만 평택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평택문화의 계승·발전에 최선을 다해 오신 이보선 원장님을 비롯한 평택문화원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평택문화원은 1953년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문을 연 사설 문화원으로 1971년에는 법인으로 창립되어 올해 개원 68주년 및 창립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평택문화원은 그동안 전통문화 발굴·보존사업과 지역사 연구·발간사업 등을 추진하며, 급변하는 현대사 속에서도 평택 고유의 문화 정체성을 잃지 않고 고스란히 이어 올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했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지역문화 활성화 사업을 펼치며 지역문화의 발전과 재창조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21세기는 바야흐로 ‘문화의 세기’입니다. 이는 올해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군 ‘오징어게임’ 열풍에서 보았듯이 국민의 문화적 역량이 국가의 위상과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가 도래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맞물려 오랫동안 변방문화 내지 비주류문화를 의미하던 향토문화는 이제 우리 문화의 뿌리이자 원동력, 문화 콘텐츠의 핵심 요소로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향토문화의 선도자이자 계승·발전자로서 앞으로의 평택문화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평택문화원의 오랜 역사에 방점을 찍는 《평택문화원史》 발간을 계기로 평택문화원이 지난 68년을 발판 삼아 향토문화 창달과 지역문화 진흥의 주역으로서 큰 도약을 이뤄내길 기원합니다. 다시 한 번 개원 68주년 및 창립 50주년과 《평택문화원史》 발간을 축하드리며, 평택문화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평택시의회 의장 홍선의

축 간 사



지역문화를 선도해 나가는 평택문화원의 개원 68주년과 창립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평택문화원은 지역의 전통·향토 문화 진흥을 위해 설립된 이래,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평택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바로 세우기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하며 그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지역문화의 중심 역할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이보선 평택문화원장님을 비롯한 역대 평택문화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지역의 고유문화와 역사적 의미를 재발견하는 일은 아주 가치 있는 일입니다. 역사와 문화는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를 통한 관광사업·지역경제 활성화 또한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문화의 본질이 지역성에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지역 고유의 주체성과 독자성을 고려하여 독특한 문화콘텐츠를 개발해내고 우리의 문화가 더 큰 세계로 나아가도록 하는 일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평택문화원의 역할이 더욱 강조될 것입니다.

지금껏 해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지역의 고유문화를 계발하고 전승하는 일에 힘써주시고,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소통하는 평택문화원을 기대합니다. 저도 평택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문화를 즐기고 역사를 배우는 평택시를 만들어 가는데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평택문화원史》 발간을 계기로 지난 68년을 돌아보고, 나아갈 방향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개원 68주년과 발간을 축하드리며 오늘이 있기까지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평택문화원 가족 여러분의 앞날에 더 큰 성취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국회의원 **홍기원**

축 간 사



《평택문화원史》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68년사가 잘 정리되도록 애써 주신 이보선 원장님과 편찬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평택문화원은 향토문화의 창달과 지역문화진흥을 위해 1953년 사설문화원으로 시작, 1971년 2월 20일 법인으로 창립돼 평택 지역문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열악한 환경 속에서 향토역사에 대한 중요성 인식 제고와 조사연구, 유물·유적의 보존 활동은 물론, 각종 문화예술 행사 등 평택문화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문화는 지적·심리적 능력을 계발하는 일반 과정을 일컫는 한편 한 인간이나 한 시대, 혹은 한 집단의 특정한 생활 방식을 가리킵니다.

또한 문화는 지적 산물이나 지적 행위, 특히 예술 활동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일상 모든 분야에서 문화가 속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평택문화원이 해야 할 역할과 업무는 그만큼 광범위하고 넓습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지역문화 자산을 모아서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꾸준히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번 《평택문화원史》 발간을 통해 그간의 발자취를 기록 보존하고 평택의 역사와 문화를 시민과 함께 향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민 여러분도 평택문화원이 지역에서 주도적인 문화 생산 활동의 주체가 되어 그 역할과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힘찬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평택문화원史》 발간을 축하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국회의원 **유의동**

축 간 사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아름다운 도시! 평택의 문화예술을 선도해온 평택 문화원에서 개원 68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평택문화원史》를 발간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평택문화원은 1953년 사설문화원으로 출발하여 1971년 법인으로 새롭게 창립되어 평택의 문화창달과 진흥을 위해 묵묵히 그 역할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소사별 단오제, 정월대보름, 평택농악 고사굿과 같은 전통문화 발굴보존사업과 체험프로그램 및 문화기반시설로 활용 가능한 웃다리문화촌,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노을동요제, 평택시티투어 등은 수범사업으로서 평택시민들의 문화향수권 신장과 평택문화의 계승·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택문화원 부설 평택학연구소는 평택지역에서 일어난 역사, 향토, 인물, 유적 등을 망라하여 '평택학'으로 집대성하였으며, 지역의 정체성과 정신을 학문으로 승화시킨 유의미한 일을 하였습니다.

이렇듯 평택문화원이 걸어온 70여 년의 발자취가 기록된 《평택문화원史》는 평택의 문화사에 귀중한 유산이 될 것이며, 단순한 회고가 아닌 앞으로의 50년을 준비하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 책의 발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신 이보선 원장님을 비롯한 집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평택문화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한국문화원연합회장 김 대웅

축 간 사



평택문화원 개원 68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은 발전해왔습니다. 수많은 변화가 있었고 지역문화원은 그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면서 지역문화를 일구어 왔습니다. 68년의 세월을 어찌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평택 지역의 변화, 특히 지역문화를 이야기할 때 문화원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틀림이 없습니다.

때문에 그동안 평택의 지역문화를 위해 평택문화원이 해왔던 일을 정리한다는 것은 곧 평택지역의 문화를 규정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인근 화성, 안성, 오산 등과 다른 평택의 문화를 규명한다는 것 - 이것을 '지역특성화' 또는 '지역다움' 이라고 통칭해서 개념화하고 있습니다만 - 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평택의 문화적 특성을 규명하고 평택다운 문화가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일은 인근 지역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장소의 의미'를 문화적 관점에서 규명한다는 것은, 시민이 살고 있는 특별한 지역의 가치를 발견하는 일이고, 그 발견은 그 지역에 사는 의미를 찾게 만드는 일입니다. 때문에 평택시민은 서울이 아닌, 화성이나 수원이 아닌 바로 여기 평택에 사는 이유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 '장소적 의미 발견'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월의 주름이 필요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변화된 것을 거슬러 다시 정리하고, 그때 있었던 사실, 사건의 맥락을 지금의 시점에서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그 정리는 축적된 시간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지역문화의 산실로서 68년의 시간을 축적해 온 평택문화원의 역사를 정리하고 현재적 시점에서 재정립한다는 것은 축하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 수고를 해 주시는 분들에게 감사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평택문화원이 시민들과 함께 정리하는 평택 문화의 지난 68년간의 역사가 어떻게 정리되어 평택문화의 현재적 의미로 재정립될 것인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경기도문화원연합회장 김 대권

축 간 사



평택문화원 개원 68주년과 《평택문화원史》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평택의 예술문화 변천사와 예술인들의 발자취의 보고(寶庫)인 《평택문화원史》가 향후 평택 예술문화가 나아갈 방향과 정체성을 제시해주는 지남(指南)서가 되길 기대합니다.

평택문화원은 설립 이후 68년이라는 긴 시간 평택의 예술문화 발전을 위해 변함없이 달려왔습니다. 아름다운 전통을 보존하고 급격한 변화에 발맞춰나가는 평택문화원의 앞으로의 행보 역시 진심으로 응원하고 기대하면서, 이에 한국예총 경기도연합회 평택지회도 평택문화원과 함께 평택의 예술문화 발굴과 육성, 예술문화 교육 기회 제공, 예술문화 자원 보존 및 계승을 위해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예술문화에 대한 수요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이때, 평택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곳이면서도 해결해야 할 과제 역시 많은 도시입니다. 예술문화로 시민과 예술인이 모두 행복한 평택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향토문화의 창달과 평택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평택문화원史》 발간을 위해 애쓰신 이보선 평택문화원장님과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평택문화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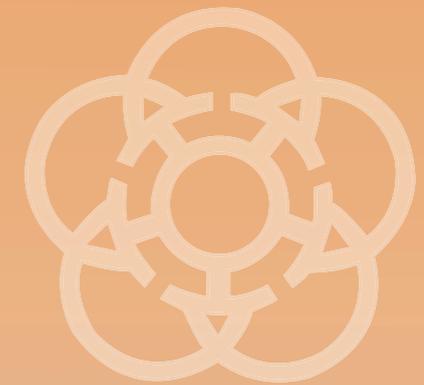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사)한국예총 경기도연합회 평택지회장 **기 용 국**

68

화보
평택문화원 68년의 발자취





평택문화원 개원 당시 문화원사와 평택군립도서관(1971년)



평택문화원 원사(1973년)



평택문화원 원사와 평택군립 도서관(1973년)



평택복지관 노후화로 개보수 공사 후
평택문화원 위탁 관리(1975년 10월 20일)



평택문화원 원사와 평택군립도서관,
미술전시관(1980년대)



안중 누까회관 개관식(197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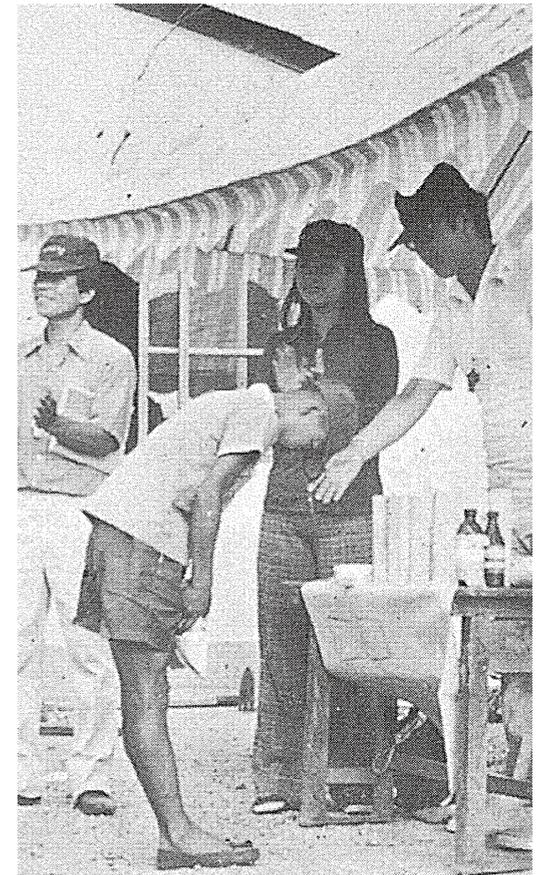
평택문화원 주관 제2회 평택군민의 날(1973년)



평택역 광장에서 열린 8.15사건 진상규명대회
(1974년 8월 1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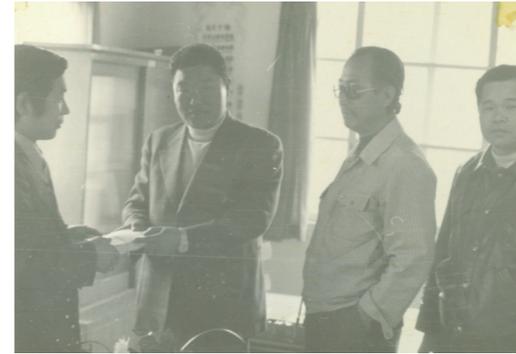
평택문화원 미술작품 전시회(1974년)



평택문화원 가두 의료반 운영(1974년)



평택문화원 농번기 봉사활동(1974년)



평택문화원 원장 신문의 날 배달원 100명
운동화 100족과 성금 전달(1975년 4월 9일)



평택문화원 후원 장소팔 초청 고전가요제
(1975년 4월 22일)



평택문화원 국군 장병 위문(1975년 5월 6일)



평택군민 노래자랑대회(1975년)



제1회 평택귀향연주회(1975년 2월 7일)



민형식 평택문화원장 방공포사령부 장병에게 TV 2대 기증(1976년 1월 24일)



평택문화원 주최 제1회 평택고등학교 시화전시회
문화원 전시실 개최(1976년 5월 22일)



제28주년 제헌절 기념식(1976년 7월 17일)



제1회 전국새마을 학생 미술작품 공모전 전시회 (1976년 8월 15일)



평택군 중고등학교 미술대회(1976년 11월 22일)



제1회 동계서예강습회(1976년 12월 13일)



제31주년 광복절 기념식(1976년 8월 15일)



76년도 제3회 평택동고등학교 미술전시회 (1976년 9월 6일)



평택군민 위안의 밤 주한미군 밴드 축하공연(1976년)



평택기계공고 교정에서 개최한 오늘의 한국 특별사진전 (1976년)



새마을 가족계획 촉진대회(1976년 10월 14일)



민족의 얼 사진전시회(1976년 10월 16일)



평택문화원 주최 자선음악회(1976년)

<p>EXCHANGE TAXI SERVICE IS AVAILABLE</p> <p>IN:</p> <p>OSAN AIR BASE 284 4081 / 5025</p> <p>CAMP HUMPHREYS 253 3414 / 3645</p> <p>KUN SAN AIR BASE 282 4318 / 4537</p> <p>WITH THE LATEST MODEL OF CHEVROLET NOVA BY HAEKANG INDUSTRIAL CO., LTD.</p> <p>수시 입관 환영 평택 권투회</p>	<p>GOODWILL RELATIONSHIP BOXING EVENTS</p> <p>CHANGKUN WING WING-DONES TROPHY TO WINNERS</p> <p>MAIN EVENT</p> <p>LEE KEO-SUNG (281.5lb) VS HAN TONG-SUP (281.5lb)</p> <p>SUPPORTING EVENTS</p> <p>LEE KYUNG-IL (108lb) VS YUK YOH-HOON (108lb)</p> <p>CHUNG WANG-KI (135lb) VS LEE BONG-JAE (135lb)</p> <p>CHOI CHUN-HEE (141.5lb) VS YUK CHUN-HEE (141.5lb)</p> <p>THU & HONG BOULTS AMATEUR BOUT</p> <p>BENNY FIELDS (OSAN AB 172lb) VS LARRY ROBINSON (OSAN AB 172lb)</p> <p>PHANTOM HOUSE NIGHT CLUB IS A PLACE TO GO DRINK AND ENJOY YOUR LIFE</p> <p>PHONE : 4151,2678(SONGTAN)</p>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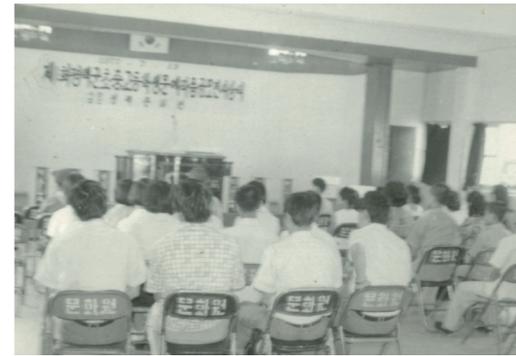
평택문화원 후원 한미 친선 복싱대회 팸플릿 (1977년 2월 5일)



77 공장새마을운동 전진대회(1977년 2월 26일)



제58주년 3.1절 기념식(1977년 3월 1일)



제1회 평택군 초중고등학생 문예작품 공모전 시상식 (1977년)



제3회 평택귀향연주회(1977년)



새마을 갖기 웅변대회(1977년 3월 9일)



불우이웃 돕기 바자회(1977년 4월 11일)



평택문화원 주최 제2회 평택고등학교 시화전시회 문화원 전시실 개최(1977년)



제4회 식생활개선 요리강습회(1978년 6월 28일)



평택문화원 주최 평택군 별공표어 경진대회 시상식 (1977년 4월 14일)



제2회 새마을 학생 미술작품 공모전 전시회 (1977년 6월 7일)



평택문화원 주최 제2회 문예작품 및 제3회 미술작품 시상식(1978년 9월 8일)



평택문화원 주최 평택군 학생 미술실기대회 (1978년 11월)



어린이를 위한 미술전시회(1979년 5월 4일)



국립합창단 평택특별초청공연(1970년대)



이대원 장군 묘 및 신도비, 재실 답사(1970년대)



평택군 사회부조리 제거를 위한 자숙대회(1970년대)



반공건국청년운동순국자 합동위령제(1970년대)



불우이웃돕기 유화전시회(1970년대)



평택군 학생 그림그리기대회(1970년대)



평택군민 시가행진(1970년대)



식생활개선 요리대강습회(1970년대)



원앙예식장, 광신사진관 광고 극장 공연(1970년대)



평택문화원 임원 직업 여성 위문(1970년대)



평택문화원 주민강좌(1970년대)



평택군민농악경연대회(1970년대)



평택문화원 주최 볼링대회(1970년대)



평택문화원 주최 테니스대회(1970년대)



평택문화원 수탁 평택군립도서관(1970년대)



평택문화원 투표 참여 홍보 현수막(1970년대)



홍학사비각 이전(1970년대)



제9회 평택군민의날 행사(1980년 10월 5일)



제21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평택농악 참가 평택군청 시범공연(1980년 9월)



제21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평택농악 참가 기념촬영(1980년 10월 31일)



제9회 평택군민의 날 기념행사 및 제2회 군수기쟁탈 읍면 대항 농악경연대회(1980년)



제21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평택농악 참가 기념촬영(1980년 10월 31일)



송탄시문화원 창립총회(1981년 8월 4일)



송탄문화원 신년인사회(1981년 1월)



제10회 평택군민의 날 및 군민위안 KBS 가요쇼(1981년 10월 5일)



제1회 시장기정탈 경기인천지역 남녀응변대회 (1981년 12월 1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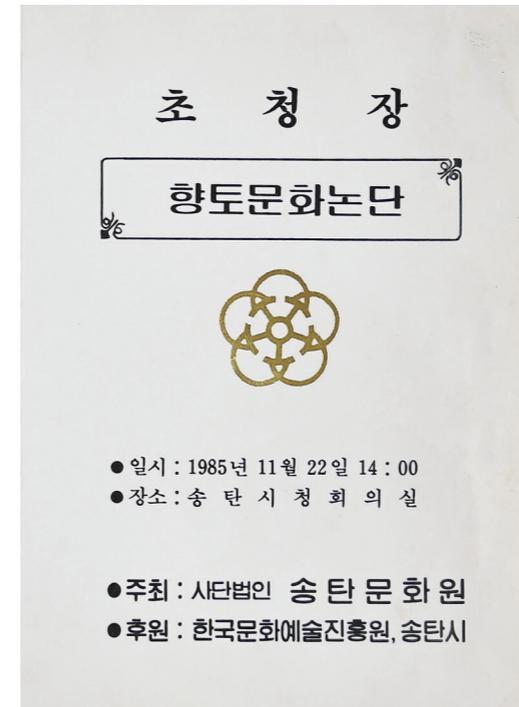
송탄문화원 개원 현판식(1981년)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부 평택문화원에서 회의 개최 (1982년 3월 13일)



송탄문화원 원사(1982년)



송탄문화원 향토문화논단 초청장(1985년 11월 22일)



송탄문화원 충훈탑 건립(1982년 6월 6일)



송탄문화원 수원시립교향악단 초청연주회 (1982년 11월 22일)



제3회 경기도민속예술제(1984년 10월 28일)



평택문화원 주관 KBS 팔도대항 평택군편(1982년 7월 9일)



제1회 송탄시민 가곡의 밤 프로그램(1985년 5월 18일)



송탄문화원 제1회 가곡의밤(1985년 5월 18일)



경기도민속예술경연대회 송탄시농악대 우승 (1985년 10월 5일)



송탄문화원 정기 VTR 상영회(1985년)



송탄문화원 주최 송탄시 신년인사회(1986년 1월 6일)



평택문화원 주최 평택군민 위안의 밤(1986년 9월 13일)



송탄문화원 주최 송탄시학생미술실기대회(1987년)



제4회 소사벌백중놀이 평택농악공연(1988년 10월)

송탄 문화원 이전안내
1986년 12월 11일 부터 아래 장소로 이전하였음을 알려 드리오니 제반업무 연락은 변경된 주소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변 경 전	변 경 후
경기도 송탄시 신장동 338	경기도 송탄시 서정동 서정택지 개발지구 군립공원 내

※ 전화 62-6300은 변경 없음
1986. 12. 12

사업장 송탄 문화원
원장 최 규 응

송탄문화원 이전 안내장(1989년 12월 12일)



88서울올림픽 성공다짐 송탄시민 한마당 잔치 (1988년 8월 19일)



제3회 평택시민의날 및 올림픽 성공 다짐 한마당 큰잔치 (1988년)



송탄문화원 송탄향토사연구소 문화재 조사 활동 (1989년 7월)



제6회 경기도민속예술제 평택군 입장 (1989년 9월 8일)



송탄문화원 주최 어린이 글짓기 사생대회(198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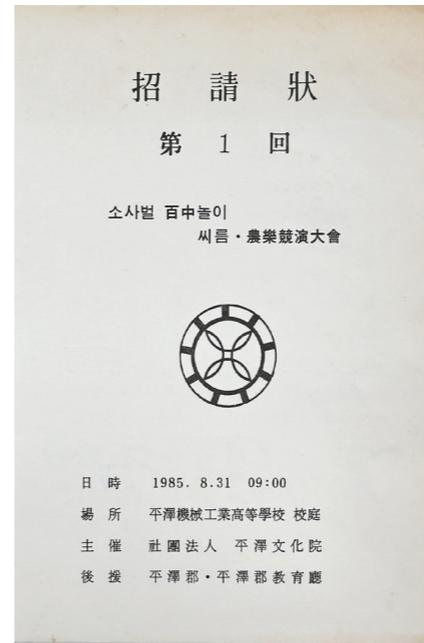
제5회 소사벌백중놀이(1980년대)



평택시공설운동장으로 이전한 평택문화원 및 평택시립 도서관(1986년 10월 14일)



가마니짜기 대회(1980년대)



제1회 소사벌백중놀이 초청장 (1985년 8월 31일)



병남단오제 씨름경기(1980년대)



향토요리경연대회(1980년대)



제2회 병남단오놀이 농악(1990년 5월 28일)



송탄시문예회관 개관 기념 전국노래자랑 (1990년 12월 7일)



충의각 정비사업(1980년대)



안재홍 고택 환경보호활동(1980년대)



제1회 자란동신제(1990년)



KBS 전국노래자랑 평택시편(1990년)



제9회 평택군민의날 행사(1980년 10월 5일)



제9회 평택군민의날 가로 현수막(1980년 10월 5일)



제2회 자란동신제(1991년 2월 28일)



문화의 날 기념식 및 제1회 송탄시예술제 시상식 (1991년 10월 19일)



평택군문화원 원사(1990년)



송탄문화원 주관 92년 문화의 날 기념식 및 제11회 시민·학생 글짓기대회 시상식(1992년 10월 20일)



평택문화원 문화학교 사진강좌(1993년 4월 28일)



제4회 단오민속놀이(1993년 6월 24일)



제8회 경기도민속예술경연대회 송탄 동령삼재 지신밟기 입장(1993년 9월 2일)



제1회 송탄시예술제 학생 글짓기 미술실기 사진촬영대회(1991년 10월 5일)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한 평택시문화원 임시총회(1994년 7월 26일)



경기도민속예술경연대회 송탄문화원 동령삼재 지신밟기 출전(1994년 9월 8일)



송탄문화원 향토순례(1994년 4월 23일)



평택문화원 병남단오놀이(1994년)



송탄문화원 문화학교 교양강좌(1994년)



제10회 경기도민속예술경연대회 평택 동령삼제 지신밟기(1995년 9월 15일)



유재호 평택문화원장 취임식(1995년 9월 29일)



제5회 부락단오민속놀이 그네뛰기(1994년 6월 13일)



송탄문화원 주최 송탄시 신년인사회(1995년 1월 5일)



서울아카데미심포니오케스트라 초청 신년음악회 (1996년 1월 11일)



1996 소사별단오제(1996년 6월 21일)



소사별단오민속제(2001년 6월 26일)



제24회 평택문화학교 개강식(2001년 10월 8일)



제1회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 출전(1996년 9월 18일)



국태민안 평화통일 덕동산 산신제 및 단군제 (1996년 10월 27일)



2004년 평택문화원 정기총회(2004년 3월 22일)



평택문화원 향토문화탐방(2004년 7월 19일)



미술의해 기념 향토작가 초대전(1995년 12월 9일)



평택시 주부 붓글씨 회원전(1996년 12월 17일)



평택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문화원의 역할 NGO-GBC 기획토론회(2004년 8월 31일)



제5회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 참가(2004년 9월 17일)



문화의 날 및 소사벌 발간 기념식(2004년 10월 20일)



2005 문화예술인 신년인사회(2005년 1월 13일)



평택농악 CIP 제정을 위한 회의(2005년 3월 16일)



평택문화원 평택시에 2백만원 상당 도서 기증 (2005년 6월 28일)



제1회 대한민국무형문화재축제(2005년 10월 29일)



소사벌민속단오제 개최식(2006년 6월 2일)



봉수제도 운영과 괴태길곳봉수대의 역할 토론회 (2005년 12월 31일)



웃다리문화촌 오픈식 가수 조영남 홍보대사 위촉 (2006년 8월 16일)



웃다리문화촌 오픈식(2006년 8월 16일)



웃다리문화촌 TF팀(2006년 8월 17일)



제2회 대한민국무형문화재축제(2006년 9월 23일)



웃다리문화촌 홍보대사 가수 조영남과 어린이들(2006년 9월 20일)



웃다리문화촌 짚풀공예체험(2007년 1월 22일)



웃다리문화촌 옛날 교실 체험(2007년 5월 11일)



소사별단오제 외그네뛰기경연(2007년 6월 19일)



웃다리문화촌 군 장병 및 주한미군 가족 도예체험(2007년 7월 7일)



웃다리문화촌 주말농장 운영(2007년 7월 14일)



웃다리문화촌 전경(2007년 8월 9일)



제16회 경기도민속예술축제 평택문화원 포승두레소리 최우수상 수상(2007년 9월 2일)



웃다리문화촌에서 뛰어 노는 아이들 (2007년 9월 8일)



SBS-TV '당신이 대한민국입니다' 희망숫대 촬영 (2007년 9월 27일)



죽리 조성락 선생 영결식(2008년 5월 26일)



2007년 실버문화학교 운영 평가 전국 대상 문화관광부장관상 수상(2007년 10월 22일)



평택세계드림페스티벌(2008년 8월 6일)



2008 대한민국 무형문화재 5대 농악축제(2008년 9월 27일)



평택시시티투어(2008년 11월 14일)



평택시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 현장교육 (2008년 11월 27일)



평택시문화관광해설사 자격증 과정 수료식 (2009년 1월 22일)



오용원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장 취임식 (2009년 3월 16일)



경기도 향교 활성화 우수프로그램(2009년 7월 27일)



누구나 쉽게 배우는 우리예절교육(2009년 7월 27일)



평택문화원 이주민 한국어 문화이해 교육 수료식 (2009년 10월 7일)



소사별단오제 농악경연(2010년 6월 16일)



한미 어린이 서머스쿨(2010년 8월 3일)



한미 어린이 서머스쿨(2010년 8월 3일)



제1회 노을동요제(2010년 10월 10일)



한미 가족 한국 전통문화체험(2010년 9월 4일)



평택학 정립 학술대회(2010년 12월 23일)



웃다리문화촌 전경(2011년 8월 2일)



평택문화원 정기총회(2012년 2월 10일)



제11대 오용원, 제12대 김은호 평택문화원장
이취임식(2012년 3월 6일)



2012 한미청소년영어캠프(2012년 5월 16일)



2012 미군한국전통사찰체험(2012년 5월 19일)



평택문화원 평택향토사연구소 학술회의
(2012년 6월 8일)



2012 병영도예공방(2012년)



소사별단오제 농악경연(2012년 6월 21일)



2012 한미어린이서머스쿨(2012년)



2013 미군한국전통사찰체험(2013년 5월 26일)



2013 진위향교나들이(2013년 9월 14일)



평택시 정월대보름 대정마을 농악놀이(2013년)



평택시 정월대보름 매상마을 달집 불 붙이기(2013년)



제19회 경기도민속예술제 평택거북놀이 출전 (2013년 9월 28일)



2013 문화의날 기념식 기념공연(2013년 10월 17일)



평택시 정월대보름 오룡마을 줄다리기(2013년)



학교로 찾아가는 우리고장 평택시(2013년)



노년의 희망까지 담은 다양한 상품으로 재탄생
어르신문화나눔봉사 '장승과 솟대' SBS컬처클럽 방송 (2013년)



2013 진위향일운동기념식 및 만세재현행사(2013년)



한미어린이서머스쿨 고궁박물관 견학(2013년)



평택3.1만세운동 최초 발상지 기념식 참가 (2014년 3월 9일)



한국전통사찰체험 사찰음식체험(2014년 6월 7일)



평택거북놀이의 학술적 가치와 구성에 관한 세미나 (2014년 7월 9일)



진위향교나들이 미군가족 체험(2014년 7월 12일)



평택소사벌지구 시설 및 마을 명칭지정 사업 (2014년 8월 18일)



2014 합창으로 여는 평택 하모니 합창 페스티벌 경연 대상 시상(2014년 10월 15일)



삼남길 평택구간 종주 기전달(2014년 11월 10일)



제55회 한국민속예술축제 평택와야골거북놀이 참가(2014년 10월 5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농악 등재 기념 평택농악 경복궁 공연(2014년 11월 29일)



평택농악 유네스코 등재기념 학술토론회
(2014년 11월 27일)



미군 장병 및 가족 평택시티투어 평택향교 탐방(2014년)



제2회 평택박물관포럼 평택박물관 토론회
(2015년 9월 18일)



웃다리문화촌 갤러리 11월 특별전
(2015년 11월 12일)



우리동네읽기 옛사진전 북부문예회관 전시(2014년)



정월대보름축제 매상마을 달집태우기(2014년)



꿈의 오케스트라 평택 제3회 정기연주회
(2015년 12월 5일)



평택문화나눔미 이대원 장군 제향 참가(2015년)



정월대보름축제 오롱마을 줄다리기(2014년)



제1회 평택박물관포럼 제1차 평택지역 사료 소장가와의
만남(2015년 4월 10일)



마을 사람들이 돌아왔다(2015년)



전국대학실용음악 페스티벌(2015년)



2015 진위향교 나들이 프로그램 참가자(2015년)



소사벌단오제 개최식(2016년 6월 9일)



평택호 풍어제(2016년 10월 2일)



2016 평택학 학술포럼(2016년 12월 2일)



평택의 사라져가는 마을 조사 활동(2016년)



웃다리문화촌 가을 추수축제(2017년 10월 20일)



2017 평택학 학술포럼 평택의 노블레스 오블리제 (2017년)



평택문화원 송년회(2017년)



꿈의오케스트라 평택 제4회 정기연주회(2016년 12월 17일)



진위향교 풍악을 올려라(2017년)



평택문화원 송신초등학교에 다문화 동화책 전달식 (2017년)



평택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및 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조사 설명회 유물조사 설명회(2017년)



평택호 풍어제(2017년)



웃다리문화촌 어린이날 행사(2018년 5월 5일)



제5회 노을동요제 대상 수상팀 앵콜송 (2018년 9월 15일)



2018 문화의 날 기념식(2018년)



진위향교 풍악을 울려라(2018년)



진위향교나들이(2019년)



소사별단오제 개최식(2018년)



평택문화원 정기총회(2018년)



평택문화원 추계문화탐방(2018년)



평택문화원 정기총회(2019년)



평택학 학술대회-이석영 이회영 육형제의 민족운동과 평택(2019년)



웃다리문화촌 3.1운동 100주년 기념 독립운동과 평택 전시회(2019년)



평택3.1 독립만세운동 제100주년 기념식 및 조형물 제막식(2019년)



평택에코뮤지엄 자료전시회(2020년 1월 3일)



평택3.1 독립만세운동 제100주년 기념식 및 조형물 제막식(2019년)



평택문화원 정기총회(2020년 1월 29일)



제13~14대 평택문화원장 이취임식(2020년 3월 19일)



제13~14대 평택문화원장 이취임식(2020년 3월 19일)



평택문화원 정기총회(2021년 2월 25일)



제2회 평택지역 유물 소장가와의 만남
(2021년 3월 24일)



평택학연구소 자문위원 연구위원 위촉식
(2020년 6월 10일)



평택학 학술대회 평택지역 민속과 신앙
(2020년 7월 11일)



소사별단오제 외국인과 함께하는 단오문화체험
(2021년 6월 12일)



웃다리문화촌 감각의정원전(2021년 8월 21일)



문화의 날 기념식(2020년 10월 13일)



평택학 학술대회 평택지역 나무와 포구
(2020년 12월 5일)



평택문화원 원사 건립 기본구상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
(2021년 10월 20일)



평택야행 과거시험 체험 프로그램(2021년 11월 15일)



진위역사관 개관식(2021년 11월 25일)



평택문화원 개원 68주년 기념포럼(2021년 12월 1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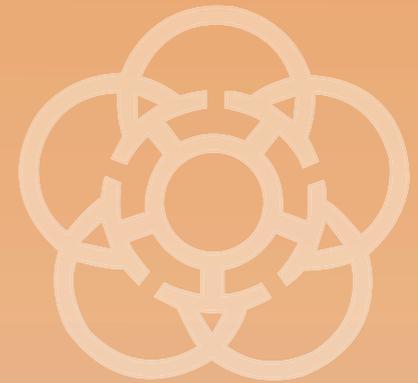
경기도민속예술제 평택백중난장굿 공연(2021년 11월 28일)



평택문화원 개원 68주년 및 법인 설립 50주년 기념식(2021년 12월 15일)

68

I. 한국의 지방문화원



1. 지방문화원의 태동¹⁾

문화는 사회구성원들이 함께 공유하는 가치관이나 사고방식, 생활양식 등 인간의 의식과 행동양식의 총체를 의미한다. 인간은 문화적 존재이며 문화는 인간의 삶 그 자체라고 볼 수 있다. 문화의 울타리 안에서 인간은 행복과 안녕을 꿈 꿀 수 있고 문화의 수준이 높아질 때 인간 삶의 질도 함께 높아진다. 문화를 음미하고 즐길 수 있는 권리, 즉 '문화향수권'에 대한 욕구는 문화 복지 개념과 함께 문화정책의 핵심 가치이며 그것은 곧 국가의 힘이나 지역의 힘과도 직결된다. 이처럼 한 국가나 사회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문화를 활성화하고 설계·관리하는 조직이 바로 '문화원'이며 지역문화 복지정책의 최 일선에 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역할과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지역문화의 복합공간으로 지역문화를 균형 있게 진흥하기 위하여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한곳씩 설립하는 비영리 특수법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50년 4월부터 12월 사이 미국공보원 산하에서 활동하던 공보관들이 지역의 문화 활동과 상록수 활동을 위해 설립한 것이 문화원의 효시였다. 경상남도 밀양·진주·고성과 전라남도 담양, 경기도 용인에서 순수 민간단체로 자생적인 사설 문화원이 설립되었고 이후 전국으로 확산하였다. 초창기만 해도 문화원은 미국공보원과 기타 외국의 원조단체로부터 기자재를 지원받는 수준에 그쳤고 6·25한국전쟁이 벌어졌던 1953년 7월 휴전협정이 있기까지는 1952년에 경상북도 김천문화원이 추가로 발족했을 뿐이었다.

휴전이 되고 어느 정도 사회가 안정을 되찾게 되자 멸실 또는 파괴된 향토문화와 문화유산을 다시 복원해야 한다는 사명감에서 강원도 강릉·원주, 충청남도 부여·공주·홍성·천안, 경기도 평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개원한 강화문화원 향토지(1947년)

택·인천·강화 등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문화원 설립이 활성화되었다. 이렇게 발족한 사설 문화원은 1962년이 되자 전국 80개소에 이르렀다. 문화원은 초기에 '문화관', '공보관', '유엔관' 등 다양한 이름으로 운영되었다.

1962년 1월 전국의 사설 문화원 대표 78명이 대전에서 한국문화원연합회 창립총회를 갖고 전국 문화원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연합회를 발족시켰다. 그리고 한기창 인천문화원장을 초대회장으로 선출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하였다. 1962년 8월, 문화원은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사단법인으로 출범하면서 국고보조가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국고보조금은 전국 예산을 연합회로 책정하면 연합회가 각 지방문화원에 배정하는 방식이었다. 문화원은 1963년 12월, 지방문화원에 대한 정부와 지방 행정기관의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에 '지방문화사업조성법' 제정을 정식으로 건의하였으며, 그로부터 2년여 만인 1965년 6월 '지방문화사업조성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이 법을 근거로 하여 사설 지방문화원이 모두 사단법인체로 거듭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문화원은 1965년 102개, 1968년 117개로 늘어났다. 문화원은 1967년 1월, 해외 문화교류사업의 시발로 제1차 일본 공민관 시찰단이 파견되었다.

1972년에는 지방문화원에 대한 국고보조가 중단되었고, 1974년 1월에는 아시아재단 지원으로 시범 문화원 제도가 최초로 실시되었다. 1974년 12월 한국문화원연합회는 새마을운동 유공자로 대통령표창을 수상하였으며, 1979년 4월에는 문예진흥원으로부터 3,000만원을 지원받아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에 한국문화원연합회 독립사무실을 마련하였다. 지방문화원의 정부보조도 이때 다시 재개되었다. 정부지원이 재개되면서 지방문화원도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해 1989년까지 30개 문화원이 추가로 신설되었다.

1990년 5월 문화공보부에서 문화부가 독립되면서 시범 문화원제도가 부활하였고 매년 시범 문화원을 지정하였다. 시범 문화원으로 지정된 문화원은 국고와 지방비를 지원받아 문화 사랑방을 설치할 수 있었다. 1991년 2월 문화학교 제도 신설에 따라 각 문화원들은 문화학교로 지정받아 문예진흥원으로부터 사업비 일부를 보조받았다. 문화학교 지정은 매년 확대되었다.

1993년 12월 '지방문화사업조성법'이 폐지되었고, 대신 보다 직접적으로 문화원을 지원하는 '지방문화원진흥법'이 제정되었다. '지방문화원진흥법'은 1994년 6월 발효되었고, 이에 따라 연합회와 지방문화원은 사단법인을 해체하고 특별 법인으로 출범하게 되었고 연합회는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전국문화원연합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996년 6월 '전국문화원연합회'는 국고보조금과 문예진흥기금 지원을 받아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1-1 성우빌딩 1202호와 1203호에 사옥을 마

1) 박종호, 《지방(지역)문화원의 설립배경과 발전과정》, 《충북학 3》, 충북연구원, 2001, 23~28쪽. 전국문화원연합회, 전국문화원 사업총람, 2003.

련하였다. 그로부터 2년 뒤인 1998년 12월 전국문화원연합회 인터넷 서비스(www.kccf.or.kr)를 실시하였으며, 이듬해 12월에는 ‘향토문화 DB구축’ 1차 년도로 전라도와 제주지역의 DB구축을 완료하고 전국향토축제 DB구축을 완료해 인터넷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지방문화원의 법적 기반이 확립되었다 하더라도 열악한 재정과 문화예술 인구 취약 등으로 목적에 맞는 일들을 수행할 수는 없었다. 그러다가 점차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문화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자 1994년 7월, 법률 제4718호로 ‘지방문화원법’이 제정되어 문화원으로서의 역할 제고를 기대하게 되었다.

이 법에서 지방문화원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지역문화 사업을 목적으로 이 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 제8조에 명시된 지방문화원의 지역문화 사업을 살펴보면 ①지역 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②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 보존 ③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④문화에 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⑤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⑥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 ⑦지역 환경보존을 비롯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 활동 ⑧ 기타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이 있다.²⁾

1) 설립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보면 지방문화원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지방문화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지방문화원은 법인으로 하며, 시·군 또는 자치구의 행정구역에 그 사업구역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문화원은 전국 17개 시·도에 지자체 단위(군, 구)로 설립된 문화기반시설로 지역으로는 ‘농어촌’ 지역에 소재한 문화원이 35.5%(81개), ‘중·소 도시’ 소재 문화원이 35.1%(80개), ‘대도시’ 소재 문화원이 29.4%(67개) 등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2) 조직체계

지방문화원의 주요 조직기구로는 원장, 부원장, 이사회, 감사, 사무국장, 일반 업무부서 등이 있다.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하면 원장은 지방문화원을 대표하고 지방문화원의 업무를 총괄한

2) 지방문화사업자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및 업적을 일반에게 주지시키는 사업, 향토문화를 계발·보급·선전하는 사업, 외국 문화기관과의 협조 하에 우방 제국의 문화를 소개하고 선전하는 사업 등을 수행하는 법인을 뜻한다.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지방문화원 실태조사 연구》, 1996, 3쪽.

다. 원장은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또는 정당의 간부를 겸할 수 없다. 그리고 이사는 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30인 이하, 감사 2인을 두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문화원은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과 지방문화원간의 상호협조 및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중앙에는 한국문화원연합회를, 광역자치단체에는 시·도문화원연합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 되어 있다.

3) 재정

지방문화원진흥법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에 대하여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 법에서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의 설립·시설·운영·사업에 관한 지원을 위하여 지방문화원 또는 연합회에 금전이나 기타 재산을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문화원의 재원구조는 지방문화원 별로 상이하지만 대체로 국비, 지방비, 공모사업비, 자체비로 구성되어 있고 특히 지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4) 시설 및 기자재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과 ‘경기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지방문화원은 사무실, 회의실, 강당(공연장 또는 시청각실 겸용), 전시실, 도서실 중 사무실을 포함하여 세 가지 이상의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연면적 330㎡(약 100평)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시설기준은 1965년 제정된 ‘지방문화사업조성법’에서 제시되었던 강당, 전시실, 시청각실, 사무실, 연면적 660㎡(약 200평) 이상의 공간보다 훨씬 완화된 기준이다.

2. 지방문화원의 발전과정

한국의 문화원은 한국전쟁 당시 전 국토가 파괴되고 사상적 혼란과 정신적 파괴까지 진행되던 시점에서 오늘을 재건하고 내일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문화원 생성기에는 민주주의에 대

한 지각과 문맹 퇴치를 위해 야간학교를 개설하고 지식보급을 위한 순회강연, 사상 계도를 위한 일련의 계몽 활동 등을 전개하였다.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정부도 국가적인 규모와 내실을 가지고 활동하게 된 사설 문화원들에 대해 존립의 가치를 새삼 평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정부는 1961년 한국문화원연합회를 사단법인으로 하여 문화원을 공인하고 육성하는 방침을 채택하게 되었다. 연합회를 통해 보조금이 지급되었고 정부는 1964년 특별법인 '지방문화사업조성법'을 제정해 1965년에 시행하였다. 문화원들은 정부의 시책홍보에 치중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성장기에 접어들었다.

1970년대에도 전국 지방문화원들은 자력으로 활동이 지속되었다. 평택문화원 1953년 사설 문화원설립, 1967년 평택문화원 재설립에 이어 1971년 2월 20일, 민형식 등 35명의 구성원으로 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문화공보부의 승인을 얻어 사단법인으로 등록하였다. 1972년 12월 30일 향토문화 사업에 일익을 담당하는 평택문화원이 지방문화원으로 승인되었으며, 1974년부터는 문예진흥기금에 의한 지원을 받기 시작했고 지방비 보조도 이에 따르게 되었다.

지방문화원은 1962년 78개이던 것이 3년 뒤인 1965년에는 102개로 증가하였고, 1970년에는 126개, 1980년에는 127개, 1985년에는 145개, 1986년에는 148개, 1990년에는 170개, 1996년에는 183개, 2001년에는 211개로 증가하였다. 2021년 현재 전국에는 16개 시·도문화원연합회와 229개 지방문화원,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에 세종문화원 1개 등 모두 230개의 지방문화원이 운영되고 있다.

1980년대 들어 정부가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문화정책 목표로 설정하면서부터 지방문화원은 지역 문화센터로 자리하게 되었다. 지방문화원의 활동도 정부의 홍보 기능에서 벗어나 향토 고유의 문화의 보존과 전승, 문화예술 사회교육, 지역문화 개발, 경로효친 선양, 기타 지역문화예술 행사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지방문화원은 1990년대에 이르러 정부가 지방문화원을 지방문화의 산실 또는 지방문화의 구심점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지방문화원의 위상이 높아졌고, 1992년부터는 지역문화학교 사업을 전개하여 문화원으로서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되었다.

지방문화원은 1965년 제정된 '지방문화사업조성법'과 1994년 제정된 '지방문화원진흥법'의 제정을 계기로 그 역할 범위가 증대되었고, 향토문화 발굴 및 보존 센터로의 위상이 제고되었다. 1999년 3월에는 지방문화원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지방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 발전시킴으로써 균형 있는 지역문화진흥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을 제정 공포하였다. 이로 인해 2012년에는 지방문화원 수가 229개로 늘어났다.

지방문화원은 1960년대 정부시책 홍보와 향토문화 계발, 국제문화교류로 한정되었으나 1980년대에 이르면 홍보, 문예 진흥, 전통문화 선양, 도서관 사업, 사회교육, 문화 복지증진, 국제문화 교류 등으로 다양해졌다. 또한 향토문화제를 주관하거나 전통문화의 발굴·정리·보존, 문화자료의 조사·보존, 문예 진흥활동, 국제문화교류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각 지역의 향토문화 의식을 고취하고 향토축제를 정착시키는데 이바지하였다. 특히 문화학교에서는 취미 교양강좌를 열어 꽃꽂이, 농악, 한지공예, 포크아트, 스텐실, 칼라믹스, 서예, 한문, 단소, 등판화, 목판화, 수채화 등을 강습함으로써 문화예술에 목마른 사람들의 갈증을 해소하는데 앞장섰다.

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지역문화 계발과 보존 및 활용, 지역문화 발굴·수집·조사·연구·활용,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 활동지원, 그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3. 한국문화원연합회

한국문화원연합회(韓國文化院聯合會, Federation of Korean Cultural Center)는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과 상호 협조 및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1962년 8월 8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특수법인이다.

'지방문화원진흥법'³⁾에 의해 설립된 한국문화원연합회는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지도·지원, 지방문화원에 대한 문화정보와 자료 등의 제



한국문화원연합회 제2회 전국이사회(1963년)

3)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2조에 의하면 '지방문화원은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과 지방문화원 간의 상호협조 및 공동이익 증진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문화원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공, 국내외 문화단체와의 협력과 자료 등의 교류, 지방문화원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 그 밖에 지방문화원간의 상호협조와 공동이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1) 한국문화원연합회 조직

조직 및 기구를 살펴보면 회장을 중심으로 총회, 이사회와 감사, 정책연구소, 향토문화연구소, 운영위원, 자문위원을 두고 있으며, 사무처로 사무총장과 운영지원팀, 지역문화진흥팀, 지역문화혁신팀이 있다.



한국문화원연합회 조직도

1962년 8월 8일 창립한 한국문화원연합회는 2020년 현재 서울특별시 25개, 부산광역시 15개, 대구광역시 8개, 인천광역시 10개, 광주광역시 5개, 대전광역시 5개, 울산광역시 5개, 세종특별자치시 1개, 경기도 31개, 강원도 18개, 충청북도 11개, 충청남도 15개, 전라북도 14개, 전라남도 22개, 경상북도 23개, 경상남도 20개, 제주특별자치도 2개 등 전국에 있는 230개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과 상호 협조, 공동의 이익증진을 모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별 지방문화원 설립 현황]

광역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조직 형태	지방문화원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문화원연합회	25개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문화원연합회	15개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문화원연합회	8개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문화원연합회	10개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문화원연합회	5개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문화원연합회	5개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문화원연합회	5개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문화원	1개
경기도	경기도문화원연합회	31개
강원도	강원도문화원연합회	18개
충청북도	충청북도문화원연합회	11개
충청남도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15개
전라북도	전라북도문화원연합회	14개
전라남도	전라남도문화원연합회	22개
경상북도	경상북도문화원연합회	23개
경상남도	경상남도문화원연합회	20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문화원연합회	2개
소 계		230개

개원 연도에 따른 지방문화원 설립은 1950년대 이전 14.9%, 1960년대 29.8%, 1970년대 6.1% 등으로 1970년대 이전에 설립된 문화원이 절반 이상이다. 또한 1980년대 11.0%, 1990년대 26.8%, 2000년대 이후 11.4% 등 1980년대 이후 설립된 지방문화원은 49.2%로 나타났다. 지방문화원은 지역의 문화 발전소로 지역마다 축적된 고유의 역사, 생활, 문화자원을 보존·계승하고, 지역주민의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매개자로서 지방문화원의 역할이 중요하게 인식되면서 지속적으로 설립되고 있다. 지방문화원의 평균 운영기간은 37.3년으로 '50년 이상' 운영해 온 문화원이

38.2%, '20년 미만'이 22.4%, '20~30년 미만'이 17.5% 순으로 나타났다.⁴⁾ 평택문화원은 2021년에 설립 68년, 창립 50년이 된 문화원이 되었다. 전국에 있는 지방문화원은 회비를 납부하면서 문화원 사업에 자진해 참여하는 정회원만 해도 약 7만 여명에 이른다.

2) 한국문화원연합회 연혁

사단법인 한국문화원연합회는 1962년 8월 8일 창립하고, 한기창 인천문화원장을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1964년 기관지 《문연(文聯)》을 창간했으며, 일본 공민관 등 국제문화교류를 확대하였다. 《문연(文聯)》은 이후 《문연 뉴스레터》《문연 회보》《전국문화원》《우리



한국문화원연합회 전국문화원장 세미나(1974년 6월 13일)

문화》등으로 제호를 변경해 발행되었다. 1965년 '지방문화사업조성법'이 공포되었다. 1974년에는 아시아재단 지원금으로 시범 문화원사업이 실시되었으며, 《한국의 문화원》이 발행되었다. 1976년 《문화원 운영편람》을 발행하였고, '제1회 전국학생미술공모전'을 개최하였다. 1977년 시인 노산 이은상 선생을 회장으로 추대하였다.

1983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양서읽기운동을 전개하고 다도선양 문화운동을 전개하였다. 1984년에는 월간 《우리문화》를 창간하였고, 현재 '한국민속예술축제'의 전신인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를 주최하였다. 1986년 현재 '전국향토문화공모전'의 전신인 '제1회 전국향토문화연구발표회'를 개최하였고 경로효친사상 선양 수기공모를 실시하였다. 1987년부터 시작된 전국문화원 사무국장 연수는 현재까지 매년 개최되고 있다. 1991년 '전국내고장지도그리기대회'를 개최하였고, 1992년에는 지방문화원 문화학교를 개설하였다. 1993년에는 지방문화원 간행물 품평회를 개최하였고, 1988년부터 시작된 중국 내 한국문화유적 조사를 마무리하였다. 1995년에는 행정구역 조정 에 따라 시·군 문화원이 통합되면서 전국 190개였던 지방문화원이 177개소로 개편되었다. 1996년에는 현재의 사무실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으로 이전하였으며, 《전국문화원현황》을 발간

4) 2016년 지방문화원 실태조사 보고서 인용

하였다. 1997년에는 《전국문화원 문헌 총람》을 발간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이버문화관 지원 대상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1998년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kccf.or.kr)를 개설하였고, 《전국문화원 사업현황》을 발간하였다. 1999년에는 《한국의 문화자원 2000》을 발간하였고, 한국의 지역축제 인터넷을 개설하였다.

2009년에는 지방문화원 전문 인력 양성교육이 시작되었으며, 향토사 연구 활성화 사업이 추진되었다. 2010년에는 지방문화원 인터넷 정보화 사업이 추진되었고 '국민의 시 낭송의 밤'이 개최되었으며, 지방문화원 육성발전 기획 사업이 진행되었다. '지방문화원의 날' 기념사업을 비롯해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사업'이 추진되었다.

2011년에는 '향토사 대중화 사업'이 진행되었고, 지방문화원 정보화 사업, 지역문화 경영과정 추진, 우수 문화원 임직원 해외문화체험 사업, 연합회 시·도 지회 운영비 지원 사업, 향토문화자원 아카이브 구축 사업, 다문화 지역 순회공연 사업, 문화예술 명예교사 사업, 지역문화 여성콘텐츠 발굴사업, 문화예술기관 문화학교 운영 사업,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시범사업이 추진되었다. 2012년에는 창립 50주년 기념사업이 진행되었으며 《한국문화원연합회 50년사》가 발간되었다.

2014년에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어르신문화대축제 '나이 없는 날' 개최, 지역 어르신한마당 '금빛제전' 지원, 《지방문화원 총람》 발간, 문화체육 자원봉사 수요매칭 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2015년에는 조직개편이 단행되었다.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과 한국문화원연합회 블로그를 개설하였으며, 실버문화페스티벌을 개최하였다. 2019년에는 지방문화원 원천콘텐츠 발굴 지원 사업을 운영하였다.

3) 한국문화원연합회 사업

한국문화원연합회는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지도, 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지방문화원에 대한 문화정보와 자료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국내외 문화단체와의 협력과 자료 등을 교류하며 지방문화원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도 진행한다. 지방문화원 간의 상호협조와 공동이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하며 지방문화원 향토자료 관리사업과 정보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문화박람회를 개최하며 지역의 문화시설, 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과 정보교류,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이나 그밖에 연합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문화원연합회는 2020년 기준으로 지방문화원 홍보·발간사업인 월간 《우리문화》를 발행

하고 있다. 매월 1일 발간되며 우리나라 전통문화와 지역문화 발굴 및 소개, 심도 있는 문화콘텐츠 제공으로 생활 속 문화향유 확대, 국·영문 동시 게재로 해외독자 확보 및 우리문화 해외 홍보, 연합회와 전국 지방문화원 사업 등을 홍보하고 있다. 또한 지방문화원 임직원 역량강화 사업, 지역문화 계발과 활용사업, 지방문화원 원천콘텐츠 발굴지원 사업,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사업, 실버문화페스티벌 사업, 문화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문화가 있는 날 참여 활성화 사업, 한식문화진흥사업 등을 추진한다.

지방문화원은 지역의 특성과 특색에 맞는 문화 활동으로 지역주민이 더욱 풍요로운 문화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문화행사, 지역문화 발굴 수집 및 조사, 연구 활용, 문화학교 등 교육프로그램, 지역문화교류, 지자체 및 정부 위탁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부 회의(평택문화원, 1982년 3월 13일)

시행해 지역민들이 보다 쉽게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지방문화원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2016년도 기준 유형별로 살펴보면 '교육프로그램'이 2,685개(43.1%)로 가장 많으며, 다음이 '지역문화행사' 1,465개(23.5%), '지자체 및 정부 위탁사업' 813개(13.0%), '지역문화 발굴 수집 및 조사·연구' 547개(8.8%), '지역문화교류' 478개(7.7%), 기타 프로그램 246개(3.9%) 순이다.

프로그램 장르별 비중을 살펴보면 '강좌' 형태의 프로그램이 39.8%로 가장 많았고, '공연' 10.6%, '국내외 답사' 8.2%, '발간' 8.1%, '공모·경연·대회' 7.3%로 나타났다. 권역별과 지역별 교육프로그램 수가 많았던 대도시나 수도권에서는 '강좌' 형태의 프로그램이 많았던 반면, 중소어촌이나 중소도시에서는 '발간' 장르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중소도시에서는 '제향·세시풍속 재현' 장르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주로 '1~2억 원 미만'이 29.5%, '3~5억 원 미만'이 21.6%, '2~3억 원 미만'이 20.3%, '5억 이상'이 15.8%, '5,000만원~1억 원 미만'이 8.8%, '5,000만원 미만'이 4.0% 순이며, 평균적으로는 3억 2,700만 원을 사용하고 있다. '지역문화행사' 프로그램에 소

요된 예산규모가 1억 2,600만원으로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지자체 및 정부 위탁사업'이 7,100만원, '문화학교 등 교육프로그램'이 6,400만원 순이다. 특히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 지방문화원은 96.1%로 지역문화행사 프로그램은 지방문화원의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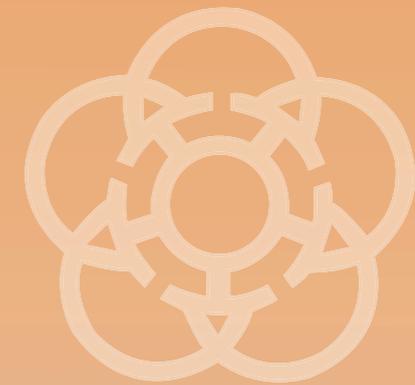
또한 전체 지방문화원 중 지역문화 발굴수집 및 조사, 연구 활용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문화원은 82.9%로 지역의 문화유산을 찾아 조사하고 연구하여 지역문화에 접목하는 것은 문화원의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사업으로 꼽히고 있다.



지방문화원 육성발전 종합토론회 및 권역별 세미나(2010년 3월 26일)

68

Ⅱ. 평택문화원 창립기
(1953~1972년)



1. 시설 문화원의 개원과 운영

평택은 서울과 가까운 거리에 있었지만 전형적인 농경사회로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던 것은 물론이고 독자적인 예술 활동 전개도 거의 불가능했던 지역이었다. 그러나 척박한 토양에서도 미약하게나마 분야별로 소수의 예술 활동은 꾸준히 이어져 왔다.



평택 신작로와 진위천 하북교(1950년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농경과 어로 활동을 하는 가운데 기원과 축원의 형태로 나타났던 무악(巫樂) 중심의 전통음악이다. 특히 평택 서부지역에서는 어로요와 굿 음악인 경기도당굿, 평택 동남부 지역에서는 농요와 경기도당굿이 발달했으며, 그 중심에서 모흥갑, 김부역쇠, 지영희, 방용현 등의 전통 예인들이 두각을 나타냈다.

이처럼 문화예술 토양이 척박했던 평택지역에 예술 활동의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50년대 문화원이 생기면서부터였다. 문화원은 1950년대 초 미국공보원 산하에서 활동하던 공보관들이 지역의 문화 활동을 위한 기관으로 몇몇 지방에 시설 문화원을 설립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하였다. 문화원은 1960년대에 국가의 승인을 받아 사단법인체가 되었고, 1965년부터는 '지방문화사업조성법'이 제정·공포되면서 각 문화원은 특수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정부의 보조금 지원과 함께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평택문화원은 1953년 장순영(張淳諤)을 중심으로 지역의 몇몇 인사들이 시설 평택문화원을 개원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당시만 해도 문화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문화적 토양도 척박해서 원만하게 운영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장순영의 뒤를 이어 1954년 하순성이 시설 평택문화원을 운영했으나 그 역시 경영난으로 운영이 중단되었다. 그로부터 14년이 지난 1967년 또다시 조경영, 장순영, 장복환, 김환권, 이경배, 최순택 등 지역 유지를 중심으로 평택문화원 창립을 준비해 당시 대한통운 평택영업소장이었던 조경영을 원장으로 추대하고 사무국을 평택시의 버스터미널 맞은편 삼일사약국 2층에 두어 2년간 평택문화원 운영에 들어갔다. 이후 평택문화원

은 정부 정식 인가를 받아 법률적, 행정적 기반위에서 활동하기 위해 1971년 2월 민형식(閔衡植)을 비롯해 지방문화원 창달에 꿈을 갖고 있던 지역 인사들이 모여 사단법인 평택문화원을 창립하면서 공식 출범하게 되었다.

○ 시설 평택문화원 역대 원장

대수	이름	임기
초대	장순영	1953~1954년
제2대	하순성	1954년~

○ 평택문화원 재설립기 원장

대수	이름	임기
초대	조경영	1967~1968년

2. 평택문화원 창립 당시 문화예술 환경

평택은 예로부터 농업과 교통물류 기반의 도시였다. 그러나 서부지역 포승읍과 현덕면은 바다를 끼고 있어 해상물류나 바다와 연관된 전통문화가 발달하였다. 반면 북부지역은 한국전쟁 이후 주둔하게 된 미군 기지를 중심으로 급속하게 상업소비도시가 형성되었다. 이렇듯 각 지역이 서로 기질이나 도시의 성격 면에서 뚜렷하게 구별되는 양상을 띠며 성장하는 동안 평택의 문화적 환경도 각 지역이 다르게 발전하였다. 특히 송탄지역은 주민 대부분이 외지에서 유입되었다. 때문에 고유문화는 새로운 외래문화의 영향을 받아 밀려나게 되었고, 그 자리에는 기지촌 특유의 문화가 형성되었다. 서남부 지역은 전형적인 농어촌 사회로 문화 예술적 기반이 약했고, 북부지역은 외지인들로 구성된 신흥 상업도시였기 때문에 평택의 예술적 경향을 살펴보는 일에 있어서 전통적 기반의 예술인을 찾기는 대단히 어려우며 대부분 현대기에 속하는 예술인들을 중심으로 성장 발전해 왔다는 특징이 있다.

평택지역의 문화예술사적 측면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분야는 미술이다. 평택문화원이 창립하기 이전에도 지역에는 눈에 띄는 미술작품을 선보이던 예술인들이 있었으며, 이들은 큰 대회에 나가 실적을 거두기도 하였다. 연당(淵堂) 최영균은 1915년 현덕면 권관리에서 출생해 안중보통학교를

졸업한 후 한학을 하다가 상경하였다. 청천 이상범에게 사사하며 동양화를 배운 최영균은 평택중학교와 안중중·고등학교 미술 교사로 재직하면서 1941년 조선미술전람회(鮮展)에 입선한 뒤 1945년 고향인 안중에서 처음으로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평택 미술계의 초창기에 활동했던 최영균은 1960년 45세에 작고하였다.

1920년 평택읍 평택리에서 출생한 안홍기는 경기상업고등학교에 다니던 시절부터 서양화의 한 부분인 유화에 몰두해 작품 활동을 하였다. 졸업 후에는 김중현에게 사사하고 일본 유학을 거쳤으며 아동미술에 남다른 자질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1950년대 평택성동국민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학생들을 미술 실기대회에 참가시



화포 홍익한 선생 신도비 이전 기념(1951년 3월)

켜 입상까지 이끌었고, 경기도 대표로 전국대회에 출품하는 등 어려운 시대적 환경 속에서도 나름대로 꾸준한 미술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안홍기는 이후 오랫동안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졌으나 1992년 월간 미술세계가 실시한 '잊혀진 작가 1호'로 발굴되었고, 같은 해 3월에는 경인미술관에서 고희전(古稀展)을 개최하면서 다시 등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각각의 활동은 개별적이거나 학교에 국한된 것으로 지역의 예술 활동을 확장하는 계기로 작용하기는 사실상 어려웠다.

평택지역의 음악은 주로 학교음악과 교회음악으로 성장하였다. 우리나라의 근대화 과정에서 유입된 서구음악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학교 교육과 맞물려 소위 지식인층을 대상으로 널리 퍼졌다. 동요, 가곡, 대중가요, 종교음악 등 서구의 음악 형태는 서민층에 쉽게 접목했고, 널리 퍼져나가 국민의 의식 변화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기계문명이 급진적으로 발전하고 물질만능주의 시대로 흘러가면서 덕성과 정서교육이 강조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음악교육을 통해 정상화를 꾀하려는 움직임도 늘어났다. 문교부를 비롯해 경기도교육위원회나 평택군교육청에서는 음악교육을 강조하면서 각종 행사를 추진하였으나 큰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웠다.

평택군교육청이 주최한 초·중·고등학교 합창경연대회가 매년 1회씩 개최되고, 이 같은 행사들

이 지속되면서 평택에서도 그에 맞는 음악 지도가 필요해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1960년대부터는 경제가 성장하면서 음악학원이나 피아노학원에 다니며 개인지도 받는 학생들이 많아졌고, 이러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점차 피아노학원과 사설 음악학원도 증가하였다.

평택지역 학교 중에서는 사립학교인 한광고등학교 홍성걸 교장이 음악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홍성걸 교장은 세밀한 계획과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예산 뒷받침으로 김중숙, 이창녕, 임미애 등 우수한 음악 교사를 확보하였고, 특히 거액의 예산으로 최신 고급 악기를 구비해 50인조의 밴드부가 활동할 수 있게 하였다. 그로 인해 합창부, 밴드부, 바이올린부 등이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송탄지역의 음악은 주로 1950년대 주한미군기지 건설로부터 변화를 맞았다. 당시 송탄지역 청소년들은 미국식 음악에 젖어 들어서 포크 컨트리, 웨스턴뮤직, 재즈, 록 음악 등에 익숙해졌다. 송탄지역의 음악활동은 그들에 의해서 주도되었으며, 타 도시보다 많았던 교회음악의 대중 전파도 무시할 수 없었다. 따라서 송탄지역에서의 음악 활동은 학교에서의 합창, 교회의 찬송, 청소년들의 팝송, 시민들의 대중가요 등 대부분 서구 음악이 차지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농요나 농악 등은 일찍부터 극소수의 농민층에 의해 전통음악으로만 존재하였다.

평택지역 문학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보면 1920년 전후 평택 각 지역에서 성행하던 한시(漢詩) 모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기록은 대부분 구전으로만 전해진다. 평택문화원이 발간한 《평택군지》에 따르면 '이참봉한시회', '백화당한시회', '박제봉한시회', '중항당한시회', '기영회한시회' 등이 있었다고 전해진다.⁵⁾ 1945년 광복 이후에는 지역사회의 지도급 인사들 7~8인이 모여 시조를 읊었는데 이들은 평택 통복동 철도 건널목에 있는 한성여관에 모여 여관 주인이던 김한식, 박남규 등과 함께 우리의 얼이 담긴 시조를 읊었다.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평택시조친목회'가 생겨났는데, 이



평택문화원 제1회 시화, 미술전시회 개관식(1976년 5월 22일)

5) 《평택군지》와 《송탄시사》 참조.

러한 시조단체에는 평택농악의 명인 최은창과 시조의 명인 서정희도 속해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 갔다.

한국전쟁 당시인 1951년부터 안중국민학교에서는 매년 《북두칠성》이라는 아동문예집을 발간해 졸업식에서 배부하였는데 문예집은 1982년 31호가 발간되었다. 그 외에도 학교 문예집으로는 평택고등학교에서 발간한 《소사벌》과 한광고등학교에서 발간한 《한광》, 그리고 청담고등학교에서 발간한 《마음》 등이 있었다.

본격적인 문화동인 활동은 1960년대 ‘토요문학회’를 들 수 있다. ‘토요문학회’는 서인석을 중심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동인지를 펴냈다. 1970년에는 평택 출신 시인 김대구가 1960년 초반 학생 신분에서 ‘문학의 밤’과 ‘시화전’ 등을 주관했던 경력을 바탕으로 김창문, 전우용, 김남웅, 그리고 당시 평택에서 교사로 근무했던 김제현, 정의홍 시인 등을 만나 문학에 대한 뜻을 확인하였다. 이들은 역마차다방에서 ‘평문(平文) 시화전’을 여는 등 지역에 문학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후 김남웅은 《현대문학》, 전우용은 《시문학》, 김창문은 ‘중앙일보’에 시조가 당선되어 등단하였다. 1980년에는 김충문, 전우용, 이철훈, 이윤진 등이 동인으로 참여하여 《평택수필》을 창간하면서 초창기 평택의 문학계를 이끌었다.⁶⁾

시설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공공 문화시설은 평택읍 평택리 평택읍사무소 민원실 옆 평택복지관이 가장 대표적인 공간이었다. 평택복지관은 1960년대 건축한 건물로 지역에서 유일하게 무대와 경사진 객석, 2층 객석과 조명, 음향시설 등을 갖추고 있는 공연 및



평택복지관(1971년)

다중 집합시설이었다. 이곳에서는 각종 시국 강연과 공공 행사, 문화예술 공연과 학생 행사, 경연대회 등에 활용되었으며, 30여 년간 사용해오면서 시설이 노후화되어 1992년에 폐쇄한 후 철거하였다.

사실 시설로는 평택시 서부지역인 오성면 안중리에 위치한 ‘누까회관’이 1970년대 운영되어 서

6) 《평택시사 下》, 2001년 12월 30일, 972쪽.



안중 누까회관 개관식(1970년)



안중 누까회관 사생대회에 참가한 어린이들(1971년)

부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큰 역할을 하였다. 음악 감상이나 각종 친목단체 모임, TV 관람, 가톨릭 모임, 학생회나 동문회, 탁구대회, 세미나는 물론이고 상업미술 강습회나 사생대회 전시 등이 대부분 이곳에서 이루어졌다. 1970년부터 안중에서 시작된 ‘누까회관 사생대회’는 평택군 서부지역 미술교육 발전에도 큰 업적을 남겼다. 당시 안중에 거주하며 약국을 운영하던 독실한 천주교 신자 서화택은 오성, 현덕, 청북, 포승 등 평택군 서부 4개면에 거주하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1회씩 사생대회를 개최해 입상한 작품들을 ‘누까회관’에 전시하였다. 당시 참가한 학생들은 별도의 금전적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으며, 행사 운영에 관한 모든 비용은 주최자가 부담하였다.

사생대회는 수업에 지장이 없는 토요일 오후에 진행되었으며, 참여한 대다수의 학생에게 수상의 기회를 주었다. 이로 인해 매년 참여하는 학생 수가 증가했으며, 초창기 1,000여 명에 불과하던 참가자는 최대 5,000여 명까지 늘어났다.⁷⁾ 매년 진행된 ‘누까회관 사생대회’는 12회까지 이어졌으며, 이후에는 안중청년회의소로 이관하였다.

평택지역에 극장이 처음 생긴 것은 한국전쟁 이후 상이용사 원호사업으로 세운 ‘경보극장’이었다. 경보극장은 명동골목에 위치해 있었고 볼거리나 즐길 거



평택 경보극장(1972년, 출처 국가기록원)

7) 《평택군지》, 1984년 12월 30일, 665쪽.

리가 없던 시절에 시민의 유일한 오락거리가 되어주었다. 경보극장에서는 한 번에 두 개의 프로그램을 볼 수 있어 돈 없는 서민에게는 상당한 인기가 있었다. 마땅한 공연장소가 없던 시절, 경보극장은 예술제를 펼치는 곳으로 변모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화적 기반을 바탕으로 하던 평택지역은 평택문화원이 설립되면서부터 곳곳에서 다채로운 예술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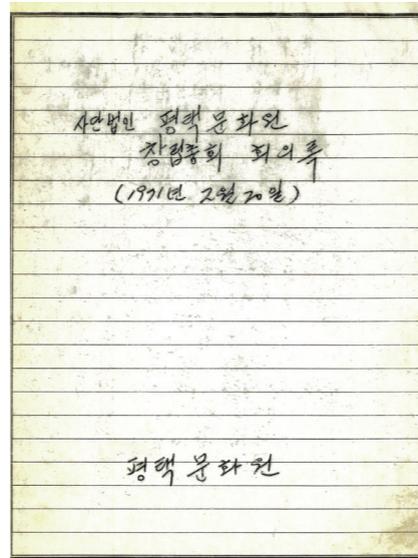
3. 평택문화원 창립과 활동

1) 사단법인 평택문화원 창립

(1) 사단법인 평택문화원 창립총회(1971년 2월 20일)

정부의 1시·군 1문화원 정책에 따라 '사단법인 평택문화원'을 창립하기 이전까지 전국적으로 131개 문화원이 창립, 운영되고 있었다. 이미 1953년 사설 평택문화원을 운영해왔지만 정식 설립 인가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평택문화원은 1971년 사단법인 창립으로 전국에서 132번째 정식 인가를 받은 문화원으로 간판을 내걸게 되었다.

사단법인 평택문화원 설립은 1969년 초부터 창립 준비에 들어갔다. 우선 문화원의 활동 기반이 될 수 있는 문화원사 건립을 위해 공화당 경기제5지구당 운영위원 민형식이 사재 150만원을 출연하고, 평택 출신 김영광 중앙정보부 국장(제10, 11, 14대 국회의원)을 찾아가 문화원사 건립 모금 협조를 요청해 김영광 국장의 도움으로 1969년 8월 3일 재일거류민단 부녀부로부터 찬조금 150만원을 받아 모두 300만원의 예산을 들여 평택문화원 원사 건립을 추진하였다. 민형식 씨는 1970년 2월 20일 평택군 기관단체장 회의에서 평택문화원 건립을 설명하고, 전원일



평택문화원-창립총회 회의록(1971년 2월 20일)

치로 결의한 후 1971년 1월 30일 평택읍 평택리 63번지에 건평 55평의 평택문화원을 건축하였다.

'사단법인 평택문화원 창립총회'는 1971년 2월 20일 개최됐다. 이날 창립총회는 오전 10시 평택문화원 문화관에서 전체 회원 35명 중 26명이 참석했다. 창립총회 참석자는 민형식, 이민홍, 박승길, 이경일, 장복환, 최준화, 정관섭, 유천형, 김현옥, 이경배, 박희열, 김만수, 김춘연, 이계호, 이규철, 문정일, 최충조, 이종성, 김석배, 최익민, 김응춘, 이영구, 이주상, 김창복, 이진, 조원환 회원이었다.

이날 총회에서는 국민의례, 국민교육헌장 낭독, 사회자의 개회사, 임시 의장단 선출, 정관 낭독, 이사진 선출,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기타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박승길 사무장의 사회로 진행된 창립총회에서 임시의장은 구두 호천에 의한 표결 방식으로 진행되어 민형식 씨가 단독으로 호천 된 후 만장일치로 의결되었다.

임시총회의 첫 번째 부의안건인 '이사 선출의 건'은 전형위원회를 구성하고 3명의 전형위원이 추천해 총회에서 인준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이날 5분간 정회 후 전형위원들이 추천한 이사진은 민형식, 이민홍, 김현옥, 최준화, 김만수, 유천형, 정관섭, 장복환, 박희열, 이경배 등 10명으로 참석 회원 26명이 전원 거수로 찬성 표결을 하여 초대 평택문화원 이사로 선임되었다.

이어 두 번째 부의안건인 '원장, 부원장, 감사 선출의 건'은 선출 방식에 대한 회원 제안으로 감사 2명을 총회에서 선출하고, 원장과 부원장은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구두 호천에 의해 이경일, 유천형 회원이 감사로 추천된 후 만장일치로 감사로 선임됐다. 유천형 회원은 이사와 감사로 동시에 선임됐다. 현재 정관에는 이사와 감사를 겸임할 수 없지만 당시에는 겸임이 가능해 겸임하는 것으로 선임됐다.

세 번째 부의안건인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은 회원 제안으로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으로 만장일치 의결했다. 이사회에 위임한 1971년도 평택문화원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세입예산액 8,945,300원, 총 세출예산액 8,945,300원이다.

기타토의에서는 '회원 회비 결정의 건'에 대해 협의해 회원 1인당 연간 1,000원의 회비를 정하고, 성의에 따라 그 이상 납부하는 것으로 결정한 후 사단법인 평택문화원 창립총회를 모두 마쳤다.

(2) 평택문화원 임시 이사회(1971년 3월 10일)

1971년 2월 20일 개최한 평택문화원 창립총회에서 위임한 '원장, 부원장 선출의 건'과 '세입·세

출 예산안 심의의 건을 의결하기 위해 개최한 평택문화원 이사회는 1971년 3월 10일 오전 10시 평택문화원 문화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이사회에는 민형식, 이민홍, 장복환, 김만수, 정관섭, 유천형, 최준화, 박희열, 김현옥, 이경배 이사가 참석했으며, 이경일, 유천형 감사가 참관했다.

박승길 사무장의 사회와 민형식 의장의 진행으로 개최된 이사회 첫 번째 부의안건은 '원장과 부의장 선출의 건'으로 평택문화원 설립 과정에서 공로가 가장 큰 민형식 이사를 추대해야 한다는 이사들의 의견에 따라 만장일치로 초대 평택문화원장에 민형식(閔衡植) 이사를 선출했으며, 부원장에는 이민홍 이사를 추천해 역시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두 번째 부의안건인 '사단법인 평택문화원 정관 승인의 건'은 평택문화원 창립 정관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정관이기 때문에 별도의 수정(안)이 없다는 의견에 따라 평택문화원 운영 세칙만 문화원 운영상 필요한 제반사항을 현실에 맞게 원장단에서 작성하여 차기 이사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세 번째 부의안건인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은 평택문화원 창립에 필요한 예산이 많이 소요돼 예산안 규모가 다소 크지만 창립이라는 과도기적 측면에서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승인된 '1971년 평택문화원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세입 및 세출 예산이 8,945,300원이다.

항목별로 살펴 본 세입예산(안)은 ▲재산수입(시설사용료) 60,000원 ▲회비수입(일반회비 및 특별회비) 770,000원 ▲보조금(평택군 보조금 및 경기도 보조금) 540,000원 ▲기타수입(행사 가입금, 찬조금, 기타수입) 7,575,300원이다.

세출예산(안)은 ▲본원비(인건비, 사무비, 판공비연료비, 영선비 등) 1,132,300원 ▲사업비(영화상영) 318,000원 ▲사업비(문예활동비) 260,000원 ▲사업비(방송비) 80,000원 ▲창립비/사업비(수용비) 855,000원 ▲창립비/사업비(차량비) 5,500,000원 ▲예비비 800,000원 등이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창립 이사진은 연간 회비와는 별도로 월 3,000원 이상 찬조금을 회비 명목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결정해 초창기 사업비 부족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려는 모습을 보여줬다.

(3) 평택문화원 제1차 이사회(1971년 3월 20일)

창립년도 사업계획을 확정짓기 위해 개최한 제2차 평택문화원 이사회는 1971년 3월 20일 오전 10시 평택문화원 문화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이사회에는 민형식, 이민홍, 김만수, 장복환,

정관섭, 유천형, 최준화, 박희열, 김현옥, 이경배 이사가 참석했으며, 이경일, 유천형 감사가 참관했다.

이날 이사회는 박승길 사무장의 사회와 민형식 의장의 진행으로 '1971년 평택문화원 사업 및 행사계획 추진 승인의 건' 단일 안건으로 개최됐다. 민형식 초대 평택문화원장은 "오늘 회의는 앞으로 평택문화원 운영에 대한 첫 회의이며, 중요한 회의라고 생각한다. 다 같이 문화사업에 헌신하여 줄 것을 바라는 바이다"라고 개회사를 했다.

특히 이날 제1차 이사회에서는 평택문화원 사무실과 문화관을 구조 변경하여 예식장과 회의실로 활용하며, 부족한 창고를 증설하는 계획이 발표됐다. 참석 이사들은 사무국에서 제출한 '1971년 평택문화원 사업 및 행사계획 추진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사업 추진 관련 장비 구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승인된 1971년 창립년도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평택문화관 및 창고를 증설해 예식장과 회의실로 사용하고, 문화관에서 연간 60회의 영화를 상영하며, 영사기와 발전 설비, 마이크 등의 장비를 갖춘 마이크로버스 1대를 5,500,000원에 구입해 평택군 읍·면·동 마을 곳곳을 순회하여 연간 120회 영화를 상영하는 계획을 세웠다.

또 당시 국정 운영의 중요한 사안이었던 반공을 홍보하기 위해 반공 영화 상영과 현수막 및 포어 부착 등 반공방첩 활동도 주요 사업 중 하나로 평택문화원 사업에도 당시 시대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다.

1970년대 의식주 해결도 힘들었던 상황을 감안해 열악한 지역 문화예술 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클 지도비를 문화원 사업비에 반영해 각 문예 단체 활동을 지원했으며, 출향 음악인과 꿈나무를 초청해 음악의 밤 행사를 마련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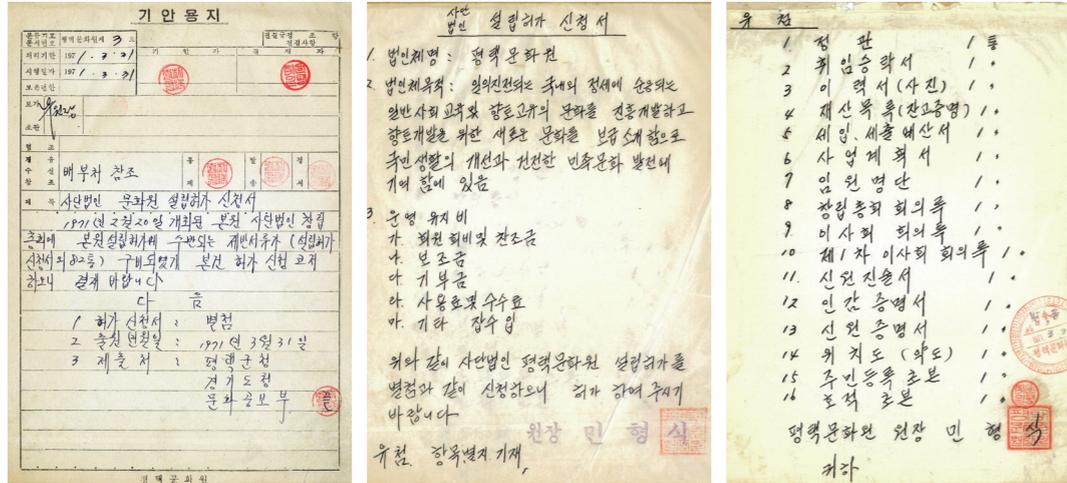
현재는 거의 사라진 문화 가운데 하나인 웅변대회와 우표전시회 등도 초창기 평택문화원 사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으며, 지역의 발전상을 소개하는 사진전시회와 경노회 유가족을 위한 시민 위안행사도 개최했다.

평택지역에서 최초로 도서관을 운영한 평택문화원은 창립 초기부터 꾸준히 도서구입비를 책정하고, 청소년들을 위한 도서관 열람실을 갖춰 독서문화 진흥에도 기여했다.

평택문화원은 문화예술과 지역발전, 각종 계몽활동을 위해 창립 초기 6,255,000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영사기 2대, 카메라 1대, 앰프 2대, 스피커 2개, 마이크 2개, 녹음기 1대, 레코드 1대, 피아노 1대, 마이크로버스 1대, 각종 음반 등을 구입했으며, 이 같은 시설과 장비를 활용해 평택문화관과 각 마을을 순회하며 다양한 문화 및 계몽사업을 진행했다.

2) 사단법인 평택문화원 설립허가

(1) 사단법인 평택문화원 설립허가 신청



사단법인 평택문화원 설립허가 신청서(1971년 3월 31일)

1971년 2월 20일 '사단법인 평택문화원 창립총회' 개최와 3월 10일, 3월 20일 두 차례 개최한 이사회를 통해 평택문화원 정관 승인과 임원 선출, 1971년 평택문화원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 1971년 평택문화원 사업 및 행사계획 추진 승인 등의 모든 절차를 갖춘 평택문화원은 1971년 3월 31일 평택군과 경기도, 문화공보부에 '사단법인 평택문화원 설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설립 허가 신청 당시 제출한 법인체 명은 '평택문화원'이었으며, 법인체 소재지는 경기도 평택시 평택읍 평택리 63번지로 이곳에 사무국을 설치했다. 설립 목적은 "일익 진전되는 국내외 정세에 순응되는 일반 사회교육 및 향토 고유의 문화를 진흥개발하고, 향토개발을 위한 새로운 문화를 보급 소개하므로 국민 생활의 개선과 건전한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함에 있다"고 명기되어 있다. 평택문화원의 설립 자본금은 50만원으로 2021년 현재 화폐 가치로는 1,000여만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자본금은 한국상업은행 평택지점에 예치했다. 재산 및 비품은 평택문화원 건물 55평 270만원을 비롯해 전화기, 책상, 의자, 영사기, 카메라, 녹음기 등 14종 108개, 352만 원 규모이며, 운영 유지비는 회원 회비 및 찬조금, 보조금, 기부금, 사용료 및 수수료, 기타 잡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평택문화원 설립 허가 신청 시 첨부한 서류는 정관, 취임 승낙서, 이력서, 재산목록(잔고 증명), 세입·세출 예산서, 사업계획서, 임원 명단, 창립총회 회의록, 이사회 회의록, 제1차 이사회 회의록, 신원진술서, 인감증명서, 신원증명서, 위치도(약도), 주민등록 초본, 호적초본 등이다.

(2) 사단법인 평택문화원 창립 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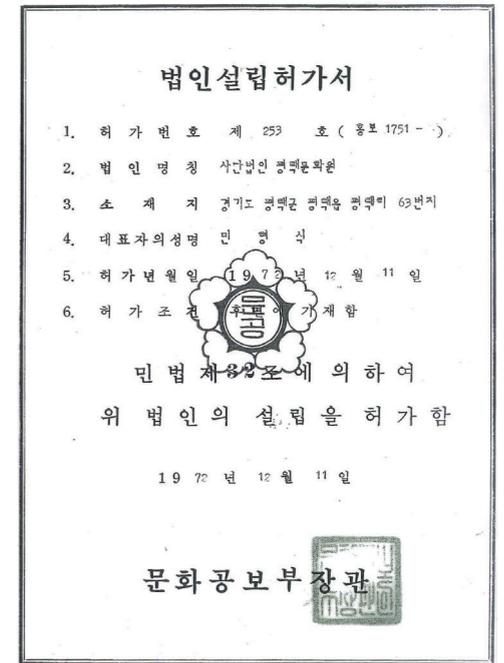
'민법 제32조'에 의해 허가번호 제253호로 1972년 12월 11일 문화공보부장관으로부터 '사단법인 평택문화원' 법인 설립 허가를 득하고, 1972년 12월 30일 법원 등기를 완료한 초대 평택문화원 임원은 등기이사에 민형식, 이민홍, 김현옥, 정란섭, 최준화, 유천형, 장복환, 김만수, 이경배 등 9명과 감사 이경일 1명(유천형 이사 감사 겸직) 등 모두 10명이다.

초대 평택문화원 등기이사와 감사, 등기이사 외 이사로 기록에 남아있는 임원은 다음과 같다.

평택문화원 초대 민형식 원장은 1931년 경기도 양주군 은현면 용암리에서 태어나 제1관구 경찰학교를 졸업 후 제천경찰서근무를 시작으로 12년간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평택경찰서에서 퇴임했다. 평택경찰서 근무를 인연으로 평택시 평택읍 평택리에 정착하여 반공연맹 평택군지부 운영상임위원, 평택군체육회 부회장, 사단법인 대한경우회 평택군지회 부지회장, 공화당 경기제5지구당 운영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거주지는 평택군 평택읍 평택리이다.

이민홍 부원장은 1931년 경기도 평택군 포승면 신영리에서 태어나 평택군 포승면사무소에서 공무원을 시작, 팽성읍사무소에서 퇴직했으며, 거주지는 평택군 평택읍 통북리이다.

김현옥 이사는 1928년 경기도 평택군 송탄읍 신장리에서 태어나 줄곧 출생지에서 거주했으며, 한국상업은행, 미군 314비행단 재무처 회계원으로 근무하다 재향군인회 평택군연합분회 회장, 재건국민운동 평택군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평택문화원 지방문화원 법인설립허가서 (1972년 12월 11일)

정란섭 이사는 1928년 경기도 평택군 팽성면 근내리에서 태어나 철도국 경성역 직원으로 근무하다 경찰로 전직해 인천경찰서, 서울지방검찰청 인천지청, 평택경찰서에서 퇴임 후 경원기업주식회사 상무로 근무했다. 이후 평택로타리클럽 총무로 사회활동을 했고, 평택군 평택읍 평택리에서 거주했다.

최준화 이사는 1917년 경기도 평택군 평택읍 통북리에서 태어나 줄곧 출생지에서 거주했으며, 경남철도주식회사에서 첫 직장생활을 하다 대동청년단 평택군단 단장으로 활동했으며, 평택군청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 후 웅진군청 내무과장으로 퇴임했다. 공무원 퇴임 후 약업에 종사했다.

유천형 이사 겸 감사는 1938년 경기도 평택군 평택읍 동삭리에서 태어나 홍익대학교 신문학과를 졸업 후 한국일보 평택지국장 겸 기자로 활동했으며, 거주지는 평택군 평택읍 평택리이다.

장복환 이사는 1921년 경기도 평택군 팽성읍 두리에서 태어나 군 제대 후 청년운동을 하다 대한청년단 배속 장교, 한국반공연맹 평택군지부장을 역임했으며, 거주지는 평택군 평택읍 평택리이다.

김만수 이사는 1923년 경상북도 상주군에서 태어나 백학결설 현장소장, 대한전업 현장소장, K-6 캠프험프리스 자재과 현물주인, 대한공로사 평택지사에서 근무했으며, 거주지는 평택군 평택읍 합정리이다.

이경배 이사는 1932년 경기도 평택군 송탄읍 칠원리에서 태어나 농업에 종사하며, 평택원예조합 이사와 평택군농협 조합장을 역임했으며, 거주지는 평택군 평택읍 비전리이다.

박희열 이사는 1930년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태어나 재향군인회 평택군분회장, 제대장병보도회 평택군분회장, 제대장병보도회 중앙회 이사, 평택군선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유치송 국회의원 비서로 국회사무처에 근무했다. 거주지는 평택군 평택읍 세교리이다.

이경일 감사는 1927년 황해도에서 태어나 6.25전 쟁 이전인 1948년 월남해 동아제분합자회사 작업과장, 인천 극동운수회사 대표사원, 미 트렌스아세아토건회사에 재직했으며, 거주지는 평택군 평택읍 통북리이다.



직책	이름	출생년도	출생지	거주읍·면	직업
원장(이사)	민형식	1931	경기도 양주군	평택읍 평택리	평택군체육회 부회장
부원장(이사)	이민홍	1931	경기도 평택군	평택읍 통북리	팽성읍사무소 퇴직
이사	김현옥	1928	경기도 평택군	송탄읍 신장리	재건국민운동 평택군위원회 위원장
	정란섭	1928	경기도 평택군	평택읍 평택리	경원기업주식회사 상무
	최준화	1917	경기도 평택군	평택읍 통북리	웅진군청 내무과장 퇴임
	유천형	1938	경기도 평택군	평택읍 평택리	한국일보 평택지국장(감사 겸임)
	장복환	1921	경기도 평택군	평택읍 평택리	한국반공연맹 평택군지부장
	김만수	1923	경상북도 상주군	평택읍 합정리	대한공로사 평택지사 근무
	이경배	1932	경기도 평택군	평택읍 비전리	평택군농협 조합장
	박희열	1930	함경북도 청진시	평택읍 세교리	유치송 국회의원 비서
감사	이경일	1927	황해도	평택읍 통북리	미 트렌스아세아토건회사 근무

(3) 사단법인 평택문화원 창립 정관

사단법인 평택문화원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평택문화원(이하 본원 이라 함)이라 한다.

제2조 (사무소) 본원의 사무소는 평택읍 내에 둔다.

제3조 (목적) 본원은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둔다.

제4조 (사업) 본원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 ① 향토 문화의 개발 보급 선전
- ② 자유 우방과의 문화교류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의 시책과 업적 선양
- ④ 향토 개발 연구 및 추진
- ⑤ 영화 도서 간행물을 통한 계몽
- ⑥ 기타 본원 목적 수행상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구분) 본원에는 정회원과 명예회원을 둔다.(약간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제6조 (입회 및 회원 자격) 정회원은 본회 설립 목적을 찬동하는 자로서 사무국에서 추천, 원장의 승인을 받은 자로서 하고, 명예회원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액 이상의 찬조금을 희사한 자 또는 본원 육성에 공로가 있다고 이사회에서 인정하여 원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 가)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 나) 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 이행
- 다) 회비 기타 제부담금의 납부

제8조 (탈퇴 및 자격 상실) ①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때는 원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한다.

②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 가) 탈퇴
- 나) 제명
- 다) 사망

제9조 (징계)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원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 ①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 ② 본원의 사업을 방해할 때
- ③ 본원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해를 끼칠 때
- ④ 전 항의 종류는 제명, 견책, 공개 사과 등으로 한다.

제3장 임원

제10조 (임원) 본원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원장 1명
2. 부원장 1명
3. 이사 11명(정·부원장 포함)
4. 감사 2명
5. 사무국장 1명

제11조 (선출)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문화공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제12조 (임기) 원장, 부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원장) 원장은 본원을 대표하며, 원내의 업무를 통괄한다.

제14조 (직무대행) 원장이 유고시는 부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이사)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총회 및 원장으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

제16조 (감사) 감사는 본원의 재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제17조 (사무국장) 사무국장은 원장의 지시를 받아 본원의 모든 업무를 처리하며, 모든 회의에 참석하여 표결권 없이 발언할 수 있다.

제4장 회의

제18조 (구분) 본원의 회의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와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로 구분한다.

제19조 (총회) 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제적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원장이 소집한다. 그리고 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20조 (총회의 권한)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 선출
3.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본원 운명에 관한 사항

제21조 (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 이상의 의결로 한다.

② 참석치 못하는 회원은 참석하는 회원에게 위임장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임할 수 있으며, 회의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회

제22조 (구성) 이사회는 정·부원장과 이사로서 구성한다.

제23조 (소집) 이사회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이사 5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원장이 소집한다.

제24조 (이사회회의 권한)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 변경안 작성
2. 사업계획 수립
3. 예산 및 결산 심의
4. 회비 부담액 결정
5. 기타 총회나 운영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제25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군내 기관장 유지 또는 직종 대표 중에서 원장과 이사회의 추천으로 구성한다. 단, 이사는 자동적으로 운영위원이 된다.

제27조 (운영위원회 권한) 운영위원회는 본원의 운영에 협력하기 위한 기관이다.

제6장 재정

제28조 (재산) 본원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① 기본재산은 년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문화공보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② 기본재산을 대여, 처분, 기타 사권을 설정하거나 감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문화공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9조 (세입) 본원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비 및 찬조금
2.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3. 본원 시설 활용에 의한 수입금
4. 기타 잡수입

제30조 (회계감사) 감사는 본원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년 2회 이상 감사한다.

제31조 (회계년도) 본원의 회계 년도는 정부의 회계 년도에 준한다.

제7장 사무국

제32조 (설치) 원장의 지시를 받아 본원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제33조 직무국에 사무국장 1명과 필요 되는 직원을 둘 수 있다.

제34조 (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전원 동의와 문화공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임명한다.

- ② 사무국장은 원장의 지시를 받아 본원의 업무를 처리한다.
- ③ 사무국 직원은 사무국장 제청으로 원장이 임명한다.
- ④ 사무국 직원은 사무국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

제8장 보칙

제35조 (해산) 본원을 해산하고자 할 시에는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 참석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36조 (잔여재산 귀속) 본원의 해산에 따르는 잔여재산은 문화공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 또는 본원과 유사한 법인이나 단체에 기증한다.

제37조 (정관 변경) ① 본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시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되 재적 구성 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음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8조 (규칙)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본원의 규칙을 정한다.

- 1. 본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 2. 사무국의 운영과 조직에 관한 사항
- 3. 회의의 소집 운영에 관한 사항
- 4.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부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원의 설립 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

위와 같이 사단법인 평택문화원의 정관을 작성함.

1971년 월 일

설 립 자

주 소	성 명	인
평택군 평택읍 평택리 53	민 형 식	
평택군 평택읍 통북리 82	이 민 홍	
평택군 평택읍 통북리 82	박 승 길	
평택군 송탄읍 신장리 314	김 현 옥	
평택군 평택읍 평택리 58	정 란 섭	
평택군 평택읍 통북리 82	최 준 화	
평택군 평택읍 평택리 142	유 천 형	
평택군 평택읍 평택리 22-7	장 복 환	
평택군 평택읍 합정리 647	김 만 수	
평택군 평택읍 비전리 47	이 경 배	
평택군 평택읍 평택리 185	박 희 열	

(4) 평택문화원 1971년도 세입·세출 예산

<p>FY 1971</p> <p>1971년도 세입세출예산서</p> <p>총세입예산액 : 8,945,300 총세출예산액 : 8,945,300 차인예산잔액 : 0</p> <p>사단법인 평택문화원</p>

1971년도 세입예산서

총 세입예산 : 8,945,300

장	관	항	목	세입예산	산출기초
		소계		60,000	
	재산수입	기본재산수입	시설사용료	60,000	문화관 사용 각종 회의 20회×1회당 2,000원 =40,000원 결혼식 10회×1회당 2,000원=20,000원
		소계		770,000	
	회비	일반회비	회비	50,000	회원 50명×1인당 년 1,000원=50,000원
		특별회비	회비	720,000	이사진 및 운영위원 20명×월 3,000원=720,000원
		소계		540,000	
	보조금	지방보조금	보조금	240,000	1개월 20,000원×12개월=240,000원
		도보조금	보조금	300,000	문화원 중앙회
		소계		7,575,300	
	기타수입	집수입	행사가입금	100,000	영화 순회 및 기타 행사 참가로 인한 찬조금
			찬조금	2,500,000	지방 유지 및 외지 인사 사업체 등
			기타수입	4,975,300	
	총 계			8,945,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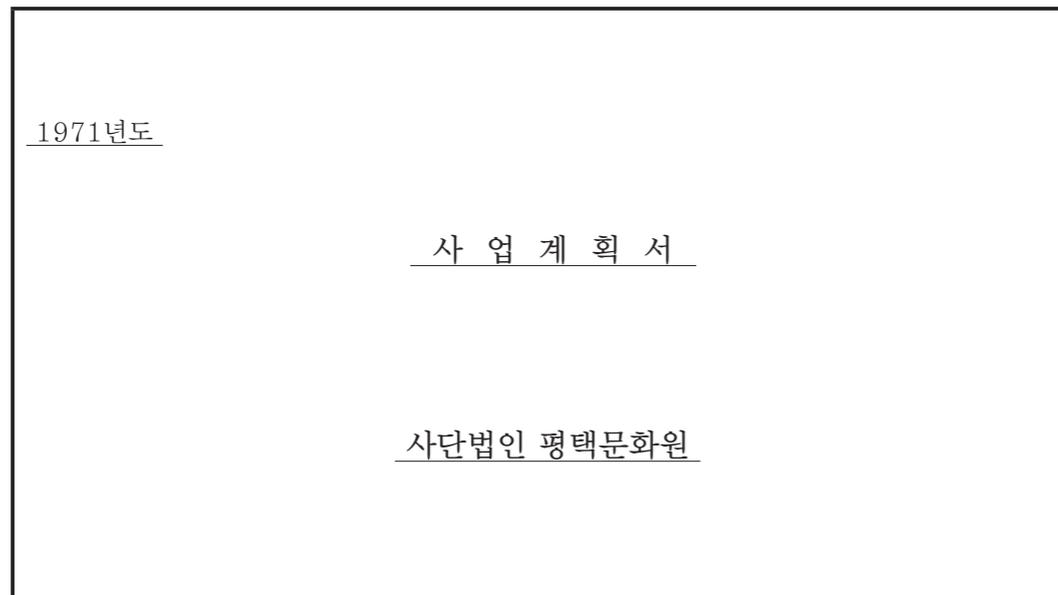
1971년도 세출예산서

총 세출예정액 : 8,945,300

장	관	항	목	세출예산	적 요	
		소계		1,132,000		
	관리비	인건비	급료	240,000	사무장 월 15,000원×12개월×180,000원 사환 월 5,000원×12개월×60,000원	
			여비	30,000	중앙회 및 문화원 유대 관계 출장 지방사업 및 문화 계몽차 출장	
		사무비	전화료	40,500	월 기본료 및 시외통화료 3,000원×12개월 ×36,000원 800번 전화가설(신설)료 4,500원	
		판공비	촉의금	20,000	문화원 명의로 대외기관 찬조 및 혼·상·갑 촉의금	
		사무비	용품비	12,000	사무용품 월 1,000원×12개월×12,000원	
			인쇄비	24,000	월 2,000원×12개월×24,000원	
			우송료	3,000	각종 우편물 및 간행물 송료	
			회의비	60,000	총회, 임시총회, 운영위원회, 이사회	
		판공비	접대비	50,000	문화사업 및 지원 요청 문제로 대내외 접대 및 교재	
		부담금	회비	16,000	중앙 연합회 납입금	
		사용비	전기료	36,000	월 3,000원×12개월×36,000원	
		연료비	유류비	100,800	난로 3대(사무실1, 문화관 2대)(11월 ~2월) 4개월(1일 900원)=100,800원	
		영선비	보수비	500,000	문화관 및 사무실 증설 변경, 비품구입, 미화장치, 게시판 신설, 도서진열장	
		소계		318,000		
	사업비	영화비	급료	120,000	영사기사 월 7,000×12개월×84,000원 인부 월 3,000×12개월×36,000원	
			기재수리비	50,000	영사기 및 차량 수리, 장비 수리	
			임대료	20,000	영화상영(지방 등) 장소 임대료	
			전기료	20,000	영화 상영에 소모되는 비용(문화관 및 지방)	
			유류비	108,000	차량 및 영화상영 소모 월 15통×12개월×1통당 600원	
			소계		260,000	
		문예활동비	반공방첩비	20,000	계몽에 소요되는 부착물, 현수막 계몽비	
			씨클지도비	20,000	각 문예단체 및 단체 문화 계몽 지도비	
			회의비	30,000	문화사업 연관체 및 문예인들 회의	
			위안회비	50,000	도시 농촌 노동자, 파월 유가족 등 위안행사	
			행사시설비	20,000	문예행사에 필요 되는 시설비	
			발표회비	20,000	문화원 창작, 창간, 음악회, 고적 및 지역 소개 등	
			도서구입비	30,000	필요 되는 책자 구입	
	사진전시회		20,000	정부 업적 사진, 지방 발전과정, 반공방첩 사진 등		
	보도비		10,000	행사 선전		
	운반비		5,000	전시물 운반 비용		
	간행물송료	5,000	각종 간행물 송료(전시물)			
		전시료	30,000	필요 품목 임대 전시 사용료		
		소계		80,000		
	방송비	기재수리비	20,000	각종 장비 수리비(방송실)		
		시설비	60,000	방송실 및 영사기 영사대 시설		

창립 비	사업비	소계		6,355,000	
		수용비	비품비	400,000	영사기 35mm 1대=200,000원 영사기 16mm 1대=200,000원
				40,000	카메라 1대 40,000원
				200,000	앰프 2개, 스피커 2개, 마이크 2개, 녹음기 1개, 레코드 1개
				200,000	피아노 1대=200,000원
				15,000	음판 30매×1매당 500원×15,000원
				5,500,000	차량비대(마이크로버스형) (영화상영, 발전기시설, 마이크시설, 필요 되는 장비 일절)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800,000	
총 계				8,945,300	

(5) 평택문화원 1971년도 사업계획



1971년도

사업계획서

사단법인 평택문화원

1971년도 사업계획서

기간 (월)	행사명	회수 (회)	활동기간 (일)	소요비용 (월)	내 용
4~6	문화관 증설 및 창고 증설	1	30	300,000	문화관 변경 구조 설치하여 예식장 및 회의실 사용, 창고 10평 신설, 기타 장비 구입
1~12	영화상영	48 (월 4회)	60 (월 5일)	30,000	문화원에서 실시(전기료, 수리비 등 소요)

1~12	영화상영	120 (월 10회)	120 (월 10일)	288,000	차량 및 상영 소모 유류대 144,000 장소 임대 및 전기료, 기재 수리비 등 24,000 영화 기사 및 인부 인건비 120,000
1~12	반공방첩활동	12	12	20,000	반공영화 및 현수막, 표어 등
1~12	씨름지도비	12	12	20,000	각 문예 단체 유대 및 계몽
1~12	음악회 (위안행사)	12	20	30,000	음악의 밤(연주단 초청 등)
6. 10	웅변대회	2	2	15,000	연제는 현실의 필요성 강조
1~12	사진전시회	4	12	20,000	지방 발전상, 지역 소개, 반공방첩 자료, 기타
1~12	도서구입	12	365	30,000	문화원에서 필요 되는 제반 책자 구입
1~12	위안행사	12	24	50,000	경노회, 유가족, 시민 위안행사 (영화 및 기타 행사)
1~12	장비 구입	-	365	6,355,000	영사기 2대, 카메라 1대, 앰프 2개, 스피커 2개, 마이크 2개, 녹음기, 레코드, 피아노 1대, 음판, 차량
계				7,158,000	

(6) 평택문화원 창립 당시 등록 인장(관인, 직인, 사인, 계인)



3) 평택문화원사 건립

평택문화원 원사 건립은 1971년 2월 20일 사단법인 평택문화원을 창립하기 2년 전부터 준비되었다. 1969년 10여명의 지역 인사들과 평택문화원 창립을 준비하던 공화당 경기제5지구당 운영위원 민형식 씨는 평택 출신인 김영광 중앙정보부 국장(제10, 11, 14대 국회의원)을 찾아가 문화원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 모금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영광 중앙정보부 국장은 1961년 6월 '중앙정보부법' 공포와 함께 창설된 중앙정보부의 핵심 간부로 근무하며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재일거류민단 간부들과 상당한 교류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1969년 8월 3일 재일거류민단 부녀부로부터 찬조금 150만원을 받아 평택문화원 원사 건립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 민형식 씨는 여기에 150만원의 사재를 합쳐 모두 300만원을 들여 평택문화원 건립을 추진하였다.



평택문화원 원사(197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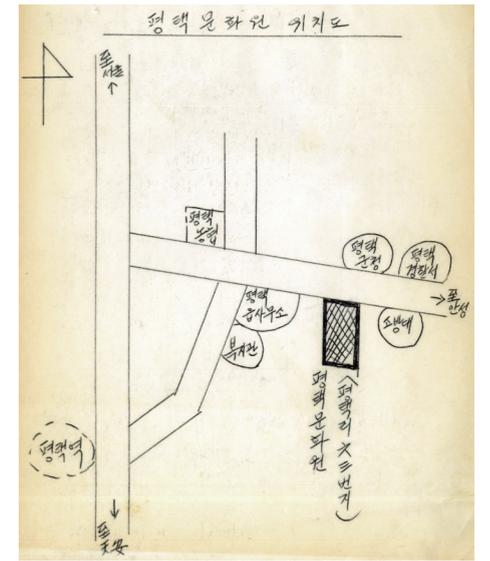
민형식 씨는 1970년 2월 20일 평택군 기관단체장 회의에서 평택문화원 건립을 설명하고, 전원일치로 결의한 후 1971년 1월 30일 평택읍 평택리 63번지에 건평 55평의 평택문화원을 건축하였다.

1971년 2월 20일 사단법인 평택문화원 창립 당시 문화원사는 경기도 평택시 평택읍 평택리 63번지에 자리 잡은 독립 원사였다. 평택문화원사는 당시 평택군의 행정 중심지였던 평택군청 정문 맞은편에 자리 잡았다. 정면에 평택군청, 정면 우측에 평택경찰서, 정면 좌측에 농협 평택군지부, 문화원 좌측에 평택읍사무소와 복지관, 우측에 평택소방대가 위치해 있으며, 평택역과 버스터미널 등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있어 평택군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였다. 특히 평택군에서는 일선 학교를 제외하고 유일한 공립 도서관을 운영해 인근에 밀집되어 있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용하기가 편리했다.

평택문화원은 대지 55평, 건평 55평,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형 구조로 지상 2층, 연건평 110평 규모로 건축됐다. 내부 시설은 영사실 및 회의실 52.5평, 도서실 55평, 사무실 2.5평으로 영사실 및 회의실은 각종 행사와 공연, 전시회, 결혼식장 등으로 활용했으며, 도서실에는 1,163권의 책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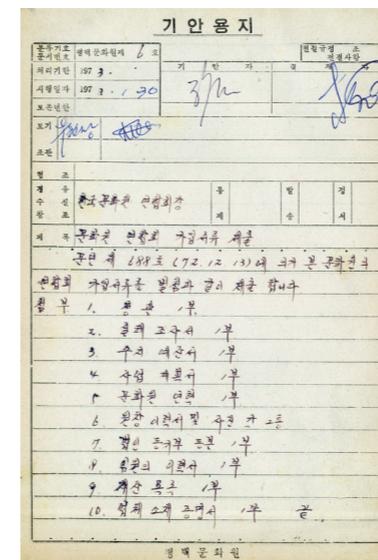
갖춰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사무국 직원은 서성걸(30세), 사환 박영완(30세) 등 2명이 근무하여 목적사업과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1971년 창립 첫 해에 진행한 목적사업과 프로그램은 문화활동 62회 5,300명, 영화상영 168회 35,000명, 전시활동 4회 1,570명 등 모두 234회의 사업을 진행해 41,870명의 군민이 혜택을 봤다. 이 밖에 도서관 운영은 활동 통계에 포함되지 않아 도서관 이용자까지 포함한다면 평택문화원은 1971년 1년간 다양한 활동을 펼쳐 10만여 명이 넘는 평택 군민이 수혜를 입어 문화원 창립은 문화 불모지였던 지역에서 평택군민에게 가져다 준 문화적 혜택이 매우 컸다고 평가할 수 있다.



평택문화원 위치도(1971년)

4) 한국문화원연합회 가입



평택문화원-한국문화원연합회 가입서류 제출 기안문(1973년 1월 30일)

평택문화원은 전국 지방문화원과의 교류와 연대, 국비 보조금 수혜, 중앙정부 사업 추진을 위해 정기총회에서 지방문화원 연합체인 한국문화원연합회 회원사로 가입하기로 결의했다. 1971년 2월 20일 평택문화원 창립 이후 2년만인 1973년 1월 30일 한국문화원연합회에 회원 가입을 신청했다. 이보다 앞서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는 1972년 12월 13일 평택문화원에 연합회 회원사 가입을 요청해왔다.

평택문화원은 한국문화원연합회 회원사 가입을 위해 신청서류로 정관, 실태조사서, 수지예산서, 사업계획서, 문화원 연혁, 원장 이력서, 법인 등기부등본, 임원 이력서, 재산 목록, 업체 소재 증명서 등을 제출해 한국문화원연합회로부터 정식 회원사로 승인을 받아 연합회 사업 및 활동 수입, 연대 및 상호 교류 등의 활동을 시작했다.

5) 지방문화원 사업자 신고

평택문화원은 문화원 목적사업을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추진하기 위해 1973년 1월 16일 문화공보부와 경기도에 동시에 '지방문화원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했다. 사업소의 소재지는 문화원사가 위치한 경기도 평택시 평택읍 평택리 63번지이며, 대표자는 민형식, 사업 활동 구역은 경기도 평택군 일원으로 신고해 지방문화원 목적사업을 제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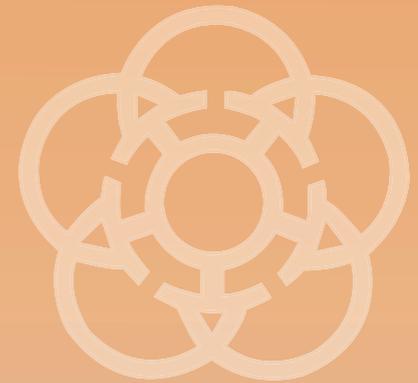
지방문화원 사업자 신고를 위해 제출한 서류는 법인 등기부등본, 임원 이력서, 재산 목록, 사업계획서 및 수지 예산서, 업체 소재 증명서 등이다.

4. 평택문화원 창립기 연혁(1953~1972년)

1953년	사설 평택문화원 설립 및 운영(초대 원장 장순영)
1954년	사설 평택문화원 제2대 하순성 원장 취임
1967년	비인가 평택문화원 창립(원장 조경영)
1969년초	민형식 평택문화원사 건립기금 출연(사재 150만원)
1969년 8월 3일	재일거류민단 부녀부 평택문화원사 건립 찬조금 기부(150만원)
1970년 2월 20일	평택군 기관단체장 회의에서 평택문화원 건립 전원일치 결의
1971년 1월 30일	평택문화원사 건축 준공(평택읍 평택리 63번지, 건평 55평)
1971년 2월 20일	사단법인 평택문화원 창립총회(평택문화원 문화관, 이사 10명, 감사 2명 선출)
1971년 3월 10일	평택문화원 이사회(평택문화원 문화관, 초대 원장 민형식 선출)
1971년 3월 20일	제2차 평택문화원 이사회(평택문화원 문화관)
1971년 3월 31일	사단법인 평택문화원 설립 허가 신청(평택군, 경기도, 문화공보부에 제출)
1971년	평택군립도서관 수탁 운영(평택군 위탁)
1972년 12월 11일	사단법인 평택문화원 법인 설립 허가(문화공보부)
1972년 12월 13일	평택문화원에 연합회 회원사 가입 요청(한국문화원연합회)
1972년 12월 30일	사단법인 평택문화원 법원 등기(원장 민형식)

68

Ⅲ. 평택문화원 개척기
(1973~1985년)



1. 평택문화원 조직운영

1) 1973년 사업과 활동

(1) 평택문화원 1973년도 세입세출 예산

<p>FY 1973</p> <p style="font-size: 1.2em; font-weight: bold;">1973년도 세입세출예산서</p> <p style="text-align: right;">총세입예산액 : 9,285,300 총세출예산액 : 9,285,300 차인예산잔액 : 0</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사단법인 평택문화원</p>

1973년도 세입예산서

총 세입예산 : 9,285,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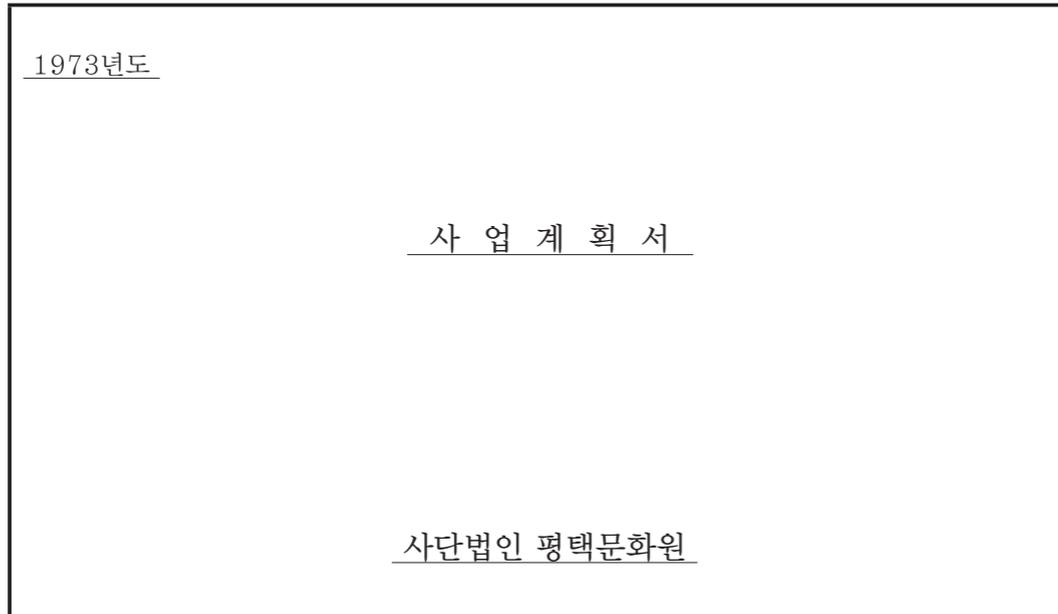
장	관	항	목	세입예산	산출기초
재산수입	기본재산수입	소계		100,000	
		시설사용료	100,000	문화관 사용 각종 회의 20회×1회당 3,000원=60,000원 결혼식 20회×1회당 2,000원=40,000원	
회비	소계		920,000		
	일반회비	회비	100,000	회원 50명×1인당 년 2,000원=100,000원	
	특별회비	회비	820,000	특별회원 10명×1인당 년 10,000원=100,000원 이사진 및 운영위원 20명×월 3,000원=720,000원	
보조금	소계		540,000		
	지방보조금	보조금	240,000	1개월 20,000원×12개월=240,000원	
	도보조금	보조금	300,000	문화원 중앙회	
기타수입	소계		7,725,300		
	잡수입	행사가입금	250,000	영화 순회 및 기타 행사 참가로 인한 찬조금	
		찬조금	2,500,000	지방 유지 및 외지 인사 사업체 등	
		기타수입	4,975,300		
총계			9,285,300		

1973년도 세출예산서

총 세출예정액 : 9,285,300

장	관	항	목	세출예산	적요
관리비	본원비	소계		1,132,300	
		인건비	급료	240,000	사무장 월 15,000원×12개월×180,000원 사환 월 5,000원×12개월×60,000원
			여비	34,500	중앙회 및 문화원 유대 관계 출장 지방사업 및 문화 계몽차 출장
		사무비	전화료	36,000	월 기본료 및 시외통화료 3,000원×12개월×36,000원 800번 전화가설(신설)료 4,500원
		사무비	축의금	20,000	문화원 명의로 대외기관 찬조 및 훈·상·갑 축의금
			용품비	12,000	사무용품 월 1,000원×12개월×12,000원
			인쇄비	24,000	월 2,000원×12개월×24,000원
			우송료	3,000	각종 우편물 및 간행물 송료
			회의비	60,000	총회, 임시총회, 운영위원회, 이사회
		판공비	접대비	50,000	문화사업 및 지원 요청 문제로 대내외 접대 및 교재
		부담금	회비	16,000	중앙 연합회 납입금
		사용비	전기로	36,000	월 3,000원×12개월×36,000원
		연료비	유류비	100,800	난로 3대(사무실1, 문화관 2대)(11월~2월) 4개월(1일 900원)=100,800원
영선비	보수비	500,000	문화관 및 사무실 증설 변경, 비품구입, 미화장치, 게시판 신설, 도서진열장		
사업비	사업비	소계		468,000	
		영화비	급료	180,000	영사기사 월 10,000×12개월×120,000원 인부 월 5,000×12개월×60,000원
			기재수리비	90,000	영사기 및 차량 수리, 장비 수리
			임대료	50,000	영화상영(지방 등) 장소 임대료
			전기로	20,000	영화 상영에 소모되는 비용(문화관 및 지방)
			유류비	128,000	차량 및 영화상영 소요
		소계		450,000	
		문예활동비	유신계몽사업	40,000	계몽에 소요되는 부착물, 현수막 계몽비
			씨름지도비	20,000	각 문예단체 및 단체 문화 계몽 지도비
			회의비	30,000	문화사업 연관체 및 문예인들 회의
			위안회비	50,000	도시 농촌 노동자, 파월 유가족 등 위안행사
			행사시설비	20,000	문예행사에 필요 되는 시설비
			발표회비	20,000	문화원 창작, 창간, 음악회, 교적 및 지역 소개 등
			도서구입비	10,000	필요 되는 책자 구입
			사진전시회	120,000	정부 업적 사진, 지방 발전과정, 반공방첩 사진 등
			보도비	10,000	행사 선전
			운반비	5,000	전시물 운반 비용
			간행물송료	5,000	각종 간행물 송료(전시물)
			전시료	30,000	필요 품목 임대 전시 사용료
			소계		80,000
방송비	기재수리비	20,000	각종 장비 수리비(방송실)		
	시설비	60,000	방송실 및 영사기 영사대 시설		
창립비	사업비	소계		6,355,000	
		수용비	비품비	400,000	영사기 35mm 1대=200,000원 영사기 16mm 1대=200,000원
				40,000	카메라 1대 40,000원
				200,000	앰프 2개, 스피커 2개, 마이크 2개, 녹음기 1개, 레코드 1개
				200,000	피아노 1대=200,000원
				15,000	음판 30매×1매당 500원×15,000원
				5,500,000	차량비대(마이크로버스형) (영화상영, 발전기시설, 마이크시설, 필요 되는 장비 일절)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800,000		
총계			9,285,300		

(2) 평택문화원 1973년도 사업계획



1973년도 사업계획서

기간 (월)	행사명	회수 (회)	활동기간 (일)	소요비용 (월)	내 용
4~6	문화관 증설 및 창고 증설	1	30	250,000	문화관 변경 구조 설치하여 예식장 및 회의실 사용, 창고 10평 신설, 기타 장비 구입
1~12	영화상영 및 유신계몽사업	48 (월 4회)	96 (월 8일)	170,000	문화원 또는 읍·면 회의실에서 실시
1~12	이동 영화상영	120 (월 10회)	120 (월 10일)	504,000	차량 및 상영 소모 유류대 164,000 장소 임대 및 전기료, 기재 수리비 등 160,000 영화 기사 및 인부 인건비 180,000
1~12	유신계몽 및 새마을 지도사업	12	12	40,000	각 읍·면 출장하여 지도함
1~12	반공방첩활동	12	12	20,000	반공영화 및 현수막, 표어 등
1~12	씨름지도비	12	12	20,000	각 문에 단체 유대 및 계몽
1~12	음악회	5	10	30,000	음악의 밤(연주단 초청 등)
3. 10	웅변대회	2	2	15,000	연제는 현실의 필요성 강조
1~12	사진전시회	12 (월 1회)	36	120,000	정부 건설 현황 및 지방 발전상, 지역 소개
1~12	도서구입	12	365	100,000	문화원에서 필요 되는 제반 책자 구입
1~12	위안행사	12	24	50,000	경노회, 유가족, 시민 위안행사 (영화 및 기타 행사)
1~12	장비 구입	-	365	6,355,000	영사기 2대, 카메라 1대, 앰프 2개, 스피커 2개, 마이크 2개, 녹음기 1대, 피아노 1대, 음판 30매
총 계				7,654,000	

2) 1974년 사업과 활동

(1) 평택문화원 제1차 임시총회(1974년 9월 27일)



평택문화원 원사(1974년)



평택문화원 농번기 봉사활동(1974년)

평택문화원은 1971년 2월 20일 창립총회 개최로 임원 임기가 시작된 후 '사단법인 평택문화원 정관' 제3장 임원, 제12조 임기에 명시된 이사 및 감사의 임기 2년이 경과함에 따라 신임 임원을 선출하는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1974년 평택문화원 제1차 임시총회는 9월 27일 오전 11시 평택문화원 문화관에서 전체 회원 45명 중 36명이 참석했다. 회의 안건은 이사 선출 단일 안건으로 열렸다. 창립총회 참석자는 민형식, 이민홍, 박승길, 박희열, 김현옥, 양계탁, 이종성, 이경배, 유천형, 김만수, 장복환, 정란섭, 이경일, 조교형, 김관수, 정민모, 서용석, 우관재, 김찬규, 김용무, 박상규, 김철수, 최충조, 이규철, 방진호, 김석배, 강만섭, 서성걸, 이상순, 이계호, 이주상, 김창복, 노영복, 김진택, 한상우, 곽영노 회원이었다.

제1차 임시총회에서는 개회선언과 국민의례에 이어 사회자의 개회사, 문화원장 인사, 이사 선출, 기타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평택문화원은 1971년 5월 창립 이사 9명을 문화공보부에 등록을 필했으며, 이후 정관에 정해진 이사 임기 2년이 만료됨에 따라 이사를 새롭게 선출해야 했다.

민형식 평택문화원장은 인사말에서 "회원여러분이 항상 문화사업의 일선 요원으로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은데 감사드린다. 오늘 회의는 이사 선출 회의로 되어있다. 그동안 9명의 문화원 창립 이사가 문화원을 설립하여 기반을 닦는데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준데 감사드린다. 정관상 이사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있어 부득이 이사를 새로 선출하게 되었다. 평택문화원은 현재 문화사업을 할 수 있는 문화의 전당으로서 제반 시설, 장비 등 운영에 있어 커다란 사업에 많은 애로를

안고 있다. 좀 더 문화사업에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이사를 회원여러분이 선출하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시총회의 부의안건인 '이사 선출의 건'은 민형식 원장이 의장으로 선출되어 진행했다. 원장을 제외한 9명의 이사 선출 방법은 정진모 회원의 발의에 의해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되 5표 이상 득표자를 이사로 선출하는 것에 대다수 회원이 동의했다. 단, 5표 이상 득표자가 9명에 미달할 경우는 추후 문화원을 운영해가며 부족한 이사를 총회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만장일치 의결했다.

정진모, 서용석 회원이 투표 및 개표위원으로 선출되어 진행된 이사 선출 투표에서는 정란섭(유임), 장복환(유임), 이경배(유임), 박승길(신임), 방진호(신임, 감사) 5명의 회원이 이사로 선출됐다. 당초 이사 9명을 선출하려는 계획은 이사 5명으로 확정됐으며, 향후 추가로 선출하는 것으로 조정하면서 1974년 평택문화원 제1차 임시총회를 마쳤다.

심임 박승길 이사는 1937년 경기도 평택군 포승면 석정리에서 태어나 재향군인회 평택군연합분회 사무국장, 반공연맹 평택군지부 홍보간사, 평택문화원 사무국장, 민주공화단 경기제5지구장 선전부장을 역임했으며, 거주지는 평택군 평택읍 비전리이다.

방진호 감사는 1920년 평안북도 의주군 의주읍 출생으로 평택협신토건사 전무, 사회사업 평애원장, 밥부부 갱생보호위원 평택지구 이사장, 평택경찰서 자문위원회 위원장, 전국외기노조 오산지부 상임고문, 학교법인 한성재단 운영이사를 역임했으며, 거주지는 평택군 송탄읍 신장리이다.

이었다.

정기총회는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1974년도 예산결산 및 사업보고, 1975년도 예산수립, 1975년도 사업계획 수립, 이사 선출(추가 선출), 기타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1974년도 예산 결산 및 사업보고와 1975년도 예산수립 및 사업계획 수립은 사무국장의 제안설명이 있는 후 원안대로 승인됐다.

이어 진행된 이사 선출은 '사단법인 평택문화원 정관' 제3장 임원, 제12조 임기에 명시된 이사 및 감사의 임기 2년이 1974년 11월 27자로 경과함에 따라 정관에 명시된 원장 및 부원장을 포함해 이사가 11명 가운데 부족한 4명을 추가 선출하기로 회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4명의 추가 이사 선출 방법은 김진택 회원의 발의에 의해 의장인 문화원장에게 이사 추천을 위임해 원장이 신임 이사를 추천하면 총회에서 거수로 신임을 묻는 것으로 만장일치 결정했다. 이날 민형식 평택문화원장이 추천한 신임이사는 평택읍 김시호, 송탄읍 홍명섭, 오성면 황삼성, 팽성면 안준호 회원으로 참석회원 28명 가운데 26명이 찬성해 김시호, 홍명섭, 황삼성, 안준호 회원을 신임 이사로 선출하는 것을 의결하는 것으로 정기총회를 마쳤다.

심임 김시호 이사는 1925년 개성시 북안동에서 태어나 제1관구 경찰청 청단경찰서, 인천수상경찰서, 경기도경찰국, 평택경찰서에서 근무했으며, 거주지는 평택군 평택읍 평택리이다.

신임 홍명섭 이사는 1929년 경기도 개풍군 남면에서 태어나 교통부 인천공작장, 동아일보 송탄지국장, 평택북부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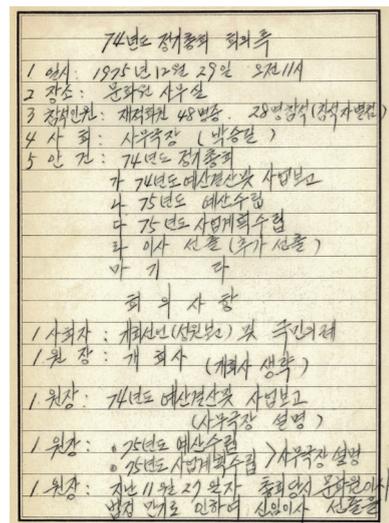


평택군민 노래자랑대회(1975년)

문기자단 단장, 삼보극장 대표, 국제로타리 송탄클럽 회장, 한성학원 운영이사장 등을 역임했으며, 거주지는 평택군 송탄읍 신장리이다.

신임 황삼성 이사는 1926년 경기도 평택군 오성면 안중리에서 태어나 줄곧 출생지에서 거주했으며, 대한청년단 오성면단 부감찰부장, 국방부 본부사령실 문관, 안중리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오성면체육회장, 중앙일보 안중지국장, 평택군체육회 이사, 평택군농업협동조합 이사 등을 역임했다.

신임 안준호 이사는 1929년 경기도 평택군 평택읍 비전리에서 태어나 고려개발주식회사 근무,



평택문화원 1974년도 정기총회 회의록 (1975년 12월 29일)

(2) 1974년 평택문화원 정기총회(1974년 12월 29일)

평택문화원은 1974년 12월 29일 1974년도 평택문화원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1974년 평택문화원 정기총회는 12월 29일 오전 11시 평택문화원 사무실에서 전체 회원 48명 중 28명이 참석했다. 회의 안건은 1974년 사업 결산, 1975년 사업계획 승인, 이사 선출 등이 다뤄졌다. 정기총회 참석자는 민형식, 박승길, 이경배, 장복환, 정란섭, 정진모, 김시호, 황삼성, 김현욱, 방진호, 서용석, 서성걸, 이상순, 김진택, 박희열, 김만수, 김관수, 조교행, 이종성, 최충조, 조중환, 곽영노, 김철수, 이계탁, 노영복, 김천수, 박상규, 유천형 회원

동양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를 역임했으며, 거주지는 평택군 팽성면 안정리이다.

(3) 사단법인 평택문화원 제2기 임원 현황

1974년 9월 27일 개최한 평택문화원 제1차 임시총회와 12월 29일 개최한 평택문화원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제2대 평택문화원 임원은 이사에 민형식, 정란섭, 장복환, 이경배, 박승길, 김시호, 홍명섭, 황삼성, 안준호 등 9명과 감사에 방진호 등 모두 10명이다.

제2대 평택문화원 이사와 감사 등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책	이름	출생년도	출생지	거주읍·면	직업
이사(원장)	민형식	1931	경기도 양주군	평택읍 평택리	평택군체육회 부회장
	정란섭	1928	경기도 평택군	평택읍 평택리	경원기업주식회사 상무
이사	장복환	1921	경기도 평택군	평택읍 평택리	한국반공연맹 평택군지부장
	이경배	1932	경기도 평택군	평택읍 비전리	평택군농협 조합장
	박승길	1937	경기도 평택군	평택읍 비전리	평택문화원 사무국장
	김시호	1925	개성시 북안동	평택읍 평택리	평택경찰서 근무
	홍명섭	1929	경기도 개풍군	송탄읍 신장리	삼보극장 대표
	황삼성	1926	경기도 평택군	오성면 안중리	안중리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안준호	1929	경기도 평택군	팽성면 안정리	동양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감사	방진호	1920	평안북도 의주군	송탄읍 신장리	평택경찰서 자문위원회 위원장

3) 1978년 사업과 활동



평택문화원-KBS 팔도대항 평택군편(1982년 7월 9일)

평택문화원-KBS 팔도대항 평택군편(1982년 7월 9일)

평택문화원은 향토 민속문화 발굴과 전승·보존, 읍·면 마을단위 두레농악 활성화를 위해 1978년 10월 11일부터 1980년 10월 5일까지 매년 한 차례씩 읍·면 대항 농악경연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꾸준히 실력을 쌓은 평택농악은 1981년 3월 3일에는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는 합동민속퍼레이드에 참가할 수 있었으며, 1981년 5월 29일에는 국풍81 큰잔치, 1981년 12월 29일에는 팔도민속놀이 큰잔치에도 출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1982년 7월 9일에는 KBS TV 팔도대항에 두레싸움으로 출연하였다.

평택문화원은 1978년부터 매년 10월 5일 '평택군민의 날' 행사를 주관하였다. '평택군민의 날' 행사는 평택군이 주최하고, 행사 프로그램 진행과 심사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평택문화원이 주관하였다. 그리고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후원과 각 경제사회단체와 체육단체가 후원하여 대회를 운영하였다. 평택군에서 개최되는 가장 큰 규모의 문화·체육행사인 '평택군민의 날' 행사는 평

택시 비전동 구. 평택공설운동장과 평택공업고등학교, 안중종합고등학교, 진위상업고등학교, 청담종합고등학교 등 평택군 권역별로 학교 운동장을 매년 차례로 순회해 개최하였다.

행사 프로그램은 입장식으로 시작해서 국민의례와 표창이 끝나면 각종 읍·면 대항 체육경기 와 한·미 친선경기가 펼쳐졌다. 그리고 민속놀이와 백일장, 시조경창, 미술, 휘호경연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진행되었다. 군민의 날 행사에는 'KBS 특집방송'을 유치하기도 했는데 이로 인해 많은 군민에게 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1984년 당시에는 24만 군민의 단합과 친목이 승화되는 열띤 축제현장이었다.

○ 평택문화원 역대 원장

대수	이름	임기
제3대	이주상	1978년 2월 25일~1982년 11월 31일

4) 1980년대 평택문화원

1980년대 들어 전통문화를 강조하고 향토문화 육성을 위해 활동하는 문화원의 중요성이 재인식 되자 정부에서는 1982년부터 문화정책에서 문화원의 활성화를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문화원의 역할에 전통문화발전, 보존, 전승을 위해 이를 주민에게 교육시키는 기능까지 폭 넓은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병남단오제 씨름경기(1980년대)

이러한 기초에 힘입어 평택문화원도 1980년부터는 매년 1회씩 학교미술 전시회, 일반미술 전시회, 일반서예 전시회, 사진 전시회, 유치원 작품전시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중앙의 국립합창단 초청공연과 연극공연을 주관하는 등 지역의 문화예술 부흥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1980년 홍보사업으로는 각종 홍보물의 배포, 전시, 계도활동, 홍보영화 상영, 시국강연, 강좌 등을 개최하였다. 문예 진흥사업으로는 향토문화제 주관, 문예 진흥 일반 활동으로 백일장, 문학강연, 발표회, 미술 실기대회와 강좌, 전시회, 시조경창대회, 경연대회, 농악, 고전무용, 각종 문예서클 지도 등을 주관하였다. 전통문화 선양사업으로는 향토전통문화 발굴, 정리, 보존, 향토생활

문화자료 조사, 보존, 향토애와 향토문에 진흥 소식지 발간, 향토사지 편찬 또는 편찬대행 등의 활동을 하였다.

도서관 사업으로 자체 도서관을 운영하였고, 공공도서관의 관리를 대행하였다. 매년 도서관에는 독서인구가 늘어나 연간 이용자가 15만 명에 이르렀다.

사회교육 활동으로는 노인교실 개설, 가족계획이나 식생활개선 등의 부녀교실 개설, 청소년 문화강좌, 서도나 미술·음악과 같은 문예교습소 개설, 마을문고와 독서지도 등의 활동을 하였다. 문화 복지활동으로는 시설의 복지 활용, 불우이웃 직업보도 활동, 이웃돕기 계도 등의 활동을 하였다.

국제문화교류 활동으로는 일본의 사회교육단체 및 공민관과의 교류, 주한 외국 문화기관과의 교류 등을 추진하였다. 1980년부터 학교미술전시회, 서예전시회, 일반미술 전시회, 일반 서예전시회, 사진전시회, 유치원 작품전시회 등이 매년 1회씩 연중행사로 개최되었다.



제9회 평택군민의 날 기념행사 및 제2회 군수기쟁탈 읍면대항 농악경연대회(1980년)

1982년도 평택문화원 예산을 살펴보면 평택군비 500만원, 경기도비 100만원,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보조금 70만원, 상공회의소와 애국단체 및 기타 찬조금을 합하여 전체 1000만원으로 목적사업과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1984년에 발간한 《평택군지》에 의하면 평택문화원은 향토문화의 개발보급, 자유우방과의 문화교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의 시책과 업적 선양, 향토개발연구, 영화·도서·간행물을 통한 계몽, 기타 본원 목적수행 상 필요한 사업 등을 추진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문화원은 향토문화를 발굴·정리하고 향토사를 펴내는 활동을 통해 각 지역의 향토문화 의식을 고취시키고 향토축제를 정착시키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지역에 따라서는 청소년 선도와 평생교육 진흥에도 많은 공헌을 하였다. 문화 활동이 중앙에 집중화되어 있어 지방문화육성이 시급한 때에 각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세워진 문화원을 중심으로 지방의 특수한 문화자료를 발굴, 조사, 정리, 보존, 보급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문화원이 그러한 과업을 모두 수행하기에는 경제적이나 사회적 여건이 여러모로 부족하였다.

○ 평택문화원 역대 원장

대수	이름	임기
제4~6대	김창복	1982년 12월 1일~1993년 2월 25일

5) 평택군립도서관 및 전시장 운영

1980년대 이전 문화예술 공연과 발표의 장으로 활용되던 곳은 평택읍사무소 옆에 있는 ‘평택복지관’과 평택문화원 전시실, 평택읍 비전리 평택우체국 강당 정도였다. 당시는 평택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도 그리 많지 않았다. 초·중·고등학교 음악 교사와 미술 교사 중심의 동아리 활동이나 학생 예능활동이 지역 문화 예술의 주류를 이루었으며, 연간 한두 차례 정도 출향 예술인 초청공연이나 초대전 등이 열리는 정도에 불과하였다.

현재의 NH 농협은행 평택시지부 대각선 맞은편에 위치했던 평택읍 평택리 평택읍사무소 민원실 옆 평택복지관은 1960년대 건축한 건물로 공연 및 다중 집합 시설이었다. 복지관은 당시 유일하게 무대와 경사진 객석, 2층 객석과 조명, 음향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 각종 공연과 학생 행사, 경연대회, 시국 강연회와 안보 강연 등에 활용되었다. 그러나 시설이 노후화되어 1992년에 폐쇄한 후 철거하였다.

평택문화원은 평택읍사무소 옆인 평택읍 평택리 63번지에 위치해 있었다. 1층에는 165㎡(50평) 규모의 전시실이 있어 미술전시회와 우표, 사진전시회 등의 공간으로 활용했으며, 2층에는 165㎡ (50평) 규모의 평택군립도서관을 위탁 운영해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였다. 평택문화원에서 운영한 평택군립도서관은 각급 학교에서 운영한 학교도서관 이외의 평택지역 최초의 공공 도서관이었다. 그러나 1986년 평택읍이 평택시로 승격되면서 청사 공간이 부족해지자 평택문화원과 도서관은 합정동 평택공설운동장으로 이전했으며, 기존 평택문화원사가 평택시 행정 공간으로 바뀌면서 폐쇄되었다.



평택문화원 원사와 평택군립도서관, 미술전시관 (1980년대)



평택문화원 주최 제2회 새마을학생미술작품공모전 (1977년 6월 7일)

1984년 평택문화원 소식지로 발간한 《소사벌》 창간호에 실린 평택문화원 전시실 행사를 살펴 보면 5월 청담중·종합고등학교 부처님 오신 날 기념 전시, 6월 황창국 소장품인 동권 전시, 한국미협 평택군지부 서화 전시, 르리슴 크림 한미 2인전 등이 진행되었다. 또한 9월에는 평택군교육청의 평택군중·고등학교 미술실기 전시와 반공연맹의 반공사진전시, 10월에는 두암서예학원전과 르리슴크림 사진전, 10월에는 한전 분재전시, 11월에는 평택 유아원전과 문예진흥기금 조성 한국화 전시, 평택동중학교(현 신한중학교) 미술전, 한광중학교 미술전시, 한광여자고등학교 미술전시, 동일공업고등학교 서화전시 등 다양한 전시를 개최하였다. 11월 3일에는 단비합창단이 평택문화원의 후원으로 평택복지관에서 ‘제7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하였다. 12월에는 삼정정밀 사진전시와 함성유치원 전시, 한광중·고등학교 미술전시가 평택문화원 전시실에서 개최되었다.

6) 평택군민의 날과 소사벌백중놀이



제10회 평택군민의 날 및 군민위안 KBS 가요쇼 (1981년 10월 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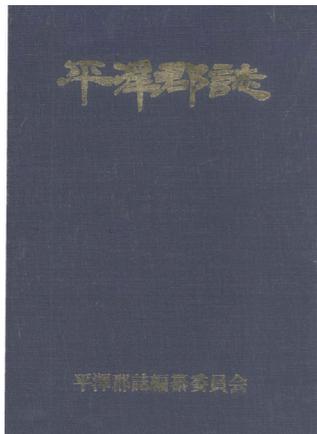
제4회 소사벌 백중놀이 평택농악 공연(1988년 10월)

1985년 평택문화원은 국가 차원의 지방 문화예술 활성화 계획에 힘입어 그해 10월 12일에는 문화행사 경연을 평택군민의 날 행사와 축제행사로 병행해서 실시하고, 10월 30일 평택군민의 날 행사장에서 군민의 날 추진위원장인 평택군수가 시상하였다.

1985년 8월 31일 평택문화원은 우리나라 고유의 세시풍속 중 하나인 백중놀이를 재현하기 위해 평택기계공업고등학교 교정에서 ‘제1회 소사벌백중놀이’를 개최하였다. 이날은 씨름과 농악경연 대회를 함께 했는데 1985년 당시 농악경연 1위는 팽성농악단, 2위는 포승농악단, 3위는 오성농악단이 차지하였다. 씨름 단체전 초등부 1위는 성동초등학교, 중등부 1위는 포승중학교, 고등부 1위는 평택기계공업고등학교가 차지했고, 성인부인 읍·면대항전 1위는 포승면이 차지하였다.

7) 《평택군지》 편찬

평택문화원은 평택군의 지원으로 1981년 11월 《평택군지》 발간을 위해 편찬위원회를 발족하고 3년 만인 1984년 11월 30일 책자 발간을 완료하였다. 《평택군지》는 평택군의 지리, 역사, 정치, 행정, 산업,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교육, 문화재, 민속과 전설, 성씨와 인물 등 다양한 내용을 세 부적으로 수록하였는데, 지역의 역사를 후대에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지역 원로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평택군지(1984년 11월 30일)

《평택군지》는 1981년 4월, 평택지역의 원로 인사들인 박남규, 박상만, 최영화, 김항권, 최준화, 차관영, 그리고 당시 문화원장인 이주상 등이 모여 평택군지 발간에 대해 논의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들은 《평택군지》 예산 확보를 위해 평택군수와 경기도지사를 찾아가는 등 발로 뛰며 노력하였고, 그해 11월 17일 군민의 숙원을 이해한 강도희 평택군수의 용단으로 ‘평택군지편찬위원회’를 발족하게 되었다. 편찬위원회 기구가 구성되자 박성광 인하대학교 교수를 초빙하여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자료조사 위원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교육과 함께 편찬업무에 돌입하였다.

평택군지편찬위원회는 사업진행 전부를 평택문화원장에게 일임하기로 결정하고, 상임위원으로 차관영 등과 간사로 평택문화원 사무국장을 위촉하였다. 이처럼 진행 주관 기관이 정해지자 편찬계획과 집필 기반조성을 위한 심층자료 모집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당시 평택군에는 기초자료가 될 만한 것이 많지 않았다.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팽성읍지》, 군에서 확보하고 있는 마을 연혁 대장과 지명 조사대장, 평택군 통계연보 등이 고작이었으므로 그야말로 자료의 불모지였다.

위원회에서는 심층자료를 모집하기 위해 각 읍·면 지역별로 인근 소재 중·고등학교 교사들 중 10명을 뽑아 조사위원으로 위촉하였다. 또한 60여종의 소재에 대해 자료모집을 의뢰하는 한편 각 공공기관, 단체, 기업체, 종친회, 개인에 이르기까지 약 600여점의 자료제공을 요청하였다. 공청회와 고중 간담회 16회, 기타 협의회 등을 열어 자료를 모았고 약 115명의 관련 인사들을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러나 아무리 역량을 발휘하려 해도 기초자료가 부족한 탓에 역부족일 수밖에 없었다.

타 지역에서는 대개 그 지방에 있는 대학교 교수들에게 위탁하거나 문인들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평택지역에서는 이러한 여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이에 집필위원으로 교육감과 중·고등학교 교장으로 정년퇴직한 김종화와 우기종이 집필에 참가하기로 결정되면서 1982년 11월부터 본격적인 집필활동에 들어갈 수 있었다. 1983년 1월에는 전 언론인이자 족보분야에 조예가 있는 이기철을 보강하였다. 책자 교정은 청담중고등학교 교사 박길우, 배명주, 주병춘, 김양원, 김혜옥 등이 맡았다. 1차 감수는 향토사라는 측면에서 평택지역 원로이자 교육계 중진인 박남규 청담고등학교 교장과 포승면 출신 최세화 교수, 인쇄 교정은 봉명군이 맡았다. 당시 집필위원들은 대부분 비전문가들로 구성되었으나 기록이라는 측면에서 소박하게 지역의 역사를 담는다는 목표로 힘을 기울였다.

당시 김창복 평택문화원장이 쓴 《평택군지》 발간사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조국의 역사와 함께 동반자로서 성장하여 온 평택은 언제, 어떻게 뿌리를 내렸으며 온갖 풍상을 겪으며 지탱해 왔나, 그리고 오늘의 번영을 걸어왔는지, 고향을 가진 모두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말하기를 역사란 한 민족의 이정표라고도 하고 혹은 거울이라고 하였다. 우리는 조상들이 역사의 뒀안길에서 어떻게 부딪치고 삶의 애환을 누벼왔는지, 오늘의 후세들은 알아야 할 본분이 있다고 본다. 이것은 애항심을 복돋고 또한 조국을 사랑하게 되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오래전부터 평택에도 다른 군들과 같이 후세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문화유산으로 향토사가 있어야 하겠다는 숙원의 소리가 높아져 왔다. 오랜 숙원은 드디어 1981년 11월에 당시 강도희 군수 주도로 편찬위원회가 발족하는데 이르렀고 산파역에는 평택문화원이 맡아 발간작업에 착수하게 되었다. 이로써 잉태한지 햇수로는 4년, 만 2년 만에 비로소 산고를 겪어 평택의 혼과 얼이 담긴 한 권의 군지를 초산하는 장이 되었다.

설군 유사 이래 창간됨을 다행으로 생각하나 제약된 지면과 시간 속에서 모든 것이 미흡하기만 하다고 본다. 평택을 八無地라고 하는 그 진원은 알 수 없으나 누군가의 자조적인 비어가 떠돌아 전해왔을 것이다. 그러나 오솔길에서부터 깨어져 뒹구는 기왓장 하나에 이르기까지 조상들이 스쳐간 숨결과 내음을 파고 닦아본 이 소박한 기록을 들고 자성해 보면 팔무지란 말은 어리석기만 하다.

진위안성 두 강물이 하나로 흘러 푸른 서해물결이 구비치고, 고운 솔뭇들, 아늑한 산지

며 옥토로 바뀐 광활한 평야는 낙토임에 틀림없다.

여기다, 삼국시대에 시새움이 깔린 역사와 임진왜란을 비롯해서 청일전쟁 격전지로 그 전적을 자랑하는 소사벌의 고장이기도 하다. 격변하던 여명기에는 인근 양성을 거점으로 한 선조들의 의병활동으로 항일운동의 기백을 남김없이 떨쳤던 사실들과 종교적으로는 일찍이 천주교의 개화를 받아들인 곳이기도 하다.

문·무맥의 반열을 보아도 세도와 권욕에 어두워 급급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으며 담담하고 청빈했으며 義節을 생명보다 중하게 지켜왔던 셋별 같은 문무의 명현들이 태어났다. 그 중에는 성리학자 조광조나 순절한 삼학사 중 홍익한, 오달제 등이 자라난 곳이다 그 외도 충신 효자, 열녀들의 향취가 서려 있으며 또한 옷다리 풍물인 경기농악의 발상지이기도 하다.

자랑스러운 선조들의 그 발자취를 만끽할 때 우리는 그 열을 이어받아 약속된 땅에서 번영을 누려야 하겠고 선진조국의 원동력으로 삼아야겠다.

끝으로 군지가 나오기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정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관들과 그리고 편찬위원, 집필위원, 교정 및 감사위원 들에게 뜨거운 경의와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⁸⁾

《평택군지》는 4×6배판으로 1,000권을 인쇄하였다. 그리고 소장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권당 25,000원에 판매하였다. 평택문화원은 발간 이듬해인 1985년 4월 9일 오후 5시 평택문화원 전시실에서 4년여 만에 완성된 군지 발간을 축하하는 행사를 개최하였다. 축하 자리에는 평택군 각 기관장, 사회단체장, 평택군지편찬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했으며, 이정구 평택군수는 집필위원을 맡아온 김종화, 우기종, 차관영, 이기철 등에게 감사패와 기념품을 전달하고 그간의 노고를 위로하였다.

《평택군지》는 1,000권만 만들어 배포하였기 때문에 4년이 지난 후에는 책자를 소장한 사람이 극히 드물었다. 때문에 평택문화원은 4년 뒤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소사벌》 책자 내용에 군지에 담긴 평택의 역사 등 일부를 발췌해 삽입하였다.

[평택군지편찬위원회 위원]

▶ 고문 : 유치송(국회의원), 이자현(국회의원), 김영광(국회의원) ▶ 자문위원 : 김태경(농어촌

8) 《평택군지》 중 김창복 평택문화원장 발간사, 1984년 12월.

개발공사 사장), 서태원(전. 도의원), 최재의(유지), 이병찬(유지), 김항권(전.군정자문위원장) ▶ 위원장 : 이정구(평택군수) ▶ 부위원장 : 이주호(평택경찰서장), 박한동(평택군교육장) ▶ 상임부위원장 : 김창복(평택문화원장) ▶ 상임위원 : 박남규(청담고등학교장), 최영화(평통평택군협의회회장), 차구환(송탄시행정자문위원장), 최준화(군행정자문위원장), 정시우(평통자문위원), 차관영(전. 사회교육운동가) ▶ 위원 : 홍성걸(한광고등학교장), 권오겸(진위상업고등학교장), 박영준(평택상공회의소 사무국장), 박세홍(평통자문위원), 허홍(안중종합고등학교장), 이무용(은혜여자고등학교장), 김우룡(효명종합고등학교장), 이재열(안일여자고등학교장), 이신구(오성중학교장) ▶ 분야별 집필위원 : 우기종(전. 중고등학교장/행정·교육·고대역사), 김종화(전. 교육장/일반문화, 문화재, 유적지, 종교, 전설, 근세역사), 이기철(전. 언론인/세거성맥과 인물), 차관영(전. 사회교육운동가/지리·정치·사회·산업경제·민속·마을연혁·현대역사), ▶ 교정위원 봉명근(농촌진흥청 내 농진회 이사) ▶ 표지제자 조성락(평택죽리서예학원장) ▶ 감사위원 : 박남규(전 교육장, 도교육위원, 현 청담종합고등학교장), 박길병(청담종합고등학교 교사), 배명규(청담종합고등학교 교사), 주병준(청담종합고등학교 교사), 김양원(청담종합고등학교 교사), 박혜옥(청담종합고등학교 교사), 이경우(전. 과학지 편찬위원)

2. 무형문화자원 발굴 및 전승

1) 평택농악 발굴 및 육성

(1) 평택농악 발굴과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평택문화원 정관’ 제1장 총칙, 제4조 사업에 명시된 가장 중요한 목적사업은 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이다.

평택문화원 1971년 창립 이후 지역의 역사를 기반으로 한 고유문화와 향



제21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평택농악 참가 평택군청 시범공연 (1980년 9월)

토사 발굴 및 계승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그중에서도 전통 무형문화유산을 발굴하고, 계승 발전시키는 사업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전통 무형문화유산 발굴, 계승사업은 정부와 경기도 주도로 진행되는 민속예술경연대회 출전을 위한 전통 민속예술의 발굴과 보존이 그것이다.

평택은 오래전부터 국보급 예인들이 수없이 많이 배출했던 곳이다.⁹⁾ 평택은 동고서저 東高西低 지역으로 동쪽에서부터 중심부까지는 논농사와 밭농사를 주로 경작했다. 서쪽으로는 바닷가에 접해있어 고기잡이를 위한 풍년, 풍어, 무사안녕 등 기원 祈願과 기복 祈福의 문화가 발달했으며 이 때문에 무속음악인 굿음악이 흥했다.

이 같은 지리적 여건을 배경으로 평택에서는 소리와 기악, 춤, 풍물 등 많은 예인들이 배출됐다. 모흥갑, 지영희와 같은 이름만 들어도 쉽게 알만한 전통 예술인들을 배출한 고장이 평택이며, 남사당과 웃다리농악, 경기도도당굿을 주도해온 전통예술의 본류로 다른 지역에까지 그 영향을 주어 우리나라의 전통예술을 몇 단계 끌어올리는데 영향을 준 고장이 바로 평택이다.

평택문화원은 1980년 초 경기도의 협조 요청에 따라 웃다리농악으로 대표되는 평택농악을 그해 제주도에에서 개최하는 제21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경기도 대표로 출전하기로 하고 평택문화원 사무국에 전국대회 출전 준비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이주상 평택문화원장은 평택군 팽성읍 원정리에서 태어나 팽성읍 평궁리로 이주해 농사를 지으며 마을 두레패 상쇠와 전문연희패인 사당패에서 장고잡이와 비나리꾼으로, 쇠꾼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며 이름을 날린 최은창을 상쇠에 임명하고, 상법고에 이돌천, 부쇠에 김기복, 법고에 이민조와 김육동 등을 주축으로 농악단을 꾸렸다. 일반 단원들은 팽성읍 평궁리 주민과 평택·안성·천안·서울 등지에서 웃다리농악을 할 줄 아는 사람들로 모아 '경기농악'이라는 이름으로 '제21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전하였다.

대회에서 최은창의 농악 판제 기본은 경기·충청지역에서 주로 연행했던 남사당 판제인 웃다리 판제를 바탕으로 했으며, 판의 흥을 돋우는 상쇠놀이, 상모놀이, 무동놀이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평택만의 판을 완성해 갔다. 이런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평택농악은 1980년 9월 비전동 평택군청 광장에서 평택군수와 평택문화원 임원, 기관단체장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연회를 갖고 10월 20일 공식적으로 결성한 후 10월 29~31일 제주도에에서 열린 제21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경기도 대표로 출전했다.

이 대회에 출전한 단원들은 평택에서 활동해오던 최은창, 방오봉, 이민조, 송창선 등과 서울과

천안, 안성 등에 거주했던 이돌천, 유준, 김육동, 김기복 등 모두 32명으로 치배는 최은창과 절걸립을 함께 하거나 두령쇠로 이름을 날리던 사람들이었으며, 농기를 비롯한 기수와 잡색은 이주상 평택문화원장과 박승규 사무국장을 비롯한 문화원 임원이 맡았다. 연습은 최은창을 총감독으로 해 평택농악 판굿과 개인놀이, 무동놀이 등을 체계적으로 진행했다.

평택농악단은 이 대회에서 모든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고, 대통령상을 받을 것이라는 많은 사람들의 예측을 뒤로하고 단체 특별상과 뛰어난 개인기를 발휘한 호적수 송창선이 개인상을 받는 것에 만족해야 했다. 최은창을 비롯한 대다수 단원들이 프로급 수준의 기량을 보여주어 순수한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대회에 보유자급 예인들이 참여해 기세가 너무 완벽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북5도를 포함해 전국 16개 시·도에서 1,000여명이 출전한 이 대회에서는 개최지인 제주도의 '방앗돌 굴리는 노래'가 영애의 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평택농악 단원들과 경기도 공무원들이 반발하자 이를 달래기 위해 제주도지사가 직접 나서 제주도 일주 관광을 시켜주는 것으로 사태가 일단락되었다.

1980년 제21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경기농악이라는 명칭으로 경기도 대표로 출전한 평택농악단의 당시 구성원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 단장 : 이주상 평택문화원장
- 상쇠 : 최은창
- 단원 : 부쇠 김기복



제21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평택농악 참가 기념촬영(1980년 10월 31일)

9) 박성복, 평택인물지4 《평택의 전통예인》, 평택문화원, 2014.

1980년 제21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경기도 대표 출전을 계기로 실력을 인정받은 평택농악단은 1985년 12월 1일 상쇠 최은창과 수법고 이돌천이 국가무형문화재 제11-2호 평택농악 예능보유자로 지정받았으며, 이듬해인 1986년 12월 국가무형문화재 제11-2호 평택농악 보유단체로 평택농악보존회가 지정받게 되었다. 평택문화원의 발굴에 의해 평택농악단이 명실 공히 전통적인 윷다리농악의 가락과 판제를 이어온 것을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

평택농악은 경기·서울·인천·충청권 전역과 강원 영서지역을 대표하는 윷다리농악으로 전체 인구의 60%인 3200만 명을 대표하는 국가무형문화재이다. 평택농악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전문연희패 농악으로 국가무형문화재 제11-2호로 지정된 이후 현재 원형 보존은 물론 올곧이 전승해오고 있다.

(2) 평택농악의 체계화

평택농악이 평택은 물론 국가적으로 경쟁력 있는 전통문화자원임에도 불구하고 평택지역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지원도 미흡하다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지역사회 여론이 2000년대 초반부터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2004년 평택문화원을 중심으로 평택시의회, 행정, 시민이 참여해 ‘평택농악발전연구회’를 조직한 후 《평택농악의 전통 보존 및 발전적 계승 방안》¹⁰⁾ 보고서를 내는 등 연구 활동을 2년여에 걸쳐 진행했다.

당시 평택농악발전연구회장은 오용원 평택문화원장이 맡았으며, 오중근 부원장과 박성복 이사가 연구위원으로 활동했다. 이외에도 배연서 평택시의회 의장, 김용래 평택시 문화관광과장, 이종선 평택시 문화관광과 평택농악 담당 주무관, 이은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대표, 김양원, 김호환 평택농악보존회 단원이 연구위원으로 함께했다.

연구 과제는 평택농악의 정체성 확립 방안, 평택농악 현황 및 SWOT 분석, 평택농악 지원조례 제정, 평택농악마을 조성, 평택농악 축제개발, 효율적 홍보 방안 마련, 인적 인프라 구축, 평택농악 중장기 육성 방안으로 정해 현황 조사와 문제점 분석·사례 조사 등을 거쳐 발전적 방안을 만들어 나갔다.

이 프로젝트는 민·관·정 거버넌스로 지역사회의 특정 사안에 대한 연구와 발전 방안 모색·연구보고서를 발간한 평택지역 첫 사례이며 자치단체에서 이를 채택해 행정에 반영한 최초의 사례이기도 하다. 2005년 9월 29일에는 평택시의회 의원 발의로 우리나라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평

택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조례’를 제정했다. 이후 평택문화원에서 예산을 투입해 평택농악의 효율적인 홍보활동을 위한 CI 제정해 현재까지 활용하고 있으며, 평택농악을 비롯한 국가무형문화재 6대 농악이 한자리에 모여 판굿을 펼치는 ‘대한민국무형문화재축제¹¹⁾’ 개최, 2006년도부터 ‘상임단원 제도’ 시행, 2011년 11월 11일 평택호관광단지에 한국소리터와 평택농악마을 준공 등 대부분의 연구 성과들이 평택농악발전연구회에 의해 현실에서 적용되어 평택농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됐다.

(3) 평택농악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우리나라 농악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추진은 2011년 3월에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 제출을 시작으로, 2011년 3월에 2014년도 심사 우선순위 종목으로 선정, 2013년 6월에 2014년도 인류무형유산 심사 우선순위 유네스코 제출, 2014년 2월에 ‘농악’ 수정등재신청서 유네스코 제출, 2014년 10월 심사보조기구 최종 평가 결과 등재권고에 따라 온라인 공개 등의 절차가 진행돼 2014년 11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로 역사적인 과정이 이어졌다.

농악을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제출한 등재권고 사유는 “활력적이고 창의적인 농악은 일 년 내내 다양한 형태와 목적으로 많은 행사장에서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고 공연자와 참여자들에게 정체성을 제공하는 유산이며 농악의 등재는 인류의 창의성과 문화 다양성에 이바지함으로써 무형문화유산의 가시성을 높이고 국내외 다양한 공동체들 간의 대화를 촉진하는데 있다”고 명시했다.



농악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기념 평택농악 공연 (2014년 11월 29일)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은 관습·표상·표현·지식과 기술은 물론 이와 관련된 전달 도구, 사물, 공예품, 문화공간 모두를 의미하는 것이다.

2014년 11월 24~28일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본부에서 열린 ‘제9차 무형유산위원회’에서 우리나라에서 신청한 ‘농악’의 인류무

10) 평택농악발전연구회, 《평택농악의 전통 보존 및 발전적 계승 방안》, 2005.

11) ‘대한민국 무형문화재축제’는 2006년 처음 열린 이후 매년 10월 평택에서 개최되고 있다.

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2001년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이 첫 등재된 이후 판소리-강릉단오제-강강술래-남사당놀이-영산재-제주칠머리당영등굿-처용무-가곡-대목장-매사냥-줄타기-택견-한산모시짜기-아리랑-김장문화에 이어 국내에서는 17번째로, 국제적으로는 88개국 297번째로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는 영예를 안았다.

문화재청이 2011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처음 제출한 농악은 ‘평택농악’을 비롯해 국가무형문화재 6곳¹²⁾과 시·도 지정 무형문화재 등 26곳, 전체 32곳의 농악이 동시에 등재 신청됐다. 특히 평택농악은 경기·서울·인천·충청권 전역과 강원 영서지역을 대표하는 윗다리농악으로 전체 인구의 60%인 3100만 명을 아울러 우리나라 농악의 중심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윗다리농악의 대표성을 띤 평택농악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돼 우리나라 농악 가운데 가장 역동성과 연희성이 뛰어난 농악으로 국내무대는 물론 세계무대에서 정통성 있는 농악으로 더욱 가치를 인정받게 됐다. 이와 함께 세계인에게 당당히 내놓을 수 있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한 도시로 평택시의 브랜드 가치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평택농악이 2014년 11월 27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되기까지 평택문화원은 1980년 제21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경기도 대표 출전을 위한 민속 발굴과 육성, 1985년 국가무형문화재 제11-2호 평택농악 예능보유자 지정, 1986년 평택농악보존회의 평택농악 보유단체 지정, 2004년부터 평택농악발전연구회 활동을 통한 평택농악의 체계화 등 다양한 활동으로 평택농악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평택농악이 세계인과 함께하는 자랑스러운 공동체문화의 콘텐츠가 되고, 전통예술의 뿌리를 기반으로 하는 글로벌 예술의 시발지로 세계 음악을 선도하는 도시로 성장한데는 평택문화원의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3. 평택지역 예술단체 활동 지원

예총이 결성되기 이전인 1990년 전후 평택지역의 문화예술을 견인한 두 개의 축은 평택문화원과 송탄문화원이었다. 지방문화원은 전국 모든 지자체에 설립해야 한다는 법적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단체보다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지만 예총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에 필요

12)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6대 농악은 제11-1호 진주삼천포농악, 제11-2호 평택농악, 제11-3호 이리농악, 제11-4호 임실 필봉농악, 제11-5호 강릉농악, 제11-6호 구례잔수농악이다.

한 단위 예술단체의 지부 설립까지 전제되어야 했기 때문에 창립이 그리 쉽지는 않았다. 때문에 예총이 창립되기 이전까지 지역의 모든 문화예술 활동은 문화원이 주축이 되어 진행되었고, 그러한 문화적 토양이 탄탄해지면서 점차 평택예총 결성에도 싹이 움트기 시작하였다.

평택문화원에서 운영하던 전시실은 평택지역 예술인들이 다양한 전시를 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주었으며, 평택문화원을 주축으로 진행하던 다양한 사업들은 지역민들에게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기에 충분하였다.



제2회 문예작품 및 제3회 미술작품 시상식(1978년 9월 8일)

평택지역에 평택예총이 설립된 것은 1989년 12월 31일로 평택시와 평택군에서 활동하던 예술인 협회가 모여 구성되었다. 송탄지역에 예총이 설립된 것은 그보다 6개월 후인 1990년 7월 1일이다. 그러나 예총을 구성하는 각 지부는 어느 정도 그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모여 결성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었던 만큼 지부를 구성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았다. 평택예총을 구성하고 있는 문화예술 단체가 지부로서 인준을 받은 것은 주로 1980년대이다. 각 지역에 예총지부가 결성될 당시는 이미 평택문화원과 송탄문화원이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던 시기였다. 문화원은 이들 각 예술단체를 적극 후원하거나 예술가 혹은 예술단체들이 공연이나 전시를 선보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었다. 예술가들은 협회가 구성되기 이전에는 개별 또는 소모임 형태의 단체로 활동하였으며, 문화원 전시실을 대관해 전시를 하거나 문화원의 후원으로 작품을 무대에 올리며 꾸준히 역량을 키워나갔다. 이처럼 1980년대 초기부터 평택문화원의 활동이 왕성해지면서 지역사회에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고, 이와 함께 각 문화예술 단체 및 개인의 역량도 함께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예총 결성에 대한 의지도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문화원의 주된 사업 분야인 전통문화와 관련한 평택농악이나 평택민요 등은 문화원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 속에서 성장하였다고 볼 수 있다. 평택문화원은 1977년 평택농악의 우수성을 전승하기 위해 평택농악대를 다시 창설했으며, 그해부터 평택군 읍·면 대항 농악경연대회를 개최하

였다. 그리고 이듬해인 1978년 10월 11일부터는 매년 한 차례씩 읍·면 대항 농악경연대회를 개최하였다.

1980년 10월 29일에는 제주도에서 열린 '제21회 전국민속예술대회'에 경기도 대표로 출전하여 관중들로부터 열광적인 환영을 받았다. 그러나 오히려 기능과 예술적인 면에서 프로에 가까운 걸립패라는 심사위원들의 평가로 인해 단체상은 받지 못했고 개인상만 받아야 하였다. 일찌감치 실력 면에서 인정을 받으며 성과를 쌓은 평택농악은 1981년 3월 3일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는 합동민속퍼레이드에 참가할 수 있었고, 1981년 5월 29일 국풍81 큰잔치, 1981년 12월 29일에는 팔도민속놀이 큰잔치에도 출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1982년 1월 1일 KBS-1TV 신년 특집프로그램인 '전국민속예술큰잔치' 경기도 대표로 출연하였다.



진술화우회 첫 야유회(1974년)

1987년 4월 19일 서울 놀이마당 외 13회 공연, 1988년 3월 1일 용인자연농원 개장 기념 공연 외 14회, 1989년 1월 3일 자연농원 공연 외 18회 공연, 1990년 2월 9일 평택시 고단체 고사공연 외 19회, 1991년 2월 1일 서울 놀이마당 공연 외 18회 등을 진행한 기록이 남아 있다. 팽성읍 평궁리에 전수관을 둔 평택농악은 한국외국어대학교를 비롯해 많은 대학에서 학생들이 봄·가을 합숙하며 전수를 받았으며, 방학을 맞아 배우려는 학생들도 많았다.

평택지역에서 가장 먼저 협회를 구성한 미술협회의 경우에는 평택 예술단체들 가운데 뿌리가 가장 깊은 만큼 평택문화원의 많은 협조 속에서 성장하였다. 미술분야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1973년

에 조직된 '진술화우회'를 들 수 있다. '진술화우회'는 최필규 회장을 중심으로 구근만·조성락·김영하 등이 활동했으며, 1974년까지 이어졌다. 진술화우회가 생길 당시는 사단법인 평택문화원 창립 시기로 지역의 문화예술에 대한 문화원의 역할과 지역적 활동들이 이들 단체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1975년경부터는 평택지역에 많은 사설 화실들이 생겨났다. 한광고등학교 미술 교사 박승남이 '박공화실' 문을 열었고, 김성주는 'K 화실'을 내는 등 화실이 점차 활성화되었다. 그로 인해 많은

학생이 미술대학에 진학하게 되었고, 역량 있는 지역작가들이 다수 배출되었다.

구근만은 1977년 사설 교습소인 '그린네 화실'을 운영하면서 많은 후진을 양성하였다. 평택읍 비전리에는 최유출이 경영하는 '예림미술학원'과 김영애가 경영하는 '고은미술학원'이 있었다. 평택 원평동 군문교와 안성천, 대추리평야를 배경으로 한 동요 '노을'의 작사가 이동진은 평택읍 평택1리에서 '맥 화실'을 운영하면서 20여명의 회원들에게 바가지공예와 입시지도, 중·고등학생들의 수채화 등을 개인지도 하였다. 이들은 평택군중학생미술실기대회 및 경기도중등학교학생미술실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홍익대학 미술대회에서도 특선,佳作, 입선을 휩쓸었다.¹³⁾

1976년에는 '평택미술동호인회'가 창립했는데 초대회장은 구근만, 부회장은 조성락이었으며, 회원으로는 이진록·양종석·최필규·김성수·백혜숙·노재익·박철수 등이 활동하면서 1979년까지 이어졌다. 이들은 주로 평택문화원 전시실에서 작품을 전시하였다. '평택미술동호인회'는 1980년에 다시 '평택청년미술인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이진록이 회장을 맡았고, 남기택 등으로 이어지면서 1982년 4월 24일 현재의 평택미술협회의 전신인 '평택미술인협회'로 발전하였다.

'평택미술인협회' 초대회장은 조성락이었으며 부회장 서재하·양계탁, 사무국장은 이진록이 선출되었고, 회원은 김영배, 박두원, 이계송, 김왕현, 전태탁, 홍윤기, 박용각, 최필규, 최창수, 이종석, 구근만, 홍현옥, 이인봉, 유용욱, 박석준, 정영화, 김행규 등 21명으로 구성되었다. '평택미술인협회'는 1982년 5월 27일 평택문화원 전시실에서 창립전을 가졌다. 평택미술인협회는 후원회도 있었는데 후원회 자문위원으로는 이주상 평택문화원장을 비롯해 허헌 평택군 공보실장, 최현규 평택교육청 학무과장, 조성구 평택치과 원장, 유병관 민통회장이 활동하였다. 평택미술인협회는 창립 1년 만인 1982년도 한국미술협회에 8명이 정회원으로 입회했으며, 대한민국미술대전 특선, 경기도



한국미협 평택지부전(1984년)

13) 《평택군지》, 1984년 12월 30일, 664쪽.

전에서도 금상을 받는 등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¹⁴⁾

평택문화원은 전시실을 활용해 지역사회에 전시공간을 제공하였는데 이곳에서는 각 학교의 전시회나 분재 전시, 예술가들의 작품전시 등이 이어졌다. 이러한 문화적 토양이 뒷받침되면서 1985년 4월 13일에는 한국미협 평택지부 결성과 함께 초대회장으로 동양화가인 조성락을 선출하였다.

평택지역에서 본격적인 문학 활동이 이루어진 것은 1960년대 '토요문학회'를 꼽을 수 있는데 '토요문학회'는 서인석을 중심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동인지를 펴냈다. 1970년에는 평택 출신의 시인 김대구가 학생 신분이던 1960년 초반 '문학의 밤'과 '시화전' 등을 주관했던 경력을 바탕으로 김창문, 전우용, 김남웅, 그리고 당시 평택에서 교사로 근무했던 김제현, 정의홍 시인 등을 만나 문학에 대한 뜻을 확인한 것이 시초였다. 이들은 역마차 다방에서 '평문(平文) 시화전'을 여는 등 지역에 문학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후 김남웅은 《현대문학》, 전우용은 《시문학》, 김창문은 '중앙일보'에 시조가 당선되어 등단하였다. 1980년에는 김충문, 전우용, 이철훈, 이운진 등이 동인으로 참여하여 《평택수필》을 창간하면서 초창기 평택의 문학계를 이끌었다.¹⁵⁾ 이들은 평택문화원이 주최하는 '문학의 밤' 행사나 전시실을 활용한 전시회, 평택문화원의 후원 등을 통해 기반을 더욱 탄탄하게 하였다.

지역에서 미미하게 활동하던 문학적 움직임은 1981년 1월 5일 '새물뿌리 문학동인회'가 창립되면서 활발하게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서인석과 김충문이 주축이 되어 만든 '새물뿌리 문학동인회'는 창립한 그해 10월에 평택문화원 전시실에서 '제1회 시화전'을 열었고, 1990년 3월에 동인지 《샘이 깊은 흐름》을 창간하였다. 이후 《봄이 오는 소리》, 《도시 봄나무》, 《새물뿌리》 등 네 권의 동인지를 펴냈다. '새물뿌리 문학동인회'는 매일 한 차례씩 모여 각자의 작품을 발표했으며 그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점차 등단 시인들을 배출하였다. '새물뿌리 문학동인회' 초대 회장은 '토요문학회'를 주관했던 서인석이 맡았고 김창문, 서재하, 정성채, 조성락, 김동경, 김양원, 서창교, 윤석란, 홍원기, 정희옥, 이필형, 윤옥희, 한철희, 조순영, 임미숙, 한유일, 박병욱 등 18명이 함께 활동하였다.¹⁶⁾

평택지역의 음악은 주로 학교음악과 교회음악으로 구분해 발전하였으며 문화원은 음악단체들의 공연을 주최, 후원하거나 혹은 대형 음악공연 등을 유치함으로써 지역의 음악 발전을 이끌어

나갔다. 특히 음악인들은 회의를 하거나 의사결정을 할 일이 있을 때 문화원 회의실에 모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1984년 평택동고등학교(현 신한고등학교) 동창회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테너 엄정행 초청음악회를 가졌을 때나 단비합창단이 11월 3일 평택복지관에서 제7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할 때도 평택문화원은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었다.

우리나라의 근대화 과정에서 유입된 서구음악은 일제강



한국예총 평택지부 헌판식(1990년 1월 9일)

점기를 거치면서 학교 교육과 맞물려 소위 지식인층을 대상으로 널리 퍼졌다. 동요, 가곡, 대중가요, 종교음악 등 서구의 음악 형태는 서민층에 쉽게 접목했고 널리 퍼져나가 국민의 의식 변화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기계문명이 급진적으로 발전하고 물질만능주의 시대로 흘러가면서 덕성과 정서교육이 강조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음악교육을 통해 정상화를 꾀하려는 움직임도 늘어났다. 문교부를 비롯해 경기도교육위원회나 평택군교육청에서는 음악교육을 강조하면서 각종 행사를 추진하였으나 큰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학교장의 관심과 의식 여하에 따라 지도교사를 확보하거나 악기를 마련하는 등 예산상의 뒷받침으로 음악교육에 성과를 올리는 학교도 있었다.

평택군교육청이 주최한 초·중·고등학교 합창경연대회가 매년 1회씩 개최되었고, 이런 행사들이 지속되면서 평택에서도 그에 맞는 음악 지도가 필요해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1960년대부터는 경제가 성장하면서 음악학원이나 피아노학원에 다니며 개인지도를 받는 학생들이 많아졌고 이러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점차 피아노학원과 사설 음악학원도 증가하였다.

평택지역 학교 중에서는 사립학교인 한광고등학교 홍성걸 교장이 음악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홍성걸 교장은 세밀한 계획과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예산 뒷받침으로 김종숙, 이창녕, 임미애 등 우수한 음악 교사를 확보했고 특히 거액의 예산으로 최신 고급 악기를 구비해 50인조의 밴드부가 활동할 수 있게 하였다. 그로 인해 합창부, 밴드부, 바이올린부 등이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한광고등학교는 1982년에는 전국 밴드부 경연대회에 나가 은상을 수상했으며, 1983년에는 금

14) 《평택군지》, 1984년 12월 30일, 663쪽.

15) 《평택시사 下》, 2001년 12월 30일, 972쪽.

16) 《평택예총》 제3집, 1993년 12월 30일, 54~55쪽.

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합창부도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졸업생이나 재학생들은 각자 교회에서 성가대로 활동하는 등 음악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다. 밴드부는 한광고등학교를 위시해 평택고등학교, 평택기계공업고등학교, 청담고등학교, 평택중학교, 안중고등학교, 평택성동국민학교 등이 있었다. 고적대는 규모의 차이는 있었으나 대부분의 국민학교에서 지도하였다. 밴드부와 고적대가 함께 있었던 학교는 평택여자중·고등학교와 안일여자중·고등학교, 한광여자고등학교 등이었다.

일반음악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인 것은 한광여자고등학교 음악 교사 김종숙이 지도하던 '단비음악단'을 꼽을 수 있다. 50명으로 구성된 '단비음악단'은 한광중·고등학교 교직원과 졸업생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어서 각자 교회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였다. '단비음악단'과 더불어 허미영이 지도하던 '샤론중창단'도 있었다. '샤론중창단'은 10명으로 구성된 중창단이었으며 이 단체 역시 주로 기독교인들로 구성되었다. 성가대는 교회마다 대부분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었다. 그중에서도 평택천주교 성가대 50명, 평택장로교 성가대 50명, 제일교회 성가대가 30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평택에서는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음악학원을 살펴보면 평택읍 평택리에 서영운이 운영하는 이화피아노학원이 있었고 비전리에는 김용희가 운영하는 선화음악학원이 있었다. 선화음악학원은 원생이 60명 정도였다. 오성면 안중리에는 최관열이 운영하는 우영피아노학원이 있었고 원생은 80여 명에 이르렀다. 송탄시에는 배우영이 운영하는 송탄음악학원이 있었다. 이외에도 개인 피아노학원도 곳곳에 있어 많은 학생이 음악 공부에 열중하였다.¹⁷⁾

송탄문화원은 소도시의 여건상 극히 적은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경기도문화상 수상자를 3명이나 배출했고, 이러한 문화예술 토양을 바탕으로 송탄문화원 창립 8년 만에 송탄예총도 창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¹⁸⁾ 송탄문화원은 문화예술의 불모지였던 송탄지역에 향토문화 발굴과 전통문화 계승, 문예 진흥 활동이 태동할 수 있는 씨앗을 뿌렸다. 그러나 창립 당시에는 예산이 없었으므로 이사들의 사비로 유지해나갔고, 이로 인해 많은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웠으며 규모도 크지 못하였다.

송탄지역의 문화예술 활동은 주민의 삶이 점차 윤택해지고 학교 교육의 관심이 청소년 문화 창달로 변모하는 1970년대 중반부터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다 1981년 7월 1일 송탄

17) 《평택군지》, 1984년 12월 30일, 676~677쪽.

18) 송탄예총, 《송탄예총》 창간호, 1992년 6월 30일, 83~86쪽.

읍이 송탄시로 승격되자 평택군 단위에서 활동하던 송탄지역 문화단체들은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여 송탄시의 범주 안에서 움직였으며, 그중에서도 송탄문화원은 문화예술의 불모지였던 송탄지역에 향토문화 발굴과 전통문화 계승, 문예 진흥 활동이 태동할 수 있는 씨앗을 뿌렸다. 특히 송탄문화원이 개최한 시조경창대회, 주부백일장, 전통국악인 초청 등은 새로운 차원에서 진행된 예총 창립의 기초 작업이었다.

송탄지역에서도 미술분야가 가장 먼저 예술의 싹을 틔웠다. 1983년 송탄문화원의 후원으로 미술대전을 개최하면서부터 미술인들의 모임이 태동하기 시작해 1990년에는 미술협회 송탄지부가 발족하였다.



송탄미술협회 창립전 회원(1980년)

송탄지역에서는 1950년대에는 미군기지를 중심으로 상업이 활성화되면서 예술분야에서는 주로 유화를 그리는 상업 화가가 성행하였다. 송탄미술의 초창기 자료는 1994년 발간된 《송탄시사》에서 엿볼 수 있다. 서양화가 김정식, 김영대, 서장호, 지선희, 한국화가 정지원 등은 1975~1976년 '송탄 여섯모임전'을 가졌으며, 1971년 목판회화를 하는 조순조, 그리고 1973년 서양화가 김정식은 첫 번째 개인전을 가졌다.

1975년경에는 동양화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송탄지역에 표구점들이 생겨났다. 1970년대 후반 일부 작가들이 모여 발족한 '송탄미술인회'는 발족, 전시, 해체를 거듭하다가 1980년 칠성다방에서 '송탄미술인 모임전'으로 첫 전시회를 가졌다. 1981년 7월 송탄읍이 송탄시로 승격된 기념으로 송탄관광호텔 로비에서 초대전을 가졌으며, 그해 8월에 '송탄미술인회'를 발족시켰다. 같은해 12월에는 '송탄미술인협회'를 정식 명칭으로 채택하고 창립했으며, 1982년 1월 4일부터 1월 11일까지 태양다방에서 창립전을 가지면서 또 한 번 송탄지역 미술문화의 활성화를 모색하였다. 당시의 구성원을 보면 회장 김현수, 정회원 김진원, 최광일, 김영대, 강은석, 이기주 등이 활동했으며 준회원은 정상업, 이기철, 김인숙 등이 활동하였다.

1984년 10월 20일에는 '제1회 송탄미술대전' 개최, 1987년 한일 아동미술작품 교류전을 개최

하는 등 지역의 미술 분야 확장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송탄문화원은 1984년부터 송탄지역 첫 예술단체로 결성된 송탄사진작가동우회를 후원해 매년 '시민사진촬영대회'를 진행하였다. 사진 분야의 새로움을 모색하던 사진인들의 열망에 힘입어 시민사진촬영대회는 많은 시민의 성원을 얻을 수 있었고 이러한 기반을 토대로 1988년 사진작가협회 송탄지부가 창립할 수 있었고 이것이 송탄예총 탄생의 기원이 되었다.

송탄문화원은 시조경창대회를 주최하면서 송탄지역의 시조활동을 이끌었다. 송탄지역의 시조 활동은 초창기 평택군의 활동 범주에 들어있었으나 1985년 정봉진 외 11명이 '송탄시우회'를 결성하면서 독자적인 활동을 이어갔다. 이들은 평택국악협회의 소속 단체가 되기까지 꾸준한 활동을 펼쳤으며, 송탄문화원이 주최하는 시조경창대회에도 꾸준히 참여하였다. 그러나 회원 대부분이 70~80대가 되었기 때문에 송탄시우회에서는 젊은 층을 대상으로 교육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¹⁹⁾



송탄문화원 후원 제1회 송탄시장기 쟁탈 경기인천지역 남녀 응변대회(1981년 12월 15일)



송탄문화원 후원 제8회 관인 송탄음악학원 신년음악발표회 (1989년 1월 14일)

송탄지역에서는 1970년대 들어서면서 문학인들의 개인적 활동이 시작되었으나 움직임은 빈약하였다. 문학분야의 활동은 주로 학교 교육을 통한 교지나 문예지 형태의 학예지, 교사 개인 시집 정도에 불과하였다. 송탄 출신의 시인 박석수는 1971년 대한일보 신춘문예에 시 '술래의 잠'으로 등단했고, 그의 동생 박용수도 1974년 같은 신춘문예를 통해 문단에 등단하였다. 1979년부터 1980년대 초에는 이성재 등이 주축이 되어 송탄읍민을 대상으로 시를 공모해 야외 시화전을 여는 등 문학 활동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지역의 메마른 문화예술에 시동을 걸었다.

19) 《송탄시사》, 1994년 9월 30일, 661쪽.

고등학교 교육을 통해 배출된 청년들이 시모임을 만들어 시화전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중반부터였다. 송탄여자종합고등학교에서는 1986년부터 9년간 학교 안에서 시낭송회를 개최했고, 학예지 '솔내음'을 간행하는 등 비록 작은 규모지만 향토문화 증대에 이바지하였다. 1981년 송탄읍이 송탄시로 승격한 이후부터는 송탄문화원이 주축이 되어 향토문화 창달 사업의 일환으로 1982년부터 시작한 '한글 백일장'을 비롯해 학생 백일장, 주부백일장, 시민백일장 등을 꾸준히 열어 특색 있는 송탄문화 조성에 밑거름이 되었다.²⁰⁾

송탄지역의 음악분야 발전에 있어서도 송탄문화원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작용하였다. 1989년 가을, 당시 송탄문화원장이던 최규용은 송탄에도 음악협회가 있어야한다는 생각으로 사람들을 규합하였고, 조직 규합에 큰 역할을 한 사람 역시 송탄문화원 이사였던 배우영이었다. 이들은 지역의 음악교사인 송인국을 통해 음악협회 구성에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참여시켰고, 그 결과 송인국, 정기배, 고신애 등을 중심으로 24명의 회원들이 모이게 되었다. 송탄음악협회는 1990년 4월 송탄 영천관광호텔에서 창립총회를 가졌으며 그해 5월 26일 인준을 받았다.

송탄지역의 음악은 주로 1950년대 주한미군기지 건설로부터 변화를 맞았다. 당시 송탄지역 청소년들은 미국식 음악에 젖어 들어 포크 컨트리, 웨스턴뮤직, 재즈, 록 음악 등에 익숙해졌고 송탄의 음악활동은 그들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타 도시보다 많았던 교회음악의 대중 전파도 무시할 수 없었다. 따라서 송탄지역에서의 음악 활동은 학교에서의 합창, 교회의 찬송, 청소년들의 팝송, 시민들의 대중가요 등 대부분 서구 음악이 차지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농요나 농악 등은 일찍부터 극소수의 농민층에 의해 전통음악으로만 존재하였다.

송탄지역에서는 1970년대 후반부터 전자음악을 시도하였고 1980년대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소위 헤비메탈이라는 보컬 활동이 유행처럼 번졌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일시적인 것으로 대중에게까지 큰 영향을 미치지지는 못하였다. 송탄지역 음악인의 활동은 1980년대 중반 이후가 되어서야 움직임이 있었다. 그 이전에는 대학생들에 의한 발표회, 교회나 중·고등학교 합창단 활동이 대부분이었다.

1984년 송탄문화원은 음악분야의 발전을 위해 경기도립교향악단 초청공연, 시민 가곡의 밤 등의 행사를 추진하며 시민에게 보여주는 음악 활동에 나섰고, 1985년 5월 18일에는 '제1회 시민을 위한 가곡의 밤'을 개최하였다. 송탄문화원 이사 겸 송탄 유일의 음악학원인 '송탄음악학원' 원

20) 《송탄시사》, 1994년 9월 30일, 662쪽.

장 배우영은 시립합창단 조직에 나섰다. 합창단에는 주로 각 교회 합창단 소속 단원과 합창에 관심 있는 시민이 단원으로 참여하였다. 배우영을 단장으로 1987년 10월 16일 '송탄시립합창단'이



한국예총 송탄지부 창립총회(1990년 4월 19일)

발족하였고, 잇달아 기타로 음악을 하던 '한음회'가 발족해 음악제를 개최하면서 송탄시민에게 무언가 변화되는 느낌을 주었다. 이러한 기조를 바탕으로 송탄문화원장이던 최규용은 송탄지역에 음악협회를 구성하겠다는 의지를 갖게 되었고, 결국 음악협회를 구성하여 예총 결성까지 이어지는 성과를 거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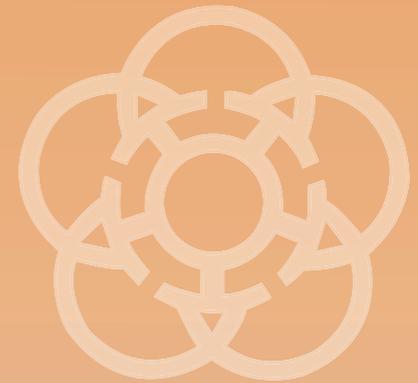
4. 평택문화원 개척기 연혁(1973~1985년)

1973년 1월 16일	지방문화원 사업자 신고서 제출(문화공보부, 경기도에 제출)
1973년 1월 30일	한국문화원연합회 회원 가입
1974년	문예진흥기금 지원 수혜
1974년 12월 29일	정기총회(예·결산 사업보고, 예산수립, 사업계획, 2대 원장 유임)
1978년 2월 25일	정기총회(3대 원장 이주상 선출)
1981년 8월 4일	송탄문화원 창립(제1대 이정우 원장 취임)
1981년 11월 17일	평택군지 편찬위원회 발족(위원장 이정구 평택군수·이주상 평택군문화원장)
1982년 11월 30일	이주상 원장 사퇴(민정당 경기 제10지구당 사무국장으로 부임)
1982년 12월 15일	정기총회(원장단 개편, 4대 원장 김창복 선출)
1984년 5월 8~12일	청담중종합고등학교 부처님오신날 기념 전시(평택문화원 전시실)
1984년 6월 9~12일	동권 전시(황창권 소장품, 평택문화원 전시실)

1984년 6월 15~19일	한국미협 평택군지부 서화전시(평택문화원 전시실)
1984년 6월 25~29일	리리즘 크럼 한미 2인전(평택문화원 전시실)
1984년 8월 18일	안중청년회의소 창립 제43주년 기념 미술실기대회 우수작품상 포상
1984년 9월 5~7일	평택중고등학교 미술실기 전시(평택군교육청)
1984년 9월 13~15일	반공사진 전시(반공연맹 평택군지부, 평택문화원 전시실)
1984년 10월 12~16일	두암서예학원전(평택문화원 전시실)
1984년 10월 26~29일	리리즘 크럼 사진전(평택문화원 전시실)
1984년 10월 20일	문화의 날 행사
1984년 10월 30일	한전 분재전시(평택문화원 전시실)
1984년 11월 1~2일	평택 유아원전(평택문화원 전시실)
1984년 11월 3~8일	문예진흥기금 조성을 위한 한국화 특별초대전(조성 금액 900만원)
1984년 11월 7~11일	동중학교 미술전(평택문화원 전시실)
1984년 11월 14~18일	한광중학교 미술전시(평택문화원 전시실)
1984년 11월 19~22일	한광여자고등학교 미술전시(평택문화원 전시실)
1984년 11월 24~27일	동일고등학교 서화전시(평택문화원 전시실)
1984년 11월 30일	《평택군지》 발행
1984년 12월 1~5일	삼정정밀 사진전시(평택문화원 전시실)
1984년 12월 1일	《소사벌》 창간호 발간(4×6판 20면 2,000부)
1984년 12월 6~8일	함성유치원 전시(평택문화원 전시실)
1984년 12월 10일	문예진흥기금 조성사업 군민 현장탐 삽화 기금조성(1000만원 도에 기탁)
1984년 12월 13~17일	한광중고등학교 미술전시(평택문화원 전시실)
1984년 12월 15일	양서읽기운동 독후감 시상식
1985년 3월 29일	정기총회(예·결산 및 예산승인)
1985년 4월 9일	《평택군지》 발간 및 축하회 개최(4×6배판 1,228면 1,000부)
1985년 8월 31일	정관변경 문화공보부령 제50호 정관 준칙 및 임원 취임승인(문화공보부)
1985년 8월 31일	제1회 소사벌 백중놀이 행사(평택기계공고 교정)
1985년 10월 12일	제14회 군민의 날 행사 주관
1985년 12월 5일	《소사벌》 제2호 발간(1,500부)

68

IV. 시·군 분리와 문화원
(1986~1994년)



정부는 지방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 발전시킨다는 목표 아래 1993년 3월 지방문화원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의 균형 있는 문화진흥을 꾀하였다. 지방문화원이 지역문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여 주민의 문화적 정서함양과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재정 등의 지원을 강화하였다. 또한 '지방문화원진흥법 및 시행령'을 제정 공포하여 문화원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전면적으로 개선 보완하고 지방문화원의 기능과 역할을 활성화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방문화원들은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다.

1. 시·군 분리와 행정의 변화



송탄시문예회관 개관 기념 전국노래자랑(1990년 12월 7일) 평택시청 개청식(1986년 1월 6일)

평택시가 현재와 같은 행정구역 체제를 갖춘 것은 1914년 3월 1일 시행한 '조선총독부 부령 제 111호' '도의 위치 관할구역 및 부군 명칭 위치 관할구역에 따라 경기도 수원군에 속해 있던 고덕면 일부지역과 오성면, 청북면, 포승면, 현덕면 그리고 충청도에 속했던 평택군이 경기도 진위군에 통폐합되면서 부터이다.

1931년에는 진위군청 소재지였던 병남면을 평택면으로 개칭했고, 1934년 4월에는 부용면과 서면을 팽성면으로 통합하였다. 1938년 9월에는 진위군을 평택군으로 개칭했고 평택면은 평택읍으로 승격되었다.

1962년 6월에는 '평택군 조례 제25호'에 따라 송탄면에 신장출장소를 신설했고, 1963년 1월 1일 송탄면이 송탄읍으로 승격하면서 행정구역은 2읍 8면 399리로 편제되었다. 1979년 5월 팽성면

이 팽성읍으로 승격되었고, 1981년 7월 1일에는 평택군 송탄읍이 송탄시로 승격되어 평택군과 분리되었다. 1986년 1월 1일에는 평택군 평택읍이 '평택시'로 승격됨에 따라 평택지역은 평택군, 평택시, 송탄시의 3개 행정구역으로 분리되었다.

3개 시·군 분리 이전 평택지역에서 단일 문화원으로 운영되던 평택문화원은 1981년 7월 1일 송탄읍이 송탄시로 승격되면서 1981년 8월 4일 이정우를 초대원장으로 선임하여 송탄문화원이 창립하였다. 그리고 1982년 1월 28일 문화공보부의 설립인가를 받으면서부터 송탄시 관할 행정구역이 평택문화원의 활동범위에서 벗어나 송탄문화원 활동범위로 들어가게 되었다. 1986년 1월 1일 평택읍이 평택시로 승격되었고, 이에 따라 1989년 11월 17일에 이계석을 초대원장으로 하는 평택군문화원이 창립하자 평택군 관할 행정구역도 평택문화원의 활동범위에서 벗어나 평택군문화원 활동범위에 들어가게 되었다.

평택문화원, 송탄문화원, 평택군문화원 등 3곳으로 나뉘어 운영되던 문화원은 1995년 5월 10일 평택시가 하나의 도·농복합도시로 통합되자 3개 시·군 문화원도 통합을 논의하였고, 그해 7월 27일 통합 '평택시문화원'으로 통합되었다. 통합 평택시문화원은 평택시문화예술회관 내에 문화원 사무국을 이전하였다.

2. 평택문화원의 운영 및 활동

1980년대 초 평택시 평택동 63번지 평택군청 맞은편에 위치해 있던 평택문화원²¹⁾은 평택읍의 시 승격으로 평택군과 평택시 행정구역이 분리되면서 평택시의 권유에 따라 평택시립도서관과 함께 1986년 10월 14일 규모를 확장하여 평택시 합정동 294번지 평택공설운동장 내로 사무실을 이전하였다.²²⁾ 사무실을 이전



평택시공설운동장으로 이전한 평택문화원 및 평택시립 도서관(1986년 10월 14일)

21) 평택문화원은 1989년 10월 11일 문화원 명칭을 '평택문화원'에서 '평택시문화원'으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실제 등기에는 1990년 5월 22일 '평택시문화원'으로 변경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평택시문화원은 2005년 3월 9일 다시 '평택문화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위 글에서는 명칭 변경에 따른 구분 없이 모두 '평택문화원'으로 지칭하였다.

22) 당시 실제 등기에는 평택시 합정동 294번지로 이전한 연월일이 1990년 2월 15일로 되어있으며, 등기일은 1990년 3월 19일로 되어 있다.

한 평택문화원은 100평, 204석 규모의 평택시립도서관과 60평의 다목적실, 30평의 시청각실, 20평의 사무실, 20평의 장서실, 70평의 기타 공간을 두고 더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그로부터 8년 뒤인 1994년 10월 27일 평택문화원은 3개 시·군 통합 직전 평택시 비전동 847번지 평택시문화예술회관으로 다시 원사를 이전하였다.²³⁾

1990년 1월 19일 사단법인 한국예총 평택지부가 창립하고, 평택예총이 기존에 평택문화원에서 시행하던 다양한 예술 행사를 맡게 되면서 평택문화원은 향토문화의 보존과 진흥, 전통문화 발굴과 전승이라는 보다 전문적이고 고유한 문화원의 활동 영역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평택문화원은 1990년 5월 전국적으로 지방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것과 같이 평택지역 문화의 큰 변화를 만들기 위해 '문화가족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이에 따라 많은 평택시민이 평택문화원의 문화가족으로 참여하게 문화가족 배가운동을 전개하였다.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한 임시총회(1994년대 7월 26일)

1994년도 평택시문화원의 사업실적을 살펴보면 1월 21일 평택시문화예술회관 세미나실에서 제1차 이사회의, 2월 4일 문화예술회관 세미나실에서 1994년 평택시문화원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제5회 자란동신제'가 2월 23일 오후 12시 비전동 평택경찰서 뒤편 자란로변 은행나무제단에서 열렸고,

'제1회 정월대보름 민속놀이'를 2월 24일 오전 10시부터 평택시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에서 개최하였다. '디지털피아노와 생활음악에 관한 세미나'를 3월 26일 문화예술회관 세미나실에서 개최하였고, 5월 15일 문화예술회관 제2전시관에서는 '청소년의 달 학생바둑대회'가 개최되었다. '제6회 병남단오놀이'를 6월 13일 비전동 덕동산체육공원에서 개최하였으며, 7월 26일에는 뉴가든호텔에서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한 임시총회'가 개최되었다. 9월 8일 안양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된 '제9회 경기도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전하였고, 9월 28일에는 평택시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에서 '독서의 달 기념 백일장 및 사생대회', 10월 19일에는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학생예술제', 12월 8일 평택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국립극장 '작은창극단' 초청공연을 진행하였다.

23) 실제 등기일자는 1994년 11월 21일로 되어 있다.

1995년 5월 10일 평택군, 송탄시, 평택시가 하나의 평택시로 통합되면서 당시 유재호 송탄문화원장을 통합 평택문화원의 원장으로 선출해 9월 29일 취임식을 가졌다.

3개 시·군 통합 당시 평택문화원의 활동 및 사업들을 살펴보면 자란동신제, 정월대보름 율놀이, 주부 붓글씨 강습, 주부 교양 강좌, 사물놀이 강습, 평택문화취미센터 운영, 제2회 어린이바둑대회, 제10회 경기도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 학생 사생대회, 봄과 가을에 진행한 향토순례, 전통예절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유재호 평택문화원장 취임식(1995년 9월 29일)

1) 통합 이전 평택문화원의 조직 및 운영

1991년 당시 평택시문화원의 조직도를 살펴보면 회원이 참여하는 총회와 임원진이 참여하는 이사회가 구성되었고, 원장을 중심으로 부원장과 사무국장 체계로 운영되었다. 사무국장은 총무과와 진흥과, 사업과를 관할하였으며 총무과는 기획관리 업무,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법률 및 제도관리, 심사분석, 지방자치단체 업무, 서무 관리, 회계 관리, 재산관리 업무를 하였다. 진흥과에서는 향토문화 연구조사, 향토문화교육, 회원 조직 운영, 각종 강좌, 세미나 업무를 진행하였으며, 사업과에서는 향토사 간행사업, 출판사업, 행사 추진 등을 진진하였다.

평택시문화원에는 부설 기관으로 평택향토문화연구소, 향토문화교육원, 향토행사위원회를 두



평택문화원 문화학교 사진강좌(1993년 4월 28일)

어 문화원이 지향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한편 다양한 방면으로 그에 맞는 활동들을 추진해 나갔다.

평택문화원 총회 구성원인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하였다. 일반회원은 평택시에 거주하는 시민 중 문화원 설립취지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가입했

며, 문화원장 앞으로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입회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별 회원은 거주 지역을 불문하고 문화원 발전에 기여한 자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으면 입회할 수 있었다.

이 시기의 평택문화원장은 김창복으로 1982년 12월 1일부터 1993년 2월 25일까지 재임하였다. 제7대 평택문화원장은 조중환으로 1993년 2월 26일부터 1995년 7월 26일 3개 시·군의 문화원 통합 이전까지 활동하였다.

○ 평택문화원 역대 원장

대수	이름	임기
제7대	조중환	1993년 2월 26일~1995년 7월 26일

1989년 10월 10일 등기에 기록된 평택문화원 이사 명단을 살펴보면 이범구는 임기 만료로 퇴임하였고 김창복, 조중환, 이계평, 조성락, 유천형, 김창문, 김장규 등이 활동하였다. 이사 조성락은 1990년 2월 28일 사임하였고 같은 날 이경배가 이사로 취임하였다. 감사 윤용만, 김태옥은 1992년 1월 15일 퇴임하였고 같은 날 오상열, 성운호가 감사로 취임하였다.

1993년 평택문화원 임원은 다음과 같다.

▶ 원장 조중환 ▶ 부원장 이근표·이용규 ▶ 감사 오상열·성운호 ▶ 이사 이경배·김장규·김창문·우관재·이계평·박장영·이해문·한강희·오세득·조선원·유원형·김준식·김수영·정영훈·조금행·구영수·조병철·박상은·조성준·심재걸·김상오·천낙규·함중학·이일우·최원목·임원빈 ▶ 사무국장 이근영 ▶ 총무과장 김성규 ▶ 간사 김정옥 ▶ 운영위원 이영찬·이상주·정진약·이필옥·박진철·김도식·이판선·차상준·주상국·서정문·현종욱·한광섭·김상규·유평림·김영현·최형열·서성구·고용기·서재홍·신장식·최장환·김현식·서창원·한경자·이학선

1994년도 평택문화원 임원은 다음과 같다.

▶ 원장 조중환 ▶ 부원장 이근표·이용규 ▶ 감사 오상열·정진약 ▶ 이사 김장규·김창문·박장영·이해문·유원형·김수영·한강희·오세득·조선원·최원목·전준식·정영훈·조금행·구영수·조병철·박상은·조성준·심재걸·김상오·천낙규·함중학·이일우·우관재·임원빈·김남옥·이계평 ▶ 운영위원 박진철·김도식·이판선·차상준·이영찬·주상국·이상주·서정문·김상규·이필옥·유평

림·김영현·최형열·서성구·고용기·서재홍·최장환·박남규·김창주·이영호·김영만·이왕현·유태현·강성희·허황·이석규·김학륜·강영호·오진영·최덕규·이종광·임정섭·유홍주·박응수·박준석·윤명수·허동·고복수·임승길·김인식·김성재·송명호·최종식·양평국

평택문화원은 1987년 1월 15일 '평택향토사연구소'를 설치해 운영하였다. 평택향토사연구소는 향토문화연구소, 향토문화교육원, 향토행사위원회 등으로 세분화되었으며, 문화원 조직 가운데 진흥과에서는 향토문화 연구 조사, 향토문화 교육 등이 주를 이루었다.



병남단오놀이(1994)

이러한 기류에 따라 평택문화원 부설 평택향토사연구소에서는 1년 주기로 《향토사료집》 전3권을 발행하였다. 제1권은 1991년 12월 27일에, 제2권은 1992년 12월 27일에, 제3권은 1994년 1월에 발행하였다.

《향토사료집》 제1권에는 평택시의 연혁과 지명에 관한 유래를 비롯해 1843년도 진위현읍지, 1891년도 진위현읍지, 1899년도 진위군읍지 등의 해설을 실었다. 부록으로 고사민간설화 등을 실었고, 맨 뒤에는 군·읍지 영인본을 함께 담아 독자의 이해를 도왔다.

제1권은 최재의(향토인), 이상희(전. 인천교육장), 장병헌(향토인), 김학철(향토인)이 집필했으며, 편집은 이근영 평택문화원 사무국장, 교정은 당시 평택고등학교 교사 김동경, 감수는 청담고등학교 교장 박길병이 맡았다.

제2권에는 1장에 고누, 고무줄놀이, 골패, 공기놀이 등 우리나라의 민속오락을 실었고, 2장에는 속담, 3장에는 세시풍속과 관혼상제, 4장에는 민요의 종류, 5장에는 방언을 실었다. 제2권은 평택시향토사연구소 연구위원인 최윤희, 이상희, 장병헌, 김학철, 정돈섭과 사무국장인 이근영이 편집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제3권에는 1장에 우리나라의 민속신앙과 평택지역에 전해 내려오는 마을신앙 등을 실었고, 2장에 무속신앙, 3장에 속신(俗信), 4장에 민간의료 등을 실었다. 3권의 편집위원도 역시 평택시향토사연구소 연구위원인 최윤희, 이상희, 장병헌, 정돈섭이 편집위원으로 활동하였다.

2) 평택문화원 부설 평택향토사연구소

평택문화원은 1987년 1월 15일 평택문화원 부설 기관으로 '평택향토사연구소'를 설치하였다. 평택이 고향이고 이 지역에서 수대를 살아온 인사들은 지역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미군지도도 두 군데나 있어 외지인들이 많아지자 예부터 전해오는 전통과 특색, 고장의 얼을 더 이상 상실하기 전에 전승하는 일이 급선무라는 인식이 높아졌다. 그러던 중 1986년 12월 평택군교육장과 청담고등학교 교장을 역임한 박남규가 최재의와 우기종을 불러 상의하고 이 고장에서 선대로부터 수백 년 동안 살아오면서 지녀온 평택의 전통을 되살리고 고유한 얼을 발굴 계승시켜 나가자고 제안한 것이 평택향토사연구소 설립 동기가 되었다.

평택향토사연구소 설립 이후 처음으로 착수한 것은 평택읍 소사리에 살았던 이동고의 거문고에 관한 조사·연구사업이었다. 이동고는 임진왜란 때 왜군이 쳐들어왔을 당시 다른 사람들은 모두 겁을 먹고 피난 가느라 야단법석이었지만 이동고는 홀로 대청마루에 앉아 의연한 자세로 한가롭게 거문고를 뜯고 있었다는 일화가 있다.

왜병들은 차마 범하지 못할 고고한 노인의 모습을 보고 보통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해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았고 덕분에 피난 갔던 사람들도 왜적의 해를 입지 않고 마을로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이 노인은 전쟁 이전에도 벼슬길에 올라 임지로 가던 중 개가에서 하룻밤을 지내다가 이상한 소리에 잠을 깬는데 소리를 캐묻던 중 말이 여물을 먹을 때 나는 구유소리라는 말을 듣고 비싸게 값을 치른 후 구유를 사보니 대추나무로 만든 것이었다. 노인은 벼슬을 사퇴한 뒤 이 구유를 가지고 산속 한가한 곳에 가서 정성들여 거문고를 만들고 이 거문고에 구멍 아홉 개를 뚫어 '구공금'이라고 불렀다.

이 거문고는 후손인 이양수가 보관하고 있다가 1987년 7월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서 예산군 모초등학교 교감으로 근무하는 6촌 동생이 보관하였다. 이 같은 사실을 추적하면서 각 방면으로 조사를 계속하던 중 평택향토사연구소가 발족하게 되자 뜻을 규합하여 본격적으로 우리고장 역사 연구를 시작하기에 이르렀다.

1987년도 초창기 평택향토사연구소 연구위원은 박남규, 최재의, 김종화, 박우재, 우기종 등 5명이었으며, 소장은 우기종이 위촉되었다. 평택향토사연구소는 향후 편찬하게 될 《평택시사 平澤市史》 발행에 대비하여 필요한 자료를 조사, 발굴, 수집하였으며, 평택군에서 추진하던 《평택의 얼》이라는 책 편찬 작업도 담당하여 집필하였다.

○ 평택향토사연구소 소장

대수	이름	임기
초대	우기종	1987년~

3) 평택문화원의 활동 및 역대 사업

평택읍이 평택시로 승격돼 평택군에서 분리되던 1986년은 아시안 게임이 개최되었던 해로 문화행사도 많았으며, 동시에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시기였다. 1990년대 초반 등기에 기록된 평택문화원의 목적사업을 살펴보면 지역 고유문화의 개발, 보급, 보존, 전승 및 선양,



제1회 평택시민의날 경축음악회(1986년)

향토사의 조사 연구 및 사료의 수집 보존, 지역문화 행사 개최, 문화에 관한 자료 수집과 보존 및 보급,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지역 환경보존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 활동, 기타 지역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을 진행한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평택문화원은 지방문화 창달을 위해 '소사별 백중놀이'를 확대 발전시켜 11만 평택군민이 함께 하는 문화행사를 유치하고 고장의 문화발전 원동력과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를 꾀하고자 하였다.

(1) 우리고장 얼 찾기 운동

1986년 당시 평택군에서는 '우리고장 얼 찾기 운동'을 전개하여 고장의 역사 인물들의 업적을 재발견하고 예부터 전해오는 전설이나 지명 유래를 모아 책자로 발간하는 등 고장의 자랑거리를 알리는 일에 집중하였다. 또한 잊혀져가는 생활 용품 등 향토유물 수집운동을 전개해 청소년들의 교육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였다.

1980년대만 해도 평택에는 향토사와 관련된 문헌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평택문화원은 1988년 평택향토사연구소 연구위원을 중심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우리고장의 얼》이라는 책자를 발간하였다. 평택문화원은 우리고장의 문화유산과 역사인물의 업적을 재발견하여 평택

군민에게 알림으로써 주민들의 애향의식을 높이고 고장의 자랑거리를 되살리고자 하였다. 집필위원은 우기중, 김종화, 박길병, 강대욱 등이 활동하였다. 《우리고장의 얼》 책자에는 평택지역의 역사인물 61명과 지역에 내려오는 전설 45편을 담으며, 또한 평택군의 연혁과 마을의 연혁 및 유래, 문화재와 향토유적 등을 조사해 게재하여 지역의 뿌리를 잊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1989년부터는 《향토사료집》 발간사업에 착안하여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였다. 이 같은 평택문화원의 노력은 정부의 문화원 활성화 방안이 추진되는 단계에서 시작되어 전통문화 발굴조사와 보존, 전승기능은 더욱 강조되었다.

(2) 경기도민속예술경연대회 출전

경기도민속예술경연대회와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는 조상의 얼과 혼이 살아 숨 쉬는 우리 민속예술의 고유의 멋과 재능을 찬란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면면히 이어 내려온 슬기로운 전통을 한 자리에서 재현함으로써 우수한 민족문화 유산을 후세에 길이 계승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취지로 매년 추진되었다. 고장마다 생활의 뒷자리에 고여 있는 애환과 정서까지도 소중히 간직해서 참된 삶의 흔적을 진솔하게 남기고 향토문화 발전의 의미도 이런 바탕 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목적이 있다.

경기도민속예술제는 경기도문화원연합회에서 각 시·군의 민속예술을 발굴 육성하는 한편, 지역민들의 정체성 확립과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증진, 민속예술에 대한 긍지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매년 성인부와 청소년부로 나눠 교차 개최하고 있다.



제3회 경기도민속예술제 평택농악 출전(1984년 10월 28일)



제1회 청소년민속예술제 출전(1996년 9월 18일)

평택문화원은 매년 경기도민속예술제에 출전하여 지역의 민속예술의 기량을 유감없이 선보였다. 경기도민속예술제는 1982년 10월 16일 '제1회 경기도민속예술경연대회'를 실시하였고, 1999년 9월 1일 열린 제12회 대회부터는 '경기도민속예술축제'로 명칭을 바꾸었다. 또한 2009년 9월 4일

열린 제17회 대회부터는 '경기도민속예술제'로 이름을 바꾸어 2021년 현재까지 이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경기도민속예술제는 성인부와 청소년부를 매년 교차하여 각각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는데 평택문화원도 이 경연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기록에 남아 있는 부분들을 정리하면 평택문화원은 1991년 9월 12일부터 13



경기도민속예술경연대회 송탄문화원 동령샘제 지신밧기 출전(1994년)

일까지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7회 경기도민속예술경연대회에 '평택농악'으로 출전하였다. 당시 고종과 지도는 김학철 평택시노인회장이 맡았다. 평택농악의 풍물놀이는 규모 있는 편제를 갖춘 유일의 놀이로 상쇠가 풍물잡이의 우두머리가 되어 일사 분란한 조를 갖추어 영기와 두레기를 앞세우고 덩덕궁이, 자진가락, 칠채가락, 취군가락, 굿거리 등의 가락을 치며 무동춤, 벽구춤, 짝짝이춤 등 춤사위가 풍년가, 무동놀이, 열두발 상모 등을 보여주었다. 평택농악은 우리음악과 무용이 하나의 원초적인 형상을 가장 세련된 기교로 보여주며 어떤 농악보다도 고도의 연희성과 역동성, 예술성을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았다.

1995년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성남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10회 경기도민속예술경연대회에는 이충동 동령마을에서 전해지는 '동령샘제 지신밧기'로 출전하였다. 동령마을은 정월이 되면 샘굿과 정월대보름 달맞이, 줄다리기를 비롯해 칠월칠석이나 10월 상달이 되면 가신 신앙인 터주제석, 성주를 위하여나 짚을 새로 갈고 안에 들어 있는 범씨를 새로 교체해 떡을 해 놓고 비는 것을 볼 수 있다. 동령마을 용왕제는 정월 첫날인 초진일에 마을의 가운데 있는 공동우물에서 지낸다. 과거에는 마을마다 한 개 혹은 2~3개의 우물이 있어 마을 전체의 식수원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정초나 칠월칠석 등 길일을 택하여 우물을 깨끗이 청소한 후에 수신인 용왕에게 기원하여 7년 가뭄에도 물이 마르지 않고 9년 장마와 홍수에도 물이 깨끗하기를 기원하였다.

그밖에 성인부문 참가현황을 살펴보면 2001년 제13회 대회에는 '두레풍물', 2003년 제14회 대회에는 '서정웃다리농악', 2005년 제15회 대회에는 '웃다리농악', 2007년 제16회 대회에는 '포승두레소리', 2009년 제17회 대회에는 '웃다리 평택농악', 2011년 제18회 대회에는 '오성뜰 풍물놀이'로 경연에 참가하였다.



제16회 경기도민속예술축제 평택문화원 포승두레소리 최우수상 수상(2007년 9월 2일)



제19회 경기도민속예술축제 평택문화원 평택거북놀이 대상 수상(2013년 9월 28일)

특히 평택문화원은 2013년 9월 27일과 28일 포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19회 경기도민속예술제에서는 경기도 시·군에서 29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평택거북놀이'로 참가해 당당히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평택거북놀이보존회의 84명 단원들이 참가하였다.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거북이를 영물로 여겨 신성하게 생각하였다. 평택거북놀이는 추석날밤에 하는 놀이의 하나로 수숫대로 거북이 모양을 만들고, 그 속에 서너 명이 들어가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마을주민의 무병장수를 빌면서 동네의 잡귀를 쫓는 기호지방의 대표적인 놀이였다. 그러나 오래 전에 중단되어 찾아보기 어려웠고 다만 어른들의 기억 속에서만 남아 있어 놀이과정이나 연희 이유 등도 전승되지 않은 상태였다.

평택문화원은 평택거북놀이보존회와 함께 잊혀져가는 평택의 거북놀이를 계승 보존하기 위해 2010년부터 평택 전 지역에서 성행되던 거북놀이를 고증 발굴하는 작업을 시작하였고 그 결실로 진행된 것이 바로 제19회 경기도민속예술제 대상을 얻게 된 것이다. 무속이 지닌 굿의 방식과 농악이 한데 어우러진 집단놀이인 '평택거북놀이'는 길놀이, 우물 굿, 마을놀이, 문 굿, 터주 굿, 조왕 굿, 대청굿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재현된 '평택거북놀이'는 가을을 재촉하는 이슬비가 조금씩 내리는 가운데 84명의 단원과 응원을 위해 멀리서 찾아온 문화예술에 관심 많은 시민들의 열띤 응원 속에서 이루어졌다.

당시 경연장면이 진행될 때마다 덩실덩실 춤을 추며 흥과 열기로 운동장이 달아오르더니, 끝장면인 마당놀이가 진행될 때는 단원들과 응원단이 하나가 되어 신명나게 공연을 이어갔고 그 모습에 조용하던 관중석과 타 시·군 단원들까지 응원을 보내는 모습을 연출하였다.

이후 2015년 제20회 대회에는 평택풍물단의 '파일난장 등대굿놀이', 2017년 제21회 대회에는 '사단법인 평택시 경기민요보존회'의 '어업요', 2019년 제22회 대회에는 평택안중농요보존회의

'평택안중농요', 2021년 제23회 대회에는 '평택민속놀이보존회'의 '평택민속놀이'로 경연에 참가하였다.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를 살펴보면 1996년 제1회 대회에는 청담종합고등학교의 '평택농악'으로 참가하였고, 1998년 제2회 대회와 2002년 제4회 대회에는 참가하지 않았다. 2000년 제3회 대회에는 '웃다리 풍물놀이', 2004년 제5회 대회에는 '평택풍물놀이', 2006년 제6회 대회에는 '평택 풍물놀이', 2008년 제7회 대회에는 '웃다리 평택농악', 2010년 제8회 대회에는 '웃다리농악', 2012년 제9회 대회에는 늘봄소리의 '평택농악', 2014년 제10회 대회에는 경기물류고등학교의 '평택어업요', 2016년 제11회 대회에는 청소년예술단 예운의 '파일난장 등대굿놀이', 2018년 제12회 대회에는 청소년예술단 예운이 '파일난장 등대굿놀이'로 참여하였다.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는 제10회 대회가 열렸던 2014년 10월 16일과 17일 당시 의정부체육관에서 평택어업요로 25명이 출전하여 대상과 함께 지도자상을 수상하였다. 제10회 대회 대상 수상으로 경기물류고등학교 '평택어업요'는 2015년 평택시 소사벌레포츠타운에서 개최한 제22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에 경기도 대표로 출전해 금상을 수상하였다.

(3) 종합문예지 《소사벌》 발간

평택문화원은 1984년 12월 평택 문화예술 소식지 《소사벌》 창간호를 발행하였다. 《소사벌》은 2021년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발행하고 있는 종합문예지로 평택문화원이 추진했던 목적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다. 특히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관련된 내용들이 잘 기록되어 있어 지역사적 측면에서도 큰 의미를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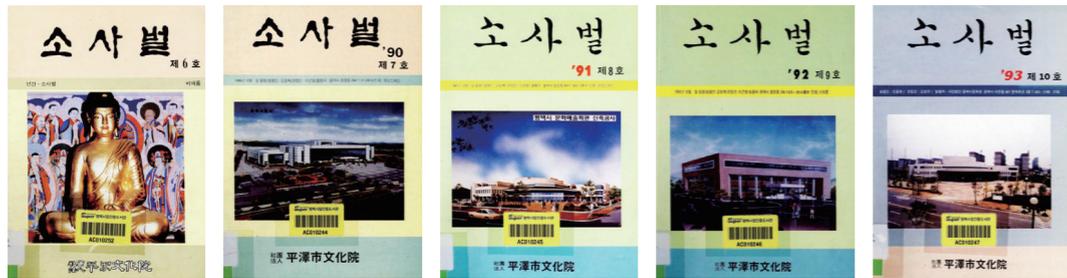
《소사벌》 창간호는 1982년 12월 15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제4대 김창복 원장 재임 시기에 만들어졌다. 창간호 책자 표지에는 군민현장탐 사진이 실렸으며, 내용에는 간행사, 군정소식, 아산호관 광지 현황, 초등학교의 동시, 박한동 평택군교육장의 '평택교육의 실태와 장애', 김덕운 평택상공회의소 회장의 '평택 상공업 실태 및 전망', 농촌진흥청 농진회 봉명근 이사의 '숫자로 본 이 고장의 농·임·수산업', 평택문화원 전시실 소식, 평택의 문화재 소개, 평택과 평택농악, 중고교생들의 수필과 시, 각종 행사소식, 문화동정, 노산 선생의 '고향 찾기 운동의 제창', 편집후기, 광고, 평택지역 국회의원이었던 이자현과 유치송의 사진 등을 실었다.

다음은 《소사벌》 창간호에 실린 김창복 평택문화원장의 간행사 전문이다.

IV. 시·군 분리와 문화원 (1986~1994년)



소사벌 제1호(1984년) 소사벌 제2호(1985년) 소사벌 제3호(1986년) 소사벌 제4호(1987년) 소사벌 제5호(1988년)



소사벌 제6호(1989년) 소사벌 제7호(1990년) 소사벌 제8호(1991년) 소사벌 제9호(1992년) 소사벌 제10호(1993년)



소사벌 제11호(1994년) 소사벌 제12호(1995년) 소사벌 제13호(1996년) 소사벌 제14호(2004년) 소사벌 제15호(2005년)



소사벌 제16호(2006년) 소사벌 제17호(2006년) 소사벌 제18호(2007년) 소사벌 제19호(2008년) 소사벌 제20호(2008년)



소사벌 제21호(2008년) 소사벌 제22호(2009년) 소사벌 제23호(2009년) 소사벌 제24호(2010년) 소사벌 제25호(2010년)



소사벌 제26호(2011년) 소사벌 제27호(2014년) 소사벌 제28호(2015년) 소사벌 제29호(2016년) 소사벌 제30호(2017년)



소사벌 제31호(2018년) 소사벌 제32호(2019년) 소사벌 제33호(2020년) 소사벌 제34호(2020년) 소사벌 제35호(2021년)

“바라보면 가이없는 천리평야에 비단 위에 무늬처럼 고운 솔피들... 이 구절은 애향가의 일절이다. 우리 평택은 누구나 다 아는 바와 같이 기호지방의 유일한 곡창이다. 옛말에 ‘평택이 영글면 경기도가 굶어죽지 않는다’라고 했을 정도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들판의 일각에 《소사벌》이라는 전사어린 평야가 있다.

이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지원으로 평택문화원에서 《소사벌》지를 펴내게 되었으며 당지가 우리고장의 제반 문화 활동에 대한 정보의 상호교환이나 아울러 문화 창달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하여 마지않는다.

대저 문화란 인간의 삶의 유형 혹은 생활방식 그 자체이다. 그리하여 사람이 사는 모습의 전부, 이를테면 지식, 믿음, 느낌, 가치관, 행위의 규범 등 상징적이고 제도적인 것뿐만 아니라 기술, 도구, 의식주의 수단 등의 물질적인 것을 모두 포함하는 삶의 설계 등이 곧 문화인 것이다.

이와 같은 문화의 개념 구성에 비추어 그 창조 내지 창달을 기하기 위하여 우리 문화원은 1950년대 초반에 야간학교의 개설, 문화강연, 계몽활동 등에 주력한 바 있고 그 후 1960년대 중반에 '지방문화사업조성법'의 발효로 각종 시책의 홍보에 일익을 담당한 바 있다. 그리고 평택문화원은 71년 2월에 민형식 등 諸氏의 발기로 문공부의 승인을 얻어 향토문화사업의 발족을 보았다. 생각건대 고장의 문화원은 조상 전래의 미풍양속 내지 생활문화로 하여금 선진문화 창조의 전환적인 주역으로 발전시키는데 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고장에서 삶을 영위하는 모든 분들은 물론, 고향을 사랑하는 인정어린 여러분들에게 《소사별》지로 하여금 애향의 희망과 용기가 샘솟게 되는 '펍푸렘'이 되기를 간구할 따름이다.

끝으로 《소사별》지의 간행에 있어서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한국문예진흥원과 애향유지 여러분께 충심으로 사의를 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지도 편달 있으시기를 빌어 마지않는다.”²⁴⁾

《소사별》은 초창기에는 평택의 시책 방향과 역사, 지리, 사회, 기념행사와 문화행사 등을 다양하게 수록한 평택군지의 소책자 형태로 발간되었다. 책자 첫 머리에는 문예진흥선언문과 시민헌장, 평택애향가가 실렸고, 목차 중에서는 가장 먼저 대통령이나 중앙 정부 관료들이 했던 문화정책 메시지 등을 실어 그러한 문화정책에 따라 문화원의 활동방향을 이어가고자 하는 의지를 피력하였다. 1990년에 실린 노태우 대통령의 문화정책 메시지에는 '문화 향수권과 참여권에 대한 선언'이 실려 있는데 내용에는 정부가 1992년까지 문예진흥기금 3,000억 원을 조성하고 문화진흥과 관계된 여러 제도나 법령 등 기본적인 지원체제를 완비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또한 '다양성과 자율성을 토대로 한 창작력의 조성'을 통해 문화의 정신평토 조성을 위해 예술인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창작마을, 예술인기념관 등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국인의 문화적 동질성 회복에 대한 선언'에서는 국민 모두가 전통문화의 계승자가 되고 문화 봉사원이 되는 자율적 운동을 펴가도록 돕고, 화합하고, 포용하는 문화한국인을 구현하겠다고 하였다. '한국

24) 《소사별》 창간호, 1984년 12월, 1쪽.

문화권의 확산 선언'에서는 한민족 문화대제전을 개최하여 외국에서 활약 중인 한국의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후원 단체를 두어 적극 지원하고 우수한 한국인의 예술적 재능이 세계로 확산해 가는 발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였다.

중앙정부 관료들의 문화정책 관련 메시지들은 1992년 《소사별》 제9호에 이르러서는 보이지 않는다. 지역의 분야별 기관단체장의 글도 줄어들고, 반면 향토문화 연구나 사업실적 화보 등의 분량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소사별》 창간호에는 정부 관료들의 메시지에 이어 문화원장의 권두언이 실렸고 특별 기고에서는 국회의원, 시장, 평택군·평택시교육장, 기호농지개발조합장, 평택농업협동조합장, 평택축산업협동조합장, 평화통일자문회의 평택시협의회장, 평택경찰서장, 평택시청소년지도위원회 위원장 등 각 기관·단체장들이 직접 쓴 글을 받아 게재하였다. 글의 내용은 주로 각 기관·단체가 하는 일이나 방향성이 담겼는데 이들 분야별 기관·단체장의 글이 차지하는 분량도 1990년대 들어서면서는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문화논단에서는 평택의 문화에 대해 언급하였고 향토문화나 향토탐방에서는 평택의 설화와 민담 등을 발굴해 수록하였고 평택의 인물이나 지명 연원, 전통 민속흔레, 문화재, 세시풍속 등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다. 향토탐구에서는 농악 등 지역의 향토문화에 대해 실었고, 평택지역에 있는 학교탐방에서는 학교의 역사와 변화상, 교육의 내용과 방향 등을 담았다. 봉사단체 탐방으로 라이온스, 평택로타리클럽, 평택JC 등의 활동상이나 역사도 함께 담았다. 문인들의 작품을 실는 시단과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의 작품 및 활동내용을 수록하였다. 또한 평택의 기념행사와 문화행사 등도 짧지만 알차게 담아냈다.

《소사별》은 1996년도를 끝으로 한동안 발행이 중단되었다가 2004년 10월 20일 오용원 평택문화원장 재임 시기에 이르러 박성복 이사의 발의와 진행으로 복간해 전체적인 내용과 디자인, 페이지수를 충실히 하는 등 새롭게 변경해 발행하였다. 새롭게 발간된 《소사별》 첫 머리에는 평택 문인협회 정성채 시인의 시를 실었고, 평택문화원의 활동을 알리는 다양한 화보를 실었다. 오용원 평택문화원장의 발간사와 송명호 평택시장, 이정우 평택시의회 의장, 우제항·정장선 국회의원, 권용태 전국문화원연합회회장의 축간사, 이진한 고려대학교 교수의 '평택시 연혁에 대한 단상' 특별 기고, 기획특집으로 '평택의 뿌리를 찾아서' 등이 실렸다. 또한 향기가 묻어나는 평택, 소사별심포지움 지상중계, 평택의 문화예술인, 소사별 문화광장, 알림, 편집후기 등으로 엮여 평택지역의 다

양한 소식을 책자에 실었다. 특히 평택의 문화예술인의 동정을 알리는 지면에서는 '목화를 그리는 남자 조성락', '척박한 음악계를 일군 김종숙', '이수연의 앵글로 보는 세상' 등을 실어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을 집중 조명하는 등 기존 기관지 형식으로 발행해오던 《소사벌》의 틀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평택지역을 대표하는 종합문예지로 탈바꿈하였다.

3. 송탄문화원 창립 및 활동

송탄지역은 1970년대 중반부터 주민의 삶이 점차 윤택해지고 학교 교육의 관심이 청소년 문화 창달로 변모하는 등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다 1981년 7월 1일 송탄읍이 송탄시로 승격되자 평택군 단위로 활동하던 송탄지역 문화단체들은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여 송탄시의 범주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특히 송탄이 시로 분리된 직후 송탄문화원이 설립되면서 송탄의 문화예술 활동은 더욱 활발해졌으며, 나아가 송탄예총의 설립에도 기여하는 등 특색 있는 향토문화 개발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1) 송탄문화원 창립



송탄시문화원 창립총회(1981년 8월 4일)

기인으로 참여해 송탄단위농업협동조합 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발기위원장인 정태호를 임시 의장으로 선출하여 정관을 정하고 전형위원회를 구성해 임원을 선출하였다. 전형위원은 김대선, 강진수, 최규용, 윤태걸, 정태호 등이 맡았다. 회의 결과 초대 송탄문화원장은 이정우,

송탄지역에 문화원이 설립된 것은 송탄읍이 송탄시로 승격된 지 1개월 만이다. 송탄문화원은 1981년 8월 4일 당시 평택문화원 부원장이던 정태호(전. 경기도의원)를 주축으로 강진수, 김대선, 김범수, 김효순, 방진호, 이정우, 조정재, 최규용 등이 발

감사 윤태걸·최종일을 선출하였고, 부원장 2인과 이사 전원에 대한 선출은 신임 이정우 원장에게 위임하였다.

당시 창립총회 참석자는 김기형 송탄시장, 남상조 평택군교육장, 이주상 평택문화원장, 차관영 평택문화원 상임고문과 송탄문화원 발기위원인 강진수, 김대선, 김범수, 김병옥, 김일진, 김창수, 김효순, 마광준, 방진호, 배창열, 양두섭, 윤태걸, 정태호, 이정우, 조정재, 차두봉, 최규용, 최재원 등 22명이었다. 송탄문화원은 창립 5개월 만인 1982년 1월 26일 사단법인 송탄문화원으로 문화공보부의 승인을 얻었다.

송탄문화원은 1981년 서정동 207번지에 사무국을 개설하였으나 이듬해 4월 신장동 228번지 송탄시여성회관 2층으로 사무국을 이전하였다. 1986년 12월에는 서정동 770번지 송탄시립도서관 2층으로 이전했으며, 1990년 11월 송탄시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된 이후인 1992년 11월에는 송탄시문화예술회관 2층으로 사무국을 이전하였다.

송탄시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되면서 송탄문화원은 이곳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들을 주최하였다. 송탄시문화예술회관은 대지 6612㎡(2,000평)에 건평 2847㎡(861평), 연건평 5098㎡(1542평)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3층 구조로 되어 있어 제법 규모가 큰 행사들을 유치할 수 있었다. 특히 대공연장은 1,250명, 소공연장은 390명, 전시실은 150명의 관람객을 수용할 수 있어서 규모에 따라 다양한 행사들을 치를 수 있었다.

송탄시문화예술회관 외에도 공연장과 교육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는 4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신장2동 송탄시민방위교육장, 1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신장1동의 송탄시여성회관 등이 있었는데 민방위교육장과 여성회관은 별도의 무대가 마련되어 있어서 교육이나 연극, 음악, 강연 등을 진행하기



송탄문화원 개원 현판식(1981년)



송탄문화원 원사(1982년)

에 용이하였다. 칠원리새마을회관과 각 동사무소 회의실 등도 소규모 교육장소로 쓰였고, 새 청사를 지어 서정동 800번지로 이전한 송탄시청 로비나 4층 대회의실 등도 다양하게 활용되었다.

각 학교의 시설도 사용되었는데 노천에 마련되어 1,0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효명종합고등학교 야외음악당에서는 종합축제와 음악공연 등이 진행되었다. 역시 무대가 마련되어 있고 400여명을 수용할 수 있었던 은혜여자종합고등학교의 학교 교회, 서정리초등학교와 복창초등학교 체육관 등에서는 음악이나 연극 등을 선보이는 장소로 활용되었다.

송탄문화원에서는 소도시의 여건상 극히 적은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경기도문화상 수상자를 3명이나 배출하였고, 이러한 문화예술 토양을 바탕으로 송탄문화원 창립 8년 만에 송탄예총이 창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²⁵⁾

2) 송탄문화원 조직 및 운영

송탄문화원은 회원을 대표하는 의결기구인 총회와 임원 중심의 이사회를 중심으로 하여 원장 1인, 부원장 3인, 감사 2인,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송탄문화원의 역대 원장을 살펴보면 초대 이정우, 제2대 원장 최규웅, 제3대 원장 오승수, 제4대 원장 유광노, 제5대 원장 유재호로 이



송탄시문예회관 개관(1990년 12월 7일)

어졌다. 유재호 송탄문화원장 재임 당시에는 3개 시·군 통합으로 인한 통합 평택문화원 설립을 논의하였고, 그 결과 유재호 송탄문화원장이 통합 초대 평택문화원장에 선출되었다.

송탄문화원 이사는 주로 병원 원장들이 많았고 양복점을 운영하거나 화가로 활동하는 예술인, 학원 원장, 단체 대표 등이 활동하였다.

○ 송탄문화원 역대 원장²⁶⁾

대수	이름	임 기	직 책
초대	이정우	1981년 8월 4일~1985년 8월 11일	송탄시사편찬위원회 위원
제2대	최규웅	1985년 8월 12일~1989년 8월 29일	성모의원 원장
제3대	오승수	1989년 8월 30일~1991년 5월 19일	송탄시의회 의원
제4대	유광노	1991년 5월 20일~1993년 8월 19일	동양화랑 대표
제5대	유재호	1993년 8월 20일~1995년 7월 26일	삼흥정미소 대표

○ 송탄문화원 역대 임원

초대 이정우 송탄문화원장(평통자문위원, 삼성전자 송탄대리점 대표) 재임말기인 1985년 송탄문화원 임원은 다음과 같다.

▶ 원장 이정우 ▶ 감사 윤태걸·최충일 ▶ 부원장 최규웅·차두봉·오승수 ▶ 이사 이천식·양두섭·오세문·이정훈·이민호·이학진·박병찬·김정식·김성기·박정규·배우영·최필규·서장호·강만규·최원근 ▶ 사무국장 김용겸 ▶ 사무간사 홍석자

1985년 송탄문화원 임원은 다음과 같다.

▶ 원장 최규웅(송탄시의사회장, 성모의원 원장) ▶ 감사 최충일·오세문(오양복점 대표) ▶ 부원장 차두봉(전국외기노조 전국주한미군노조 부위원장, K-55 근무)·오승수(지큐양복점, 승리장 대표)·윤태걸(청소년지도육성회장, 제일동물병원 원장) ▶ 이사 양두섭(평화전음사 대표, 송탄시상공인회 회장)·이정훈(송탄동물병원 원장)·이학진(금강당 대표)·김정식(미술인)·박정규(인천농장 대표)·배우영(송탄음악학원 원장, 송탄시립합창단 단무장)·서장호(미술인)·강만규(송탄시재향군인회장, 한미의원 원장)·최원근(송탄시불림협회 회장)·이병주(새마을금고 송탄시지회장, 송탄시농악대 회장)·서정관·이대하(지호당한의원 원장)·이동일(송탄옹변학원 원장) ▶ 사무국장 김용겸 ▶ 사무간사 홍석자

1986년 송탄문화원 임원은 다음과 같다.

▶ 원장 최규웅(송탄시의사회장, 성모병원 원장) ▶ 부원장 차두봉(K-55 근무)·오승수(지큐양복점, 승리장 대표)·윤태걸(청소년지도육성회장, 제일동물병원 원장) ▶ 감사 오세문(오양복점 대

25) 송탄예총, 《송탄예총》 창간호, 1992년 6월 30일, 83~86쪽.

26) 송탄문화원, 《송탄문화》 제12집, 1994, 144쪽.

표)·강만규(송탄시재향군인회장, 한미의원 원장) ▶ 이사 양두섭(평화전음사 대표, 송탄시상공인회 회장)·이정훈(송탄동물병원 원장)·이학진(금강당 대표)·김정식(미술인)·박정규(인천농장 대표)·배우영(송탄음악학원 원장)·서장호(미술인)·최원근·이병주(새마을금고 이사장)·이대하(지호당한의원 원장)·이동일(송탄웅변학원 원장)·서정무(삼호기업 대표)·유광노(동양화랑 대표)·방홍식(K-55 PX 지배인)·최윤석(송탄관광호텔 대표)



송탄문화원 주최 송탄시 신년인사회(1986년 1월 6일)

1987년도 송탄문화원 임원은 다음과 같다.

- ▶ 원장 최규용(송탄시 의사회장, 성모의원 원장)
- ▶ 부원장 차두봉(K-55 근무)·오승수(지큐양복점, 승리장 대표)·윤태걸(청소년

지도육성회장, 제일동물병원 원장) ▶ 감사 오세문(오양복점 대표)·김정식(평택미협 회원) ▶ 이사 양두섭(평화전음사 대표, 송탄시상공인회 회장)·이정훈(송탄동물병원 원장)·이학진(금강당 대표)·박정규(인천농장 대표)·배우영(송탄음악학원 원장)·서장호(미술인)·최원근(송탄시불링협회 회장)·이병주(새마을금고 이사장, 송탄시농악대 회장)·이대하(송탄시한의사회 회장, 지호당한의원 원장)·이동일(송탄웅변학원 원장)·서정무(삼호기업 대표)·유광노(동양화랑 대표)·방홍식(K-55 PX 지배인)·최윤석(송탄관광호텔 대표)·윤지영(한미영어학원 원장)·강승천(중앙약국 약국장)·김동철(오산클럽 대표)·권영환(삼성이주공사 송탄지사장)·김세환(대한숙박업조합 송탄시지부장, 장미호텔 대표)·유해영(예지양품 대표)·이운태(대한안경 대표)·김학수(송탄산부인과 원장)

1988년 송탄문화원 임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원장 최규용(송탄시의사회장, 성모의원 원장, 송탄로타리클럽 회장) ▶ 부원장 차두봉(전국 의기노조 전국주한미군노동조합 부위원장, K-55 근무)·오승수(지큐양복점, 승리장 대표, 양복업 조합장)·윤태걸(제일동물병원 원장) ▶ 감사 오세문(오양복점 대표)·김정식(평택미협 회원, 송탄시 진창작동우회장) ▶ 이사 이정훈(송탄동물병원 원장)·이학진(오산호텔 대표)·박정규(인천농장, 엘진식품 대표)·서장호(미술인)·배우영(송탄시립합창단 단무장, 송탄음악학원 원장)·최원근(연화회관 대표, 송탄시불링협회 회장)·이병주(새마을금고 송탄시지회장)·이대하(송탄시한의사회 회장,

지호당한의원 원장)·이동일(송탄웅변학원 원장)·서정무(삼호기업 대표)·유광노(동양화랑 대표)·방홍식(K-55 PX지배인)·최윤석(송탄관광호텔 대표)·윤지영(한미영어학원 원장)·강승천(중앙약국 약국장)·김동철(고인돌 대표)·권영환(삼성이주공사 송탄지사장)·유해영(예지양품 대표)·이운태(대한안경 대표)·김학수(송탄산부인과 원장)·김영배(송탄미술학원 원장)

1989년 송탄문화원 임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 원장 오승수(빅토리아호텔 대표) ▶ 부원장 김정식(화가)·서정무(삼호기업 대표)·유광로(동양화랑 대표) ▶ 감사 권영환(삼성이주공사 지사장)·이학진(오산장호텔 대표) ▶ 이사 차두봉(우아미가구대리점 대표)·오세문(오양복점 대표)·이정훈(송탄동물병원 원장)·이대하(지호당한의원 원장)·최원근(연화회관 대표)·이동일(송탄언어웅변학원 원장)·윤지영(한미영어학원 원장)·강승천(중앙약국 약국장)·이운태(대한안경 대표)·김영배(송탄미술학원 대표, 목원대학 강사)·최윤석(송탄관광호텔 대표)·박정규(엘림식품 대표)·배우영(송탄음악학원장, 시립합창단 지휘자)·이병주(자산동새마을금고)·방홍식(K-55 근무)·유재호(삼흥정미소 대표)·홍사일(금산인삼벌꿀대리점)·최홍석(효원산업대표이사)·한길희(삼보당 대표)·황순오(두산사료 대표)·전완표(청수탕 대표)·송동식(형제누비사 대표)



송탄문화원 주최 88서울올림픽 성공다짐 송탄시민 한마당 잔치(1988년 8월 19일)

1990년 송탄문화원 임원은 다음과 같다.

▶ 고문 이정우(초대 송탄문화원장, 송탄향토사연구소장)·최규용(2대 송탄문화원장, 예총 송탄지부장) ▶ 원장 오승수(빅토리아호텔 대표) ▶ 부원장 김정식(화가)·서정무(삼호기업 대표)·유광로(동양화랑 대표)

▶ 감사 권영환(삼성이주공사 지사장)·이정훈(송탄동물병원 원장) ▶ 총무이사 임상호(호에서점 대표) ▶ 이사 차두봉(우아미가구 대리점 대표)·오세문(오양복점 대표)·이대하(지호당한의원 원장)·최원근(연화회관 대표)·이동일(송탄언어웅변학원 원장)·강승천(중앙약국 약국장)·이운태(대한안경 대표)·최윤석(송탄관광호텔 대표)·박정규(엘림식품 대표)·이병주(자산동새마을금고)·

유재호(삼흥정미소 대표)·홍사일(금산인삼벌꿀대리점)·최홍석(효원산업대표이사)·한길희(삼보당 대표)·황순오(두산사료 대표)·전완표(청수탕 대표)·송동식(형제누비사 대표)·임영안(신장새마을 금고 이사장)·최치선(삼성전자 송탄총대리점 대표)·이광인·윤경호·신동춘(중앙동3통장)·손태성(바로크가구점 대표)·윤여옥(삼흥물산 대표)·김재찬(삼양사 대표)·이옥랑(금영주유소 대표)·안병현(송탄상호신용금고 이사)·박종현(대화토건 대표) ▶ 사무국장 정영석

점 대표)·이광인(고려회관 대표)·신동춘(임대업 대표)·손태성(바로크가구점 대표)·윤여옥(삼흥물산 대표)·김재찬(삼양사 대표)·금영구(우진석유)·양경모(신성사 대표)·이동일(송탄시의료보협조합)·강내원·신영철(보스턴 양화)·장세규·김상룡(그랜드레스토랑 대표)·박면규(하이점프비디오 대표)·김형석(민음예식장 대표)·김금철 ▶ 사무국장 정영석 ▶ 사무간사 손미경

1993년 송탄문화원 임원은 다음과 같다.

▶ 원장 유재호(삼흥정미소 대표) ▶ 부원장 김정식(화가)·임영안(신장새마을금고)·최홍석(화신요업 대표) ▶ 감사 윤여옥(동양화재 대표)·한길희(삼보당 대표) ▶ 이사 권영환(삼성이주공사 대표)·강승천(중앙약국)·이정훈(송탄동물병원 원장)·최윤석(송탄관광호텔 대표)·오세문(송탄예총 지부장)·이병주(송탄시의회 의장)·최치선(삼성전자 송탄총대리점 대표)·이광인(고려회관 대표)·신동춘(영풍빌딩 대표)·손태성(바로크가구 대표)·김재찬(삼양사료 대표)·금영구(우진석유 대표)·권규덕(권사또 대표)·양경모(신성유통 대표)·강내원·신영철(보스턴양화점 대표)·장세규·김상룡(그랜드 대표)·조진동(플레이보이가죽상회 대표)·지선희(OK목장 대표)·박면규(하이점프 대표)·황순오(두산사료 대표)·김형석(민음예식장 대표)·김금철·정재균(명소옥 대표)·공창용(만수당약국장)·최동진(동진토건 대표)·이인재(송림정 대표)·강종화(송탄서점 대표)·권상길(서울떡집 대표)·우종목(다솜건설 대표)·김운섭(운양건축사사무소 대표)·정춘성·최대화(아모레송탄특약점 대표) ▶ 사무국장 정영석 ▶ 사무간사 노현애

1994년 송탄문화원 임원은 다음과 같다.

▶ 원장 유재호(삼흥정미소 대표) ▶ 부원장 임영안(신장새마을금고)·최홍석(화신요업 대표) ▶ 감사 권규덕·김형석(민음예식장 대표) ▶ 이사 이정훈(송탄동물병원 원장)·김정식(화가)·강승천(중앙약국)·권영환(삼성이주공사 대표)·이병주(지산새마을금고 이사장, 시의회 의장)·최윤석(송탄관광호텔 대표)·한길희(삼보당 대표)·김재찬(삼양사



문화의 날 기념식 및 제1회 송탄시예술제 시상식(1991년)

1991년도 송탄문화원 임원은 다음과 같다.

▶ 원장 유광노(동양화랑 대표) ▶ 부원장 김정식(화가)·권영화(삼성이주공사 지사장)·강승천(중앙약국) ▶ 감사 이정훈(송탄동물병원)·임영안(신장새마을금고) ▶ 총무이사 임상호(호애서점) ▶ 이사 오세문(오양복점)·차두봉(우아미가구

대리점 대표)·최윤석(송탄관광호텔 대표)·이병주(지산동새마을금고)·유재호(삼흥정미소 대표)·최홍석(효원산업대표이사)·한길희(삼보당 대표)·송동식(형제누비사 대표)·최치선(삼성전자 송탄총대리점 대표)·이광인·신동춘(중앙동 3통장)·손태성(바로크가구점 대표)·윤여옥(삼흥물산 대표)·김재찬(삼양사 대표)·이옥랑(금영주유소 대표)·박종현(대화토건 대표)·금영구(우진석유)·권규덕(건축)·양경모(신성사)·이동일(송탄시의료보협조합)·강내원·신영철(보스턴 양화)·장세규·김상룡(그랜드)·박면규(하이점프)·최원근(독일제과)·박정규(엘림식품)·황순오(두산사료)·김형석(민음예식장)·김금철·정재균(명소옥) ▶ 사무국장 정영석 ▶ 사무간사 임경애

1992년 송탄문화원 임원은 다음과 같다.

▶ 원장 유광노(동양화랑 대표) ▶ 부원장 김정식(화가)·권영화(삼성이주공사 지사장)·강승천(중앙약국) ▶ 감사 이정훈(송탄동물병원)·임영안(신장새마을금고) ▶ 총무이사 임상호(호애서점) ▶ 이사 오세문(오양복점)·차두봉(우아미가구 대리점 대표)·최윤석(송탄관광호텔 대표)·이병주(지산동새마을금고)·최홍석(효원산업대표이사)·한길희(삼보당 대표)·최치선(삼성전자 송탄총대리



송탄문화원 주최 송탄시 신년인사회(1995년 1월 5일)

료 대표)·윤여옥(동양화재 대표)·최치선(삼성전자 송탄총대리점 대표)·이광인(고려회관 대표)·신동춘(영풍빌딩 대표)·박면규(하이점프 대표)·공창용(만수당약국)·최동진(동진토건 대표)·강중화(송탄서점 대표)·권상길(서울떡집 대표)·지선희(OK목장 대표)·우종목(다솜건설 대표)·김운섭(운양건축사사무소 대표)·정춘성·최대화(아모레송탄특약점 대표)·최정호·최충일(태광종합고등학교 교장)·최갑용(대성자동차학원 원장) ▶ 사무국장 정영석 ▶ 사무간사 최은정

3) 송탄문화원 부설 송탄향토사연구소

송탄문화원은 1988년 2월 부설기관으로 송탄향토사연구소를 발족해 초대 송탄문화원장을 지냈던 이정우를 소장으로 임명했고, 연구위원과 고문, 지도위원을 두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 등을 세밀하게 조사·연구·기록하였다. 송탄향토사연구소의 발족과 더불어 송탄지역의 향토사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송탄향토사연구소 연구위원들은 연구결과를 문화지에 수록하고 동시에 《내 고장의 맥》을 발간하기도 했으며, 송탄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경제 등 지역사 전반을 다룬 《송탄시사》 편찬에도 큰 역량을 발휘하였다.



송탄문화원 송탄향토사연구소 문화재 조사 활동 (1989년 7월)

송탄향토사연구소는 1989년 동령줄다리기를 발굴해 경기도민속경연대회에 출전하여 노력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1989년 9월 25일 '제1회 국악경연대회'를 개최하였으며, 한국국악협회 김관철 이

사장을 심사위원으로 초빙해 150여명의 주민 참여 속에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다. 그밖에도 '제1회 향토사연구발표회', 1990년 5월 '제1회 부락단오제' 등을 주관했다. 이밖에도 송탄문화원이 개최한 시조경창대회, 주부백일장, 전통국악인 초청 등은 새로운 차원에서 진행된 송탄예총



제5회 부락단오민속놀이대회(1994년 6월 13일)

창립의 기초 작업이 되었으나 여성문화 논단, 향토문화 논단 등은 계속되는 사업으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 송탄향토사연구소 소장

대수	이름	임기
초대	이정우	1988~1989년
제2대	이정우	1990~1991년
제3대	이정우	1992~1993년
제4대	김용겸	1994~1995년

1990년 송탄문화원 부설 송탄향토사연구소 소장과 고문, 연구위원은 다음과 같다.

▶ 소장 이정우 ▶ 고문 김영광·김기호·김우룡·이명호·이창우·이승학 ▶ 지도위원 김종광·이병태·최윤수 ▶ 연구위원 박희복·원필의·한상규·김정식·김용겸·한정석·차득환·최규동·홍언후

1991년 송탄문화원 부설 송탄향토사연구소 소장과 고문, 연구위원은 다음과 같다.

▶ 소장 이정우 ▶ 고문 김영광·김기호·김우룡·이명호·이창우·이승학 ▶ 지도위원 최규동·김종광·이병태·최윤수 ▶ 연구위원 박희복·원필의·차득환·이웅근·한정석·홍언후·한상규·김용겸 ▶ 간사 정영석

1992년 송탄문화원 부설 송탄향토사연구소 소장과 고문, 연구위원은 다음과 같다.

▶ 소장 이정우 ▶ 고문 김기호·김우룡·이명호·이창우·이승학 ▶ 지도위원 최규동·김종광·이병태·최윤수·봉혁중 ▶ 연구위원 박희복·원행의·차득환·이웅근·한정석·홍언후·한상규·김용겸 ▶ 간사 최은정

1993년 송탄문화원 부설 송탄향토사연구소 소장과 고문, 연구위원은 다음과 같다.

▶ 소장 이정우 ▶ 고문 김기호·김우룡·이명호·이창우·이승학 ▶ 지도위원 최규동·김종광·이병태·최윤수·봉혁중 ▶ 연구위원 박희복·원행의·차득환·이웅근·한정석·홍언후·한상규·김용겸 ▶ 간사 최은정

1994년 송탄문화원 부설 송탄향토사연구소 소장과 고문, 연구위원은 다음과 같다.

▶ 소장 김용겸 ▶ 고문 김기호·김우룡·이명호·이정우·이승학·최규동 ▶ 지도위원 김종광·이병태·홍언후 ▶ 연구위원 박희복·원행의·차득환·이웅근·최윤수·한상규 ▶ 간사 최은정

4) 송탄문화원 활동 및 역대 사업

송탄문화원은 나라와 지역사회에 헌신하는 문화원, 향토의 새 문화를 창조하는 문화원, 전통 문화 계승 발전에 노력하는 문화원, 창의력의 원천인 개성을 존중하는 문화원, 더불어 손잡고 협동하는 문화원이라는 다섯 가지 활동목적을 표방하였다.

송탄문화원은 문화예술의 불모지였던 송탄지역에 향토문화 발굴과 전통문화 계승, 문예 진흥 활동이 태동할 수 있는 씨앗을 뿌렸다. 그러나 창립 당시에는 별다른 예산이 없었으므로 이사들의 십시일반 사비를 들여 송탄문화원을 운영해나갔다. 예산 부족으로 인해 많은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려웠으며 규모도 그리 크지 못하였다.

송탄문화원이 추진했던 사업들을 살펴보면 크게 ①전통문화 발굴 및 전승 ②문예 진흥활동 ③지역문화 홍보와 교육활동으로 나눌 수 있다. 전통문화 발굴 및 전승 사업으로는 향토사 연구, 향토순례 활동, 동령줄다리기·농악·단오 민속놀이 등 전통 민속놀이 개발 활동, 문화재 발굴·수리 및 보존활동 등을 들 수 있다. 문예 진흥활동으로는 백일장·사진촬영대회·미술 실기대회 등 청소년 교육활동, 그리고 문화취미센터·예술단체 초청공연 등 시민 교양사업을 추진하였다. 지역 문화 홍보와 교육활동으로는 시민 정서함양 사업으로 시민현장 제정, 송탄시 상징물 제정, 시민의 날 문화행사 개최 등을 들 수 있다.

1981년 송탄문화원이 설립되고 초대 원장으로 이정우가 취임하여 처음 시도한 일은 청소년 문화 활동 장려를 목적으로 한 한글백일장이었다. 당시 송탄문화원 이사들은 직접 일선에서 활동하

고 있었기 때문에 한글백일장은 비교적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송탄문화원 설립 초창기만 해도 송탄지역의 문화에 대한 인식은 낮은 편이었다. 송탄문화원이 설립 이후 처음으로 계획했던 공연을 진행하면서 발생한 일화를 보면 당시의 사회적 환경을 짐작할 수 있다. 당시 송탄문화

원은 '제1회 수원시교향악단 초청공연'을 계획했으나 장소가 마땅치 않았다. 숙고 끝에 한일교회에서 개최하기로 했는데 시민 호응도가 낮아 청중 대부분은 학생들이 동원될 수밖에 없었다. 그로 인해 수준 높은 공연을 무대에 올렸음에도 경청하는 태도가 어수선했다. 게다가 연주가 시작될 무렵이 되자 갑자기 한 목사가 교단에 뛰어올라 기도를 드려야 한다며 마룻바닥에 앉아 기도를 드렸고, 연주자들은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 당황했던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문화를 향유하기 위한 토양이 미흡했던 지역 문화의 초창기 현실이었지만 그럼에도 행사 하나하나가 추진될 때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응원하고 함께 하였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송탄문화원은 시민 모금활동으로 1982년 6월 6일 현재의 서정동에 충훈탑을 건립해 제막식을 가졌으며, 시민의 날과 문화의 날 행사를 주관하였다. 1983년 1월에는 신장동 송탄시여성회관 2층에 송탄시립도서관의 인가를 받아 개관하자 송탄문화원이 위탁해서 운영하였다. 송탄시립도서관은 경기도 시범도서관이 되기도 했으나 초창기에는 대부분 고교생의 대학 입학에 위한 독서실 역할을 하는 수준에 그쳤다.

송탄문화원의 활동은 1984년도에 크게 변모하였다. 전통문화부문에서는 내 고장 문화재 보호활동, 전통문화 소개지 발간활동 등을 하였으며, 현대 문화예술 활동으로는 '제1회 송탄미술대전' 개최를 개최해 미술인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시민 문화 공간 부여와 학생 문예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였다. 사진창작동우회 주관으로 '제1회 시민촬영대회'를 개최하였고, 문화의식 향상을 위해 VTR 영상기재를 활용한 순회상영과 전통 다례 보급운동을 전개하였다.

1985년은 송탄문화원 설립 4주년으로 더욱 많은 활동이 있었던 해였다. 특히 음악과 연극부문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두었다. '제1회 시민을 위한 가곡의 밤'은 한국 정상의 테너가수 엄정행 교수를 초빙해 1,400여 명의 시민이 성황을 이루었고, 품바 각설이 공연과 경기연극제 우수작 공연, 대학생 연극제가 정상궤도에 올라 공연되었다.

1985년도 송탄문화원 활동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송탄시 자산동 노인회관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순회 상영하는 VTR을 통해 전통예술 전승활동과 지역사회 교육을 진행하였다. 5월 18일에는 성악가 엄정행 교수를 초빙해 '제1회 시민을 위한 가곡의 밤'을 개최해 많은 성악 애호인들의 호



송탄문화원이 주도하여 건립한 충훈탑 (1982년 6월 6일)



송탄문화원 후원 제1회 송탄시장기 정탈 경기인천지역 남녀 응변대회 (1981년 12월 15일)

평을 받았다. 7월 22일과 24일에는 송탄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통예술인 탈춤강습과 레크리에이션을 강습했으며, 9월 22일에는 주부들의 경료초친 사상을 함양하는 백일장, 노인들의 시조경창을 비롯해 이은관 씨를 초청해 국악인 예술공연을 진행하였다. 10월 12일 송탄시민의 날을 기념해 학생 문예백일장을 개최하였는데 백일장과 미술실기, 사진촬영 부문 등에 200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 솜씨를 자랑하였다. 10월 22일부터 28일까지는 송탄미술대전을 개최하였으며, 10월 22일에는 문화의 날 기념식을 가졌다. 소설가 손소희 외 3명의 강사를 초빙해 여성문화강좌를 개최하고, 가정에서의 문화의식 활성화에 대해 토의하였다.



정기 VTR 상영회(1985년)



경기도민속예술경연대회 송탄시농악대 우승(1985년 10월 5일)

이밖에도 송탄문화원은 송탄시농악대를 보호 육성함으로써 경기농악 전승과 경기도민속경연대회에 출전해 송탄시민의 긍지를 높였으며, 각종 단체 후원을 통해 문예 진흥을 꾀하거나 송탄시 진입로 아치를 정비해 문화도시 송탄의 이미지를 향상시켰다.



수원시립교향악단 초청연주회(1982년 11월 22일)



제1회 가곡의밤(1985년 5월 18일)

송탄예총 창립 이전이었으므로 송탄문화원은 송탄 미술인들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1985년에 제2회 송탄미술대전을 개최하였다. 10월 22~27일에는 송탄시여성회관에서, 10월 28~11월 3일에

는 K-55 미군기지 ARTS CRAFT 센터에서 전시회를 가졌다. 당시 출품작 중 대상은 서양화 부문의 서장호, 최우수상은 사진부문의 이수연이 차지하였다. 우수상은 한국화 부문의 이완수, 서양화 부문 송기수·김영대, 도예부문 한상락, 목판 회화부문 조순조, 서예부문 최홍규, 사진부문 박우미·임창식·강종환이 각각 차지했다.

송탄문화원 이사였던 배우영은 1985년에 발행한 《송탄문화》에 송탄찬가를 실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녘의 햇살 불약산을 밝히고/ 진위천 맑은 물 아름답구나/ 흐르는 물결 따라 펼쳐진
고장/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한 요람의 고향/ 정을 주고 사랑을 주는 우리의 송탄/ 천만년 역
사에 길이 빛나리// 이층신 얼 받은 용기와 겸손을/ 대대로 이어 갈 우리의 사명/ 끈기와 인
내로서 가꿔 빛내리/ 우리 삶을 살찌게 하는 평화의 고향/ 주고받는 사랑 속에 자라는 송
탄/ 천만년 역사에 길이 빛나리”

1986년 송탄문화원은 청소년의 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노력한 해로 문화원이 새로운 활동을 펼쳤던 해였다. 각급학교를 순회하며 청소년 문화강좌를 연 4회에 걸쳐 진행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정신풍토 조성하고 향토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취미·문화센터를 개설하여 봄과 여름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하였는데 20여개 부문에 400여명이 참가해 시민문화 형성에 기여하였다.

송탄문화원이 운영하던 송탄시립도서관은 신축 도서관 개관과 동시에 기존 도서관을 폐쇄하고 소장된 장서를 이관하였으며, 1986년 11월 25일 평송교육청 승인으로 신축된 송탄시립도서관 2층에 송탄문화원 사무실을 두었다가 1992년 11월 26일에 송탄시문화예술회관으로 이전하였다. 초대 도서관장은 정동양이 취임했으며, 1991년 경기도립 송탄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송탄시립도서관은 송탄문화원의 사업취지와도 여러모로 맞았다. 송탄시립도서관의 운영목적은 도서와 문화자료의 수집·보존·활용을 통해 정보 및 문화·교육센터 역할을 함으로써 사회교육과 문화발전에 공헌하는데 있었다. 또한 도서관의 기능은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과 공익적 활용, 공중에 필요한 정보제공, 지방행정 및 산업분야에 필요한 정보제공,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수립 및 실시, 강연회·감상회·전시회·독서회 및 기타 문화 활동, 평생교육의 주축 또는 장려,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과 정보교환,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등이어서 송탄문화원의 기능과 맞는 부분이 많았다.

송탄문화원은 1987년 9월 19일 송탄시농악대를 발족²⁷⁾ 하여 농악을 육성하고 전수활동을 강화해 송탄지역의 대표적인 전통 민속으로 만들고자 노력했으나 예산 부족으로 활동을 장기간 유지하지는 못하였다. 송탄시농악대는 송탄시 8개동 지역 농악대의 우수기능자로 구성되어 송탄시를 대표해 시민 궁지향상과 전통 민속보급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표방하였고, 농악대의 유지 관리는 송탄문화원에서 하였다. 송탄시농악대는 경기도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여했으며, 1986년 9월에 열린 경기도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는 노력상을 수상하였다.²⁸⁾

송탄문화원은 시민현장 제정, 시목 은행나무, 시화 개나리, 시조 비둘기 등을 제정 공포했으며, 1982년부터 ‘한글 백일장’을 운영하였고, 1983년부터는 미술인들의 발전을 위하여 미술대전을 후원하였다. 미술대전은 미술인들의 모임을 태동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1990년에는 미술협회 송탄지부가 발족하는데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1984년 10월 20일에는 ‘제1회 송탄미술대전’을 개최하였다. 1986년에 개최한 송탄미술대전 전 시에는 1,000여 명에 달하는 예술 애호가들이 다녀갈 정도로 성황을 이루었다. 또한 1984년에는 송탄지역 첫 예술단체로 결성된 송탄사진작가동우회를 후원해 매년 ‘시민사진촬영대회’를 진행했다. 이러한 기반을 토대로 1988년 사진작가협회 송탄지부가 창립할 수 있었고 이것은 송탄예술탄생의 기원이 되었다.

1985년 5월 18일에는 ‘제1회 시민을 위한 가곡의 밤’을 개최했다. 1985년에 송탄시립합창단이 창설되어 메마른 송탄지역에 음악으로 즐거움을 주었으나 창립 4년 만에 예산 부족으로 해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곡의 밤은 매년 부족하게나마 이어졌다. 공연장소가 부족해 지하에 위치한 민방위교육장이나 학교 강당에서 이루어졌으므로 공연이 만족스러울 수는 없었지만 가곡 인구 확장에는 일익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였다.

송탄문화원은 1986년 4월부터 취미문화센터를 운영했다. 봄과 여름강좌를 진행했는데 하모니카, 꽃꽂이, 매듭, 기타, 분재, 미용체조, 박공예, 사진 등 30여개 부문에 많은 시민이 몰려 시민 문화 조성에 기폭제가 되었다. 또한 각종 취미 동호인을 구성하도록 유도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²⁹⁾ 1990년에 이르면 분야가 다소 줄어 가정원예, 분재, 꽃꽂이, 바둑, 홈패션, 서양매듭, 한국화, 데생, 판화, 표구, 도자기, 판화, 사진, 기타, 비디오 등의 분야를 강습하였다.

27) 《송탄문화》 제4집, 1987, 74쪽.

28) 《송탄문화》 제3집, 1986, 65쪽.

29) 《송탄문화》 제3집, 1986, 62쪽.

1987년에는 ‘한·일 아동미술작품교류전’을 개최하였다.

1987년에는 송탄지역의 많은 문화예술인들과 씨름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송탄시 문화 창달에 기여하였는데 송탄문화원은 이들 단체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었다. 그중에서도 ‘송암회’는 1987년 여성회관에서 연극 ‘그믐밤 돌이서’와 민방위교육장에서 연극 ‘알’ 등을 공연하였고, ‘송탄미술인회’는 2월 25일부터 3월 1일



송탄문화원 주최 송탄시학생미술실기대회(1987년)

까지 50여점의 작품을 출품하여 여성회관에서 미술인회 창립전을 개최하였다. ‘송탄청년예우회’는 민방위교육장에서 4회에 걸쳐 연극 ‘광인들의 축제’를 무대에 올렸고, ‘금연회’는 관광호텔에서 꽃꽂이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필화랑’에서는 동요 ‘노을의 작곡가 최현규를 초청해 클래식기타 연주회를 가졌으며, 조성진 씨를 초청

해 판토마임을 선보였다. ‘수석인회’는 경기은행 전시실에서 수석인회 창립전을 개최하였다. 조순조는 필화랑에서 제11회 개인전으로 판화전시회를 개최했으며, 송탄사진창작동우회는 파라다이스에서 ‘제4회 사진촬영대회’를 개최하였다. 송탄청년예우회는 백도기 작가를 초청해 강연회를 개최하는 등 많은 단체들이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1986년 당시 송탄지역에서 활동하던 단체들은 다음과 같다.

○ 송탄청년예우회

‘송탄청년예우회’는 김만수 회장을 중심으로 50여명이 활동하였으며, 미술, 연극, 문학 등 종합 예술활동단체로 송탄지역의 청년문화 발전에 모체적인 역할을 하였다. 1978년에 창설되어 매년 연극, 미술전시, 문학의 밤 등을 개최하였다.

○ 송암회

‘송암회’는 김창구 회장을 중심으로 50여명이 활동하는 대학생 모임으로 사회봉사, 문화, 예술 활동을 하는 단체로 송탄 문화인 배출의 일익을 담당하였다. 연 2회 예술제를 개최하였다.

- 불악극단

‘불악극단’은 강성용 회장을 중심으로 20여명이 활동하던 송탄지역의 유일한 연극 동호인 등록 단체로 연극 발전과 시민문화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1987년 신설된 극단이다. 매년 서정동에 소재한 소극장에서 공연을 펼쳤다.
- 송탄미술인회

‘송탄미술인회’는 1987년 설립한 단체로 김영배 회장을 중심으로 30여명이 활동하던 송탄지역 미술인들의 동호회이다.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사회참여 활동으로 연2회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지역 예술발전에 일익을 담당하였다.
- 한음회

‘한음회’는 1987년에 구성된 음악 동호인회로 김태환 회장을 중심으로 35명이 활동하였다. 자선활동에 목적을 두고 연 1회 공연을 계획하던 청년단체이다.
- 송탄시립합창단

‘송탄시립합창단’은 배우영 단무장을 중심으로 50여명이 활동하던 송탄을 대표하는 합창단이다. 송탄시에서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송탄문화원이 주도하고 관리하였다. 비상임단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봉사로 활동했던 송탄지역 유일의 단체였다.
- 송탄시농악대

‘송탄시농악대’는 송탄문화원이 설립을 주도하여 편성된 40명 단원의 농악대로 송탄문화원 이사였던 이병주가 회장을 맡았다. 매년 각 문화행사에 송탄지역 대표로 활동하였다.
- 민속문화연구회 한사위

민속문화연구회 ‘한사위’는 한민족 문화의 전승발전에 목표를 두고 활동하였다. 민속 문화를 좋아하고 전승하기 위해 노력하던 청년단체로 20여명이 활동하였다. 회장은 김동원이며, 봉산탈춤 기능을 습득하는 한편 향후에는 전국 민속을 두루 섭렵해 시민에게 공개하고 향토 특유의 민속개발을 목적으로 했다. 1987년부터 꾸준히 발표회를 가졌다.
- 모임터 ‘소리울림’

모임터 ‘소리울림’는 경기농악을 계승 발전시키는 단체로 20여명의 단원들이 풍물굿, 사물놀이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 한국사진작가협회 송탄시지부

‘한국사진작가협회 송탄시지부’는 1988년 6월 18일 창립하였으며, 정영준이 지부장으로 취임하였다. 현재는 많은 사진예술가들이 전국 규모의 창작활동을 하고 있다.
- 송탄사진창작동우회

‘송탄사진창작동우회’는 권영환 회장을 중심으로 30여명이 활동하였다. 송탄 사진예술 발전을 위한 동호인회로 창립 5년 만에 많은 사진작가를 배출하고, 사진 취미활동을 시민에게 보급하며 건전한 생활풍토 조성에 기여하였다. 시민 사진 활동으로 각종 대회와 전시회 등을 개최하고, 매년 회원전을 개최하여 시민에게 사진예술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 송탄포토클럽

‘송탄포토클럽’은 원철규 회장을 중심으로 20여명이 활동하였다. 송탄 사진예술 발전을 위해 노력했던 동호인회로 많은 작가를 배출하고 시민 취미생활 지도에 기여하였다. 시민을 대상으로 촬영기술 강의, 회원 출사회 등의 모임을 통해 사진예술 보급에 노력하였다.
- 꽃꽂이회 ‘금연회’와 ‘윤선회’

꽃꽂이회는 ‘금연회’와 ‘윤선회’가 활동했다. 금연회는 이옥엽 회장, 윤선회는 송상열 회장을 중심으로 각종 꽃꽂이 강습과 전시회를 개최했다.
- 한국분재협회 송탄시지부

‘한국분재협회 송탄시지부’ 지부장은 신정현이 맡아 분재 동호인들이 재배 정보를 교환하고, 전시회를 개최했다.
- 송탄영상동우회

‘송탄영상동우회’는 1987년 창립해 박면규 회장을 중심으로 10여명이 활동하였다. 송탄의 이

모저모를 자료로 남기고 향토문화를 테마로 작품을 제작하며, 시민에게 비디오 촬영기술을 전수하였다.

○ 공간 문화연 모임터

‘공간 문화연 모임터’는 1987년 창립된 청년단체이다. 강경숙 회장을 중심으로 20여명이 활동하였으며, 음악, 미술, 연극, 문학부 등을 두고 향토문화 형성에 맥을 잇고자 하였다.

○ 기타 문화예술단체

그밖에도 1980년대 송탄지역에서는 문학 씨클 동인 ‘날개’와 ‘태우회’, ‘꽃꽃이회’, ‘수석인회’ 등이 있었다.

송탄문화원은 1985년 《송탄문화》 창간호를 발행해 1989년까지 모두 제9집이 발행하였다. 《송탄문화》에는 향토문화, 전통문화, 향토역사, 문예발표 등을 알리는 소식지 역할을 하였으며, 송탄향토사연구소의 발족과 더불어 향토사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송탄향토사연구소는 지역에 관한 연구 결과를 문화지에 수록하고 동시에 《내 고장의 맥》이라는 책으로 발간하였다.



송탄문화원 주최 송탄시 어린이 글짓기 사생대회(1989년)

문화행사로 청소년 문화강좌를 개최했으며, 송암회의 대학생 연극제를 지원했다. 이와 함께 미술 강좌, 서예, 매듭, 바둑, 하모니카, 분재, 기타, 꽃꽂이, 판화, 사진 등 취미센터 등을 주관함으로써 무료강좌를 실시한 것은 송탄문화원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큰 성과였다.

경로효친 선양, 학생 글짓기는 매년 예산을 투입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교사미술대전 후원, 미술인 초대전, 사진작가 초대전을 수년간 후원했으며 문화유적지 순례도 매년 1회씩 실시하였다. 학생 미술, 사진, 글짓기대회는 매년 지속해 큰 성과를 이루었으며, 한·일 미술작품학생교류도 성과로 꼽을 수 있다. 청소년 자선음악회를 지원하고 각종 문화행사에 후원하였지만, 예상과 다르게 활성화되지 못했다. 반면,

국악경연대회는 큰 성과를 거두어 국악협회 송탄지부가 탄생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수원지역 연극단체 초청행사, 분재 전시회, 꽃꽂이 전시회, 국궁대회 후원 등은 송탄지역 문화예술 활동에 큰 활력을 불어넣었다.

1980년대 송탄문화원에서는 매년 각 사업에 따른 총평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나은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던 것은 문화 공간 부족이었다. 공연장과 발표회장, 전시장, 그에 따른 부수시설 부족은 사업들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지기 일쑤였다. 이러한 문제는 송탄시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된 1990년도 후반이 되어서야 해소되었다. 공간부족 외에 예산부족 문제도 대두되었고, 특히 중년층의 물질만능주의나 과소비 풍조, 청소년에 대한 무관심과 입학 위주의 교육 등은 송탄지역 문화의 양질적 향상의 걸림돌로 지적되었다.

송탄문화원의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향토사연구와 향토순례활동, 동령줄다리기, 송탄시농악대 발족·단오민속놀이 등 전통 민속놀이 개발 등의 전통문화 발굴사업, 문화재 발굴 수리 및 보존활동 등의 전통문화 발굴사업과 문예 진흥활동, 지역문화 홍보와 교육활동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경기도민속예술경연대회 송탄문화원 동령샘제 지신밟기 출연(1994년)

특히 전통 민속놀이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던 ‘동령샘제 지신밟기’는 대표적인 사업이었다. 동령샘제 지신밟기는 동령마을에서 정월 첫 번째 용날에 용왕에게 지냈던 우물제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약 300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제사를 지내는 아침에 생기복덕이 좋은 사람으로 제관(당주)과 축관을 뽑으면 당주로 뽑힌 사람은 담배도 피우지 않고 목욕재계를 하는 등 신성함을 유지하였다. 황토를 퍼서 자신의 집부터 우물이 있는 곳까지 황토를 뿌리고 오방기를 우물로 들어가는 양쪽에 꽃으면 축문을 읽고, 소원을 빌며, 소지를 올리면서 제사가 시작되었다. 농악과 함께 어우러졌으며 마을의 축제로 진행되어 이웃들 간에도 화합을 다지는 전통 민속이다.



송탄문화원 주최 제4회 단오민속놀이(1993년 6월 24일)

이처럼 송탄문화원에서 추진한 다양한 사업들은 송탄시의 역사와 전통문화,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의 전기를 마련하였으며, 지역주민에게 송탄시민으로의 정체성과 애郷심을 갖게 하는 활력소 역할을 하였다.

(1) 《송탄문화》 및 《향토사》 발행

송탄문화원에서는 송탄의 문화 활동과 역사 등을 알리기 위해 1984년부터 《송탄문화》를 간행하였다. 당시 송탄지역에는 출판사는 없었으며, 금성출판사나 웅진IO 등의 도서출판사 지사들이 몇 군데 존재할 뿐이었다. 출판등록된 인쇄소도 20여 곳에 불과해 실질적인 출판물은 각종 사회단체나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기관지 정도를 인쇄하는 수준에 그쳤다.



송탄문화원 발간 송탄문화(1980년대)

창간호에 실린 송탄문화원 소개 코너에는 초창기의 사업과 운영, 활동과 방향성이 잘 나타나 있다. 다음은 1985년 1월 15일 발행된 《송탄문화》 창간호에 실린 내용이다.

○ 사업개요

송탄문화원은 창립 4년에 이르면서 송탄시 향토문화의 전승 보존사업 및 창조적 송탄시민 문화의 조성에 힘써왔으며, 각종 문예 진흥 활동을 통하여 시민문화 수준의 향상에 기여해 왔다. 또한 끊임없는 문화유산의 발굴 및 전승을 통하여 조상의 슬기와 얼을 본받아 송탄시민으로서의 긍지감을 높이 갖도록 힘써 왔다. 이제 송탄문화원의 사업을 구분하여 들어보도록 하자.

○ 활동사항

송탄문화원의 활동목표는 향토 전통문화 발굴 및 전승에 기본적 중점을 두고 향토 사회교육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의 사업은 전통문화 발굴 전승 사업으로서 향토 고유의 유적, 전설, 풍속, 고전예술,

사찰, 무형문화재, 언어습성, 지명유래, 인물 등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조사된 자료의 정리와 보존에 있어서 분석 정리 후 기록, 녹음, 도표, 촬영 등의 방법에 의하여 보존하며 향토지 등의 형식으로 편찬하여 널리 파급한다.

둘째의 사업으로서 문예 진흥 활동으로서 문학, 미술, 음악, 예능부문으로 구분하여 백일장, 발표회, 강연회, 미술전, 미술 강좌, 음악경연, 초청연주회, 농악대회 등을 실시하며 이로 인하여 송탄시민의 문화적 소양을 높였고 시민 스스로가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게 하였다.

셋째로는 사회교육 사업으로서 각종 강연회 및 교양교실 운영으로 청소년의 향토애 고취를 위한 영화 및 강연활동과 시민의 향토애 고취를 위한 전통문화 교육(다례회, 전통문화 수준향상을 위한 영화상영, 전통음악연주회 등)을 하고 있다.

넷째로는 시립도서관의 운영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청소년 및 시민들에게 좋은 지식의 전당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아직은 그 규모가 작지만 머지않아 확장될 전망이다.

다섯째로는 국제문화교류 활동을 들 수 있으며 이는 외국인이 체류하는 지역이기에 우리의 문화를 자랑하고 지역의 홍보를 통하여 크게는 한국민의 우수성을 보이며 적게는 송탄시의 역사적 문화적 긍지를 재인식하게 함에 있다.

○ 운영

문화원은 문화공보부에 법인으로 등록하여 설립되며 그 재원은 지방유지의 기부 및 공공도서관의 관리대행, 향토지의 편집 주관, 시·군 주관 문화행사의 이양, 문화재 발굴사업의 유치 등에 의한 간접보조 및 문예진흥원, 시·도, 기타 관련부서의 간접보조 등으로 하나 사업을 전개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그러나 국가의 새 문화 창달로 새 시대 건설이라는 정책에 힘입어 오늘날 송탄문화원은 송탄시민의 사랑 속에 성장하고 있다.

애郷지로 《향토사》라는 제호를 가진 책은 송탄문화원이 1985년 7월 25일 《송탄문화》 창간부록으로 처음 발행하였다. 《향토사》 창간호에는 평택과 송탄의 3.1독립운동을 수록해 송탄인의 자랑스러운 길이 남을 수 있게 했으며 누구나 송탄의 변천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방 이후부터 1950년대 중반기까지의 자료를 정리해 수록하였다. 표지로는 김홍도의 '단원도'를 실었다. 목차를 살펴보면 발간사에 이어 선현의 발자취와 전해오는 설화를 모은

내 고장의 향기, 유서깊은 나무와 샘을 기록한 내 고장의 풍물, 특집으로 내 고장의 3.1독립 운동사와 송탄의 근대 변천사, 내 고장의 풍속놀이와 우리나라 풍속과 전통을 기록한 민속, 시조와 민족정신, 조선시대 과거제도를 기록한 논단, 송복산(창선) 씨를 찾아서, 옛 선비의 숨결을 따라가는 탐방과 기행 등을 실었다.

1992년에는 송탄문화원 부설 향토사연구소가 송탄시사편찬위원회의 명의로 《향토사 제1집》으로 명명하여 역사, 독립운동사, 인문환경, 성씨 등을 수록했고, 500여권을 발행하였다.

송탄문화원이 발행한 《송탄문화》는 매년 12월을 기준으로 간행하였다. 창간 당시 발행부수가 500여부에 불과했던 《송탄문화》는 이후 부수를 계속 늘려 1,000여권을 꾸준히 발행하면서 송탄 지역사회의 문화예술과 변천을 한 눈에 알 수 있게 하였다. 《송탄문화》 편집은 정영석 사무국장과 사무국에서 전담하였으며, 내용은 기고로 받은 원고, 향토사연구회의 자료발표, 문화행사와 단체 활동 소식 등으로 구성되었다.

《송탄문화》는 1985년 창간호를 시작으로 1994년 《송탄문화》 제12집이 발간되었다. 대체로 연 1회 발간하였으며 연 2회 발간한 해는 1985년에 《송탄문화》 창간호와 《송탄문화》 제2집, 1990년에 《송탄문화》 제7집과 《송탄문화》 제8집이다. 주요내용은 시정시책, 교육, 문화, 역사, 민속, 인물, 문화유산, 건강, 취미, 행사소식 등을 담고 있다.

《송탄문화》 창간호는 표지에 서장호 작가의 추상화 '토지'를 실었다. '문예중흥선언문'과 '송탄시 민헌장'이 이어지고, 이정우 송탄문화원장의 창간사와 이자현·유치송 국회의원의 격려사, 고향 송탄시장의 축사, 송탄시청 소개, 송탄문화원 연혁 등이 실렸다.

이어 각 기관단체장의 칼럼이 소개되었고, 문화논단으로 이정우 송탄문화원장의 '한국가정의 뿌리와 가풍의 고찰', 문재길 송탄시 문화계장의 '전통문화와 민족정신의 형성 및 계승 발전'이 게재되었다. '나의 인생론'이라는 챕터에는 최규웅 송탄문화원 부원장의 '즐겁고 멋있는 삶'이 실렸고, 생활인의 독서의식, 내 고장 학교 순례로 송탄지역 학교의 연혁과 교훈, 학교현황, 활동, 교육 목표 등이 실렸다. 송탄지역의 역사인물과 풍습 및 설화, 문헌으로 본 우리고장의 이모저모, 현대의 송탄시 이모저모, 우리민족의 오락, 고사성어, 건강가이드, 취미생활 '낚시', 봉사단체 소개로 애향보육원과 B·B·S 송탄지부가 실렸다.

문화원 소개로 기구조직, 사업과 운영, 화보로 보는 활동상 등이 실렸다. 지상미술전으로 제1

회 송탄미술대전 우수작품들을 실었고 내 고장의 자랑 코너에서는 송탄시 체육공원을 실었다. 문예작품으로 학생부와 일반부로 나눠 운문, 산문 등을 실었으며, 송탄시 역사와 자연마을 유래에 대해 실었다.

1985년 《송탄문화》 제2호에 실린 송탄문화원의 발자취와 미래상에는 송탄문화원의 설립에서부터 역할 및 발자취, 문화원의 운영과 미래상 등이 자세히 실려 있다. 초창기 송탄문화원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내용으로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문화원의 설립

송탄시에 문화원이 설립된 것은 1981년 8월로서 송탄이 시로 승격된 지 1개월 만의 일이었다. 설립 동기는 송탄시민의 문화적 소양을 높이고 예술적 가치관을 향상시키며 새롭게 변모하는 송탄의 모습에 전통성을 부여하여 훌륭한 송탄인이 되고자 함에 뜻 있는 지역 유지 10여 분이 모여서 노력한 결과 중앙동 송탄시청 부근에 자리를 얻어 발족하였다. 이후 초대 원장으로 이정우 씨를 선임하고, 1982년 1월 문화공보부에 등록하여 설립인가를 받음으로써 사단법인 송탄문화원으로 정식 활동을 시작하였다.

○ 문화원의 역할 및 발자취

송탄문화원은 향토문화의 토착화와 전통문화 발굴 및 전승에 그 목적을 두며, 향토사회 교육을 통해 시민문화 창달을 목표로 활동하여 왔는데 이제 그 발자취를 통해 상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① 전통문화 발굴 및 전승

내 고장의 역사는 멀리 고구려 시대부터 시작되어 고구려가 한강유역을 통치할 때 부산 현에 속하였으며, 백제의 지배 시에는 간달부곡 또는 송촌할달이라 불렸다. 이후 신라와 고려를 거치면서 현 송탄시 동부지역을 삼남대로라 하여 남쪽으로 내려가는 통로로 사용함에 문화와 문물이 발달하게 되었으며 당시 충청도와 경기도 사이에서 전략적 요충지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그 후 조선조 때에 완전히 경기도에 편입되고 충청도의 관문으로 쓰여, 현 칠원마을은 왕의 각 도 순행 시 쉬어가는 곳이기도 하였다. 조선조 중기 남사당의 본거

지가 평택지방이었으니 곳곳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문화유적과 전통이 산재하고 있어 문화원에서는 설립 이래 꾸준히 옛 선인들의 발자취와 유물, 유적을 찾기에 노력하였다.

1982년 각종 문화재 추적활동을 시작하여 1984년 9월에는 동령마을의 조광조와 오달재 유허지의 비각을 보수하였고, 동년 12월에 그동안 조사된 내 고장의 유래 및 유물, 유적과 인물 등의 자료를 정리하여 널리 알리고자 《송탄문화》지의 창간을 하게 되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여 '향토사'를 간행하였으며, 《송탄문화》 제2집을 통한 내 고장의 역사와 전통에 전승 자료를 내기에 이르렀다.

한편, 1983년 2월에는 내 고장의 독특한 전통예술을 발굴 전승하기 위한 농악대를 발족시켜 꾸준히 보호 육성함으로써 시민정신을 함양하고, 대외적으로 송탄의 명예를 드높이는 각종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수차 수상함으로써 옛것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고 송탄시민의 긍지를 드높였다. 또한 1984년 9월에는 전통다례 강좌를, 동년 12월에는 전통문화 전승을 위한 VTR 순회 상영을, 1985년 7월에는 전통예술 강습회를 가졌고, 동년 9월에 전통예술단 초청공연을 하는 등 전통문화를 통한 정신문화 창달의 활동을 광범위하게 펼쳐, 명실공히 송탄문화 발전의 핵심체로 평가받을 수 있게 되었다.



송탄문화원 문화학교 교양강좌(1994년)



송탄문화원 향토순례(1994년 4월 23일)

② 문예 진흥활동

문화원의 사업으로서 문예 진흥활동은 시민의 문화예술적 소양을 높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문화원 창립 첫해인 1981년 10월에 한글백일장을 개최하여 현재 5회에 이르며, 아울러 사진촬영과 미술실기대회를 개최하여 청소년의 문예적 기능의 양성을 꾀하였다.

또한 각종 경연회를 유치하여 시민정신 함양에 노력하였으며, 1982년 10월엔 시립교향

악단 초청공연, 1985년 5월엔 시민 가곡의 밤 등 음악적인 부분에도 활동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1984년 10월에는 송탄미술대전을 개최함으로써 예술분야 진흥을 꾀함에 전국 문화원 활동 중 최초의 새로운 시도로서 올해 2회를 맞이했는데 그 효과가 지대하였다. 이상과 같이 사업은 점차 다양화되고 이밖에도 각종 예술인의 활동에 적극적인 후원을 통하여 예술 활동을 진흥하고 있다.

③ 홍보 및 교육활동

문화원은 국가의 문화적 부흥정책에 적극 협력하여 나아가고 있으며, 특히 내 고장은 1950년대부터 많은 외부인의 전입과 주한 외국인의 주둔으로, 그 전통성 상실의 위험이 있어 왔고,



제10회 송탄시민의 날(1990년)

이에 꾸준한 홍보 활동과 교육활동을 통하여 시민 긍지감 조성과 주한 외국인에게 좋은 시민상을 심어주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주한 외국인과의 각종 전시회를 통한 문화교류에 힘써 1986년에는 외국인 전용의 홍보책자를 발행할 계획이며, 시민 긍지의 향상을 달성하기 위하여 1982년 시민의 날을 제정하고 각종 문화행사를 열어 일체감 형성을 꾀하였다. 또한 1983년에는 시민헌장을 제정 공포함으로써 시민의 긍지를 심어주었다. 이로써 관내 각종 행사에 외국인의 참여가 점차 늘고 있음은 우리의 자랑이라 할 수 있다.

④ 기타 활동

문화원은 1983년 1월 송탄시립도서관을 위탁받아 관리 운영하여 청소년과 시민들에게 산교육의 현장으로 활용하게 하였고, 많은 도서를 확보하여 1986년도에는 열람실의 운영을 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화원의 창립 4년에 이르는 발자취는 송탄시민의 정신 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며 송탄인의 자랑이 될 것이다.

○ 문화원의 운영

우리나라에서 지방문화원은 1950년대에 향토계발을 위한 봉사단체로 시작하여 1960년대에 이르러 국가적인 승인을 받은 법인사업체가 되었으며, 1965년 공포된 '지방문화사업조성법'에 의하여 제도적인 보호를 받게 되었는데 당시의 특색은 정부시책의 홍보를 주로 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정부의 보호육성이 미흡하여 그 발전이 미약하였다. 그러나 1974년 정부의 전통문화 선양과 향토사회 교육에 문화원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홍보적인 활동에서 향토문화 창달 활동으로 전환하면서 정부의 지속적 지원을 받게 되고, 1980년대에 이르러 새로운 문화부흥 정책에 힘입어 문화원의 활동이 극대화되었다. 송탄문화원은 이러한 문화부흥기에 설립되어 송탄시민을 위한 문화의 꽃을 피우는데 그 초석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화원의 운영은 다음과 같다.

① 문화원의 구성

'지방문화사업조성법'에 의하면 문화원은 비영리법인으로서 '민법' 제33조에 의하여 설립된다. 문화공보부의 설립허가를 받아 구성하고 당해 지역의 향토인으로서 자발적으로 조직된 봉사단체라 규정할 수 있으니 이는 사회의 여타 단체와 다른, 순수한 향토애의 의지로 설립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통상 문화원의 조직은 이사회와 사무국을 두고 운영되며 이사회는 뜻있는 향토인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을 위한 재원을 담당하고 사무국은 향토문화 창달사업의 집행부서로서 활동한다. 또한 전문위원회가 있어 문화예술 전문인들의 자바적인 봉사를 통하여 각종 사업의 활성화를 꾀한다.

② 문화원의 운영

문화원의 운영은 재정적인 면과 활동적인 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로 재정적인 면에서 보면 우선 문화원의 활성을 위한 자체기금의 조성으로 재정을 확보하고 문화공보부의 문화 활동 지원과 해당 시도의 문화사업 지원정책에 따른 지원을 받으며 뜻있는 향토인의 기부를 받아 순수한 비영리적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문화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부족한 바가 없지 않아 내 고장의 애향인의 많은 참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활동적인 면에서의 운영은 조직의 운영을 말하며, 지역 애향인으로 이사회를 구

성하여 향토문화 창달의 방안을 토의하고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며 전문위원회에서 활동 지침을 마련하여 각종 계획을 수립하며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유대를 조성하여 사무국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감사를 두어 활동의 당위성을 감독하게 하고 있다. 현재(1985년) 송탄 문화원은 초대 원장 이정우 씨를 모시고 제2대 원장 최규웅 씨가 이끌고 있으며 부원장 3인, 감사 2인 및 여러 이사들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다.

○ 문화원의 미래상

2000년대의 선진문화 창달을 위한 자주적 민족정신의 확립이란 사명을 가진 문화원은 무궁한 영광의 길인 험난한 가시밭길을 헤쳐 나갈 것이요, 내년 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거쳐 가는 동안 꾸준히 성장하여 갈 것이다. 한 민족, 한 지역의 전통과 문화예술의 발전은 민족정신, 시민정신을 드높이고 타 민족 타 지역의 추종을 불허하여 그 우수성을 영원히 지속하게 될 것이므로 문화원의 미래상은 내 고장에 없어서는 안 될 문화의 전당으로서 빛나야 할 것이다.

그러나 향토인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없다면 힘없이 사라져 버리고 문화의 불모지가 되고 말 것이니, 내 고장의 문화원을 전 시민 누구나가 아끼고 사랑하여야만 될 것이다. 그럼으로써 문화원은 시민과 함께 항구히 발전하고 내 고장의 명예는 한없이 빛나게 될 것이다.³⁰⁾

30) 《송탄문화》 제2집, 1985, 88~90쪽 인용.

(2) 《송탄시사》 발간



송탄시사(1994년)

송탄문화원이 발간을 주도한 《송탄시사》는 3년간의 집필기간을 거쳐 1994년 9월 30일 간행하였다. 선사시대부터 1993년 말까지를 기준으로 했으며 중앙사의 흐름에 맞추어 지역성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하였다.

목차를 살펴보면 제1편 총설, 제2편 역사, 제3편 정치, 제4편 행정, 제5편 사범·치안·소방·안보, 제6편 산업·경제, 제7편 보건·사회복지, 제8편 교육과 종교, 제9편 문화예술 및 체육, 제10편 민속과 설화, 제11편 문화재와 유물유적, 제12편 성씨와 인물 등이 수록되었다.

《송탄시사》 편찬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위원장 : 송탄시장 박규민(전임-최병호, 권호장, 홍성원) ▶ 부위원장 : 송탄시의회 의장 이병주(전임-한창수), 송탄문화원 송탄향토사연구소장 이정우 ▶ 위원 : 김우룡(경기도교육위원), 원진식(충무처 기획관리실장), 유재호(송탄문화원장, 전임-유광노), 이광재(경희대학교 교수), 이만익(전 충북대학교 교수), 이용권(저작권심의위원회 조정위원장), 최창섭(서강대학교 교수), 홍명섭(민자당 고문) ▶ 간사 : 문화공보실장 신흥근(전임-홍윤선) ▶ 서기 : 문화계장 봉혁중(전임-최윤수) ▶ 상임간사 : 김용겸, 최은정 ▶ 집필위원 : 김용겸, 김우룡, 박희복, 오세문, 윤태걸, 이광재, 이정우, 차득환, 최규용, 최종철, 하주선, 홍언후 ▶ 편집·교정위원 : 김용겸, 이수연, 최규동, 최윤수, 최은정 ▶ 제자 : 우곡 김영광(제10, 11, 14대 국회의원, 시사편찬위원회 고문) ▶ 사진 : 이수연(사진작가)

다음은 《송탄시사》에 기록된 이정우 송탄시사편찬위원회 상임위원의 발간사 전문이다.

송탄시에 살면서 시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문헌이 없다는 것을 항상 아쉬워하며, 송탄시 향토사를 연구하고자 노력하던 중 송탄시사의 편찬이 결정되어 시작된 3개년간의 세월에 사회, 행정, 산업경제, 문화, 민속 등의 분야에 걸쳐서 편찬집필위원들의 정성이 열매를 맺어 송탄시사라는 제호로 시민 앞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송탄시의 모든 것이 들어 있다고 자부할 송탄시사가 보는 이에 따라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수천 년 한반도 역사에 비추어 작은 지역이 지니는 고문헌, 실재적 사료의 빈곤, 고증제보자의 부족함 등은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연구해 나갈 과제라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간의 시사편찬 결과만을 종합하여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시사편찬 실무를 맡아 보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그동안 송탄시를 거쳐 가신 여러 시장님과 박계민 시장님의 적극적인 후원과 협조, 그리고 시민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무난히 임무를 마치게 되었으며, 저와 함께 노력하여 주신 편찬집필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송탄시사가 시민 여러분의 정서에 크게 도움이 될 훌륭한 양서로서 필독되기를 기원하며, 앞으로도 향토사 연구를 계속하여 보충되는 자료를 지속적으로 내어 보일 것을 약속드리면서 시민 여러분의 애정 어린 성원을 바라는 바입니다.³¹⁾

4. 평택군문화원 창립 및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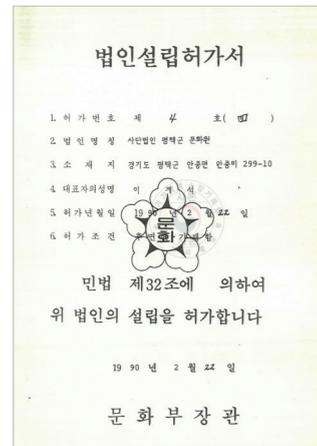
1986년 1월 1일 급속한 산업화로 인구 팽창과 행정수요가 증가하면서 평택읍이 평택시로 승격되었고, 이로 인해 기존 평택문화원이 평택시를 활동기반으로 한 문화원으로 편입되자 평택군에도 새로운 문화원 설립이 필요해졌다. 1990년 당시 안중면은 평택군 서부지역의 안중면, 포승면, 현덕면, 청북면, 오성면의 중심지로 5개면 전체 인구는 55,000여명이었고, 그 중 13,000여명이 안중면에 거주하였다.

1) 평택군문화원 창립

평택군문화원은 3개 시·군 가운데서는 가장 늦은 1989년 별도의 문화원 설립에 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의견에 따라 이계석, 정기풍, 이계왕, 이익번, 정시강, 이계승, 조익연, 문재형, 백남희, 정춘훈, 이민관, 정의화, 김창빈, 이상용, 선공주, 용갑중, 황건무, 인효환, 조형묵, 정광래, 권병천, 김경호 등 22명이 발기인이 되어 평택군문화원 설립을 주도하였다.

31) 《송탄시사》, 1994, 8쪽.

평택군문화원 창립회원들은 1989년 11월 17일 안중면복지회관 대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가졌고, 그해 12월 법인 설립신청서를 제출하여 1990년 2월 22일 '문화부 공고 제9호'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해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았다.



평택군문화원 법인 설립 허가서 (1990년 2월 22일)

당시 평택군문화원 창립총회에는 창립회원 전원과 이자현 국회의원, 윤봉수 평택군수, 관내 기관장과 단체장, 유지 등 74명이 참석했으며, 회의에서는 정관 통과, 임원 선출, 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쳤다. 선공주 회원이 사회를 맡았고, 이민관 회원의 설립추진 경과보고, 이계석 회원의 발기인 대표인사, 윤봉수 평택군수의 격려사, 이자현 국회의원의 축사가 진행되었다. 김경호 회원이 임시의장에 선출되었고, 정관에 의해 원장 이계석, 부원장 정기풍, 감사 권병천·김경호, 이사 이계왕, 정시강, 조익연, 이계승, 용갑중, 정춘훈, 정의화, 문재형, 정광래, 김창빈, 선공주, 황건무, 이상용, 이민관, 이익범, 인효환, 조형묵 등이 선출되었다.

초기 평택군문화원 회원으로는 이영규(평택군정자문위원), 권병천(체육회 지부장), 조익현(면개발자문위원), 문재형(사회정화 평택군 부회장), 백남희(전직 공무원), 정춘훈(사회정화위원장), 이민관(평택군소년지도위원장), 한기중(전 현덕면장), 김창빈(평택군이북5도민회 회장), 이계석(평택군 행정전문위원), 김경호(사회정화 사무국장), 정기풍(농촌지도자회 회장), 이익범(상업), 정기상(안일여중 육성회장), 이계승(상업), 정의화(운수업), 이상용(목장 경영), 선공주(전 안중청년회의소 회장), 용갑중(사업), 황건무(사업), 인효환(청소년선도위원), 조형묵(여행업), 정광래(목장 경영), 박관서(평택군체육회 이사), 전운상(지방행정동우회장), 박재우(면 의용소방대장), 김원배(민정당 동부회장), 조영묵(평택군정자문위원), 이계왕(평택군정자문위원), 최기영(육성회 부회장), 박영덕(평택경찰서 경목위원장), 박근철(평택군정자문위원) 등이 활동하였다.

평택군문화원 원사는 1990년 12월 31일까지 14개월간 경기도 평택군 안중면 안중리 299-10번지 안중면사무소 내에 있는 안중면복지회관을 무상으로 임대해 사용하였다. 평택군문화원은 안중면종합복지회관 건물 중 일부에 사무실, 도서실, 강당(영사실), 전시실 등을 사용하였다. 평

택문화원이 사용한 시설면적은 전체 222.1평 중 사무실 20.9평이었다. 도서실은 42.9평으로 150석 독서대와 20여개의 서가를 보유하고 있어 시설은 매우 양호했지만 도서 등 자료는 다소 미흡하였다. 강당은 71.5평, 전시실은 11.3평으로 공간이 좁아 전시실로는 다소 부적합한 면이 있었다. 시청각실은 36.3평으로 문화원에서 약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안중면 현화리 산 83번지 안중중·고등학교의 어학실을 같은 기간 동안 무상 임대해 사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기타 39.2평에는 화장실, 창고, 로비 등이 포함돼 있었다.



평택군문화원 원사(1990년)



평택군문화원 강당(1990년)



평택군문화원 도서실(1990년)



평택군문화원 시청각실(1990년)

평택군문화원은 1994년 6월 14일 평택군 안중면 학현리 산 86-1번지 평택군문화예술회관으로 이전하였다.³²⁾

32) 실제 등기일자는 1995년 2월 15일로 되어 있다.

초대 평택군문화원장은 안중에서 한약방을 경영하던 이계석이 맡았으며, 2대 원장은 김창빈, 3대 원장 이민형으로 이어졌다. 사단법인 설립허가 당시 평택군문화원은 원장 1명, 이사 18명, 감사 2명이 활동하였으나 정관에는 원장 1인, 부원장 1인, 이사는 원장과 부원장을 포함해 5인 이상 30인 이내, 감사 2인을 둘 수 있다고 되어있다. 원장, 부원장, 이사의 임기는 4년이었으며, 감사의 임기는 2년이였다.

평택군문화원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당시 고문은 윤봉수 평택군수, 박중호 평택경찰서장, 조용락 변호사, 방효선 세무회계사, 정범영 평택군교육장 등 군단위 기관장 중심으로 5명이 있었다. 자문위원은 정용명 농협 평택군지부장, 이연한 평택세무서장, 곽영노 기호농지개량조합장, 이주상 평택농지개량조합장, 신동주 평택축협 조합장, 박두환 평택우체국장, 조영행 평택의료보험조합장, 한달선 안중 석평서예학원장 등 공공기관장 중심으로 8명이 선임되었다.

별도의 후원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당시 지역 기업인 금성사, 매일유업, 롯데제과, 신풍제지, 영진약품, 만도기계, 삼정펄프 등 99개 업체가 산재해 있어 설립 초기에는 이들을 중심으로 후원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초창기 예산은 지방비 2,250만원을 포함해 4,030만 원이었다. 사업내용으로는 자체 문화행사로 전시회, 문화강좌, 어린이사생대회, 주부백일장 등 기존 지방문화원의 문화행사와 유사하였다. '소사벌백중놀이'는 1985년부터 평택군에서 실시한 평택의 특색 있는 문화제로 1990년 9월에 진행된 '제6회 소사벌백중놀이'부터 평택군이 평택군문화원에 위탁해 진행하였다. 이밖에도 평택군 문화원은 《우리고장 얼 찾기》 책자발간으로 평택군 역사인물, 문화재, 지명 등을 소개하였고, 충효 및 도의 선양교육 등이 진행하였다.

평택군문화원의 1990년도 사업예산 내역 중 수입부분을 살펴보면 이사회비가 530만원, 보조비 1,400만원, 문화행사 위탁비 1,550만 원, 기타 550만 원 등 모두 4,030만원이 계상되었다.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기관운영비 1,080만원, 재산비 3,625만원, 사업비 2,050만원, 예비비 537만 5,000원이 계상되었다.

평택군문화원 설립 당시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1989년 1차년도 사업비는 설립기금으로 충당하고, 2차 년도부터는 정부 보조금, 회원 회비, 기금, 이자수입, 평택군 주관 문화행사비(위탁비)로 충당한다고 되어 있다. 사무국과 직원의 인건비는 이사 출연금과 평택군의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충당하고, 문화원 사무실은 1990년도 말 준공이 완료될 평택군문화예술회관에 입주하는 것

으로 되어 있다. 1990년도에 소요될 예산계획은 모두 3,492만 5,000원으로 운영비 1,080만 원, 재산비 3,625만원, 사업비 2,050만원이 책정되었다. 운영비 가운데 인건비는 모두 720만원으로 국장 1인과 직원 1인의 급여와 상여금이 포함되었다.

재산비 내역에는 사무실 집기구입비로 책상, 의자, 응접세트, 책장, 회의용의자, 난로, 탁자, 보조탁자, 타자기, 캐비닛, 서류함, 강연대, 잡지대, 전화기 구입 및 설치 등이 포함되었으며, 카메라, VTR, 영사기와 전시판, 앰프, 마이크, 텔레비전 등은 임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사업비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서예, 한국화, 사진 등 전시회 350만원, 수석전시회 50만원, 문화강좌 2회 50만원, 어린이 사생대회 50만원, 주부백일장 50만 원 등이 포함되었다. 평택군 위탁 문화예술 행사로는 충효 및 도의 선양교육이 1회에 100만원씩 3회 300만원, 《우리고장 얼 찾기》 제 2집 자료 수집비 50만원, 《우리고장 얼 찾기》 책자발간 500만원, 소사벌 백중놀이 700만원이 책정되었다.

특히 평택군문화원 사단법인 설립 당시 《우리고장 얼 찾기》 책자는 제2집을 발행하였다. 책자에는 평택군의 변천사에 대한 자료를 집대성하고 향토에 대한 애향심 고취와 문화유산 전승보존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우리고장 얼 찾기》 책자는 1990년 2월 20일부터 그해 9월 30일까지 자료수집과 편찬이 진행되었다. 집필위원은 3명 이내의 학계와 공무원 출신으로 향토사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사가 맡았다. 연차별 운영계획을 살펴보면 1년차인 1989년도에는 270만원, 2년차인 1990년에는 국비 700만원과 군비 700만원을 포함해 4,030만원을 책정하였다.

1989년 12월 정부 부처인 문화부에 평택군문화원 설립 허가 요청 당시 이계석 평택군문화원장이 쓴 '평택군문화원 설립취지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겼다.

“우리 평택군은 경기도 서남부 최남단에 위치한 교통의 요지이며 대단위 평야지로서 특히 2000년대를 전망해 볼 때 서해안 시대에 부응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발전이 기대되며 아산호 연안에 국내 최대의 대규모 항만시설 계획이 추진됨에 따라 항만배후, 도시건설 등 지역발전이 극대화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는 군민 총수가 배가되어 250,000여명으로 증가되고 경제활동 인구 또한 170,000여명에 이르며 1인당 소득이 4,370,000여 원에 달해 선진 복지국가의 문화생활상이 전망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지역발전 구상에 맞추어 주민들의 상대적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총사업비 3,069백만 원을 투자, 문화복지회관을 건립하여 90년도 말에 완공을 보아 쾌적하고 드넓은 문화예술 공간을 주민들에게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고장의 지명과 연혁을 살펴보면 우리 평택군은 옛 진위군과 구 평택군이 병합된 군으로서 삼국시대에 여러 명칭을 거쳐 고려태조 23년 평택현으로 개칭하고 충청도 천안부에 소속되었으며 1895년 진위군이 된 후 1938년 10월 1일 평택군으로 개칭되었습니다.

이렇듯 평택이란 현재의 명칭은 고려 태조(서기 940년)때부터 명명되어 현재까지 1000여년 이상의 지명으로 전래되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고장은 충절의 고장으로서 대표적 인물로는 병자호란 당시 삼학사의 한분이신 충신 홍익한 선생과 정유재란 당시 이순신 장군과 함께 노량해전에서 왜적과 끝까지 싸우다 장렬히 전사한 충신이며 효자이신 방덕용 낙안군수가 있고, 이밖에 서탄면 금암리 출신으로 장흥부사 재임 중 을묘왜란 당시 달양포구에서 왜구와 싸우다가 장렬히 전사한 충신 한온 장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는 일제 통치 시대인 1933년 육삼정의거로 체포되어 '나가사키 형무소'에서 광복과 함께 출옥 재일거류민단 중앙본부 단장 등을 지낸 후 71세에 별세, 망향의 동산에 안장되신 의사 원심창 선생과 항일학생운동을 추진하셨고 해방 후 미군정 당시 군정장관을 지낸 후 6·25 당시 납북되어 고인이 되신 안재홍 선생도 우리고장이 배출한 인물입니다.

한편으로 1982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평택읍에 편입된 안성군 공도면 소사리의 명칭을 딴 '평택소사' 뜰은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 군대와 일본군의 대치 전장이었다는 기록이 택리지 충청도 편에 기록되어 있으며, 1905년 청일전쟁 당시 아산호 지역에서 양국의 해군이 일전을 치렀던 유서 깊은 고장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 환경을 배경으로 한 우리 평택군은 우리고장의 특성을 살린 새로운 전통문화의 고증과 창안에 중추적 기능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문화원 신규 설립이 평택읍의 시 승격 분리 이후 더욱 절실히 요청되는 당면 현안사항이 되었습니다.

향후 2000년대를 맞이하여 군민들에게 문화군민으로서 자질 함양에 최선을 다하는 안내자 역할을 충실히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본 군의 문화원 설립의 충정을 깊이 이해하시어 설립을 허가하여 주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에 본 문화원 설립 취지문을 제출합니다.”

1989년 12월 정부 부처인 문화부에 평택군문화원 설립 허가 요청 당시 제출한 '평택군의 문화환경 및 설립 필요성'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택군은 삼국시대부터 이조 말엽까지 지역 변천사를 조명해볼 때 충청남도과 경기도에 여러 차례 예속되어 왔으며 행정구역의 변천이 전국 어느 시·군보다도 빈번하였던 지역으로서 충청도 생활문화권과 경기도 문화권이 맞닿는 양립생활 문화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인근 충남지역 주민들의 문헌에 의하면 조상들의 출생지 및 묘역이 충남 아술현 가사면(현재 평택군 현덕면 가사리)으로 기록되어 있어 지역 변천사에 의거 자료 규명 요청이 민원으로 진정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문화예술 발전에 헌신적인 협조를 하고 있는 문화예술 단체들을 살펴보면 전수학교 농악단 2개소, 일반 농악단 2개소, 합창단 3개교, 고적대 4개교, 리듬합주부 1개교, 서예학원 1개소 및 금성사 사내합창단 등 10여개 이상의 문화예술 단체가 조성되어 있고, 평택농악전수회관과 평택군문화복지회관 등 문화예술 전당의 공사가 본격 추진 중에 있어 명년에 준공 예정이며, 평택현지 번역 및 책자 발간과 우리고장의 얼 책자 발간 등으로 문화예술 분야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따라서 향후 행정기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협조가 원활히 수행되기 위해서는 이 모든 문화예술 사업을 주도하고 지역사회 문화예술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는 문화원 설립이 문화예술 동호인은 물론 전 군민의 간절한 소망이자 바람이므로 명년서부터는 명실상부한 평택군문화원이 정식 발족되어야겠다고 사료됩니다.”

1989년 12월 정부 부처인 문화부에 평택군문화원 설립 허가 요청 당시 평택군문화원이 사단법인 설립에 대한 지역민의 간절한 바람에 대해 현장실사를 나온 문화부 생활문화국 지역문화과 조사자의 의견은 다음과 같았다.

- 안중면의 입지조건으로 보아 문화원 설립 위치는 적절하나 활동범위가 넓어 문화원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문화원 시설은 형식상 구비하였으나 내부 필요시설이 부족하고, 시청각실은 학교 여학실을 임대 사용하는 것으로 문화원 설립 요건을 구비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보임.

- 그러나 91년부터 신축 중인 평택군복지회관으로 문화원이 이전할 예정이므로 1년간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할 때 90년도 사업수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원장 이하 임원들의 의욕과 열의는 있으나 창립 초기이며, 문화에 대한 기본지식이 부족함.

-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원 설립 기대와 재정지원(사업비 700만원, 운영비 500만원), 문화원사 확보 등 문화원 지원 의지가 돋보임.

- 고문 및 자문위원의 구성이 지역 기관장급으로 구성되어 있어 활용여하에 따라 문화원의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됨.

- 평택군내에는 현재 99개 기업체가 산재해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후원회를 구성할 경우 좋은 결과가 예상됨.

- 평택지역 내 문화단체가 평택시에 편중되어 있어 평택군에 문화원 설립이 절실함(평택시 소재 문화단체-단비합창단, 미술협회 평택지부, 평택미술인회, 평택농악보존회, 평택시문화원)

- 이상의 지역 여건 등으로 보아 문화원 설립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법인 설립을 허가하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향토문화 진흥에 기여토록 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2) 평택군문화원의 조직 및 운영

평택군문화원 초대 원장은 이계석이었다. 이계석 평택군문화원장은 1990년 2월 21일부터 1991년 7월 5일까지 활동하였다. 2대 평택군문화원장은 김창빈으로 1991년 7월 5일부터 1994년 7월 27일까지 활동하였다. 3대 평택군문화원장은 이민형으로 1994년 7월 28일부터 1995년 7월 26일까지 활동하였다.

초창기 평택군문화원 이사들은 대부분 건설업이나 상업,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 평택군문화원 역대 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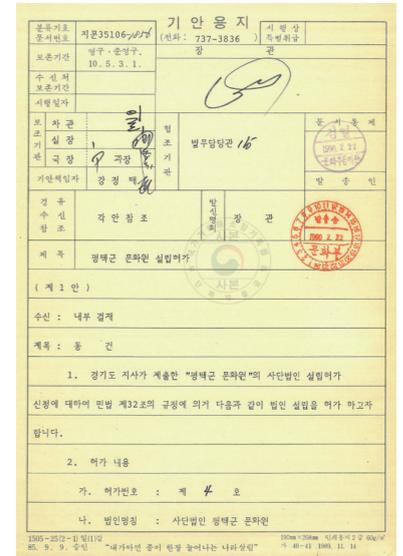
대수	이름	임기
초대	이계석	1990년 2월 21일~1991년 7월 5일
제2대	김창빈	1991년 7월 5일~1994년 7월 27일
제3대	이민형	1994년 7월 28일~1995년 7월 26일

1990년도 평택군문화원 초창기 임원은 다음과 같다.

▶ 원장 이계석 ▶ 부원장 정기풍 ▶ 감사 권병천·김경호 ▶ 이사 이계왕·정시강·조익연·이계승·용갑중·정춘훈·정의화·문재형·정광래·김창빈·선공주·황건무·이상용·이민관·이익범·인효환·조형묵

1992년 평택군문화원 임원은 다음과 같다.

▶ 원장 김창빈(안중통합상사 대표) ▶ 부원장 정기풍(팽성읍 근내목장 대표) ▶ 감사 권병천(민족통일 평택군협의회회장) ▶ 이사 이익범(우성개발)·이계승(합평상회)·이민관(내기부동산)·이계왕(주덕산업)·문제형(농업)·이철수(중앙부동산)·공원식(평택농지개발조합)·정춘훈(농업)·김풍규(사슴목장)·문창호(농업)·이계돈(상업)·엄재선(관광회관)·이상용(항만부동산)·이재영(준건설)·김연수(안중철강)·한상용(화성공업사)·박선규(덕수기계)·이익범(우성개발)·선공주(협진인쇄)·이한영(동신토건)·박용선(광덕고무상회)·전창배(건설업)·정예진(중앙문구)·용갑중(석정중기)·이민우(평택농장)·정병현(안중목욕탕)·임광선(인켈대리점)·조영일(서해부동산)·신봉식(진흥상회)·이진환(샘터표구사)·이계승(PAT대리점)·공세열(농업)·이민형(중앙체육사)·신현주(제일농약사)·한달선(석평학원)·이재원(동양화재보험)·조성돌(레오파드제화)·공창욱(은성부동산)·안효태(유덕상회)·최홍권(일신상사)·오은석(축산업)·양안석(노래방)·강명철(금강슈퍼)·임원빈(한일건설토건)·김남호(한일건설 소장)·김기철(남성건설)·진성송(연세부동산)·최중선(상지이용소)·유순광(청송철학관)·한재욱(평택농장)·김경덕(상업)·손웅수(은혜방앗간) ▶ 사무국장 한동우



평택군문화원 설립 허가 기안문 (1990년 2월 22일)

1994년 평택군문화원 임원은 다음과 같다.

▶ 고문 정세영(평택군수), 우재항(평택경찰서장), 이기창(평택교육장), 조용락(변호사), 방효선(세무회계사) ▶ 자문위원 이주상(평택농지개발조합 조합장), 최동현(평택세무서장), 조영행(평택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 최원배(농협중앙회 평택지부장), 광영노(기호농지개발조합 조합장), 신동주

(평택축협 조합장), 유희운(우체국장), 최완혁(평통협의회 고문) ▶ 원장 이민형 ▶ 부원장 정기풍·문창호 ▶ 감사 정명철·용갑중 ▶ 사무국장 한동우 ▶ 사무간사 공미옥

▶ 이사

-기획분과 : 이철수·이계승·이재영·심상용·이재원

-편집분과 : 이계왕·이진환·유순광·선공주·최승모·표태정·이계돈

-예능분과 : 한달신·양안석·문만복·김연수·민경후·신공우·강종구·조성돌·이익범

-민속예술분과 : 이민관·김영배·홍철원·한재옥·신봉식·임광선·오은석·인효환·박찬걸

-향토문화분과 : 안치국·공원식·정병현·이계승·이한영·한상용·김인태

3) 평택군문화원 부설 평택군향토문화연구소

평택군문화원은 부설기관으로 평택군향토문화연구소를 운영하였다. 평택군향토문화연구소는 김창빈 평택군문화원장이 소장을 맡았으며, 연구위원 명단에는 박세홍 평택향교 전교, 최은창 평택농악 예능보유자, 신권식 《대곡일기》 저자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다.

1992년 평택군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은 다음과 같다.

▶ 소장 김창빈(상업) ▶ 전문위원 백남희(서예가)·한동우 ▶ 위원 신권식(농업)·이학현(농업)·박세홍(농업)·이옥현(농업)·최은창(평택농악 예능보유자)·유원목(평택군의회 의원)·서재하(사회교육 강사)·최일균(도정업)·공오열(농업)·박제호(향토사 연구원)

4) 평택군문화원 활동 및 역대 사업

설립초기 평택군문화원은 지방문화원이 그 지역의 종합 문화센터로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문화원 운영 및 활동에 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가장 큰 목적으로 삼았다. 기본방향은 첫째, 지방문화원이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기능 강화. 둘째, 지방문화원 조직에 향토문화예술인의 참여를 확대하여 지방문화원 활동의 전문성 향상. 셋째, 향토애에 바탕을 둔 향토 고유문화의 보존 및 육성을 위한 사업을 중점 추진. 넷째, 청소년과 주부를 위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개설하여 문화원을 문화교육장으로 개방하는 것이었다.

세부 활동내용을 살펴보면 지방문화원 운영의 쇄신 측면에서 문화원 시설을 생활문화 공간 역할을 하도록 개선하고, 문화원 시설을 공휴일에도 개방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청소년과 지역주민에게 친숙한 문화공간을 제공하였다. 예를 들면 여가활동, 각종 동호인 모임 장소 제공, 영상·전시·공연 등 소규모 문예 행사 개최, 예절이나 교양강좌 등 정서함양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문화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방문화원 조직 개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원 회원을 확대하고 문화예술분야 전문 인사를 부원장이나 사무국장으로 영입하여 문화원 사업을 지원하게 하는 등 역할 강화를 목표로 삼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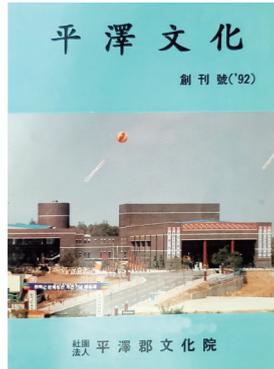
지역 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위해 지역 청소년과 주민이 참여하는 문화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한편 각종 문화예술 정보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제공하면서 지역 문화예술 행사 등을 추진하였다. 도서관, 박물관, 문화예술단체 등과 공동사업 개발 추진, 권역별 문화원 간 교류 증대, 문화에 대한 의식함양 사업으로 전통 및 생활문예 프로그램 개발 보급, 문화 관련 사회교육 활동 강화, 문화 인물 관련 문화행사 추진, 향토 사료 조사연구 및 보급, 향토민속축제 계승 발전, 지역의 자랑인 향토문화 발굴, 출향 인사들의 애향 문화 활동 유도, 내 고장 소식지 발간 보급, 향토문화 유공자 발굴, 청소년의 정서 함양 및 애향심 고취를 위한 사업 개발, 좋은 책 읽기 운동 전개,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예술행사 개발 등을 진행하였다.

평택군문화원이 운영했던 문화 교실에서는 서예, 꽃꽂이, 사진, 난과 분재, 농악, 청소년 한문, 문학동호인회 등 다양한 활동으로 서부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켰다.

평택군문화원은 1991년 9월 12일부터 13일까지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7회 경기도민속 예술경연대회에 ‘태래박 놀이에 논매는 상쇠대 소리’로 출전하였다. 당시 고중 및 지도는 평택농악 예능보유자였던 최은창이 맡았다. 이 놀이는 ‘두레놀이’라고도 부르며 원시시대 농경문화가 발달된 지방에서 발달한 놀이로 부락의 공동노동, 공동의식, 공동가족 등 공동체적인 협동과 단결을 결속하는 놀이다. 이 놀이는 음력 6~7월 공동 작업을 위해 농악을 조직하고 논매기 작업을 진행할 때 행해지는 것으로 태래박으로 물을 길어 올리면 한편에서는 상쇠의 선창에 따라 노래를 하여 김매기의 능률과 흥을 돋게 한다. 이와 함께 두레패끼리 서로 만나면 멀리서 서로 바라보며 북(종고)을 울려 신호를 보내 서로 인사를 받고자 했는데 인사하는 서열을 놓고 싸움이 벌어지는 것을 발굴해 경연에 참여하였다.

이처럼 평택군민들의 문화향유를 위해 노력하던 평택군문화원은 3개 시·군이 통합되면서 설립된 지 5년여 만에 다시 평택문화원으로 흡수 통합되었다.

(1) 《평택문화》 및 《평택군현지》 발간



평택문화 창간호
(1992년 12월 5일)

평택군문화원이 발간한 종합문예지인 《평택문화》는 1992년 12월 5일에 창간호가 발간되었으며, 그로부터 2년 뒤인 1994년 3월 20일 《평택문화》 제2집이 발간되었다. 《평택문화》 창간호는 박길병 청담고등학교 교장을 비롯해 향토사 연구위원인 이학현, 신권식, 박제호 등이 감수위원으로 활동하였다.

《평택문화》 창간호에는 평택군의 상징물 소개에서부터 문예중흥 선언, 평택애향가, 군민현장, 평택군기 등을 차례로 실었고, 이어 심복 사석조비로자나불좌상과 만기사철조여래좌상, 홍학사비각, 평택향교 등 평택군 유적지 현황을 실었다.

본문에서는 발간사와 격려사, 축사에 이어 평택군의 인물로 역대 국회의원, 역대 군수, 역대 경찰서장, 경기의회 의원과 평택군의회 의원 등을 실었다. 군정 방향과 시책이 실렸으며 2000년대의 농촌지도사업과 상공회의소 소개에 이어 고장의 전통과 얼을 소개하는 지면에서는 평택농악, 화춘사, 고잔묘, 사찰의 유래 등을 기록하였다. 또한 우리고장의 인물로 평택군 서부지역 교육 발전에 공헌한 유세준에 대해 게재한 후 특집으로 ‘우리의 것을 찾자’ ‘튼튼한 묘를 가꾸려는 자세’ 등의 글을 실었다. 뒤를 이어 6·25를 생각하며, 학교 및 학생 현황, 종교 현황, 문화예술회관 소개, 평택군문화원의 연혁 등에 대해 기록한 후 평택군민들의 문예로 서예, 미술, 주부와 청소년 백일장 입상작을 실었다.

다음은 1992년 발행한 《평택문화》 창간호에 실린 김창빈 평택군문화원장의 발간사 전문이다.

시대적 흐름이 부를 축적하는데 급급한 나머지 인륜마저도 무시한 채 살아가는 작금의 실태에 실로 안타까움과 두려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서해안 시대의 개막과 남북 화해의 분위기 등을 생각할 때 정녕 올바른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불과 몇 년 후에 그 후회를 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전 그렇게도 배고픔에 갈망하던 시절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호구지책이 아닌 많이 가져야겠다는 욕망에서 죄악이 발생하고 부패가 탄생하는 것이며, 그것은 곧 호구지책에 급급하던 과거에 경시돼 오던 문화예술(정서)의 결핍에서 탄생되는 당연한 부산물입니다. 더욱이 지금보다 더 빠른 속도로 급변하게 될 산업문명의 이기는 국운

을 거론할 만큼, 시대적 우려를 낳게 하는 것입니다. 하기에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 평택시 남부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고 체육공간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며, 지역 문화의 계승발전에 역점을 두는 것이다. 그것은 곧 시대적 바람이며 향토적 갈망입니다.

바야흐로 우리는 스스로를 정화하고 후배들의 인성교육에 앞장서서, 타락된 도덕성을 회복시켜야 하겠으며 조상의 얼을 계승 발전해서 향토적 자긍심을 고취하여 어떠한 외래 문물이 들어와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안정되고 안락한 문화의 고장으로 만드는데 함께 하여야겠습니다.

주지하듯 현대인은 고도로 산업화된 사회에서 인간보다는 물질을 더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대적인 흐름은 부를 축적하는데 급급하고 따라서 종종 인륜마저도 저버리는 경우를 우리 주위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추세에서 더 이상의 인간성 상실을 막고 인간이 보다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지표중의 하나가 전통적인 정신 문화입니다.

가장 민족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말에 비추어볼 때 급변하는 세계의 역사 속에서 우리 한국인을 가장 한국인답게 하고 한국이 세계발전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되어주는 것은 다름 아닌 계승 발전시켜야 하는 한국의 민족문화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문화는 우리나라 각 지역의 문화가 결합된 것이므로 우리 평택군의 문화는 가장 평택적이며 나아가 한국적이고 세계적인 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서해안 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그 중심지가 될 우리 고장이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평택적인 정신문화를 높이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그 초석이 문예회관의 건립이요, 새롭게 창간되는 평택문화지가 꽃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역문화 발전에 관심을 갖고 노력을 경주하는 것은 시대적인 요구와 향토인의 갈망에 부응하는 것이며 우리가 만약 지역문화예술을 경시한다면 인간답게 사는 정신적 지주를 잃게 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끝으로 우리 군민은 각자의 정서를 스스로 순화하고 우리고장의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평택문화지는 우리 군민의 문화예술 의식을 고양시키는 넓은 마당이 될 것이며 이 평택문화지가 만들어져 군민 앞에 당당하게 나설 수 있도록 도와 준 모든 관계자와 군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³³⁾

33) 《평택문화》 창간호, 1992, 13쪽.

《평택문화》 창간호에는 정세영 평택군수, 이자현 국회의원, 권혁동 평택군의회 의장, 우제항 평택경찰서장, 이기창 평택군교육청 교육장, 최동현 평택세무서장, 곽영노 기호농기개량조합 조합장, 평택문화원장을 역임한 이주상 평택농지개량조합 조합장, 조영행 평택군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 허남훈 민주자유당 평택군지구당 위원장, 서화택 안중누까회관 관장, 김완기 제5대 평택상공회의소 회장, 박규영 한국노인회 평택군지회장, 김경배 경기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이명헌 안중학원 이사장 등 각 기관·단체장의 격려사와 축사가 대거 실려 있다.

책자에는 역대 국회의원 현황과 역대 평택군수 현황, 역대 평택경찰서장 현황,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교육위원, 평택군의회 의원 등 평택의 인물들을 실었다. 이어서 1992년도 평택군의 군정방향 및 역점시책을 실었는데 당시 평택군의 역점시책을 살펴보면 지방자치 2차 년도를 맞아 새로운 도약의 틀을 마련하기로 하고 주민숙원사업 우선해결, 지방화시대에 맞는 성숙한 민주행정 구현, 음식문화 개선운동 추진, 폐휴지 재활용 운동전개, 밝고 깨끗한 선거풍토 조성, 주민 불만 요인의 책임해결과 지역안정, 저소득층 자립기반 및 생활기반 시설 확충, 특성 있는 지역개발로 발전 잠재력 극대화, 수해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 환경보전기반 구축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평택호 되살리기 운동 병행 추진, 문화예술 창달과 건전한 생활체육 활성화 등이었다.

《평택문화》 창간호에 실린 당시 평택군의 행정시책 평가 대회 결과를 살펴보면 쌀과학영농단지 육성 전국 1위,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평가 최우수,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 최우수, 옥외광고물 정비실적 평가 최우수, 산림병충해 방제 평가 최우수, 물가안정시책 추진평가 최우수 등 평택군의 성과가 실려 있다.

특히 《평택문화》 창간호에는 1987년 2월 24일자로 한국문화원연합회가 당시 김창복 평택문화원장을 수신인으로 하여 보낸 '문화원 관할지역에 대한 유권해석'에 대한 답변이 함께 수록되어 있는데, 이는 평택시와 평택군 행정구역이 분리되면서 문화원도 분리하여야 하는데 기존 문화원은 평택시를 담당하고, 평택군에는 문화원을 신설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유권해석을 한 한국문화원연합회의 답변이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 문화원(법인)의 주소와 관할지역

- 문화원 법인은 민법 제32조에 의거한 사단법인인 동시에 지방문화사업조성법(법률 제 1, 706호)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11,695호)에 의거하는 특별보호를 받는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문화원(법인)의 주소와 관할지역은 조성법 및 시행령에 의거하여 해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상기의 조성법시행령에서는 문화원 법인의 관할지역을 당해 법인의 주소가 있는 시도는 군 지역으로 하여야 하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참조 : 지방문화사업조성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서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청 또는 군청 소재지와 동일한 지역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군청이 인접한 시청 소재지와 동일한 지역 내에 소재할 때에는 다른 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 현재의 평택문화원의 주소와 관할지역

- 현재의 평택문화원(법인)은 설립허가서에서 주소가 구 평택군 평택읍에 소재함을 표기하여 있고, 1986년 1월 1일 이후에는 평택읍이 평택시로 승격되었으므로 허가서상의 평택읍은 자동적으로 평택시로 개정되게 되었습니다. 곧 앞으로 현행 정관의 변경허가 시에는 평택읍을 평택시로 변경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이전에도 평택읍은 평택시로 간주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기존 평택문화원(법인)의 관할지역은 평택시 지역으로 되었습니다.

- 동시에 현재의 평택군 지역은 법률적으로는 귀 원의 소관지역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 문화공보부의 문화원 설립허가의 관례

- 문화공보부는 종래의 군이 시·군으로 분립하게 된 지역의 기존 문화원(법인) 신설 시 지역 문화원으로 자동 간주하고, 남은 군 지역에서는 문화원(법인)을 신설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군 문화원은 군청이 시 지역에 있는 경우에도 시내에는 둘 수 없고 군내에 주소를 두는 신설의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 기존 문화원(법인)이 예컨대 현재의 평택문화원이 평택군 내의 주소지로 옮기고자 변경허가 신청을 한다고 하는 경우에도 문화공보부는 이를 허가하지 않습니다. 곧 불능인 것입니다.

○ 문화원 관할지역의 특례적 관례

- 종래의 군 지역을 관할하던 문화원(법인)이 시 지역만을 관할지역으로 하게 된 이후에도 현재의 군 지역 문화원이 신설되지 못한 경우에는 종전처럼 오늘의 군 지역까지 결들여 관할하는 것이 전국적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 지역 문화원(법인)에 시와 동시에 그 군에서도 함께 보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어디까지나 법률 이전의 잠정적 사실행위로서 특례일 뿐입니다.

이밖에도 평택군문화원은 '평택사랑'이라는 애향운동을 주관하여 전개하기 위해 회원을 모집한다는 광고 문구를 함께 실었다. 애향운동은 가칭 '평택사랑운동본부'로 하였다.

《평택문화》 제2집은 1994년 3월 20일에 발행되었다. 당시 평택군문화원은 현재 평택시서부문화예술회관인 안중면 학현리 산86-1에 소재하였고, 발행인은 원장인 이민형이었다. 편집위원장은 이계왕, 편집위원은 기계돈·표태정·선공주·유순광·이진환·최승모 등이었다.

평택군문화원은 이계석 초대원장 당시인 1990년 10월에 향토문화자료로 《평택군현지》를 발간하였다. 《평택군현지》는 당초 《팽성현지》로 발간할 계획이었으나 평택군 관련 고문서를 조사하면서 '팽성현지'는 물론 '양성현지'와 '진위현지'가 잇달아 확인되어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팽성현지와 양성현지, 진위현지를 통합한 《평택군현지》로 발간하였다. 당시 양성현에는 평택군 포승면을 비롯한 평택 서부지역을 일부 포함하는 등 평택군과 지리적 여건 등 역사적으로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5. 통합 이전 3개 시·군 문화원의 연혁

1) 평택문화원 연혁(1986~1994년)

1986년 3월 27일	정기총회(5대 김창복 원장 유임, 평택시 승격에 따른 정관 변경 결의)
1986년 5월 31일	청소년의 달 사생대회(아산만)
1986년 8월 22일	제1회 시민의 날 기념 KBS전국노래자랑(평택기계공고 운동장)
1986년 9월 12일	제15회 평택군민의 날 기념행사
1986년 9월 12일	제2회 소사벌 백중놀이 개최(청담중고등학교)
1986년 9월 15일	평택시민의 날 경축행사 문화행사 주관
1986년 9월 15일	시조경창대회(평택시 노인정)
1986년 9월 15일	평택초등학교 어린이농악대 시범공연(공설운동장)
1986년 9월 19일	성화봉송로 문화행사(86 아시안게임)
1986년 10월 16일	사무국 이전(합정동 294 공설운동장 내)
1986년 12월 9일	《소사벌》 제3호 발간(2,000부)
1987년 1월 15일	평택향토사연구소 설치(평택문화원 내)
1987년 2월 3일	평택문화원 정기총회
1987년 3월 14일	정관 변경승인 동기(제2조, 제5조)
1987년 4월 3일~6월 26일	제1기 주부 붓글씨 강습회(50명, 평택문화원 다목적실)
1987년 5월 11~14일	문화강좌(고등학교 순회)
1987년 5월 16일	청소년의 달 한글백일장 및 사생대회(아산만관광유원지)
1987년 5월 30일	음악경연대회(평택시민회관)
1987년 8월 29일	문화공보부 승인 변경(문공35106-1232)
1987년 9월 11일	제3회 소사벌백중놀이(안중고등학교)
1987년 9월 12일	시조경창대회(대한노인회 평택시지부 경로당)
1987년 9월 12~15일	미술초대전(평택농협 전시실)
1987년 9월 15일	제2회 시민의 날 KBS 전국노래자랑
1987년 9월 19일	제1회 학생음악회(평택기계공고 강당)

1987년 9월 30일	평택군민의 날(안중고등학교 교정)	1990년 5월 28일	제2회 병남 단오놀이(덕동산체육공원)
1987년 9월 30일	시조경창대회(안중현대예식장)	1990년	소사벌 서예전시
1987년 10월 21일	민속놀이 탈춤공연	1990년	제5회 평택시민의 날 경축 한글백일장
1987년 12월 19일	《소사벌》 제4호 발간(2,000부)	1990년	충효 및 도의 선양 강좌
1988년 1월	《우리고장의 얼》 발행	1990년	청소년의 달 사생대회
1988년 2월 13일	평택문화원 정기총회	1990년 9월 14일	제5회 평택시민의 날 기념 휘호경연대회
1988년 5월 21일	청소년의 달 사생 및 한글백일장(아산만관광유원지)	1990년 12월	《소사벌》 제7호 발행
1988년 5월 28일	청소년의 달 문화행사(시민회관)	1991년	UN가입 및 시민의 날 기념 초청강연 및 국악놀이
1988년 5월 12~13	평택문화원 문화강좌(시민회관)	1991년	청소년의 달 사생대회
1988년 7월 18~23일	문예진흥기금 조성을 위한 한국화 작가초대전(평택군청 회의실)	1991년	원심창의사 동상 제막식
1988년 9월 9일	시민의 날 문화행사 주관(공설운동장)	1991년	청소년의 달 한글백일장
1988년 9월 13일	제4회 소사벌 백중놀이, 88올림픽 성화맞이 문화행사(진위상고 교정)	1991년 12월	《소사벌》 제8호 발행
1988년 11월 30일	《평택의 문화유적》 발간(1,000부)	1991년 12월 27일	《향토사료집》 제1권 발행
1988년 12월 26일	《소사벌》 제5호 발간(2,000부)	1992년	제3회 자란동신제
1989년 5월 4일	평택문화원 정기총회	1992년	평택문화원 주부 취미교실
1989년 5월 20일	청소년의 달 행사 개최	1992년	병남단오놀이
1989년 6월 8일	제1회 병남 단오놀이 개최(덕동산 체육공원)	1992년	청소년의 달 사생대회 및 한글백일장
1989년 6월 12일	임시총회 임원 개선(6대 원장 김창복 유임)	1992년	시민의 날 및 덕동예술제 사생대회
1989년 7월	평택군문화원 분리추진위원회 구성(추진위원장 이계왕 선임)	1992년 11월 6일	제1회 덕동산 도당 산신제
1989년 9월 23일	시민의 날 문화행사(공설운동장)	1992년 12월	《소사벌》 제9호 발행
1989년	청소년의 날 사생대회 및 한글백일장	1992년 12월 27일	《향토사료집》 제2권 발행
1989년	시민의 날 휘호경연대회	1993년 2월 26일	제7대 조중환 평택시문화원장 취임
1989년 10월 11일	‘평택군문화원’에서 ‘평택시문화원’으로 명칭변경	1993년 10월 27일	사무국 이전(비전동 847 평택시남부문화예술회관 내)
1989년 10월 20일	임시이사회 및 분리추진위원회 개최(평택군청 회의실)	1993년 12월	《소사벌》 제10호 발행
1989년 11월 17일	평택군 문화원 분리 창립총회(안중면 복지회관, 원장 이계석 선출)	1994년 1월	《향토사료집》 제3권 발행
1990년 1월	《소사벌》 제6호 발행	1994년 1월 21일	제1차 이사회의
1990년 2월 9일	자란동신제	1994년 2월 4일	평택시문화원 정기총회
1990년 5월~9월	주부취미교실 운영	1994년 2월 23일	자란동신제

1994년 2월 24일	제1회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1994년 3월 26일	디지털피아노와 생활음악에 관한 세미나
1994년 5월 15일	청소년의 달 학생바둑대회(평택시문화예술회관 제2전시관)
1994년 6월 13일	제5회 부락단오 민속놀이 대회
1994년 6월 13일	제6회 병남 단오놀이(덕동산 체육공원)
1994년 7월 26일	평택문화원 임시총회
1994년 8월 24일	지방문화원 설립인가(문화체육부장관 제137호)
1994년 9월 8일	제9회 경기도민속예술경연대회(안양공설운동장)
1994년 9월 28일	독서의 달 기념 백일장 및 사생대회(평택시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1994년 10월 19일	학생예술제(평택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1994년 12월 8일	작은창극단 초청공연(평택시문화예술회관)
1994년 12월	《소사벌》 제11호 발행
1995년 7월 27일	3개 문화원 통합(유재호 통합문화원장 취임)
1995년 9월 14~16일	제10회 경기도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동령샘제 지신밟기, 성남종합운동장)
1995년 12월	《소사벌》 제12호 발행

2) 송탄문화원 연혁(1981~1994년)

1981년 8월 4일	창립총회(초대원장 이정우 선출/ 서정동 207번지에 사무실 개설)
1981년 10월 20일	문화의 날 기념 제1회 한글백일장 주관
1982년 1월 28일	사단법인 송탄문화원 설립인가(문화공보부)
1982년 4월	사무실 이전(신장동 338번지 여성회관 2층)
1982년 6월 6일	충훈탑 제막(호국영령 101위 추모탑/송탄문화원 김정식 이사 설계)
1982년 6월 15일	시민의 날 및 시민 표상 공모 제정
1982년 8월 24일	대학생연극제 주관
1982년 9월 11일	한갑수 선생 초청강연회

1982년 10월 8일	제1회 시민의 날 기념 행사 개최
1982년 10월 12일	제2회 한글백일장 및 미술 실기대회 개최
1982년 10월 16일	향토문화재 오학사유허비 및 비각 보수 계획 수립
1982년 10월 22일	수원시립교향악단 초청 연주회 개최
1983년 1월 2일	송탄시립도서관 개막(104석/신장동 338번지 여성회관 2층)
1983년 2월 1일	송탄시 농악대 발족 및 후원
1983년 5월 5일	제11회 어버이날 기념행사 개최
1983년 6월 1일	송탄시민헌장, 시 상징물 제정 공포
1983년 10월 8일	제2회 시민의 날 기념 주관, 제3회 한글백일장 및 미술 실기대회 개최
1984년 2월 27일	시립도서관이 경기도 시범도서관으로 지정
1984년 5월 20일	제1회 송탄시민촬영대회 후원
1984년 9월 26일	향토문화재 총의각 보수 및 주변정화
1984년 9월 28일	전통차 예술강습회 개최
1984년 10월 10일	제3회 시민의 날 기념 제4회 한글백일장 및 미술 실기대회, 사진 촬영대회
1984년 10월 15~25일	제1회 송탄미술대전 개최 및 전시회
1984년 10월 20일	'제1회 송탄미술대전'
1984년 12월 12~16일	전통문화 전승을 위한 VTR 순회상영 및 전통 다례회 개최
1984년 12월 28일	이정우 문화원장, 제23회 경기도문화상 수상
1985년 1월 15일	《송탄문화》 창간호 발행
1985년 3월 20~30일	제2회 전통문화 전승을 위한 VTR 순회상영
1985년 4월 26일	문화원 임원 이천도예단지 견학
1985년 5월 18일	제1회 시민을 위한 가곡의 밤 개최(테너 엄정행 초청)
1985년 7월 5일	제2회 송탄미술대전 개최 공고
1985년 7월 18~21일	수원예술극단 유치 공연
1985년 7월 22~24일	청소년 전통예술 강습회 및 레크리에이션 강습회 개최
1985년 7월 25일	송탄문화 창간 부록 '향토사' 발행
1985년 8월 12일	임시총회(제2대 원장 최규웅 선출)

1985년 9월 4일	문화원장 이·취임식	1986년 8월 30~31일	제7회 대학생 연극제 후원(작은 사랑의 멜로디)
1985년 9월 22일	시조경창대회, 주부백일장, 전통예술단(우리국악예술단) 초청공연	1986년 10월 6~7일	제5회 시민의 날 기념 제6회 학생미술실기대회 및 국공대회 개최
1985년 10월 12일	제4회 시민의 날 기념 제5회 한글백일장 및 미술실시대회, 사진촬영대회	1986년 10월 20일	송탄시 문화의 날 기념식
1985년 10월 22~27일	주한미군부대 ARTS CRAFR센터 미술전시회	1986년 10월 20~26일	제3회 송탄미술대회 개최
1985년 10월 22~28일	송탄문화의 날 기념식 및 제2회 송탄미술대전 개최	1986년 10월 27일~11월 5일	제3회 송탄미술대전 우수작, 미공군 ARTS&CRAFTS CENTER 전시, 한미 문화교류 주도
1985년 10월 28일~11월 3일	주한미군부대 ARTS CRAFR센터 미술전시회	1986년 11월 5일	평송교육청 소속 송탄시립도서관 개관으로 송탄시 시립도서관 폐관
1985년 10월 29일~11월 3일	한미 문화교류 '제2회 송탄미술대전' 우수작, 미 ART&CRAFTS CENTER 전시 홍보	1986년 12월 1일	송탄문화원 사무실 이전(서정동 770번지 송탄시립도서관 2층)
1985년 11월 2일	여성문화논단 및 향토문화논단 개최	1986년 12월 6일	경로효친선양 글짓기 공모전(중고등부 및 일반부), 효자효부 표창
1985년 11월 22일	송탄문화원 향토문화논단(송탄시청 회의실)	1986년 12월 13일	청소년 자선음악회 후원
1985년 11월 30일~12월 1일	수원예술극단 초청공연(무엇이 뒤흔다)	1986년 12월 17~19일	송탄사진창작동우회 회원전 후원
1985년 12월 30일	《송탄문화》 제2집 발행	1987년 1월 10일	《송탄문화》 제3집 발간
1986년 2월 6일	제1회 청소년 문화강좌 개최	1987년 2월 21일	제8회 송암 연극제 후원(그믐밤 둘이서)
1986년 2월 15~16일	제6회 대학생 연극제 후원(재치를 뽑는 아가씨들)	1987년 2월 23일	충효도 청소년 문화강좌 개최
1986년 2월 21일	제2회 청소년 문화강좌 개최	1987년 2월 25일~3월 1일	송탄미술인회 창립전 후원
1986년 4월 7일	취미문화센터 봄 강좌 개설	1987년 3월 14~15일	송탄 청년예우회 연극 후원(광인들의 축제)
1986년 5월 9일	신정현 부부 분재전시회 후원	1987년 3월 21일	미스송탄 선발대회 개최
1986년 5월 18일	제3회 시민 사진촬영대회 후원	1987년 4월 18~19일	금연꽃꽂이, 전시회 후원
1986년 5월 23일	제3회 청소년 문화강좌 개최	1987년 4월 24~30일	국민학생 미술 우수작품 일본 전시(송탄 로타리와 일본 사카이동부 로타리 교류)
1986년 5월 24일	청소년의 달 기념 청소년 백일장 개최	1987년 5월 16일	제11회 조순조 판화 전시회 후원
1986년 5월 26일	제4회 청소년 문화강좌 개최	1987년 5월 23일	제3회 시민을 위한 가곡의 밤 개최(엄정행 교수 초청)
1986년 5월 27일~6월 1일	경기남부 미협전 후원	1987년 6월 17~20일	어린이뮤지컬 '피노키오' 공연(수원예술극장 유치공연)
1986년 6월 14일	경로효친 선양 초등부 글짓기 공모전	1987년 6월 19일	경로효친 선양 청소년 백일장 대회
1986년 6월 21일	제2회 시민을 위한 가곡의 밤 개최(메조소프라노 김신자 교수 초청)	1987년 8월 10일	문화취미센터 여름강좌 개최
1986년 7월 5일	관내 교사 미술전 후원	1987년 8월 14~15일	어린이인형극 '거지왕자' 공연(서울 안델센 인형극회 유치공연)
1986년 7월 14일	고신애 피아노독주회 후원	1987년 8월 18일	충효도의 청소년 문화강좌
1986년 7월 20일	청소년 문화유적지 순례	1987년 8월 22~23일	제9회 송암연극제 후원(연극 '알')
1986년 8월 4~31일	취미문화센터 여름강좌 개설		

1987년 9월 19일	송탄시농악대 발대	1988년 10월 2일	제4회 학생사진촬영대회 개최
1987년 9월 28일	제7회 학생미술실기대회, 사진촬영대회 및 시민백일장 개최(제6회 시민의 날 기념)	1988년 10월 20일	1988년 문화의날 기념식
1987년 10월 1일	제2회 국궁대회 개최(제6회 시민의 날)	1988년 11월 6일	민속문화연 한사위의 마당극 및 공간 문화연 모임터의 노래극 공연 후원(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1987년 10월 15일	시민 한마음 갖기 웅변대회 개최(제6회 시민의 날)	1988년 12월 2~6일	송탄미술인 회원전 후원
1987년 10월 16일	송탄시립합창단 발족 및 창단공연(가곡의 밤 개최)	1988년 12월 10~12	사우회 회원전 후원
1987년 11월 1일	봉산탈춤공연 후원(민속문화연구회 한사위)	1988년 12월 10일	제2회 시립합창단 정기공연
1987년 12월 30일	《송탄문화》 제4집 발간	1988년 12월 24~27일	김영대 서양화 개인전 후원
1988년 1월 30일	아마추어 그룹사운드 AGA 발표회 후원	1989년 1월 6일	기사년 신년인사회 개최
1988년 2월 6일	태우회 정기시화전 및 시낭송회 후원	1989년 4월 7일	문화예술 단체장 초청간담회
1988년 2월 10일	충효도의 청소년 문화강좌 개최	1989년 4월 24일~6월 3일	문화취미센터 봄강좌 개설
1988년 2월 13~14일	송암회 연극제 후원(나비아 청산가리)	1989년 6월 22일	제3회 시조경창대회
1988년 2월 15일	송탄문화원 부설 향토사연구소 발족(소장 이정우)	1989년 7월 8~11일	충효도의 선양문화 강좌, 교재 내고장의 맥 간행
1988년 3월 22일	미스 송탄 선발대회	1989년 7월 23일	송탄문화원 향토순례
1988년 4월 7~25일	일본 사카이 동부 가네오까시 초등학교 미술작품 순회전시(총 127점)	1989년 7월 23일	모임터 풍물놀이 후원
1988년 4월 17일	송탄문화원 임원진 여주문화원 방문 및 도요지 견학	1989년 8월 19~20일	송암회 연극 '팽' 공연 후원
1988년 4월 24일	향토순례(송탄여중고 학도애향대)	1989년 8월 30일	정기총회(제3대 원장 오승수 선출)
1988년 5월 6일	경로효친선양 주부백일장 개최	1989년 9월 8~9일	경기도민속경연대회 '동령줄다리기' 출전(노력상 수상)
1988년 5월 9일~6월 25일	문화취미센터 봄 강좌 개설(12개 강좌 150여명 참여)	1989년 9월 23일	제3회 시립합창단 정기공연
1988년 5월 27~31일	송탄미술인회 후원	1989년 9월 24일	봉산탈춤, 풍물놀이 공연
1988년 6월 4일	한사위 탈춤공연 후원	1989년 9월 24~27일	사진작가 초대전
1988년 6월 12일	제2회 시조경창대회	1989년 9월 25일	제9회 학생 백일장·미술 실기대회 및 제5회 학생촬영대회 개최
1988년 8월 19일	송탄시민예술제 개최(효명고 야외음악당)	1989년 9월 25일	제1회 국악경연대회
1988년 8월 20일	제8회 송암예술제 개최 후원	1989년 9월 28일~10월 1일	미술인 초대전
1989년 8월 30일	임시총회(제3대 원장 오승수 선출)	1989년 10월 7일	경기남부 6개 시·군 초청 국궁대회 후원
1988년 9월 12일	제8회 학생미술 실기대회 및 시민백일장 개최	1989년 10월 20~26일	제6회 송탄미술대전
1988년 9월 16~21일	제5회 송탄미술대전 개최	1989년 11월 4~7일	사우회 회원전
1988년 9월 25일	제1회 국악경연대회	1989년 11월 10일	송탄문화원장 이취임식

1989년 12월 11일	송탄문화원 이전 (송탄시 신장동 338 → 송탄시 서정동 서정택지개발지구 근린공원)	1991년 5월 20일	임시총회(제4대 원장 유광노 선출)
1989년 12월 19일	충효도의 문화강좌(동절기), 교재 《내 고장의 맥》 증보판 간행	1991년 5월 23일	사진작가회원 전시회 후원
1989년 12월 27일	제1회 향토사 연구발표회 및 향토순례	1991년 6월 10일	문화원장 이·취임식
1990년 1월 4일	송탄문화원 신년인사회 개최	1991년 6월 16일	제2회 단오민속놀이 그네뛰기, 씨름대회
1990년 3월	자연보호캠페인	1991년 6월 27일	향토유적답사
1990년 3월 30일	송탄문화원 부설 향토사연구소 연구발표	1991년 7월 9일	충효도의 교육(하절기)
1990년 4월 8일	제1차 문화유적 조사활동(원만추 묘)	1991년 7월 16일	충효도의 교육(하절기)
1990년 4월 16일~5월 20일	제4차 문화취미센터 개강	1991년 7월 27일	경기지구청년회의소 문화예술사업 후원
1990년 4월 22일	제1차 송탄문화원 향토순례단(학생, 시민)	1991년 8월 10일	송암연극제 후원
1990년 5월 15일	송탄문화원 향토순례(부여)	1991년 8월 25일	송탄문화원 향토순례
1990년 5월 28일	제1회 부락단오제, 민속 그네뛰기 대회	1991년 9월 12~13일	제7회 경기도민속예술경연대회(평택농악)
1990년 7월 12~19일	충효도의 교육 하절기 교육 실시	1991년 10월 5일	학생글짓기, 사진촬영대회, 미술 실기대회 개최
1990년 7월 26일~8월 3일	청소년을 위한 비디오 교실	1991년 10월 9일	시민백일장, 시조경창대회 개최
1990년 7월 29~31일	충의각 오학사비 보수	1991년 10월 19일	문화의 날 기념식 및 예술제 시상식 개최
1990년 9월 30일	송탄문화원 향토순례(학생, 시민)	1991년 10월 26일	송탄문화원 향토유적순례(문화원 임원)
1990년 10월 20일	문화의 날 행사 및 미술대전	1991년 11월 15일	사우회 회원 전시회 후원
1990년 11월 24~26일	송탄사우회 사진전시회 후원	1991년 11월 29일	문화유적 보수(원균사당 안내판 설치, 수성군사당, 양세충효정문)
1990년 12월 6일	송탄문화원 충효도의 교육(동절기)	1991년 12월 9일, 17일	충효도의 교육(동절기)
1990년 12월 7일	제1회 전국사진공모전 후원	1991년 12월 28일	송탄서예 연우회원 전시회 후원
1990년 12월 8일	문화예술회관 개관 기념행사(국악공연, 전국일주 송탄편)	1991년 12월 30일	《송탄문화》 9집 발간
1990년 12월 18일	동화 메세나 만화전시회 후원	1991년 12월 30일	송탄문화원 업무일지 발간(인명 주소록)
1991년 1월 4일	송탄문화원 신년인사회 개최	1992년 1월 6일	송탄문화원 신년인사회 개최
1991년 2월 23일	송암회 동계워크숍 연구공연 후원	1992년 1월 25일	황필호 교수 초청 시민강연회 후원
1991년 3월 16일	송탄문화원 궁도대회 후원	1992년 2월 15~16일	제6회 송암동계워크숍 연극공연 후원
1991년 4월 22일~5월 20일	제5회 문화취미센터 개강	1992년 2월 29일	영화음악연주회 및 창작곡 발표회 후원
1991년 5월 10일	어린이큰잔치 후원	1992년 4월 10일	뮤지컬 '철부지들' 초청공연
1991년 5월 17일	수석전시회 후원	1992년 4월 18일	제12회 세계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후원
		1992년 4월 21일~5월 19일	제6회 문화취미센터 개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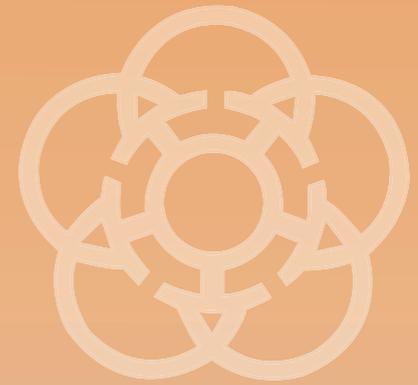
1992년 5월 2일	제10회 학생미술실기대회 및 사진촬영대회 개최	1993년 10월 9일	공옥진 1인 창무국 초청공연 후원
1992년 5월 24일	제6회 송탄시민 사진촬영대회 후원	1993년 10월 11일~11월 10일	문화취미센터 가을강좌 개강
1992년 6월 5일	제3회 단오민속놀이(그네뛰기, 씨름대회)	1993년 10월 16일	제12회 시민의 날 기념 KBS전국노래자랑 공개녹화
1992년 6월 30일	향토문화유적(내 고장의 맥) VTR 제작	1993년 10월 17일	송탄문화원 향토순례
1992년 7월 9일, 15일	충효도의 선양 강좌(하절기)	1993년 10월 20일	문화의 날 기념 민속어울마당(국악장기자랑)개최
1992년 8월 15~16일	제12회 송암제 '사람의 아들' 연극공연 후원	1993년 10월 30~31일	송탄문화원장배 바둑대회 개최
1992년 9월 21일~10월 19일	제7회 문화취미센터 개강	1993년 11월 8~9일	송탄시 향토유적관리(충의각, 양세충효정문, 이성부충절정문)
1992년 10월 5일	제10회 학생글짓기대회, 시민백일장 개최	1993년 11월 30일	송탄시 향토순례 안내도 발간
1992년 10월 9일	향토문화유적 현판설치(충의각, 양세충효정문)	1993년 12월 10일, 14일	충효도의 선양문화 강좌(동절기)
1992년 10월 20일	문화의 날 기념식, 시민백일장, 학생글짓기대회 시상식	1993년 12월 20일	《송탄문화》 제11집 발간
1992년 11월 4일	송탄문화원 향토순례	1993년 12월 30일	송탄문화원 업무일지 발간(인명주소록)
1992년 12월 15일	충효도의 선양강좌(동절기)	1994년 1월 4일	송탄문화원 신년인사회 개최
1992년 12월 30일	《송탄문화》 제10집 발간	1994년 4월 23일	송탄문화원 향토순례(서산군, 당진군 해미읍성 일대)
1992년 12월 30일	송탄문화원 업무일지 발간(인명주소록)	1994년 4월 18일~5월 17일	제12회 문화취미센터 봄강좌 개강
1992년 11월 25일	사무실 이전(서정동 800 송탄시문화예술회관 2층)	1994년 5월 20일	학생글짓기, 미술시기, 사진촬영대회(초·중·고 13개 학교)
1993년 1월 6일	송탄문화원 신년인사회	1994년 6월 13일	단오민속놀이(씨름, 그네뛰기, 국궁, 농악경연대회)
1993년 2월 21~22일	제7회 송암동계 워크숍 연극공연 후원	1994년 7월 12일	충효도의 선양교육(송탄여고, 태광중고)
1993년 4월 17일	송탄문화원 향토순례	1994년 7월 26일~8월 5일	송탄시 향토유적보수(이성부 충절정문)
1993년 4월 19일~5월 20일	송탄문화원 문화취미센터 봄강좌 개강	1994년 8월 24일	송탄문화원 지방문화원 설립인가
1993년 5월 1일	제11회 학생글짓기, 미술실기, 사진촬영대회 개최	1994년 9월 7~8일	제9회 경기도민속예술경연대회(동령샘제 지신밧기) 참가
1993년 6월 24일	제4회 단오민속놀이(씨름, 그네뛰기, 국궁)대회 개최	1994년 10월 18일~11월 17일	제13회 문화취미센터 가을강좌
1993년 7월 8일	송탄문화원 충효도의 선양 강좌(하절기-송탄여고)	1994년 10월 29일	송탄문화원 향토순례(관내 향토유적, 충북일대)
1993년 7월 13일	송탄문화원 충효도의 선양 강좌(하절기-태광중고)	1994년 10월 24일	문화의 날 기념(초청 국악공연)
1993년 8월 14~15일	제13회 송암제 연극공연(우리읍내) 후원	1994년 12월 6일, 8일	충효도의 선양강좌(효명중고, 은혜여고)
1993년 8월 20일	송탄문화원 임시총회(제5대 원장 유재호 선출)	1994년 12월 16일	제2대 향토사연구소장 김용겸 위촉
1993년 8월 30일	송탄시의 민속과 설화 발간	1994년 12월 20일	《송탄문화》 제12집 발간
1993년 9월 2~3일	경기도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동령샘제 지신밧기)	1994년 12월 30일	송탄문화원 업무일지 발간
1993년 9월 10일	송탄문화원 문화원장 이·취임식		

3) 평택군문화원 연혁(1989~1994년)

1989년 7월	평택군문화원 분리추진위원회 구성(추진위원장 이계왕 선임)	1991년 6월 25일	장 추천 경기문화예술의전당 개관 기념 평택농악 참가
1989년 10월 20일	임시이사회 및 분리추진위원회 개최(평택군청 회의실)	1991년 7월 5일	평택군문화원 임시총회 개최(제2대 김창빈 원장 선임)
1989년 11월 17일	평택군문화원 분리 총회(안중면복지회관, 원장 이계석 선출)	1991년 7월 16일	제5차 임원회의(사무국장 한동우 임명, 평택군문화원 사무규정집 제정)
1989년 12월 10일	평택군문화원 법인 설립 허가 신청서 접수(문화공보부)	1991년 7월 18~19일	평택군문화원 충효 및 도의 선양교육(진위향교에 위탁)
1990년 1월 12일	평택군문화원 제1차 이사회의(신년교례)	1991년 8월 21일	평택군문화원 지방문화원 임원(원장) 문화부 장관 승인
1990년 2월 22일	평택군문화원 법인설립 허가 승인(문화공보부)	1991년 8월 30일	평택군문화원 제6차 임원회의(정관 제3장 10조 3항 수정)
1990년 3월 9일	평택군문화원 법인등기 완료(평택등기소)	1991년 9월 12~13일	제7회 경기도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태래박놀이에 논매는 상쇄소리)
1990년 3월 12일	안중예절학교 개교(주부 25명, 안중나사렛교회)	1991년 9월 19일	전통농악 육성 노인정 농악장비 지급(군청회의실)
1990년 4월 2일	평택군문화원 제2차 이사회의(문화원 회의실)	1991년 9월 28일	경기도 소인극경연대회(경기도 문화회관 소강당, 에바다극단 20명)
1990년 4월 16~21일	서예 및 사진전시회	1991년 10월 12일	평택군문화원 이사회의(평택군문화예술회관 개관 행사 계획 작성)
1990년 6월~12월	평택군문화원 평택농악 지원(2,775,000원)	1991년 10월 29일	평택군문화예술회관 개관(서예전시회, 꽃꽂이 전시회)
1990년 7월 7일	평택군문화원 제3차 이사회의(평택군문화원 회의실)	1991년 10월 30일	청소년백일장 및 사생대회(평택군문화예술회관)
1990년 8월 24일	전통 농악육성 노인정 장비 지원(380만원, 평택군내 9개읍면 10개 노인정)	1991년 10월 31일	군민 회화대회 및 주부백일장(평택군문화예술회관)
1990년 9~10월	평택농악 전승학교 지원(245만원)	1991년 11월 2일	소사벌 백중놀이 및 군민의 날 기념행사(안중고등학교)
1990년 10월	《평택군현지》 발행	1991년 12월 24일	한문 및 예절학교 개강(25일간)
1990년 11월 7일	평택군문화원 제4차 이사회의 및 범죄와 무질서 추방 결의대회	1992년 12월 5일	《평택문화》 창간호 발행
1991년 1~7월	평택농악 지원(3,465,310원)	1994년 3월 20일	《평택문화》 제2집 발행
1991년 2월 26~27일	충효교육 실시(평택향교에 위탁)	1994년 6월 14일	평택군 안중면 학현리 산86-1번지로 원사 이전
1991년 2월 27일	제1차 임원회의 개최	1994년 7월 28일	평택군문화원 임시총회 개최(제3대 이민형 원장 선임)
1991년 4월 20일	평택군문화원 분리 설립 1주년 기념식 및 제2차 정기총회(안중면복지회관 회의실)		
1991년 4월 27일	평택군 청년봉사회 포상		
1991년 5월 18일	청담고등학교 농악단 단복지급(675,000원)		
1991년 6월 1일	제1회 평택군 초중고 글짓기 대회(평택군문화원 주최)		
1991년 6월 10일	평택군문화원 제3차 임원회의(이계석 원장 도의원 출마로 사임, 차기원		

68

V. 시·군 통합과 문화원
(1995~2003년)



1993년 ‘지방문화원진흥법’과 시행령이 제정·공포되면서부터 법률적, 제도적, 예산적으로 활동 근거를 확고히 한 지방문화원들은 점차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지방문화원진흥법’은 지방문화원의 설립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 발전시킴으로써 균형 있는 지역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지방문화원진흥법’에는 지방문화원이 지역주민의 문화적 정서함양과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는 지역문화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 등의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설립과 운영 등의 과정에서 미비했던 점을 전면적으로 개선, 보완함으로써 지방문화원의 기능과 역할을 활성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균형 있는 지역문화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하였다.

1. 3개 시·군 통합 및 행정의 변화

1981년까지 하나의 행정구역을 유지했던 평택군은 2개의 읍이 점차 도시화되어가면서 1981년 송탄읍이 송탄시로, 1986년 평택읍이 평택시로 승격되면서 3개 시·군으로 분리되었다. 이후 정부의 행정구역 규모화를 위한 통합 정책으로 평택지역은 1995년 5월 10일 평택군과 평택시, 송탄시를 각각 폐지하고 도농복합형태의 평택시를 시작하면서 다시 하나의 평택이 되었다.

국회는 1994년 3월 16일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고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이나 인구 5만 명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을 도농 통합 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는 제7조 제2항을 신설하여 도농 통합 도시 설치의 근거를 마련했고, 이를 계기로 전국적으로 시·군 통합을 독려했다.



3개 시군 통합 반대 송탄시민 쫓겨대회(1995년)



3개 시군 통합 반대 송탄시민 쫓겨대회(1995년)

그러나 통합하는 과정이 그리 순탄하지는 않았다. 평택지역의 경우에는 1981년에 먼저 시로 승격한 송탄시민의 반발이 거셌다. 송탄시로 승격해 13년이 지나면서 독립된 행정체제와 정서, 지역사회의 틀을 갖춘 송탄시 입장에서는 시·군 통합 논의가 불편할 수밖에 없었다. 평택지역은 내무부의 시·군 통합 추진 지침과 내부 검토(안)에 따라 송탄시+평택군(진위면, 서탄면, 고덕면 일부), 평택시+평택군(평성읍, 오성면, 청북면, 포승면, 현덕면, 안중면, 고덕면 일부)의 2개 행정구역으로 통합을 추진하였다. 동일한 생활권이 인위적으로 분리되어 지역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주민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합하여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것이 시·군 통합의 추진 배경이었다.

그러나 평택군이 송탄시와 평택시로 나누어 통합되면 두 개의 행정구역으로 분리된다는 이유를 들어 1994년 4월 4일 평택군의회는 제33회 임시회에서 ‘행정구역 개편 시·군 통합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해 이를 채택하였다. 평택시의회도 4월 28일 주민 의사를 무시한 시·군 통합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평택군 분할 통합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3개 시·군이 각각의 입장에서 찬반 여론이 있었지만 제1차 시·군 통합은 결국 무산되었다.

1994년 9월 초 정부의 ‘아산만권 개발계획’이 발표되고 평택항이 2011년까지 인천항보다 큰 규모의 국제항으로 발전한다는 청사진이 제시되면서 평택군과 평택시, 송탄시를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통합하자는 3개 시·군 통합 안이 새롭게 부상하게 되었다.

3개 시·군 일부 기관·단체장을 중심으로 급부상한 통합 논의는 제2차 통합추진으로 이어졌다. 평택시의회는 통합 추진, 평택군의회와 송탄시의회는 통합 반대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시민단체들도 통합 찬성과 통합 반대로 양분되어 각각 자신들의 입장을 고수하기 위해 활동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평택군·송탄시·평택시통합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3개 시·군은 뿌리가 같은 하나의 공동체’라는 명분을 내세워 적극적으로 통합 추진에 나섰다. 김영광·이자현 국회의원과 시·도의원 등 정치인 26명의 연명으로 1994년 10월 15일 ‘주민투표 실시 건의문’을 경기도에 제출하였다. 하지만 이번에도 일부 정치인과 평택군의회, 송탄시의회의 반대로 또다시 통합이 무산되었다.

정부와 집권당은 전국적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행정구역 통합 문제에 관해 4대 지방선거는 예정대로 실시하되 선거 전에 시·군 통합과 행정구역 경계조정 방침을 최종 확정하였다. 평택군과 평택시, 송탄시 행정구역 개편문제가 정치권 안팎의 중요한 현안으로 등장하면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제2차 통합 추진에 반대했던 정치인 일부도 찬성으로 선회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

로 인해 통합에 찬성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기는 했지만 송탄시 기관·단체의 통합 반대 운동은 매우 거세게 진행되었다.

이런 가운데 1995년 3월 21일 평택군과 평택시, 송탄시 3개 시·군 통합 주민의견 조사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 평택군 54.9%, 평택시 93.0%, 송탄시 51.6%의 찬성으로 평택지역은 1995년 5월 10일 도농복합도시로 역사적인 통합 평택시를 출범하게 되었다. 통합 평택시가 발족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3개 시·군에서 각각 활동해오던 시민사회단체들도 통합이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통합 당시 평택시 인구는 32만 4,000여명 이었으며, 행정구역은 1읍, 8면, 14개동이었다. 평택시 행정조직은 1실, 6국, 2개 직속기관, 12개 사업소, 2개 출장소가 있었고 공무원수는 1600여명이었다. 교육기관은 69개교로 초등학교 35개, 중학교 18개, 고등학교 15개, 대학교 1개가 있었다. 기업체 수는 565개에 36,139명이 근무하였다.

문화예술회관은 북부, 남부, 서부지역에 각각 1개씩 3개가 있었다. 송탄문화예술회관은 서정동 800번지에 1990년 12월 7일 개관하였고, 건평 1,542평 규모의 지하 2층, 지상 3층이었다. 대공연장은 511평 1,300석, 소공연장은 139평에 390석이었으며 전시장으로 100평이 마련되어 있었다.

평택문화예술회관은 비전동 847번지에 있었고 1993년 10월 2일 개관하였다. 건평 2041평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였으며, 대공연장 629평에 708석, 소공연장은 286평에 300석이었다. 전시장으로 125평이 마련되어 있었다.

안중문화예술회관은 안중면 학현리 산 86-1번지에 있었고 1991년 10월29일 개관하였다. 건평 1,366평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였으며, 대공연장 361평에 988석, 소공연장 214평에 192석, 전시장 43평이 마련되어 있었다.

이후 통합 평택시는 대단위 택지개발과 산업단지 조성으로 급격히 도시화가 진행되었고, 2002년 11월 5일 안중면이 안중읍으로, 2006년 12월 29일 포승면이 포승읍으로, 2016년 7월 8일 청북면이 청북읍으로 각각 승격되었다. 지속적인 인구증가로 행정수요가 급증한 비전2동은 2019년 9월 30일 비전2동과 용이동으로 분동하였고 그 결과 2021년 현재 평택시는 4읍 5면 14동의 행정구역으로 변화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21년 7월말 현재 평택시는 평택시 본청 관할의 팽성읍, 신평동, 원평동, 통북동, 비전1동, 비전2동, 세교동, 용이동, 송탄출장소 관할의 진위면, 서탄면, 고덕면, 중앙동, 서정동, 송탄동, 지산

동, 송북동, 신장1동, 신장2동, 안중출장소 관할의 안중읍, 포승읍, 청북읍, 오성면, 현덕면 등 모두 23개 읍·면·동이 있다.



통합 평택시청사 개청 현판식(1995년 5월 10일)

2. 통합 평택문화원 출범

평택문화원, 송탄문화원, 평택군문화원으로 나뉘어 각각 활동하던 문화원은 3개 시·군이 통합되면서 1995년 7월 27일 자연스럽게 평택문화원으로 통합되었고 초대원장으로 유재호 송탄문화원장이 선출되었다. 이 시기는 지역의 문화를 계발, 보존, 발전시킬 수 있는 틀이 대부분 완성된 시기로 평택문화원은 시민이 지역의 전통문화를 가깝게 접할 수 있도록 문화생활 향유에 초점을 맞추었다.

통합 평택문화원은 통합 이전부터 각각 개최해 오던 성격이 유사한 행사를 하나로 통합해 소사별단오제, 정월대보름 행사, 경기도민속예술제, 지역 전통문화 발굴 및 재연 등 지역의 다양한 전통문화 발굴·보존사업을 진행하였다.

1) 통합 평택문화원의 조직 및 운영

통합 평택문화원은 조직을 재정비하고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였다. 평택문화원 이사들도 평택시 북부, 서부, 남부 등 각 읍·면·동에서 고르게 추천하여 선임하는 것으로 통합을 꾀하였다. '평택문화원 정관'은 1972년 12월 11일 제정하였다. 그러나 이후 통합이 되는 시점인 1994년 12월 21일 정관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정관은 다음과 같다.

평택시문화원 정관

1972년 12월 11일 제정

1994년 12월 21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평택시문화원(이하 본원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 본원의 사무소는 평택시에 둔다.

제3조(목적) 본원은 지역사회의 계발 및 문화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원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고유문화의 개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5. 지역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7. 지역 환경보존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 활동
8. 기타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5조(수익사업) 본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미리 시·도 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이익의 제공) ① 본 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이며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특수사업은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본 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히 그 목적을 한정된 경우가 아니면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기타 사회적 신분 등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을 두지 못한다.

제2장 회 원

제7조(구분 및 입회절차) ① 본원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회원은 평택시에 거주하고 본원의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문화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앞으로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③ 특별회원은 거주 지역을 불문하고 본원의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원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제9조(의무)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1. 본원의 정관 및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준수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10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원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11조(회원의 상벌) ① 본원의 회원으로서 본원의 발전에 기여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원의 회원으로서 본원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9조의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③ 제명, 견책 이외의 징계는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3장 임 원

제12조(임원) 본원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원장 1인
2. 이사 9인 내외
3. 감사 2인

제13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② 임원은 임기만료 1개월 이전에 선출하되, 새로운 임원의 선출에도 불구하고 종전 임원의 잔여임기는 보장된다.

③ 임원이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선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4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이사 4년, 감사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15조(임원의 선임제한) ①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 상호간에 제1항에 규정된 관계가 없는 자로 한다.

제16조(정치관여 등의 금지) 본원은 정치·종교 활동에 관여해서는 아니 되며, 원장은 국회의 원, 지방의회의원 또는 정당의 간부를 겸할 수 없다.

제17조(임원의 사퇴) ① 임원은 원장에게 사퇴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임원자격이 상실된다.

② 제1항의 경우 임원직만 상실되고 회원으로서의 자격은 그대로 유지된다.

제18조(임원의 직무) ① 원장은 본원을 대표하고 본원의 업무를 통리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의 유고 및 궐위 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되 부원장도 유고시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원장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원의 재무상태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나 총회

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도지사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원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원장에게 또는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9조(운영위원 등) ① 본원의 발전을 위하여 운영위원, 고문 및 자문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 고문 및 자문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원장이 추대한다.

제4장 총 회

제20조(구성) 총회는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1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월 중에 개최한다.

③ 임시총회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④ 총회의 소집은 원장이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14일 전까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소집특례) ① 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소집 요구한 때
2. 재적 일반회원 및 특별회원 3분의 1이상의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 요구한 경우
3. 제18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감사가 소집 요구한 경우

② 총회의 소집권자가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20일 이상 총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일반회원 및 특별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3조(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일반회원 및 특별회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일반회원 및 특별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제1항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장을 회의 개시 전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총회의 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2. 본원의 해산 및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 대여, 취득, 기채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25조(총회 의결 제척사유) 일반회원 및 특별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그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써 본원과 이해가 상반되는 자에 관한 사항

제5장 이 사 회

제26조(구성) 이사회는 원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7조(소집) ① 이사회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원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의 소집은 원장이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5일 전까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단,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8조(소집특례) ① 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소집 요구한 때
2. 제18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감사가 소집 요구한 때

②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29조(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30조(이사회 기능)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총회의 부의할 안건의 사항
9. 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10. 기타 중요사항

제31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그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써 본원과 이해가 상반되는 자에 관한 사항

제6장 재 정 (재산과 회계)

제32조(재산의 구분) ① 본원의 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원 설립 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② 본원의 기본재산은 연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기본재산의 처분) 본원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4조(수입금) 본원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기본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 찬조금, 보조

금, 기타 잡수입으로 한다.

제35조(회계연도) 본원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6조(예산편성) 본원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7조(차입금) 본원이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8조(계속비) 본원은 매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 지출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 계속비로써 예산을 계상할 수 있다.

제39조(결산) 본원은 매 회계연도 경과 후 1개월 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0조(결산잉여금) 세입·세출 결산잉여금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월금 또는 신규 사업수행에 필요한 준비금으로 처리한다.

제41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 감사를 2회 실시한다. 단, 필요한 때에는 수시로 감사를 할 수 있다.

제42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경우에 따라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제7장 사무국

제43조(설치) 원장의 지시를 받아 본원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제44조(구성 등) ① 사무국에는 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은 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직원의 임무와 보수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45조(본원해산) ① 본원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

으로 의결하고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본원이 해산한 때의 잔여 재산은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원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46조(정관변경) 본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47조(실적보고) 본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시·도지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
2.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3. 당해 사업연도말의 재산목록 및 회원현황
4. 감사의 결과보고서

제48조(규칙제정) 본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문화원 설립인가를 받아 법인 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양의 기산) 제14조 제2항 원장 임기는 현 잔여임기 만료 후부터 기산한다.

제3조(설립자 서명) 위와 같은 문화원의 정관을 작성하고 서명한다.

통합 당시 평택문화원의 주요 비품으로는 책상과 의자 6개, 소파 2개, TV 1대, 비디오 1대, 회의탁자 6개, 결상 50개, 전화기 4대, 팩스 1대, 소형냉장고 1대, 선풍기 3대, 캐비닛 4개, 서류함 2개, 복사기 1대, 야외앰프 1대, 팬티엄4 컴퓨터 1대, CD플레이어 1대, 프린터기 1대 등이 구비되어 있었다.³⁴⁾

34) 평택문화원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2003년 7월 28일자 평택문화원 《사무인수 인계서》에는 도약기 직전 평택문화원의 상황이 그대로 실려 있다. 인수인계서는 '평택시문화원 정관' 제4장 제24조에 의거해 2003년 6월 23일 임시총회에서 선임원장이 선출되고 전임원장의 임기가 2003년 7월 29일 만료됨에 따라 작성되었다.

평택문화원의 조직은 회원들의 의결기구인 총회와 임원진으로 구성된 이사회, 문화원장과 이사, 감사로 구성되었다. 부원장과 사무국장이 있었고 평택향토사연구소와 분과위원회, 향토문화학교를 두었다. 사무국 부서는 총무과와 사업과로 나누었고, 총무과는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법인관리, 지방자치단체업무, 서무 관리, 회계 관리, 재산관리, 회원관리를 하였으며, 사업과에서는 간행물 발간사업과 출판사업,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각종 강좌와 세미나를 관할하였다.

2003년 평택문화원에는 원장 1명, 부원장 2명, 이사 3명, 감사 2명, 운영위원 8명, 회원 216명, 사무국장 1명이 활동하였다.

2003년 7월 당시 평택문화원의 예산을 살펴보면 평택시 지원 사업비는 1억 4,030만원, 국비 2,000만 원, 국비 사무국장 인건비 1,000만 원, 경상운영비 2,000만원, 이사 회비 700만원이었으며, 별도의 후원회비는 없었다.

2003년도 평택문화원의 수입은 2002년보다 9,494,045원이 증가한 216,125,045원이었으며 지출은 15,943,239원이 증가한 215,854,239원이었다. 그중 인건비는 22,500,000원, 사무용품 등 구입비는 1,527,000원, 공공요금 1,641,200원, 제세공과비 2,055,960원, 교통비 1,800,000원, 복리후생비 1,800,000원, 이사회비 3,000,000원, 기관운영비 1,200,000원, 회의출장비 28만 원, 이취임식 경비 8,440,000원이 사용되었다.

2003년도 세부 사업실적을 살펴보면 동령마을축제 500만 원, 평택향토탐방운영 300만 원, 선현추모제향 150만 원, 《독립운동사》 편찬사업 5,080만 원, 향토문화탐방 2회 275만 원, 《평택의 사우·재실·정문》 발간사업 1,600만 원, 소사별민속단오제 2,450만 원, 우크라이나 심포니오케스

트라 초청공연 1,000만 원, 한자공부방 100만 원, 충효도의 선양교육 400만 원, 문화유적 보호 350만 원, 한사회 번역 출판사업 1500만 원, 평택농악 경연대회 2,000만 원, 평택농악전수회 공연사업 50만 원, 향토기로연 533만 1000원, 홈페이지 제작 375만 원, 단오 게 잡이



제24회 평택문화학교 개강식(2001년 10월 8일)

발굴 300만 원 등이다.

문화학교에는 문화학교 취미 교양강좌에 300만 원의 예산이 계획되어 있었고, 각 학교에서 연중 진행되는 충효도의 선양교육에 400만 원, 진위향교에서 7월에 진행되는 한자공부방 100만원이 책정되었다. 향토사료 조사사업으로 3.1운동사 자료수집과 고증 4,580만원, 향토탐방 평택투어에 300만 원, 망원대산 한시집 번역발간사업에 1,500만원, 상하반기 향토문화유적 답사에 400만원, 향토 사료집 발간에 1,600만원이 책정되었다. 전시 공연사업으로 오케스트라 초청연주회 1,000만원과 기타사업으로 문화유적 보존 관리에 500만 원 등 전체 1억 6,030만원이 책정되었다.

2003년도 평택문화원 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위치는 평택시 비전동 847 평택시남부문화예술회관 3층에 위치해 있으며, 전용면적은 167.17㎡(50.57평)으로 사무실 9평, 서예실 18.05평, 강의실 23.52평을 평택시로 부터 무상으로 임대해 2020년까지 사용해왔다.



유재호 평택문화원장 취임식(1995년 9월 29일)

평택문화원과 송탄문화원, 평택군문화원의 3개 문화원 통합 당시 평택문화원 임원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통합 이후 평택문화원 역대 원장

대 수	이 름	임 기
제8~9대	유재호	1995년 7월 27일~2003년 7월 26일
제10~11대	오용원	2003년 7월 27일~2012년 2월 29일

○ 통합 이후 평택문화원 역대 사무국장 및 직원

이름	재직 기간	비고
정영석	1998년 10월 1일~2003년 12월 22일	사무국장
강영애	2002년~	직원

1996년 평택시문화원 임원은 다음과 같다.

▶ 원장 유재호(삼흥화학 대표) ▶ 부원장 우관재(삼양주유소 대표)·최홍석(경기도의회 의원)·이민관(조양빌딩 대표) ▶ 이사 김병국·김찬규·배수광(평택시민단체협의회장)·김장규(평택유선방송 대표)·최동진(동진토건 대표)·우종목(다솜건설 대표) ▶ 감사 최충일(태광고등학교 교장)·한만수 ▶ 회원 강중화(송탄서점 대표)·이계평(이외과 원장)·한강희(한국타이어 대표)·최예동(동양위생 대표)·문찬호·안성수·정진모(경기북상연맹 고문)·최원백(민통자문위원)·김재찬(삼양사료 대표)·문정웅(만리성 대표)·김성환(제과협회장)·한기성(모범운전자회)·지선희·김경운(다방조합장)·공창용(만수당약국)·정장선(경기도의회 의원)·송명호(박애병원 대표)·조운수(도시건축사사무소 대표)·이재영(준종합건설 대표)·윤갑중(청용중기 대표)·소중봉(동아문구 대표)·정영교(국민도서총판)·홍광선(경기화성총판)·이양현(갑자원 과수원)·김연수(안중철강 대표)·이성호(금경 대표)·최치선(삼성전자 송탄총대리점)·정춘성·김운섭(운양건축 대표)·류호영(대성병원장)·원유철(국회 의원)·맹천영(대영통신산업 대표)·신수호(평택일어영어학원장)·박면규(하이점프 대표)·박영호·최승일·이광국·홍성호·권순익·정무영·박영웅·하호수·이필욱 ▶ 사무국장 정영석

2002년 5월 1일 기준 평택문화원 이사는 다음과 같다. 당시는 읍·면·동 추천에 의한 이사 선임 제도를 시행하였다.

▶ 원장 유재호(평택미곡종합처리장 대표) ▶ 부원장 김재찬(삼양사료 대표)·최승일 ▶ 감사 이광국·최충일(태광고등학교 교장) ▶ 이사 최치선·최갑용·김영애·정문숙·최동진(동진토건 대표)·강중화(송탄서점 대표)·우종목(다솜건설 대표)·조교행·백운기(송무포장 대표)·최진용(도곡정미소 대표)·서태석·권영화·홍종례·오용원(두레식품 대표)·윤석규(평택대 교수)·임일빈(대림산업 소장)·방희설·김기연(한마음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 사무국장 정영석 ▶ 사무간사 강영애

2003년 평택문화원 임원은 다음과 같다.

▶ 원장 유재호(평택미곡종합처리장 대표) ▶ 부원장 김재찬(삼양사료 대표)·오용원(두레푸드 시스템 대표) ▶ 감사 최충일(태광고등학교 교장)·이광국 ▶ 이사 최치선·강중화(송탄서점 대표)·조교행·최갑용·백운기(송무포장 대표, 백운농악연구소)·방희설(국선도학원장)·임일빈(대림산업 소장)·김기연(김기연변호사사무소 대표)·윤석규(평택대 교수)·정종인(우인건축사사무소 대표)·장경환(유레카물류 대표) ▶ 사무국장 정영석

2) 평택문화원 부설 평택향토사연구소

평택의 역사와 문화를 정리하고 보존하는 일에 힘써 온 평택문화원은 이미 발간된 《평택향토사》와 《역주 평택의 금석문I》에 이어 2007년 7월 《평택의 사우 재실 정문》을 발간하였다. 당시 고려대학교 조교수이자 전. 평택시사편찬위원회 상임위원이던 이진한과 진위중학교 교사이자 전. 《평택시사》 집필위원이었던 임원택이 공동으로 집필하였으며, 이미 발행된 책들과 더불어 이 시기 평택문화원의 또 다른 성과로 남았다. 사우는 선현들의 위패를 모신 사당이다. 재실은 제사를 준비하는 곳이며, 정문은 충신·효자·열녀의 행적을 기리는 것을 말한다. 책에서는 해당 인물의 생애, 일화, 유래 등을 적어 시민들이 평택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갖도록 하였다. 특히 이 책을 발행하면서 평택지역에 비록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적으나 수적으로는 사우, 재실, 정문이 많았다는 것을 확인한 것은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평택향토사연구소 연혁]

1997년 3월~1998년 8월	평택시 지정 문화재 자료 조사 및 정리
1998년 6월 1일~2001년 6월 30일	평택의 묘갈·묘비·묘표 발굴 조사 및 탁본 작업
1998년 12월 26일	《평택향토사》 발간
1999년 3월 1일~1999년 9월 30일	진위면 일대 마을 조사
1999년 12월 30일	《진위면지》, 《진위면지 사료집》 발간
2000년 12월 23일	《만화로 보는 평택의 문화유적》 발간
2001년 12월	《평택의 금석문1》 발간
2001년 12월 31일	《평택시사(상·하)》 발간 주관
2002년 3월 1일~	평택 일대 마을 답사 및 조사 활동
2003년 7월	《평택의 사우·재실·정문》 발간

3) 평택문화원의 활동 및 역대 사업

평택문화원은 통합 이후 시민이 지역의 전통문화를 가깝게 접할 수 있도록 문화생활 향유에 초점을 맞추고 민속, 전시, 공연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면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나갔다. 단오제를 비롯해 통합 이전부터 각각 개최해 오던 성격이 유사한 행사를 하나로 통합했으며, 새로운 사업들을 추진해 시민의 문화욕구를 채우는 한편 지역의 문화수준을 높여 나갔다.



소사벌단오민속제(2001년 6월 26일)



진위향교 앞 선정비 탁본(2001년 6월 16일)

평택문화원의 주요 활동은 크게 문화행사와 문화학교, 향토사 수집 보존, 발간사업, 기타사업 등으로 구분된다.

문화행사는 민속, 전시, 공연으로 나눌 수 있다. 민속행사는 평택소사벌단오제, 선현추모제, 향토문화유적탐방, 우리얼 찾기 한마당, 경기도민속예술경연대회 출전, 대보름 옷놀이, 국궁, 충효도의 선양 등이 있다. 전시행사는 주부서예전, 민미협 대표작가 초대전, 향토작가 초대전 등을 진행하였다. 공연행사는 국악행사로 국립국악원 초청공연, 세종국악관현악, 소사벌국악대공연, 경기도립국악관현악단 초청공연 등을 진행하였다. 음악행사로 푸른음악회, 신년음악회, 송년음악회, 가곡과 아리아의 밤, 메트로폴리탄, 전국노래자랑, 추계예술대 오케스트라, 경기도립 팝스 오케스트라, 오페라 춘희, 뮤지컬 가스펠 등을 진행하였다. 연극으로는 경기도립극단 초청공연과 함께 연극 징검다리, 마녀가 된 하녀, 마요네즈 등을 무대에 올렸고, 무용은 경기도립무용단과 서울 발레시어터 초청공연 등을 진행하였다.

문화학교는 취미 교양강좌로 진행되었으며 농악, 한문, 한지공예, 판화, 퀼트, 칼라믹스, 꽃꽂이, 탈춤, 국선도, 다도, 예절교육 등을 진행하였다.

향토사 수집보존 활동으로는 금석문 조사와 탁본, 송탄 숲 가마터 조성, 향토유적 보호 및 보수, 사물놀이 강습 등을 진행하였다.

발간사업으로는 《민화로 보는 평택의 향토문화유적》 《진위면지》 《평택의 3.1독립운동사》 《평택 향토사(유적, 유물)》 《문화유적 안내도》 《평택의 금석문》 《평택의 사우·재실·정문》 등을 발간하였다.

기타사업으로는 선진 생활문화강좌, 한자공부방, 역사인물 보존, 학생사생실기대회, 청소년 바둑대회 등을 추진하였다.

통합 직후 평택문화원은 전통예절교육 강좌와 전통혼례, 국악한마당 공연, 향토유적순례 등은 예전대로 진행하였고, 지역 문화예술단체를 후원하는 사업으로 평택시민오케스트라를 후원하였다. 선현 추모제향을 후원하였으며, 평택농악 발표공연과 평택의 농·특산물을 홍보하는 평택아가씨 선발대회 등을 후원 또는 주관해 개최하였다. 2000년 10월 26일에는 평택시와 평택문화원이 공동으로 '평택아가씨 선발대회'를 주최하였고, GBC 기념방송과 경인일보사 주관으로 평택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행사를 진행하였다. '평택아가씨 선발대회'는 '평택농업축제'를 맞아 진행된 것으로 평택을 대표하는 특산물 홍보대사를 선발하기 위한 것이었다. '평택아가씨 선발대회'는 10대와 20대 여성들이 출전해 한복심사와 정장심사를 거쳤으며, 각각 가장 미인으로 선발된 진을 비롯해 선, 미, 정, 숙, 현, 우정상 등으로 나눠 시상하였다. 예선을 통과한 20명의 출전자들은 GBC 기념방송의 진행으로 2000년 10월 14일과 15일 1박 2일 일정으로 무봉산청소년수련원과 한국표준협회연수원에서 합숙을 하며 워킹교육과 메이크업 실습, 단체무용, 발표력 교육, 챌린저어드벤처 극기훈련, 수영복 심사와 사진촬영 등의 합숙훈련 시간을 가졌다. 최종적으로 '평택아가씨'에 선발된 여성은 상금 200만원과 트로피, 50만원 상당의 부상을 받고 축하행진을 하며 기쁨을 만끽하였다. 선발된 평택아가씨들은 평택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평택문화원은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학생사생 실시대회, 청소년 바둑대회 등을 이어갔으며, 엄마와 자녀가 함께 하는 그림그리기 대회와 봄·가을에 실시하는 문화취미센터도 운영하였다. 1995년도 광주비엔날레 출품작가와 민족미술인협회 대표 작가 전시회를 실시하였고, 평택농악교실 강좌와 경기도민속예술제에도 출전하였다.

통합 직후 새롭게 길림성 경극단 초청공연을 진행하였으며, 문화의 거리 공연과 김덕수 사물놀이 초청공연 등으로 평택시 통합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주부서예전시회를 진행하였으며, 평택문화원이 발간하던 《소사벌》 제13집을 복간하였다.



제2회 학생사생실기대회 전시(1996년 5월 4일)



평택시 주부봉글씨 회원전(1996년 12년 17일)

‘주부 서예전’ ‘지역 향토작가 초대전’ 등 문화원이 주최한 전시행사는 지역의 인기 있는 문화행사로 자리 잡았다. 특히 평택문화원에서는 서울 발레시어터 등 수준 높은 공연 등을 유치해 시민의 갈증을 채우고 지역의 문화 수준을 높여 나갔다.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선양을 비롯해 향토사의 조사 연구 및 사료의 수집 보존, 지역문화 행사 개최, 문화 관련 자료의 수집 보존 및 보급,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지역 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 지역 환경보존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 활동, 기타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한문, 한지공예, 판화, 꽃꽂이, 탈춤, 국선도, 다도 등 ‘문화 교양강좌’는 물론이고 향토유적 보호, 학생 사생실기, 청소년 바둑대회 등을 통해 지역의 문화를 이끌 인재를 육성하였다.

지역주민의 생각과 좋은 습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전국문화원연합회가 발간 보급한 《생활문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라는 책자를 기반으로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 현장 시민교육을 개최해 지역주민이 일상에서 착안할 수 있는 생산적이고 선진적인 문화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예부터 전해오는 성년례를 개최하여 청소년에게 가치관과 책임감을 심어주고 전통문화를 계승 보급했으며, 평택시의 후원으로 평택문화원 예절교육원에서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행다법, 함 놀이, 우리 옷 소개, 예절 등을 가르쳐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렸다. 평택문화원 부설 기관으로 설립해 해를 거듭할수록 성장한 예절교육원은 이후 평택시예절교육원으로 독립하여 비전동에 위치한 구 평택시장 관사를 리모델링해 평택시예절교육관을 운영해오고 있다.

평택문화원은 또 우리 고장의 역사와 문화유적지 등을 탐방하여 선조들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급변하는 서해안 개발 현장을 견학해 평택시의 발전 현장을 체험하도록 했다. 시민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시민과 주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제1·2·3 코스로 나눠 시민 편의를 도모하는 등 평택시의 발전상을 확인하면서 애郷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평택문화원에서 진행했다. 이후 이 사업은 ‘평택시티투어’로 발전하여 현재까지 지속되어오고 있다.

농악축제를 통해 중요무형문화재인 평택농악을 전승·보존하는데 적극 노력했다. 사회화합과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전통 민속 문화를 가꾸어가기 위해 농악경연대회는 일반부 읍면동 농악과 학생부 농악으로 나누어 진행했다.

우리나라 3대 명절의 하나로 일 년 중 가장 양기가 왕성한 음력 5월 5일 모내기를 끝내고 풍년을 기원하는 단오제에서는 창포물에 머리 감기, 쑥과 익모초 뜯기, 부적 만들어 붙이기, 대추나무 시집보내기, 단오 비녀 꽃기 등이 있으며, 이날 행사는 그네뛰기, 씨름, 활쏘기 등의 민속놀이가 행해졌다. 평택문화원에서는 이러한 소사별단오제를 개최해 읍·면·동 씨름, 외그네 뛰기, 쌍그네 뛰기, 농악 경연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를 시행함으로써 우리 고유의 세시풍속 놀이를 재연하고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시민의 정서 함양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다.



서울아카데미심포니오케스트라 초청 신년음악회 (1996년 1월 11일)



소사별단오제(1996년 6월 21일)

평택문화원의 대표적인 사업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문화학교 취미·교양강좌

시민들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여 문화 복지 실현과 문화예술에 대한 지식 습득, 감상능력

을 제고하고 건전한 여가문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밝고 명랑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목표로 평택시와 문화관광부, 한국문화학교, 한국문예진흥원의 후원으로 문화학교 취미 교양강좌를 개최하였다. 농악(사물놀이·민요), 한문서당(천자문·명심보감), 한글서예공제, 꽃꽂이교실, 한지공예, 닥종이 인형, 실용퀵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봄·가을에 3개월씩 개최하여 문화감성 계발과 지식기반 창출에 기여하였다.

○ 지역현장 문화 시민교육 사업

지역 주민들의 옳은 생각과 좋은 습성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이 되도록 전국문화원연합회가 발간 보급한 《생활문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를 토대로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지역현장 시민교육을 개최하였다.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맞아 세계적 보편성이 있는 민족문화 창출을 위하여 평택시, 문화관광부, 방송위원회가 후원하였고, 지역 주민의 일상 속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생산적이고 선진적인 문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 성년례 재연 및 우리 얼 찾기 한마당 개최

예부터 전해오는 성년례를 개최하여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책임감을 심어주고 우리 전통문화를 계승 보급하기 위해 평택문화원 부설 예절교육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년례를 재연하였다. 또한 행다법과 함 놀이, 우리 옷 소개, 예절 등 우리 얼 찾기 한마당을 개최하여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렸다.

○ 향토문화 탐방 및 산업현장 견학

평택의 역사와 문화유적지 등을 탐방하여 선조들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급변하는 서해안 개발현장을 견학하여 평택시의 발전현장을 체험함으로써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관광자원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시민과 주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1코스부터 3코스까지로 나누어 시행하였다.

○ 역주 《평택의 금석문》 발간

향토문화 유적을 조사·발굴·연구하여 옛 선현들의 지혜와 숨결을 정리하고 보급하여 긍지를 심어주고 애郷심을 고취하며, 향토사의 기초로 활용하기 위해 향토 사료집의 일환으로 《역주 평택의 금석문》 1집을 발간하였다. 책자는 관공서와 공공기관, 사회단체, 학교 등에 배포하여 우리지

역의 향토문화를 널리 알렸다.

○ 평택농악 경연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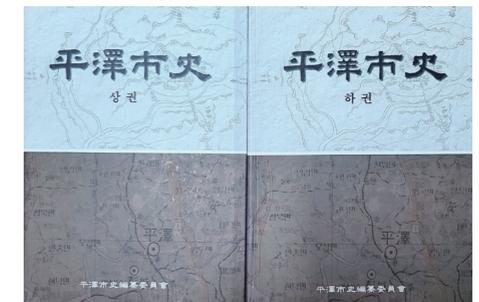
농악축제를 통해 국가무형문화재인 평택농악을 전승, 보존하는데 적극 노력하고 이로 인해 시·민화합과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전통 민속 문화를 가꾸어가기 위해 일반부 읍·면·동 농악경연과 학생부 경연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 평택 소사별단오제

평택문화원은 일 년 중에서 양기가 가장 왕성한 날로 모내기를 끝내고 풍년을 기원하는 단오제를 매년 개최하였다. 소사별단오제에서 치른 풍속과 행사로는 창포에 머리감기, 쑥과 익모초 뜯기, 부적 만들어 붙이기, 대추나무 시집보내기, 단오 비녀 꽃기 등의 풍속과 함께 그네뛰기, 씨름, 활쏘기 같은 민속놀이를 행하였다. 특히 각 읍·면·동별로 씨름, 외그네뛰기, 쌍그네뛰기, 농악경연, 전통주경연, 단오 관련 체험 등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우리고유의 세시풍속인 단오 민속놀이를 재연하고,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시민의 정서 함양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다.

(1) 《평택시사》 발간

1984년 《평택군지》와 1994년 《송탄시사》 발간 이후 평택지역의 역사를 상고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집대성한 책자는 그로부터 7년 뒤, 통합 평택시 이후 6년 만인 2001년 12월 31일에 《평택시사》로 출간하였다. 《평택시사》는 다양한 계층으로 ‘평택시사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평택문화원이 실무를 맡아 진행되었으며 기존 《평택군지》와 《송탄시사》를 한 권으로 발행했던 것과는 달리 상권과 하권 전 2권으로 발행하였다.



평택시사 상권, 하권(2001년 12월 21일)

상권은 제1편부터 3편까지로 구성되었다. 제1편은 연혁과 자연환경, 역사를 담았고, 제2편은 문화재, 제3편은 성씨와 인물·민속·지명유래를 다루었다. 하권은 제4편부터 제8편까지로 구성되었다. 제4편은 정치와 행정, 제5편은 시의회·사법·국방·안보, 제6편은 산업·교통·통신·관광·해운·항만, 제7편은 사회·환경·교육·문화, 제8편은 자료로 역사 관련 자료와 문화유적 목록, 공장

등록 현황 등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당시 통합 평택시 유재호 평택문화원장은 《평택군지》 축간사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리고장 평택시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유산을 정리한 《평택시사》의 발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지역 평택은 효의 고향이며 선비정신과 유서 깊은 문화를 간직한 풍요로운 고장이며, 현대에 와서는 세계적으로 크게 부상하는 평택항과 서해대교와 함께 무역 물류 도시로 힘차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평택시는 1995년 5월 10일 평택시, 송탄시, 평택군이 통합되고 통합시사가 없이 《평택군지》와 《송탄시사》가 병존하고 있던 차에, 각계의 전문가와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상고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분량의 역사와 문화 등의 자료를 집대성하여 《평택시사》가 완성된 것입니다.

이에 우리 고장의 문화와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평택시사》의 발간은, 우리 시민들의 소망과 정성이 담긴 매우 값진 결실로 우리 고장의 귀중한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 사료되며, 또한 오늘을 사는 시민들과 후손들에게 우리지역 발전을 위한 훌륭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끝으로 이 책이 나오기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신 김선기 시장께 경의를 표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수고하여 주신 편찬위원, 집필위원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고마움을 드립니다.³⁵⁾

평택시사편찬위원회 임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위원장 : 김선기(평택시장) ▶ 부위원장 : 이정우(평택시의회 의원) ▶ 위원 : 유재호(평택문화원장), 최재성(경기도향교재단 이사장), 이수연(한국예총 평택시지부장), 김방(경문대학교 교수), 김용겸(향토사학자), 정시익(전 송탄출장소장), 김해규(한광여자고등학교 교사), 박성복(기남방송 보도본부장), 이형복(평택시 기획재정실장) ▶ 상임위원 : 이형우(한경대학교 강사), 이진한(고려대학교 교수), 남규우(전 평택시 사회환경국장) ▶ 상임보조원 : 정석원(전 평택시 공무원) ▶ 간사 : 공재욱(평택시 문화관광과장) ▶ 서기 : 박장호(평택시 문화계장), 유진화(평택시 문화계장), 권병

관(평택시 문화계장) ▶ 집필위원 : 김기수(평택시민신문 발행인/현대사회), 김난옥(한남대학교 강사/현대사회), 김대숙(평택대학교 교수/민속), 김만제(한광여자중학교 교사/자연환경), 김문기(평택대학교 교수/현대사회), 김방(경문대학교 교수/역사), 김영민(경문대학교 교수/문화재), 김용겸(평택향토사연구소 위원/문화재 및 민속), 김용한(성공회대학교 외래교수/현대사회), 임우철(동해대학교 교수/역사), 김윤희(고려대학교 강사/역사), 김은경(경문대학교 교수/현대사회), 김일우(제주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사/역사), 김창현(순천향대학교 강사/역사), 김철웅(대전대학교 강사/현대사회), 김해규(한광여자고등학교 교사/문화재), 남경우(한광여자고등학교 교사/문화재), 문용식(안양과학대학 강사/현대사회), 박성복(기남방송 보도본부장·기록사진가/언론·출판 및 사진), 박윤진(한경대학교 강사/자료), 박찬수(건국대학교 강사/교육), 백종오(경기도박물관 학예연구사/역사), 봉혁중(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평택시지부 사무국장/현대사회), 석희균(전 평택여자중학교 교감·평택향토사연구소 위원/전문교정), 신문수(한광여자고등학교 교사/민속), 신항수(고려대학교 강사/역사), 오세운(서초전자공업고등학교 교사/역사 및 자료), 오인정(송탄여자고등학교 교사/민속), 우대식(진위종합고등학교 교사/역사), 이덕(한광중학교 교사/역사), 이병태(전 평택시 민방위재난관리과장/현대사회), 이상권(상명대학교 강사/인물), 이상식(고려대학교 강사/역사), 이수연(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평택시지부장/현대사회), 이욱(안양과학대학 강사/현대사회), 이장현(평택대학교 교수/현대사회), 이정란(서울시립대학교 강사/역사), 이정신(한남대학교 교수/역사), 이정철(경산대학교 강사/역사), 이정호(용인시사편찬위원회 상임위원/역사), 이진한(고려대학교 교수/연혁 및 민속), 임원택(진위중학교 교사/문화재 및 교정), 장연환(효명종합고등학교 교사/문화재), 장정민(평택대학교 교수/현대사회), 전세권(한국관광고등학교 교사/역사), 정기천(송탄고등학교 교사/역사), 정석원(평택시사편찬위원회 상임보조원/현대사회), 정영석(평택문화원 사무국장/문화재 및 민속), 정원섭(평택고등학교 교사, 전, 교감/인물), 조운선(삼육대학교 강사/현대사회), 조일규(평택대학교 교수/민속), 주성민(시사저널 프리랜서 기자·작가/역사 및 현대사회), 최경자(평택시종합사회복지관장/민속 및 자료), 최재성(경기도향교재단 이사장/문화재), 홍완표(한경대학교 교수/인물), 황우갑(평택시민아카데미 회장/민속 및 인물)

35) 《평택시사》상권, 2001. 12월, 5쪽

(2) 기타 발간사업



1998년에는 《평택향토사》를 발간하여 '문화재와 성씨, 인물' 등을 다루었는데 당시 편찬위원으로는 김방 경문대교수와 향토사학자로 이근영, 신권식, 김용겸, 백승명이 활동하였고, 정영석 평택문화원 사무국장이 함께 하였다.

향토문화유적을 조사·발굴·연구해 옛 선현들의 지혜와 숨결을 정리 보급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긍지와 애郷심을 심어주었으며, 특히 이러한 자료를 향토사의 기초로 활용하기 위해 향토사료집의 일환인 《역주 평택의 금석문》 1집을 발간하였고, 《만화로 보는 평택의 문화유적》, 《진위면지》, 《평택의 항일독립운동사》, 《평택향토사》, 《문화유적안내도》 등을 펴냈다.

3. 통합 평택문화원 연혁(1995~200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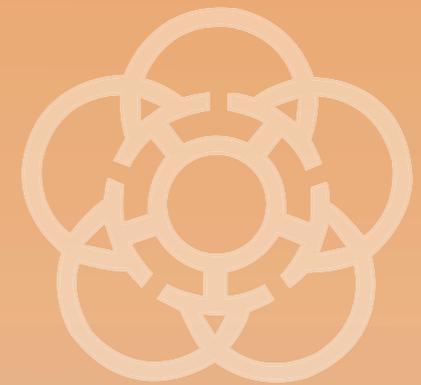
1995년	자란동신제 개최
1995년	정월대보름 윷놀이
1995년	주부 붓글씨 강습 및 주부 교양강좌
1995년	평택문화원 사물놀이 강습
1995년	문화취미센터 봄 강좌

1995년	제1회 학생글짓기 대회
1995년 5월	학생 사생실기대회
1995년 5월 21일	제2회 평택시어린이바둑대회
1995년 6월 3일	고. 박남규 선생 송덕비 제막식(평택성동초등학교)
1995년 7월 27일	3개 시·군 통합으로 3개 문화원 통합 문화원장 선출
1995년 제10회	경기도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
1995년 9월 29일	유재호 평택문화원장 취임식
1995년	평택문화원 향토순례
1995년	평택문화원 전통예절교육
1995년 11월 30일~12월 1일	평택문화 취미센터 수채화전(송탄문화예술회관 전시실)
1995년 12월	《소사벌》 제12호 발행
1996년 3월 7일	평택시민오케스트라 창단연주회
1996년 3월 3일	제7회 자란동신제(자란로변 은행나무 제단)
1996년 5월 1~31일	문화취미센터 봄 강좌
1996년 5월 3~6일	전통예절교육 강좌, 평택시민오케스트라 및 선현추모제향 후원
1996년 5월 3~6일	제2회 학생사생실기대회
1996년 5월 10일	제1회 시민의 날 기념 경축음악회
1996년 5월 11일	모자 그림그리기 대회
1996년 5월 12일	제3회 평택시 청소년 바둑대회
1996년 5월 22~28일	광주비엔날레 출품작가 및 전국민족미술인연합 대표작가전
1996년 5월 24일	평택농악 발표회 후원 및 충효도의 강좌 후원
1996년 6월 1일	전통훈례
1996년 6월 21일	소사벌 및 단오 민속놀이
1996년 6월~12월	평택문화원 농악교실 강좌
1996년 7월 22일~8월 23일	향토유적순례
1996년 9월 17~18일	경기도 청소년민속예술제
1996년 9월	길림성 경극단 공연
1996년 9월	문화의 거리 공연 및 김덕수 사물놀이 공연

1996년 10월 7일~11월 7일	문화취미센터 가을강좌	2002년 11월 22일	KBS오케스트라 실내악 초청공연(평택시남부문화예술회관)
1996년 10월 20일	국악한마당 공연	2002년 12월	문화관광안내도 제작
1996년	푸른음악회 평택공연	2002년 12월 23일	평택향교 기로연 재연(평택향교)
1996년	국태민안 평화통일 덕동산 산신제 및 단군제	2003년 7월	《평택의 사우재실정문》 발간
1996년 11월 2일	평택아가씨 선발대회 후원	2003년 8월 26일	제10대 평택문화원장 오용원 취임
1996년 12월 17일~19일	주부서에 전시회		
1996년 12월	《소사벌》 제13호 발행		
1998년 3월 6일	한국문화학교 지정(문화관광부장관 제97호, 고유번호 20714)		
1998년 12월 26일	《평택향토사》 발간		
1999년	《진위면지》 발간		
2000년 10월 26일	평택아가씨 선발대회(평택시남부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2001년	《평택의 금석문》 발간		
2001년	《평택시사》 발간		
2002년 2월 20일	동령마을 지신밟기 축제(동령마을)		
2002년 3월 28일~5월 14일	충효도의 교육(진위향교, 유도회)		
2002년 4월 8일	평택시민바둑대회(평택시남부문화예술회관)		
2002년 4월 23일~12월 29일	문화교실 취미교양강좌(평택시남부문화예술회관)		
2002년 4월 24일	향토문화탐방(강화도)		
2002년 4월 26일	진위향교 기로연 재연(무봉산수련원)		
2002년 7월 12일	국전 수상작품 전시회(평택호예술관)		
2002년 7월 25일	한자공부방 운영(진위향교)		
2002년 8월 14일	8.15기념 한여름 밤의 꿈 공연(평택시남부문화예술회관)		
2002년 10월 8일	연극 치마 공연(평택시남부문화예술회관)		
2002년 10월 14일	우리얼 찾기 전통혼례(평택시남부문화예술회관)		
2002년 10월 18일	향토문화탐방(공주)		
2002년 10월 29일	가을애 영화음악회(평택시남부문화예술회관)		
2002년 10월 31일	평택아가씨 선발대회 후원(평택시남부문화예술회관)		
2002년 11월 1일	평택농악축제(공설운동장)		

68

Ⅵ. 평택문화원 도약기
(2004~2021년)



평택문화원은 설립 초기 양성했던 활동과는 대조적으로 2004년 지방문화원 관리운영평가에 서는 하위등급에 포함되는 등 운영상황이 열악하였다. 그러나 제10대 오용원 평택문화원장 취임 2년차부터 강도 높은 체질개선을 단행하였고, 각 분야의 능력 있는 신입이사 선임과 사무국을 내 실 있게 운영하였다. 그 결과 2005년부터는 단계적으로 문화원의 역할과 책무, 위상을 회복하였 으며, 예전과는 확연하게 차별화된 활동으로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문화원으로 두각을 나타냈다. 평택문화원은 지방문화원 조직의 체질을 개선하고, 침체되었던 조직을 재정비하였으며,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문화 인력의 체계적인 양성과 교육, 짜임새와 내실을 기하는 경영, 지 역사회 연계사업을 통한 시너지 증대와 문화원의 역량강화 등을 통해 목적사업을 활발하게 전개 하였다.

1. 평택문화원 조직의 체계화



평택문화원 정기총회(2004년 3월 22일)



평택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문화원의 역할 NGO-GBC 기획 토론회(2004년 8월 31일)

평택문화원은 2004년 전국지방문화원 관리운영평가에서 하위등급에 속했지만 제10대 평택문 화원장 취임과 조직 재편을 계기로 전반적인 혁신을 단행하였다. 오용원 평택문화원장은 취임과 함께 사무국장을 공개 채용해 지방문화원 조직의 체질을 개선하였고, 침체되었던 조직을 재정비 하였다.

평택문화원의 인적 쇄신을 위해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 지방문화원의 의사결정 기구인 회원조 직과 이사회를 내실 있게 개편하는 작업을 추진하였으며, 회비납부와 회의 참석률을 높이고 회원

들이 각종 목적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켜 나갔다. 사무국 직원은 과거부터 1~2명으 로 운영되어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지 못하였던 사무국 조직도 2006년 박성복 사무국장 공채 이후 점차 확대하고 전문성을 갖추어나가는 등 변화를 주도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평택문화원 임원 현황³⁶⁾

2004년도 평택문화원 조직도를 살펴보면 회원 최고 의결기구인 총회와 임원 중심의 이사회가 구성되었으며, 별도의 후원회가 조직되어 있었다. 평택문화원장과 부원장, 사무국장이 있었으며, 사무국은 총무과와 사업과로 나뉘어 있었고, 부설 평택향토사연구소와 분과위원회, 향토문화학 교가 조직되었다. 분과위원회는 평택문화원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 기획홍보위원회, 간행물발간위 원회, 행사운영위원회, 회원관리위원회로 세분화되었고, 각 분과마다 이사들이 배치되어 자발적 으로 활동하였다. 총무과에서는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법인관리, 지방자치단체 업무, 서무 관리, 회계 관리, 재산관리, 회원관리 등의 업무를 맡았고 사업과에서는 간행물 사업, 출판사업, 행사사 업, 각종 강좌 및 세미나 등의 업무를 맡았다.

임원진도 초창기에는 원장 1명에 부원장이 1명에서 3명까지 활동하였으나 정관을 변경해 2012년부터는 부원장을 5명으로 확대해 임원에게 책임성을 부여하는 한편 조직을 더욱 탄탄하게 하였고, 고문과 자문위원회를 두어 문화원 사업에 있어서도 무게감을 더하였다. 기존 평택문화원 사무국 직원 외에도 2006년부터는 새로 개관한 웃다리문화촌 직원과 2015년 새롭게 수탁 받아 운영에 들어간 한국소리터 직원도 사무국 정원에 포함되었다.

2020년에는 이보선 평택문화원장 취임 이후 분과위원회를 더욱 세분화였으며, 평택문화원 창 립 50주년을 맞아 '평택문화원창립5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와 '평택문화원사건립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 평택문화원 역대 원장

대 수	이 름	임 기
제10~11대	오용원	2003년 7월 27일~2012년 2월 29일
제12~13대	김은호	2012년 3월 1일~2020년 2월 29일
제14대	이보선	2020년 3월 1일~현재

36) 평택문화원 임원 승인 년도는 정기총회 자료집과 소사벌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했으며, 다음 회차 정기총회 이전 승인된 임원 은 본고에 기술한 시점과 상이할 수 있다.

○ 평택문화원 역대 사무국장

이름	근무 기간	비고
김기완	2004년 10월 5일~2006년 6월 21일	
박성복	2006년 8월 1일~2012년 2월 13일	
류완희	2012년 4월 2일~2013년 5월 1일	
오민영	2013년 5월 1일~현재	

○ 평택문화원 역대 직원³⁷⁾

이름	근무 기간	부서
박분서	2004년 2월 2일~2006년 8월 21일	평택문화원
윤나래	2004년 10월 1일~2005년 1월 1일	평택문화원
전규호	2007년 2월 1일~2008년 4월 16일	평택문화원/웃다리문화촌
박명옥	2007년 3월 1일~2008년 4월 16일	평택문화원
서태정	2007년 4월 21일~2011년 7월 25일	평택문화원
김선기	2007년 10월 1일~2008년 9월 30일	웃다리문화촌
민경숙	2007년 5월 1일~2009년 5월 1일	웃다리문화촌
양귀원	2008년 5월 1일~2012년 1월 1일	평택문화원
이대우	2008년 8월 1일~2009년 6월 30일	웃다리문화촌
이해웅	2010년 1월 1일~2011년 12월 31일	웃다리문화촌
김윤겸	2009년 4월 1일~2014년 1월 1일	웃다리문화촌
고아름	2009년 5월 1일~2014년 2월 1일	평택문화원
김규철	2009년 6월 15일~2014년 2월 1일	웃다리문화촌
김다연	2010년 7월 8일~2012년 2월 29일	평택문화원
황수근	2011년 7월 25일~현재	평택문화원
유언주	2012년 3월 1일~현재	평택문화원
최실비	2014년 2월 1일~2019년 8월 28일	평택문화원
박상은	2014년 4월 14일~2017년 3월 13일	평택문화원
이승진	2014년 10월 1일~2019년 4월 30일	웃다리문화촌
이수정	2014년 11월 1일~2019년 5월 1일	웃다리문화촌
이성우	2015년 1월 24일~2017년 1월 31일	웃다리문화촌
최치선	2015년 4월 20일~현재	평택학연구소
김유라	2017년 3월 13일~2018년 12월 31일	평택문화원
조건희	2017년 8월 28일~현재	웃다리문화촌
염민지	2018년 1월 8일~2019년 6월 28일	평택문화원
기우찬	2019년 5월 2일~현재	웃다리문화촌

37)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산출함. 6개월 미만 근속자 혹은 6개월 이상이어도 사업 및 단기인력은 제외했으며 평택시사편찬위원회와 한국소리터 직원도 제외하였다.

최희련	2019년 7월 29일~현재	웃다리문화촌/평택문화원
김나래	2019년 8월 1일~2021년 2월 28일	평택문화원/웃다리문화촌
강하늘	2019년 10월 7일~현재	평택문화원
강수진	2020년 4월 1일~현재	평택문화원
최인경	2021년 3월 2일~현재	웃다리문화촌

2004년 평택문화원 고문, 자문위원, 임원, 사무국 직원은 다음과 같다.

▶ 고문 유재호(제8~9대 평택문화원장) ▶ 자문위원 이정우(제1대 송탄문화원장), 이계석(제1대 평택군문화원장), 조성락(평택예총 초대 지부장), 차송웅(삼락회 사무국장), 이한중(경인일보 본부장) ▶ 원장 오용원(두레푸드시스템 대표) ▶ 부원장 최치선(신화관광개발 상무이사) ▶ 감사 윤석규(평택대학교 교수)·임일빈(삼대양레미콘 공장장) ▶ 이사 김미영(민주평통 자문위원)·서래향(평택YWCA 회장)·방희설(국선도 원장)·이보선(삼성전자 평택직영대리점 대표)·신현호(씨채널 안경대리점 대표)·서태석(바르게살기 평택시협의회장)·최철규(솔잎식품 대표)·박철순(한국냉장 평택점 대표)·장경환(유레카물류 대표)·백운기(백운농악연구회 회장)·정장균(무원건설 대표)·이용식(평택시학교운영위원회 회장)·강종화(송탄서점 대표)·정종인(우인건축사 대표)·김일강(금풍 대표)·윤성훈(송탄주유소 대표)·정희주(민주평통 자문위원)·조남규(리프사무가구 대표)·오중근(굿모닝병원 행정원장)·박성복(기남방송 보도제작국장)·김은호(신영냉기 전무이사)·어영애(국악협회 평택지부장)·최진용(도곡정미소 대표)·한상희(동양공구상사 대표) ▶ 사무국장 김기완 ▶ 사무간사 박분서

2005년 평택문화원 고문, 자문위원, 임원, 사무국 직원은 다음과 같다.

▶ 고문 유재호(제8~9대 평택문화원장) ▶ 자문위원 이정우(제1대 송탄문화원장), 이계석(제1대 평택군문화원장), 조성락(평택예총 초대 지부장), 차송웅(삼락회 사무국장), 이한중(경인일보 본부장) ▶ 원장 오용원(두레푸드시스템 대표) ▶ 부원장 최치선(신화관광개발 상무이사)·김은호(신영냉기 대표이사)·김미영(민주평통 자문위원) ▶ 감사 윤석규(평택대학교 교수) ▶ 이사 이보선(피자헛 안성점 대표)·신현호(평택시불링협회장)·서태석(서해대교협집 대표)·최철규(솔잎식품 대표)·박철순(한국냉장 평택점 대표)·장경환(유레카물류 대표)·백운기(백운농악연구회 회장)·이용식(평택시학교운영위원회 회장)·정종인(우인건축사 대표)·김일강(금풍 대표)·윤성훈(LG송탄주유소 대표)·정희주(민주평통 자문위원)·조남규(범죄예방위원회 상임부회장)·오중근(굿모닝병원 행

정원장)·박성복(기남방송 보도제작국장)·어영애(한국국악협회 평택지부장)·한상희(동양공구상사 대표)·차은영(평택시어머니합창단 5대 단장)·정종남(평택유통 대표)·현희수(전 MBC 합창단원)·강길복(변호사) ▶ 사무국장 김기완 ▶ 사무간사 박분서

2006년 평택문화원 고문, 자문위원, 임원, 사무국 직원은 다음과 같다.

▶ 고문 유재호(제8~9대 평택문화원장) ▶ 자문위원 이정우(제1대 송탄문화원장), 이계석(제1대 평택군문화원장), 조성락(평택예총 초대 지부장), 차송웅(삼락회 사무국장), 이한중(경인일보 본부장) ▶ 원장 오용원(두레푸드시스템 대표) ▶ 부원장 최치선(신화관광개발 상무이사)·김은호(신영냉기 대표이사)·김미영(민주평통 자문위원) ▶ 감사 윤석규(평택대학교 교수) ▶ 이사 이보선(피자헛 안성점 대표)·신현호(평택시불링협회장)·서태석(서해대교횃집 대표)·최철규(술잎식품 대표)·박철순(한국냉장 평택점 대표)·장경환(유레카물류 대표)·백운기(백운농악연구회 회장)·이용식(평택시학교운영위원회 회장)·정종인(우인건축사 대표)·김일강(금풍 대표)·윤성훈(LG송탄주유소 대표)·정희주(민주평통 자문위원)·조남규(범죄예방위원회 상임부회장)·오중근(굿모닝병원 행정원장)·박성복(기남방송 보도제작국장)·어영애(한국국악협회 평택지부장)·한상희(동양공구상사 대표)·차은영(평택시어머니합창단 5대 단장)·정종남(평택유통 대표)·현희수(전 MBC 합창단원)·강길복(변호사) ▶ 사무국장 박성복(상임이사 겸임) ▶ 총무회계담당 한정규 ▶ 기획홍보담당 전규호

2007년 평택문화원 고문, 자문위원, 임원, 사무국 직원은 다음과 같다.

▶ 고문 유재호(제8~9대 평택문화원장) ▶ 자문위원 이정우(제1대 송탄문화원장), 이계석(제1대 평택군문화원장), 조성락(평택예총 초대 지부장), 차송웅(삼락회 사무국장), 이한중(경인일보 본부장) ▶ 원장 오용원(두레푸드시스템 대표) ▶ 부원장 최치선(신화관광개발 상무이사)·김은호(신영냉기 대표이사)·김미영(민주평통 자문위원) ▶ 감사 윤석규(평택대학교 교수)·이보선(피자헛 안성점 대표) ▶ 이사 신현호(평택시불링협회장)·서태석(서해대교횃집 대표)·최철규(술잎식품 대표)·박철순(한국냉장 평택점 대표)·장경환(유레카물류 대표)·백운기(백운농악연구회 회장)·이용식(평택시학교운영위원회 회장)·정종인(우인건축사 대표)·김일강(금풍 대표)·윤성훈(LG송탄주유소 대표)·정희주(민주평통 자문위원)·조남규(범죄예방위원회 상임부회장)·오중근(굿모닝병원 행정원장)·박성복(평택문화원 상임이사)·어영애(한국국악협회 평택지부장)·한상희(동양공구상사

대표)·차은영(평택시어머니합창단 5대 단장)·정종남(평택유통 대표)·현희수(전 MBC 합창단원)·강길복(변호사) ▶ 사무국장 박성복(상임이사 겸임) ▶ 총무회계담당 한정규 ▶ 기획홍보담당 전규호 ▶ 학예연구사 서태정

2008년 평택문화원 고문, 자문위원, 임원, 사무국 직원은 다음과 같다.

▶ 고문 유재호(제8~9대 평택문화원장) ▶ 이정우(제1대 송탄문화원장), 이계석(제1대 평택군문화원장), 조성락(평택예총 초대 지부장), 차송웅(삼락회 사무국장), 이한중(경인일보 본부장) ▶ 원장 오용원(두레푸드시스템 대표) ▶ 부원장 김은호(신영냉기 대표이사), 오중근(굿모닝병원 행정원장), 김미영(민주평통 자문위원) ▶ 감사 윤석규(평택대학교 교수), 이보선(피자헛 안성점 대표) ▶ 이사 신현호(평택시불링협회장), 서태석(서해대표횃집 대표), 최철규(술잎식품 대표), 박철순(한국냉장평택지점 대표이사), 장경환(유레카물류 대표이사), 백운기(백운농악연구회장), 이용식(경기도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장), 정종인(우인건축사사무소 대표), 김일강(금풍 대표이사), 윤성훈(LG송탄주유소 대표), 정희주(민주평통 자문위원), 조남규(범죄예방위원회 상임부회장), 박성복(평택문화원 상임이사), 어영애(한국국악협회 평택지부장), 한상희(동양공구상사 대표), 정종남(평택유통 대표), 강길복(변호사) ▶ 사무국장 박성복(상임이사 겸임) ▶ 총무회계담당 박명옥 ▶ 기획홍보담당 전규호 ▶ 학예연구사 서태정

2009년 평택문화원 고문, 임원, 사무국 직원은 다음과 같다.

▶ 고문 유재호(제8~9대 평택문화원장), 이정우(제1대 송탄문화원장), 이주상(제3대 평택문화원장), 이계석(제1대 평택군문화원장), 차송웅(평택향토사연구소 소장), 이한중(경인일보 본부장) ▶ 원장 오용원(두레푸드시스템 대표) ▶ 부원장 김은호(신영냉기 대표이사), 오중근(굿모닝병원 행정원장), 김미영(LH창호시스템 대표) ▶ 감사 이보선(주광 대표이사), 정종인(우인건축사사무소 대표) ▶ 이사 윤석규(평택대학교 교수), 신현호(씨채널 대표), 최철규(술잎식품 대표), 박철순(한국냉장평택지점 대표이사), 백운기(송무포장 대표), 김일강(금풍 대표이사), 윤성훈(LG송탄주유소 대표), 정희주(찍고바르고화장품 대표), 조남규(평안신문 대표이사), 박성복(평택문화원 상임이사), 어영애(평택예총 부지부장), 한상희(동양공구상사 대표), 정종남(평택유통 대표), 강길복(변호사), 유평립(평택택시 상무이사), 이필욱(마들렌식품계약하우스 대표이사), 김수철(평택JC 특우회장), 최창목(대한공업사 대표), 윤상연(소사뜰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왕관현(개풍농장 대표), 이승우

(현대파크산업 대표이사), 방영택(미래정보통신 대표이사), 오은영(평택대학교 교수), 여운정(수석모터풀 대표), 신태식(하트원사운드 대표), 강기중(현수엔지니어링 대표), 장종덕(장종덕한의원 원장)
 ▶ 사무국장 박성복(상임이사 겸임) ▶ 총무팀장 양귀원 ▶ 학예연구사 서태정·고아름 ▶ 옷다리문화촌 김윤겸·김규철

2010년 평택문화원 고문, 임원, 사무국 직원은 다음과 같다.

▶ 고문 유재호(제8~9대 평택문화원장), 이정우(제1대 송탄문화원장), 이주상(제3대 평택문화원장), 이계석(제1대 평택군문화원장), 차송웅(평택향토사연구소 소장), 이한중(경인일보 본부장)
 ▶ 원장 오용원(경기도문화원연합회장) ▶ 부원장 김은호(신영냉기 대표이사), 오중근(굿모닝병원 행정원장), 김미영(LH창호시스템 대표) ▶ 감사 이보선(주광 대표이사), 조남규(평안신문 대표이사)
 ▶ 이사 윤석규(평택대학교 교수), 신현호(씨채널 대표), 최철규(솔잎식품 대표), 박철순(한국냉장평택지점 대표이사), 백운기(송무포장 대표), 김일강(금풍 대표이사), 박성복(평택문화원 상임이사), 어영애(평택민요보존회 단장), 한상희(동양공구상사 대표), 강길복(변호사), 유평립(평택택시 상무이사), 이필욱(마들렌식품 대표), 김수철(전 평택JC 특우회장), 최창목(대한공업사 대표), 왕관현(개풍농장 대표), 이승우(현대파크산업 대표이사), 방영택(미래정보통신 대표이사), 오은영(평택대학교 교수), 여운정(수석모터풀 대표), 신태식(하트원사운드 대표), 강기중(현수엔지니어링 대표), 장종덕(장종덕한의원 원장), 박정순(고려인삼농원 대표), 김준형(한일ISC 대표), 김민규(수립 대표), 이재덕(삼보텔레콤 대표), 박함균(동양전기 대표), 김혜영(평택해물요리집 대표), 이신복(교보생명 PB센터장), 이영호(K-Swiss 평택점 대표) ▶ 사무국장 박성복(상임이사 겸임) ▶ 총무팀장 양귀원 ▶ 총무담당 김다연 ▶ 학예연구사 고아름·황수근 ▶ 옷다리문화촌 김윤겸·김규철·이해웅

2011년 평택문화원 고문, 임원, 사무국 직원은 다음과 같다.

▶ 고문 유재호(제8~9대 평택문화원장), 이정우(제1대 송탄문화원장), 이주상(제3대 평택문화원장), 이계석(제1대 평택군문화원장), 차송웅(평택향토사연구소 소장), 이한중(경인일보 본부장) ▶ 원장 오용원(경기도문화원연합회장) ▶ 부원장 김은호(신영냉기 대표이사), 오중근(굿모닝병원 행정원장), 김미영(LH창호시스템 대표) ▶ 감사 이보선(주광 대표이사), 조남규(평안신문 대표이사) ▶ 이사 윤석규(평택대학교 교수), 신현호(씨채널 대표), 최철규(솔잎식품 대표), 박철순(한국냉

장 평택지점 대표이사), 백운기(송무포장 대표), 정종인(우인건축사사무소 대표), 김일강(금풍 대표이사), 박성복(평택문화원 상임이사), 어영애(평택민요보존회 단장), 한상희(동양공구상사 대표), 강길복(변호사), 유평립(평택택시 상무이사), 이필욱(마들렌식품 대표), 김수철(전 평택JC 특우회장), 최창목(대한공업사 대표), 왕관현(개풍농장 대표), 이승우(현대파크산업 대표이사), 방영택(미래정보통신 대표이사), 오은영(평택대학교 교수), 여운정(수석모터풀 대표), 신태식(하트원사운드 대표), 강기중(현수엔지니어링 대표), 장종덕(장종덕한의원 원장), 박정순(고려인삼농원 대표), 김준형(한일ISC 대표), 김민규(수립 대표), 이재덕(삼보텔레콤 대표), 박함균(동양전기 대표), 김혜영(평택해물요리집 대표), 이신복(교보생명 PB센터장), 이영호(K-Swiss 평택점 대표), 안근학(안스뮤직아카데미 대표), 한영희(한스유치원 원장), 송영숙(피터팬유치원 원장), 최창환(목화화원 대표), 김문운(태운건설 대표이사), 이은숙(무역업) ▶ 사무국장 박성복(상임이사 겸임) ▶ 총무팀장 양귀원 ▶ 총무담당 김다연 ▶ 학예연구사 고아름·황수근 ▶ 옷다리문화촌 김윤겸·김규철·이해웅

2012년 평택문화원 고문, 임원, 사무국 직원은 다음과 같다.

▶ 고문 유재호(제8~9대 평택문화원장), 이정우(제1대 송탄문화원장), 이주상(제3대 평택문화원장), 이계석(제1대 평택군문화원장), 차송웅(평택향토사연구소 소장), 이한중(경인일보 본부장), 오용원(제10~11대 평택문화원장) ▶ 원장 김은호(신영냉기 대표이사) ▶ 부원장 오중근(굿모닝병원 행정원장), 김미영(LH창호시스템 대표), 박철순(평택한냉 대표), 이보선(주광 대표이사), 조남규(평안신문 대표이사) ▶ 감사 유평립(평택택시 상무이사), 신태식(하트원사운드 대표) ▶ 이사 윤석규(평택대학교 교수), 최철규(솔잎식품 대표), 백운기(송무포장 대표), 정종인(우인건축사사무소 대표), 김일강(금풍 대표이사), 박성복(평택시사신문 부사장), 어영애(평택민요보존회 단장), 한상희(동양공구상사 대표), 강길복(변호사), 이필욱(마들렌식품 대표), 최창목(대한공업사 대표), 왕관현(개풍농장 대표), 이승우(현대파크산업 대표이사), 오은영(평택대학교 교수), 여운정(수석모터풀 대표), 강기중(현수엔지니어링 대표), 장종덕(장종덕한의원 원장), 박정순(고려인삼농원 대표), 김준형(한일ISC 대표), 김민규(수립 대표), 이재덕(삼보텔레콤 대표), 박함균(동양전기 대표), 김혜영(평택해물요리집 대표), 이신복(교보생명 PB센터장), 안근학(안스뮤직아카데미 대표), 송영숙(피터팬유치원 원장), 최창환(목화화원 대표), 김문운(태운건설 대표이사), 신임이사 김규동(케이와이케이 대표이사), 김정권(비엔비푸드 대표이사), 김성환(에이치코리아 대표이사), 김종걸(평택광고 대표), 공서구(알리앙스 대표), 배우학(베스트라이프 대표이사), 이계문(안중새마을금고 전무), 임경호, 홍병

준 ▶ 사무국장 류완희 ▶ 총무담당 유언주 ▶ 학예연구사 고아름·황수근 ▶ 옷다리문화촌 김운겸·김규철

2013년 평택문화원 고문, 임원, 사무국 직원은 다음과 같다.

▶ 고문 유재호(제8~9대 평택문화원장), 이정우(제1대 송탄문화원장), 이주상(제3대 평택문화원장), 이계석(제1대 평택군문화원장), 차송웅(평택향토사연구소 소장), 이한중(경인일보 본부장), 오용원(제10~11대 평택문화원장) ▶ 원장 김은호(신영냉기 대표이사) ▶ 부원장 오중근(굿모닝병원 행정원장), 김미영(LH창호시스템 대표), 박철순(평택한냉 대표), 이보선(주광 대표이사), 조남규(평안신문 대표이사) ▶ 감사 유평립(평택택시 상무이사), 신태식(하트윈사운드 대표) ▶ 이사 윤석규(평택대학교 교수), 최철규(솔잎식품 대표), 김일강(금풍 대표이사), 박성복(평택시사신문 부사장), 어영애(평택민요보존회 단장), 한상희(동양공구상사 대표), 강길복(변호사), 이필욱(마들렌식품 대표), 최창목(대한공업사 대표), 왕관현(개풍농장 대표), 이승우(현대파크산업 대표이사), 오은영(평택대학교 교수), 여운정(수석모터풀 대표), 강기종(현수엔지니어링 대표), 장종덕(장종덕한의원 원장), 박정순(고려인삼농원 대표), 이재덕(삼보텔레콤 대표), 박함균(동양전기 대표), 김혜영(평택해물요리집 대표), 이신복(교보생명 PB센터장), 최창환(목화회원 대표), 김규동(케이와이케이 대표이사), 김정권(비엔비푸드 대표이사), 김성환(에이치코리아 대표이사), 김종걸(평택광고 대표), 공서구(알리앙스 대표), 배우학(베스트라이프 대표이사), 이계문(안중새마을금고 전무), 심인보(평택페스티벌오케스트라 음악감독 대표), 안도향(파우스트어학원장), 김희경(메트라이프생명) ▶ 사무국장 오민영 ▶ 총무담당 유언주 ▶ 학예연구사 고아름·황수근 ▶ 옷다리문화촌 김운겸·김규철

2014년 평택문화원 고문, 임원, 사무국 직원은 다음과 같다.

▶ 고문 유재호(제8~9대 평택문화원장), 이정우(제1대 송탄문화원장), 이주상(제3대 평택문화원장), 이계석(제1대 평택군문화원장), 차송웅(평택향토사연구소 소장), 이한중(경인일보 본부장), 오용원(제10~11대 평택문화원장) ▶ 원장 김은호(신영냉기 대표이사) ▶ 부원장 김미영(선일상회 건어물백화점 대표), 오중근(굿모닝병원 행정원장), 박철순(평택한냉 대표), 이보선(주광 대표이사), 조남규(평안신문 대표이사) ▶ 감사 한상희(동양공구상사 대표), 신태식(하트윈사운드 대표) ▶ 이사 윤석규(평택대학교 교수), 최철규(솔잎식품 대표), 김일강(금풍 대표이사), 박성복(평택시사신문 부사장), 어영애(평택민요보존회 단장), 강길복(평택법무법인 변호사), 유평립(평택택시 상무이사),

이필욱(마들렌식품 대표), 최창목(대한공업사 대표), 왕관현(개풍농장 대표), 이승우(하이오 대표이사), 오은영(평택대학교 교수), 여운정(수석모터풀 대표), 강기종(현수엔지니어링 대표), 장종덕(장종덕한의원 원장), 박정순(고려인삼농원 대표), 이재덕(삼보텔레콤 대표), 박함균(동양전기 대표), 김혜영(평택시의회 의원), 이신복(교보생명 PB센터장), 최창환(목화회원 대표), 김규동(케이와이케이 대표이사), 김정권(비엔비푸드 대표이사), 김성환(에이치코리아 대표이사), 김종걸(평택광고 대표), 공서구(알리앙스 대표), 배우학(베스트라이프 대표이사), 이계문(안중새마을금고 전무), 심인보(평택페스티벌오케스트라 음악감독 대표), 안도향(파우스트어학원장), 김희경(메트라이프생명), 차지환(비엔에이가구 대표) ▶ 사무국장 오민영 ▶ 총무담당 유언주 ▶ 학예연구사 황수근·최실비 ▶ 옷다리문화촌 조연주·장동식 ▶ 꿈의오케스트라 평택코디 박상은

2015년 평택문화원 고문, 임원, 사무국 직원은 다음과 같다.

▶ 고문 유재호(제8~9대 평택문화원장), 이정우(제1대 송탄문화원장), 이주상(제3대 평택문화원장), 이계석(제1대 평택군문화원장), 차송웅(평택향토사연구소 소장), 이한중(경인일보 본부장), 오용원(제10~11대 평택문화원장) ▶ 원장 김은호(신영냉기 대표이사) ▶ 부원장 김미영(HL창호시스템 대표), 오중근(굿모닝병원 행정원장), 박철순(평택한냉 대표), 이보선(주광 대표이사), 조남규(평안신문 대표이사) ▶ 감사 한상희(동양공구상사 대표), 신태식(평택대학교 겸임교수) ▶ 이사 윤석규(평택대학교 교수), 최철규(편백가구만들기 대표), 김일강(금풍 대표이사), 박성복(평택시사신문 사장), 어영애(평택민요보존회 단장), 강길복(평택법무법인 변호사), 유평립(평택택시 상무이사), 이필욱(마들렌식품 대표), 최창목(대한공업사 대표), 왕관현(개풍농장 대표), 이승우(하이오 대표이사), 오은영(평택대학교 교수), 여운정(수석모터풀 대표), 강기종(현수엔지니어링 대표), 장종덕(장종덕한의원 원장), 박정순(고려인삼농원 대표), 이재덕(삼보텔레콤 대표), 박함균(동양전기 대표), 김혜영(평택시의회 의원), 이신복(교보생명 PB센터장), 최창환(목화회원 대표), 김규동(케이와이케이 대표이사), 김정권(비엔비푸드 대표이사), 김성환(에이치코리아 대표이사), 김종걸(평택광고 대표), 공서구(알리앙스 대표), 배우학(베스트인슈 대표이사), 이계문(안중새마을금고 전무), 심인보(평택페스티벌오케스트라 음악감독 대표), 안도향(파우스트어학원장), 김희경(메트라이프생명), 차지환(비엔에이가구 대표), 신만식(안중 놀부갈비 대표), 김진수(치아사랑치과의원 원장), 박용민(로얄안경원 대표), 박기철(평택대학교 교수), 이순녀(풍년떡푸드 대표), 황춘미(케이디금융 대표), 조혜경(평택대학교 초빙교수) ▶ 사무국장 오민영 ▶ 총무담당 유언주 ▶ 학예연구사 황수근·최실비

▶ 평택향토사연구소 상임위원 최치선 ▶ 옷다리문화촌 팀장 이수정, 프로그램담당 이승진, 환경담당 이상우 ▶ 꿈의오케스트라 평택코디 박상은 ▶ 한국소리터 최용환·김정국·이형범·김태호·김희경·남관우

2016년 평택문화원 고문, 임원, 사무국 직원은 다음과 같다.

▶ 고문 유재호(제8~9대 평택문화원장), 이정우(제1대 송탄문화원장), 이주상(제3대 평택문화원장), 이계석(제1대 평택군문화원장), 차송웅(평택향토사연구소 소장), 이한중(경인일보 본부장), 오용원(제10~11대 평택문화원장) ▶ 원장 김은호(신영냉기 대표이사) ▶ 부원장 김미영(HL창호시스템 대표), 오중근(굿모닝병원 행정원장), 박철순(평택한냉 대표), 이보선(주광 대표이사), 조남규(평안신문 대표이사) ▶ 감사 한상희(동양공구상사 대표), 어영애(평택민요보존회 단장) ▶ 이사 윤석규(평택대학교 교수), 최철규(편백가구만들기 대표), 김일강(금풍 대표이사), 박성복(평택시사신문 사장), 강길복(평택법무법인 변호사), 유평림(평택택시 상무이사), 이필욱(마들렌식품 대표), 최창목(대한공업사 대표), 이승우(하이오 대표이사), 오은영(평택대학교 교수), 여운정(수석모터폴 대표), 신태식(하트윈사운드 대표), 강기중(현수엔지니어링 대표), 장종덕(장종덕한의원 원장), 박정순(고려인삼농원 대표), 이재덕(삼보텔레콤 대표), 박함균(동양전기 대표), 김혜영(평택시의회 의원), 이신복(교보생명 PB센터장), 최창환(목화화원 대표), 김규동(케이와이케이 대표이사), 김정권(비엔비푸드 대표이사), 김성환(에이치코리아 대표이사), 김종걸(평택광고 대표), 공서구(알리앙스 대표), 배우학(베스트인슈 대표이사), 이계문(안중새마을금고 전무), 안도향(파우스트어학원장), 김희경(메트라이프생명), 차지환(비엔에이가구 대표), 신만식(안중 놀부갈비 대표), 김진수(치아사랑 치과의원 원장), 박용민(로얄안경원 대표), 박기철(평택대학교 중국어과 교수), 이순녀(풍년떡푸드 대표), 황춘미(케이디금융 대표), 조혜경(평택대학교 교양학부 초빙교수) ▶ 사무국장 오민영 ▶ 총무담당 유언주 ▶ 학예연구사 황수근·최실비 ▶ 평택향토사연구소 상임위원 최치선 ▶ 옷다리문화촌 팀장 이수정, 프로그램담당 이승진, 환경담당 이상우 ▶ 한국소리터 최용환·김정국·김태호·유승현·박나송·박송이

2017년 평택문화원 고문, 임원, 사무국 직원은 다음과 같다.

▶ 고문 유재호(제8~9대 평택문화원장), 이정우(제1대 송탄문화원장), 이주상(제3대 평택문화원장), 이계석(제1대 평택군문화원장), 이한중(평안신문 발행인), 오용원(제10~11대 평택문화원장)

▶ 원장 김은호(신영냉기 대표이사) ▶ 부원장 김미영(HL창호시스템 대표), 오중근(굿모닝병원 행정원장), 박철순(평택한냉 대표), 이보선(주광 대표), 조남규(JNJ아트컨벤션 대표) ▶ 감사 한상희(동양공구상사 대표), 어영애(평택민요보존회 단장) ▶ 이사 윤석규(전 평택대학교 교수), 최철규(편백가구만들기 대표), 김일강(금풍 대표이사), 박성복(평택시사신문 사장), 유평림(평택택시 상무이사), 강길복(평택법무법인 변호사), 이필욱(마들렌식품 대표), 최창목(대한공업사 대표), 이승우(하이오 대표), 오은영(평택대학교 교수), 여운정(수석모터폴 대표), 신태식(하트윈사운드 대표), 강기중(현수엔지니어링 대표), 장종덕(장종덕한의원 원장), 박정순(고려인삼농원 대표), 이재덕(삼보텔레콤 대표), 박함균(동양전기 대표), 김혜영(평택시의회 의원), 이신복(교보생명 PB센터장), 최창환(목화화원 대표), 김규동(케이와이케이 대표이사), 김성환(에이치코리아 대표이사), 김종걸(평택광고 대표), 공서구(알리앙스 대표), 배우학(베스트인슈 대표), 이계문(안중새마을금고 전무), 안도향(파우스트어학원장), 김희경(메트라이프생명), 차지환(비엔에이가구 대표), 신만식(안중 놀부갈비 대표), 김진수(치아사랑치과의원 원장), 박용민(로얄안경원 대표), 박기철(평택대학교 중국어과 교수), 이순녀(풍년떡푸드 대표), 황춘미(케이디금융 대표), 조혜경(평택대학교 교양학부 초빙교수), 이보형(중앙세무법인 대표), 안광훈(하나농원 하나이벤트 대표), 이충원(C&I엔터테인먼트 대표), 유범동(K-6 공보관), 김복남(여성농업인평택시연합회장) ▶ 사무국장 오민영 ▶ 총무팀장 유언주 ▶ 학예연구사 황수근·최실비 ▶ 평택향토사연구소 상임위원 최치선 ▶ 옷다리문화촌 팀장 이수정, 프로그램담당 이승진, 환경담당 조건희 ▶ 한국소리터 최용환·류승현·김태호·김정국·박나송·박송이

2018년 평택문화원 고문, 임원, 사무국 직원은 다음과 같다.

▶ 고문 유재호(제8~9대 평택문화원장), 이정우(제1대 송탄문화원장), 이주상(제3대 평택문화원장), 이계석(제1대 평택군문화원장), 이한중(평안신문 발행인), 오용원(제10~11대 평택문화원장) ▶ 원장 김은호(신영냉기 대표이사) ▶ 부원장 김미영(HL창호시스템 대표), 오중근(굿모닝병원 행정원장), 박철순(평택한냉 대표), 이보선(주광 대표), 조남규(JNJ아트컨벤션 대표) ▶ 감사 어영애(평택민요보존회 단장), 이재덕(삼보텔레콤 대표) ▶ 이사 한상희(동양공구상사 대표), 윤석규(전 평택대학교 교수), 최철규(편백가구만들기 대표), 김일강(금풍 대표이사), 박성복(평택시사신문 사장), 유평림(평택택시 상무이사), 강길복(평택법무법인 변호사), 이필욱(마들렌식품 대표), 최창목(대한공업사 대표), 이승우(하이오 대표), 오은영(평택대학교 교수), 여운정(수석모터폴 대표), 신태

식(하트원사운드 대표), 강기중(현수엔지니어링 대표), 장종덕(장종덕한의원 원장), 박정순(고려인삼농원 대표), 박함균(동양전기 대표), 김혜영(평택시의회 의원), 이신복(교보생명 PB센터장), 최창환(목화화원 대표), 김규동(케이와이케이 대표이사), 김성환(에이치코리아 대표이사), 김종걸(평택광고 대표), 공서구(알리앙스 대표), 배우학(베스트인슈 대표), 이계문(안중새마을금고 전무), 안도향(파우스트어학원장), 김희경(메트라이프생명), 차지환(비엔에이가구 대표), 신만식(안중 놀부갈비 대표), 김진수(치아사랑치과의원 원장), 박용민(로얄안경원 대표), 박기철(평택대학교 중국어과 교수), 이순녀(풍년떡푸드 대표), 황춘미(케이디금융 대표), 조혜경(평택대 교양학부 초빙교수), 이보형(중앙세무법인 대표), 안광훈(하나농원 하나이벤트 대표), 이충원(C&I 엔터테인먼트 대표), 유범동(K-6 공보관), 김복남(여성농업인평택시연합회장) ▶ 사무국장 오민영 ▶ 총무팀장 유언주, 총무사원 김나래, 사원 이영준 ▶ 학예연구사 황수근·최실비 ▶ 평택향토사연구소 상임위원 최치선 ▶ 웃다리문화촌 팀장 이수정, 프로그램담당 이승진, 환경담당 조건희 ▶ 한국소리터 최용환·류승현·김태호·김정국·박나송·박송이

2019년 평택문화원 고문, 임원, 사무국 직원은 다음과 같다.

▶ 고문 유재호(제8~9대 평택문화원장), 이정우(제1대 송탄문화원장), 이주상(제3대 평택문화원장), 이계석(제1대 평택군문화원장), 이한중(언론인), 오용원(제10~11대 평택문화원장) ▶ 원장 김은호(신영냉기 대표이사) ▶ 부원장 김미영(HL창호시스템 대표), 오중근(굿모닝병원 행정원장), 박철순(평택한냉 대표), 이보선(주광 대표), 조남규(JNJ아트컨벤션 대표) ▶ 감사 어영애(평택민요보존회 단장), 이재덕(삼보텔레콤 대표) ▶ 이사 한상희(동양공구상사 대표), 윤석규(전 평택대학교 교수), 김일강(금풍 대표이사), 박성복(평택시사신문 사장), 유평림(평택택시 상무이사), 강길복(평택법무법인 변호사), 이필욱(마들렌식품 대표), 최창목(대한공업사 대표), 이승우(하이오 대표), 오은영(평택대학교 교수), 여운정(수석모터폴 대표), 신태식(하트원사운드 대표), 강기중(현수엔지니어링 대표), 장종덕(장종덕한의원 원장), 박정순(고려인삼농원 대표), 박함균(동양전기 대표), 김혜영(평택시의회 의원), 이신복(교보생명 PB센터장), 최창환(목화화원 대표), 김규동(케이와이케이 대표이사), 김성환(에이치코리아 대표이사), 공서구(알리앙스 대표), 배우학(베스트인슈 대표), 이계문(안중새마을금고 전무), 안도향(파우스트어학원장), 김희경(메트라이프생명), 김진수(치아사랑치과의원 원장), 박용민(로얄안경원 대표), 박기철(평택대학교 중국어과 교수), 이순녀(풍년떡푸드 대표), 황춘미(케이디금융 대표), 조혜경(평택대 교양학부 초빙교수), 이보형(중앙세무법인 대표), 안

광훈(하나농원 하나이벤트 대표), 이충원(C&I 엔터테인먼트 대표), 유범동(K-6 공보관), 김복남(여성농업인평택시연합회장) ▶ 사무국장 오민영 ▶ 총무팀장 유언주, 총무사원 김나래, 사원 이영준 ▶ 학예연구사 황수근·강하늘 ▶ 평택향토사연구소 상임위원 최치선 ▶ 웃다리문화촌 조건희, 기우찬, 최희련

2020년 평택문화원 고문, 임원, 분과위원장, 사무국 직원은 다음과 같다.

▶ 고문 유재호(제8~9대 평택문화원장), 이정우(제1대 송탄문화원장), 이주상(제3대 평택문화원장), 이계석(제1대 평택군문화원장), 이한중(언론인), 오용원(제10~11대 평택문화원장), 김은호(제12~13대 평택문화원장) ▶ 원장 이보선(주)주광에너지 대표이사 ▶ 부원장 최창목(주)대한공업사 대표이사, 오은영(평택대학교 실용음악과 교수), 강기중(주)디앤디 대표이사, 신태식(주)현대AVC사장, 이재덕(주)삼보텔레콤 대표이사 ▶ 감사 박정순(고려인삼농원 대표), 배우학(베스트인슈&렌트카 대표) ▶ 운영위원 윤석규(前 평택대학교 명예교수), 박철순(주)평택한냉 대표이사, 김일강(주)금풍 대표이사 ▶ 평택학연구소장 박성복(평택시사신문 사장) ▶ 친목위원장 김희경(굿모닝챔버오케스트라 단장) ▶ 웃다리문화촌장 조혜경(前 평택대학교 교양학부 초빙교수) ▶ 이사 김미영(前 국제로터리 3750 총재), 조남규(주)JNJ아트컨벤션 대표이사, 오중근(굿모닝병원 이사), 한상희(주)동양틀테크 대표이사, 강길복(평택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이필욱(주)마들렌식품 대표이사, 유평림(前 평택택시 상무이사), 이승우(주)하이오 대표이사, 여운정(금호타이어 원곡대리점 대표), 장종덕(장종덕한의원 원장), 김혜영(前 평택시의회 의원), 이신복(교보생명 PB센터장), 최창환(목화화원 대표)&평택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장, 김규동(주)케이와이케이종합건설 대표이사, 김성환(주)에이치코리아 대표이사, 공서구(알리앙스 대표), 이계문(서평택새마을금고 전무), 안도향(보스턴어학원 원장), 김진수(치아사랑 치과의원 원장), 박용민(로얄안경원 대표), 박기철(평택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이순녀(풍년떡푸드 대표), 황춘미(케이디할부사 평택법인대표), 이보형(세무법인 세방 대표세무사), 안광훈(하나농원&하나이벤트 대표), 이충원(주)씨앤아이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유범동(K-55 수석 공보관), 김복남(여성농업인 평택시 연합회장), 최시영(경기문화재단 이사), 김종구(평택가우디미술학원 원장), 김종수(평택농악보존회 이수자), 최승규(굿모닝병원 행정부원장), 이형범(디자인창고 대표), 홍인석(신성건설 대표)

▶ 사무국장 오민영 ▶ 총무팀장 유언주(육아대체 강수진), 총무사원 김나래, 사원 이영준 ▶ 학예연구사 황수근·강하늘 ▶ 평택학연구소 상임위원 최치선 ▶ 웃다리문화촌 조건희, 기우찬, 최희련

2021년 평택문화원 고문, 임원, 분과위원장은 다음과 같다.

직위	성명	직업	입회년도	비고
고문	이정우	제1대 송탄문화원장	-	
	이계석	제1대 평택군문화원장	-	
	유재호	제8~9대 평택시문화원장	-	
	오용원	제10~11대 평택문화원장	-	
	김은호	제12~13대 평택문화원장	-	
원장	이보선	(주)주광에너지 대표이사	2003년	운영위원회 위원장
부원장	최창목	(주)대한공업사 대표이사	2009년	평택문화원사건립추진위원장(공동)/운영위원
	오은영	평택대학교 실용음악학과 교수	2009년	민속예술제추진위원장/운영위원
	강기종	(주)디앤디 대표이사	2009년	운영위원
	신태식	(주)현대AVC사장	2009년	커뮤니케이션위원장/운영위원
	이재덕	(주)삼보텔레콤 대표이사	2010년	평택문화원5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장/운영위원
감사	박정순	고려인삼농원 대표	2010년	운영위원
	배우학	베스트인슈&렌트카 대표	2012년	평택시티투어추진위원장/운영위원
이사	윤석규	평택대학교 명예교수	2002년	평택문화학교운영위원장/운영위원
	박철순	(주)평택한냉 대표이사	2004년	평택문화원사건립추진위원장(공동)/운영위원
	김일강	(주)금풍 대표이사	2004년	운영위원
	김미영	前 국제로터리 3750지구 총재	2004년	
	박성복	평택시사신문 사장	2004년	평택학연구소장/운영위원
	조남규	(주)JNJ아트컨벤션 대표이사	2004년	
	오중근	굿모닝병원 이사	2004년	
	한상희	(주)동양텔레크 대표이사	2004년	소사별단오제추진위원장
	강길복	평택법무법인 대표변호사	2005년	
	이필욱	(주)마들렌식품 대표이사	2009년	
	유평림	前 평택택시 상무이사	2009년	
	이승우	(주)하이오 대표이사	2009년	
	여운정	금호타이어 원곡대리점 대표	2009년	
	장종덕	장종덕한의원 원장	2009년	
	김혜영	前 평택시의회 의원	2010년	
	이신복	교보생명 PB센터장	2010년	
	최창환	목화화원 대표	2011년	
	김규동	(주)케이와이케이종합건설 대표이사	2012년	
	김성환	(주)에이치코리아 대표이사	2012년	
	공서구	알리앙스 대표	2012년	
이계문	서평택새마을금고 전무	2012년		
안도향	보스톤어학원장	2013년		
김희경	굿모닝챔버오케스트라 단장	2013년	평택문화원친목위원장/운영위원	
김진수	치아사랑 치과의원 원장	2015년		

이사	박용민	로얄안경원 대표	2015년	
	박기철	평택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2015년	
	이순녀	풍년떡푸드 대표	2015년	
	황춘미	케이디할부사 평택법인대표	2015년	
	조혜경	前 평택대학교 교수	2015년	웃다리문화총장/운영위원
	이보형	세무법인 세방 대표세무사	2016년	
	안광훈	하나농원&하나이벤트 대표	2016년	
	이충원	(주)씨앤아이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2016년	
	유범동	캠프햄프리스 수석 공보관	2016년	
	김복남	여성농업인 평택시 연합회장	2016년	
	최시영	경기문화재단 이사	2020년	
	김종구	평택가우디미술학원장	2020년	
	김종수	평택농악보존회 이수자	2020년	
	최승규	굿모닝병원 행정부원장	2020년	
	이형범	디자인창고 대표	2020년	
	홍인석	신성컨설팅 대표	2020년	





박성복 이사 조남규 이사 오중근 이사 한상희 이사



강길복 이사 이필욱 이사 유평림 이사 이승우 이사



여운정 이사 장종덕 이사 김혜영 이사 이신복 이사



최창환 이사 김규동 이사 김성환 이사 공서구 이사



이계문 이사 안도향 이사 김희경 이사 김진수 이사



박용민 이사 박기철 이사 이순녀 이사 황춘미 이사



조혜경 이사 이보형 이사 안광훈 이사 이충원 이사



유범동 이사 김복남 이사 최시영 이사 김중구 이사



김종수 이사 최승규 이사 이형범 이사 홍인석 이사

2020년 조직한 평택문화원 분과위원회 구성 현황은 다음과 같다.

번호	위원회명	위원장	위 원
1	평택문화원사 건립추진위원회	부원장 최창목 이사 박철순	부원장 이재덕, 이사 박성복, 강길복, 이신복, 안도향, 최시영
2	평택문화원 창립 50주년기념사업	부원장 이재덕	부원장 신태식, 오은영, 이사 안도향, 이충원, 최시영
3	웃다리문화촌 운영위원회	이사 조혜경	부원장 신태식, 이사 김규동, 김진수, 안광훈, 김종구, 홍인석, 이형범
4	커뮤니케이션 위원회	부원장 신태식	부원장 강기중, 이사 박성복, 김희경, 이형범, 홍인석
5	평택시티투어 추진위원회	감사 배우학	이사 이필욱, 김성환, 공서구, 이보형, 이충원
6	민속예술제 추진위원회	부원장 오은영	이사 이승우, 박용민, 황춘미, 김종수
7	소사벌단오제 추진위원회	이사 한상희	감사 박정순, 이사 윤석규, 박철순, 김미영, 여운정, 최창환, 이계문, 박기철, 이순녀, 최승규, 김종수
8	문화학교 운영위원회	이사 윤석규	이사 김일강, 김미영, 조남규, 유평림, 김혜영, 박기철, 김복남
9	평택문화원 친목위원회	이사 김희경	부원장 강기중, 감사 배우학, 이사 이필욱, 장종덕

2021년 평택문화원 사무국 직원은 업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소속	직위	성명	업무	입사년도	비 고
사무국	국장	오민영	평택문화원 사무총괄	2013년	
경영지원부	총무팀장	유연주	총무·회계 총괄	2012년	
	총무팀 사원	최희련	총무·문화사업지원 담당	2019년	
	총무팀 사원	강수진	평택시티투어 담당	2020년	
	웃다리문화촌 팀장	최인경	웃다리문화촌 총괄	2021년	
	웃다리문화촌 사원	조건희	웃다리문화촌 시설유지	2017년	
	웃다리문화촌 사원	기우찬	웃다리문화촌 시설유지	2019년	
문화사업부	평택학연구소 상임위원	최치선	마을조사 담당	2015년	
	학예연구사	황수근	발간 및 연구 사업 담당	2011년	
	학예연구사	강하늘	문화유산 활용 및 교육 담당	2019년	

2) 사업비 및 사업 규모 확대



2005 문화예술인 신년인사회(2005년 1월 13일)



2005 문화예술인 신년인사회(2005년 1월 13일)

2004년까지만 해도 전국 지방문화원 종합평가에서 하위그룹에 속해있던 평택문화원은 2003년 제10대 오용원 평택문화원장의 취임과 그해부터 이사로 활동해오던 박성복이 2006년 사무국장을 겸임한 이후부터 이사회, 사무국 체계를 새롭게 정비하고, 목적사업을 확대하고 내실 있게 운영함에 따라 활성화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했다.

2004년 2억 1,000만 원이었던 연간 사업예산은 2005년 3억 6800만원, 2006년에는 6억 2500만 원, 2007년에는 8억 3900만 원으로 3년 만에 399% 규모로 확대되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특히 2007년 국·도·시비 지원금은 7억 1676만 3000원으로 2006년 지원금 5억 7167만 7000원 대비 25% 증가한 1억 4508만 6000원으로 대폭 신장하였다. 기업 메세나 등 후원금 수입도 2007년 1200만원, 2008년 7500만원으로 증가하는 등 재정적인 면에서도 크게 성장하였다.

지자체인 평택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은 2008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5억 1063만 8000원이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방문화원 활동사업비(사무국장 급여 포함) 7,500만원, 선현추모 및 충효도의 선양교육 사업 1,863만 8,000원, 대한민국무형문화재축제 5,000만 원, 웃다리문화촌 시설유지 보수비 4,000만 원, 웃다리문화촌 프로그램 운영비 3,600만원, 웃다리문화촌 정기강좌 발표공연 및 전시 500만원, 웃다리문화촌 관리비 4,800만원, 평택향토사연구소 운영비 2,400만원, 지명유래집 발간(제3권) 1,200만원, 향토문화지 소사벌 발간 1,600만원, 팽성읍지 발간 5,000만 원, 평택역사민속지 발간 4,000만원, 동령마을 줄다리기 재연 500만원, 소사벌민속단오제 5,000만원, 부모와 함께 하는 향토문화기행 600만원, 제7회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축제 참가비 1,000

만원, 사회단체보조금 2,500만원이 책정되었다.

이후 추경예산 등을 통해 8월말까지 확보한 예산은 2008 평택세계드림페스티벌 4,000만원, 경기도무형문화재 발표 및 전시행사 7,50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2,000만원, 장애청소년 문화예술교육 500만원, 평택시 전통예술육성 200만원, 지역문화예술교육 모델 발굴 사업 1,000만원, 노인 일자리사업 2,800만 원 등 모두 1억 8,000만 원으로 본예산에 추경예산을 포함한 평택시 지원예산은 6억 9,063만 8,000원이었다.

2007년 평택문화회원 476명이 납부한 회비는 모두 3,525만 6,000원으로 전체 회원 중 477명이 문화회원 회비를 납부하여 95%에 이르는 회비 납부율을 보였다. 문화회원의 회비는 향토문화탐방, 문화강좌 수강료 할인 등 다양한 기회로 회원들에게 환원하였다.

평택문화원은 2006년부터 웃다리문화촌을 운영하면서 기업 메세나 유치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다양한 성과를 도출하였다. 2006년에는 한국서부발전에서 3,000만 원을 지원해 웃다리문화촌 야외공연장과 잔디운동장을 조성했으며, 2007년에는 평택목련로타리클럽에서 500만원 상당의 놀이시설을 웃다리문화촌에 기증하였다. 2008년에는 농협중앙회 평택시지부에서 5,000만 원을 지원받아 문화원 임원 등의 후원금 4,000여만 원을 포함해 모두 9,000만 원의 예산으로 35인승 버스를 구입하였고, 이 버스는 웃다리문화촌 수강생의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셔틀버스로 운영하였다.

2. 평택문화원의 활동 및 목적 사업

평택문화원은 도약기에 이르러 잠시 중단되었던 종합문예지 《소사벌》을 복간하였으며, 발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하였다. 지역향토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기록하였으며, 폐교를 생활친화적인 문화공간으로 조성해 시민이 문화예술 활동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평택문화원의 명칭도 3개 시·군 문화원이 통합된 ‘평택시문화원’은 동일 명칭의 자치단체 시·군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문화원 명칭 앞에 ‘시’나 ‘군’을 넣지 않는다는 관례에 따라 2005년에 다시 ‘평택문화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특히 2006년 폐교를 활용한 웃다리문화촌은 개관 직후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으며 최근까지

도 선진사례로 주목을 받아왔다. 웃다리문화촌은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했을 뿐 아니라 수도권에서 생활친화적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일반 시민뿐 아니라 어르신, 장애인, 이주민 등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평택의 문화 복지를 실현하는 장소가 되고 있다. 그곳에서 진행하고 있는 ‘어르신 문화학교’는 2007년 10월 27일 문화부장관상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기도 했으며, 생활친화적 문화공간을 조성해 운영한 공로를 인정받아 그해 12월 31일 문화부장관상을 수상해 한 해에 두 차례나 문화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문화의 날 및 소사벌 발간 축하연(2004년 10월 20일)



문화의 날 및 소사벌 발간 축하연(2004년 10월 20일)

웃다리문화촌은 2018년에도 지역문화 대표 브랜드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받았고, 2020년에는 제7회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서 금상을 수상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받는 등 지역의 문화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전국에서도 모범적인 성과를 보여왔다. 오용원 평택문화원장은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2009년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화관문화훈장, 2011년에는 굿네이버스 좋은이웃상을 수상하였다.

2013년에는 경기도민속예술제에 출전해 ‘평택거북놀이’로 대상을 수상하였고, 2014년에는 전국민속예술축제에 ‘평택와야골거북놀이’로 경기도 대표로 출전해 은상을 수상했다. 2014년 제10회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에 ‘평택어로요’로 대상을 수상했으며, 2015년에는 제22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에 경기도 대표로 출전해 ‘평택어로요’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2014년에는 모범 문화원에 수여하는 경기도 우수문화원상을 받았으며, 2014년에는 지역문화 진흥을 꾀한 공로를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기도 및 전국 규모의 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평택문화원 직원들은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시행하는 지역문화경영과정 초·중급과정을 수강

하여 필기 평가를 거쳐 그중 박성복 사무국장은 중급과정 최우수, 고아름 학예연구사는 초급과정 최우수 수료생으로 선정돼 표창을 수상하였다. 또한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조성사업과 땀땀 실버문화학교 등 다양한 사업에 연속해서 선정되면서 연합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받았다. 이러한 평택문화원의 발전과 성과에 힘입어 오용원 평택문화원장은 한국문화원연합회 감사,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부지회장으로 활동하였으며, 점차 활동영역을 넓혀 제6대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장과 제28대 한국문화원연합회장에 선출되어 우리나라 지방문화원의 수장으로 역할을 충실히 해나갔다.

1) 전문 인력과 문화회원 확대

평택문화원은 2006년에 들어서면서 목적사업을 대폭 확대함은 것은 물론 사무국 직원도 단계적으로 증원해 나갔다. 1971년 사단법인 평택문화원 창립이후 2005년까지 사무국장 1인, 간사 1인 등 사무국 직원 2명 체제로 운영되어오다 2006년 박성복 사무국장 공채 이후 목적사



제14회 경기도문화가족 합동연수 평택문화원 수상자(2012년 11월 8일)

업과 국·도·시·비 보조금을 이전 평균보다 2007년 3배 가량 확충하는 성과를 얻었다. 이와 함께 사무국 직원도 확대함과 동시에 전문성도 높여나갔다. 사무국 직원은 2005년까지는 2명이었으나 2006년 3명, 2008년 4명, 2009년 6명, 2010년 8명 등으로 확대해 나갔다.

특히 괄목할만한 것은 2007년 지역사 관련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학예연구사 1명 채용 공고를 내 서태정 학예연구사를 채용했으며, 2009년에는 고아름 학예연구사를 추가 채용해 전국 229개 지방문화원 가운데 박물관 또는 향토사료관 운영 인력이 아닌 순수 지방문화원 지역사 연구 인력을 2명 이상 확보한 유일한 지방문화원으로 성장하였다. 이후 2011년 황수근 학예연구사, 2014년 최실비 학예연구사, 2019년 강하늘 학예연구사 등을 채용해 2021년 현재 2명의 학예연구사가 평택학 및 지역 콘텐츠 활성화, 역사문화관광 자원화 및 홍보사업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2006년 웃다리문화촌 오픈에 맞춰 국내에서 활동하는 작가를 대상으로 입주 작가를 공모하여 생활도자기 등 7명의 우수 작가를 선정하였으며, 프로그램 운영 작가도 20여명을 모집해 각종

문화예술 프로그램 강사로 활동하게 하였다. 내부적으로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예술 전문인력 지원사업에 응모해 2008년부터 2년간 인력 1명을 지원받아 문화예술 교육지원 및 프로그램 기획 운영을 담당하게 하였으며, 2007년 10월부터 1년간은 노동부와 한국문화원연합회로부터 지방문화원 문화교육 사업에 1명의 인력을 지원받아 문화예술 교육사업을 담당하게 하는 등 전문 인력을 배치 운영하였다.

평택문화원은 2006년 당시 274명이었던 문화회원을 2007년에는 476명으로 73%나 끌어올렸으며, 2008년에는 ‘평택문화회원 확대모집’ TFT를 가동해 문화원 임직원 모두가 노력한 결과 2009년에는 평택문화회원을 677명으로 42%나 확대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얻어 회원들의 활동에도 탄력을 받기 시작하였다. 문화회원들에게는 문화예술 강좌 수강 시 5% 할인혜택과 함께 평택문화원이 발행하는 소식지를 무료로 받거나 기타 도서를 20%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고, 평택문화원에서 주최하는 다양한 공연이나 행사에서 혜택을 주었으며 향토문화탐방 시 50% 할인혜택을 주는 등 회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제공하였다. 평택문화회원 중 정기강좌 수강생을 대상으로 작품 활동을 위한 소모임을 지원하였으며, 자발적으로 개최하는 졸업 작품전시회에 예산과 장소를 지원하기도 하였다.

2) 종합문예지 《소사별》 복간

평택문화원은 1996년을 끝으로 중단되었던 《소사별》지를 8년 만인 2004년에 제14호로 복간하면서 지역사를 보다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시민이 손쉽게 문화예술 환경에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당초 평택문화원은 중단되었던 《소사별》 대신 기존에 산재해 있던 자료들을 모아 《평택문화》라는 제호로 새로운 책자를 만들기 위해 준비했으나 《소사별》의 명맥을 잇는 것이 더 낫다는 중지가 모아지면서 《소사별》을 복간하였다. 당시 만들고자 했던 《평택문화》에도 기존의 《소사별》에 서처럼 평택소사별민속단오제 스케치, 동령줄다리기 유래, 평택시문화재를 찾아서, 재미있는 내 고장 설화 연재, 민속 고유의 예절 혼례의 절차, 기획특집으로 살아있는 안성천, 평택사진전, 조순조 선생의 세계아동미술전, 평택문화유적 발굴 등 평택의 전통과 민속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복간된 제14호 《소사별》에서는 지역 케이블TV인 기남방송의 지원으로 NGO-GBC 기획토론회 ‘평택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문화원의 역할’을 ‘소사별 심포지움’이라는 코너로 지상 중계하였다. 지역문화의 중요성은 한 조직 또는 지역의 존립에 있어 기본이 되는 지역 단위 구성에서 창조되고 발전된 것으로 인류의 발전이나 국가의 발전의 원초적인 힘의 근원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또한

지역문화의 중요성은 점점 더 강조되고 있으며 지방자치 시대에는 지역문화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고 설명하였다.

당시 기초발표는 이형호 문화관광부 과장이 ‘참여정부의 지역문화 정책’에 대해 발표했으며, 조영임 평택대학교 교수가 ‘U-평택 디지털문화콘텐츠 발전 전략’에 대해, 그리고 오중근 평택문화원 이사가 ‘평택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새롭게 재발행하는 만큼 지역의 문화예술계 인사들도 인터뷰하여 게재하였는데 미술, 음악, 사진계의 중심인물로 손꼽히는 조성락, 김종숙, 이수연의 인터뷰를 실었고 문화예술인의 다양한 작품도 수록하였다.



소사별 복간을 위한 조성락 동양화가 인터뷰(2004년 10월 4일)

소사별 복간을 위한 김종숙 음악가 인터뷰(2004년 10월 4일)

소사별 복간을 위한 이수연 사진작가 인터뷰(2004년 10월 6일)

특히 2005년부터는 편집과 목차, 글의 구성 등을 완전히 새롭게 하여 발간하였다. 특히 2005년 제15호 《소사별》에는 평택문화원을 중심으로 ‘평택농악발전연구회’를 구성해 민·관이 함께 연구활동을 하고, 평택문화원 예산을 투입해 만들어 낸 ‘웃다리 평택농악 CIP’ 선포식에 관한 글이 실려 있으며, 제작 과정과 하나하나의 의미 등도 담았다. 웃다리 평택농악 CIP는 평택문화원이 서울예술대학 디자인연구소 구환영 교수에게 의뢰해 개발한 것으로 기존 평택농악 무동이 캐릭터가 복색이나 전통성 측면에서 부적합하다는 평택농악보존회와 평택농악발전연구회의 지적에 따라 2004년 11월 작업에 착수해 6개월 만에 결과물을 얻어냈다.

웃다리 평택농악 CIP는 심볼마크와 로고, 캐릭터와 기, 마우스패드를 비롯한 프로모션류 등 다섯 가지 대분류와 명함, 봉투, 행정서식 등에 활용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응용형 프로그램을 갖추었다. 평택문화원은 평택시와 함께 웃다리 평택농악 CIP를 확대 보급하기 위해 기존에 사용하

던 평택농악 무동이 캐릭터를 새롭게 제정한 CIP로 교체 사용할 수 있게 평택시에 제안했으며, 평택시가 이를 채택해 당시 제작한 캐릭터는 현재까지도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웃다리 평택농악 CIP는 2005년 5월 21일 평택시 비전동 덕동산시민공원에서 열린 ‘제19회 평택농악 정기발표공연 및 2005 파일난장굿’ 개최식 당시 선포식을 함께 진행하였다.

평택문화원은 웃다리 평택농악 CIP 제정을 계기로 평택농악 육성에 관한 시민 공감대 형성과 평택의 대표적인 문화브랜드로 키우기 위한 《평택농악》 소개 책자를 발간 보급하였다. 또한 평택문화원 홈페이지에 수록해 상업적 목적이 아니면 시민 누구나 쉽게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매년 1회 발간하던 《소사별》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는 연 2회 발간하였고, 2012년과 2013년에는 발행이 중단되었다가 2015년부터 다시 연 1회 발행되었다. 평택문화원은 《소사별》 외에도 웃다리문화촌 주말농장 소식지를 발행하여 회원들에게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한편, 웃다리문화촌 홈페이지를 별도로 제작해 평택문화원 홈페이지와 더불어 문화회원과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평택문화원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과 공연정보를 제공하는데 주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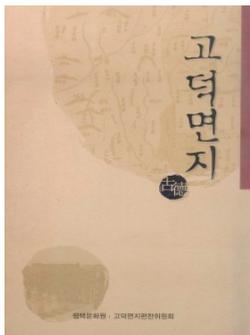
2021년 4월 현재 《소사별》은 통권 제35호가 발행되었다. 전체적인 구성을 살펴보면 ‘기획특집’, ‘평택, 채우다’, ‘평택, 더하다’라는 세 개의 틀로 나누고 있다. 제35호 기획특집은 ‘평택의 나무와 포구’에 대한 이야기로 ‘문헌으로 본 평택의 나무와 포구’, ‘평택지역 물줄기와 나무·포구’, ‘해양교통의 요지, 평택’이라는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고지도와 현재의 사진을 함께 실어 평택의 옛날과 현재의 모습을 비교해서 짐작케 한다.

‘평택, 채우다’에는 ▲평택의 옛 사진을 통해 이야기를 풀어내는 ‘빛바랜 사진이야기’ ▲홍보물로 본 1990년대 문화행사를 들여다본 ‘평택문화를 반추하다’ ▲진위면 봉남리 진위향교 앞에 있는 정경부인능성구씨송덕비를 다룬 ‘평택을 품은 이야기’ ▲한국근현대음악관을 소개한 ‘평택이가 대신 탐방해드립니다’ ▲평택성동초등학교의 역사를 다룬 ‘우리의 미래! 평택성동에게 묻다’ ▲평택 호방조제, 배수갑문, 황구지 세월호, 군문교, 진위 세월교, 서해대교 등의 사진을 담은 ‘평택은 물이다’ ▲‘평택시 합창의 역사를 읽다’ ▲송탄 미군기지 앞에 들어선 ‘협업공간-한치각’ ▲현종진 문화재수리기능사 제4698호 ‘목조각가’ ▲2020 평택창작오페라 어사 박문수 ▲제1회 금남 지역문화 글짓기 공모전 버금상 수상작 ‘우리 동네의 지역문화재 대동법시행기념비’ 등을 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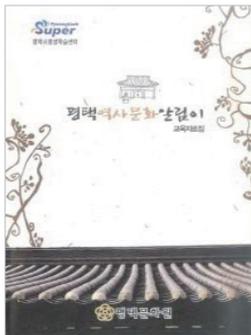
‘평택, 더하다’에는 ▲진위학교에 근무하던 시절의 일기 내용을 담은 ‘진교일기’ ▲지역의 특색

있는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해 문화재 관람, 체험, 공연, 전시 등이 어우러진 ‘2020 평택야행’ ▲평택의 사라져가는 마을을 조사한 ‘사라지기 전 그리움을 남기다’ ▲제3회 근현대 민간기록물전 우수상을 수상한 기록물로 현덕면 운정리 피우치 마을을 중심으로 대정, 글쟁이 마을 사람들이 친목과 화합을 위해 작성한 문서 ‘피우치이중계’ ▲행복농촌만들키콘테스트 웃다리문화촌 금상 수상 ▲2021 소사별단오제 추진위원회를 다룬 ‘평택문화 CAFE’ ▲전국 최대 규모로 성장한 ‘제7회 노을동요제’ ▲제1회 평택시민동요부르기 ▲제8회 대한민국삼봉서화대전 ▲소사별 화보 ▲평택문화원 소개 등을 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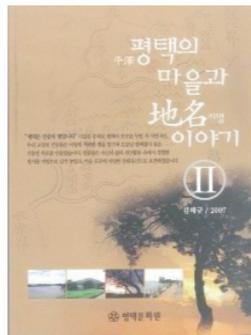
3) 지역사의 체계적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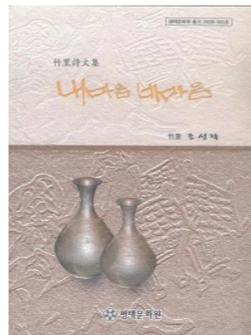
고덕면지(2007년)



평택 역사문화 알림이 교육자료집(200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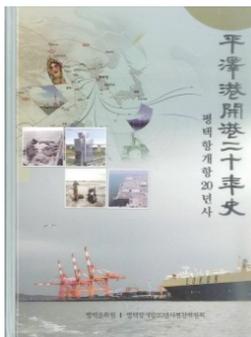
평택의 마을과 지명 이야기 II (200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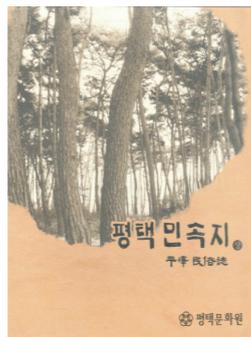
죽리시문집 내마음 내마음 (200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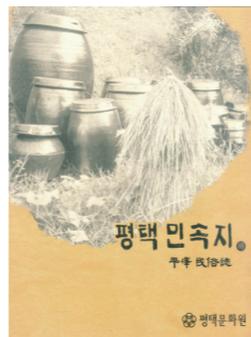
교운일기(2009년)



평택항 개항 20년사(2007년)



평택민속지 상(2009년)



평택민속지 하(2010년)

평택문화원은 지역에 흩어져 있는 기록과 사료를 보존하고 지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이를 체계화시키기 위해 향토사료 발간사업을 매년 꾸준히 전개하였다. 2007년과 2008년에는 《평

택항 개항 20년사》를 비롯한 다양한 향토 사료를 책으로 발간하였으며, 평택지역 600여개의 마을을 발품 팔아 기록한 《평택의 마을과 지명이야기II》와 대규모 신도시 개발로 사라질 위기에 놓인 고덕면 지역의 역사와 민속, 주민들의 생활상, 기록사진 등을 담은 《고덕면지》, 평택의 문화재와 관광을 상세하게 기록한 《평택시 문화유적 안내》《평택시 문화관광 안내》, 평택시의 역사와 문화관광자원을 안내할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본으로 발행한 《평택역사문화알림이》 등은 지역사를 체계화하는데 교과서로 작용하였다.

평택문화원 고문으로 문화원 창립에 크게 기여한 죽리 조성락 화백의 애절한 지역사랑이 구구절절 서려 있는 《죽리 한시집-내 마음 네 마음》은 한시와 그 속에 담긴 이야기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큰 교훈을 줄 수 있도록 발간하였으며, 넓은 들판을 배경으로 예부터 전해오는 노동요를 현장 조사, 고증, 발굴한 《평택 두레놀이 연구조사보고서》와 《국제수목채교감》《200 대한민국무형문화재축제 결과보고서》 등도 평택의 향토문화를 살찌우는 사료로 발간하였다.

평택문화원은 지역사회 계발과 문화진흥을 목적으로 시민과 함께 지역문화 창조와 전통문화 계승에 앞장서 왔다. 평택지역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는 3학년 학생들은 사회교과서와 함께 《우리 고장 평택시》라는 한 권의 책을 별도로 배우는데, 어린이들이 책을 통해 평택시를 제대로 이해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책자 발간 때 지도와 조언 등을 담당하였다. 책에서는 평택시의 마크와 브랜드, 평택시의 상징물, 평택시의 캐릭터를 비롯해 평택의 모습과 평택의 자랑, 평택지역의 의식주와 문화유산 등 생활과 변화 등에 대해 배운다. 책자는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에서 장학사들을 연구위원으로, 각 학교의 교사들을 집필과 편집위원으로 하여 제작하지만 이 책자에 실리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지도와 조언 등은 평택문화원 사무국장과 학예연구사들이 함께 해 정확하고 올바른 내용이 실릴 수 있도록 도왔다.

4) 평택시문화관광해설사 양성

평택문화원은 2003년부터 지역 중·고등학교 교사와 퇴임 교원을 중심으로 문화재 해설사 제도를 운영해 왔다. 그리고 지역사회 문화 인력을 적극 발굴해 양성하기 위하여 2007년 34명을 선발해 ‘평택역사문화알림이’ 교육을 실시하여 문화관광해설사로 육성하였다. 전체 15강 과정인 이 교육에는 모집 정원 30명에 100여명이 신청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으며, 100여명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필기시험을 거쳐 40명을 1차 선발하여 매회 2시간의 이론교육과 3회에 걸쳐 매회 8시간의 실기교육을 통해 일정 시험을 치러 통과한 34명이 수료하였다. 34명의 수료생들은 평택문화원의

요청에 따라 서울 등 수도권에서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문화관광 해설 봉사활동을 실시하여 1년간 30여회, 연인원 60여명의 해설사가 평택의 역사관광자원 안내와 홍보활동에 참여하는 성과를 얻었다.

2008년에는 경기도 지원금 2,000만 원을 확보하여 12월 말까지 전체 80시간 과정의 정규 문화관광해설사 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해 평택시를 찾는 내방객과 지역 청소년들에게 향토문화 유산과 관광자원, 지역의 농·특산물을 소개하는 평택시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하였다. 평택문화원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되면서 실적과 성과가 검증되어감에 따라 2007년부터는 타 기관에서도 평택문화원에 교육을 의뢰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갔다.



평택시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 현장교육(2008년 11월 27일)



평택시문화관광해설사 자격증 과정 수료식(2009년 1월 22일)

평택문화원 주관으로 2008년 제1기 평택시문화관광해설사 자격을 취득한 평택시문화관광해설사는 박동린, 김성규, 조정묵, 배옥희, 김영란, 김연숙, 이용중, 임국평, 최혜경, 이은숙 등 10명이며, 2009년 제2기 3명, 2010년 제3기 5명, 2011년 제4기 4명, 2016년 제5기 3명 등을 전체 25명이 선발되었다. 2016년까지 선발된 해설사 가운데 모두 20명이 경기도문화관광해설사 자격을 취득해 2020년 현재 13명이 활동하고 있다. 자격을 갖춘 문화관광해설사들은 평택호관광단지, 삼봉정도전유적, 신장쇼핑몰, 안정쇼핑몰, 평택역, 평택항 등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와 해설이 필요한 문화유적, 관광지에 고정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시티투어와 찾아가는 해설 들을 통해 미래세대인 청소년들과 평택시민, 관광객들에게 평택의 역사와 문화재, 관광자원을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5) 문화예술 프로그램 및 교육사업



작은 학교의 신나는 문화마당 프로그램 작품전시회 (2010년 11월 10일)



이주외국인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2008년 10월 1일)

평택문화원은 2006년 오픈한 문화예술 체험학습시설인 옷다리문화촌은 기반으로 지역주민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에서 정기강좌와 일일 문화예술체험, 찾아가는 문화예술체험학교, 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교육, 학교문화예술교육 등 50여개 프로그램에 연인원 25,000여 명이 수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07년 5월 문화관광부 시책사업인 '지역문화예술교육모델 발굴사업'에 평택문화원이 선정되면서 2007년 12월까지 국·도비 5,000만 원을 지원받아 '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교육'을 비롯해 '군 장병 문화예술교육' '주말 문화예술교육' '초·중·고 문화예술 체험학습' '성인 문화예술 강좌' '찾아가는 문화예술 체험학교' '문화예술 교육활동 결과 발표 및 전시회' 등 7개 부문에서 30여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다.

평택시로 전입하거나 신규로 채용되는 교원을 대상으로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하는 '평택시 신규 및 전입 교원 교육' 가운데 '평택 바로알기 교육과정'을 평택문화원에 의뢰해움에 따라 2007년부터 평택의 역사와 문화, 평택농악 등에 대해 교원을 대상으로 교육하였다.

이밖에도 노년세대의 문화역량을 계발하고 문화를 매개로 하여 다른 세대와 소통하며, 이를 통해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뽕뽕! 실버문화학교', '평택역사문화알림이 양성사업'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 사업, 평택향교 '충효도의 선양교육', 진위향교 '하계 한문교육', 진위향교 '충효예도의 교육'을 유치 추진하였다. 충효도의 교육 사업은 관내 청소년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전통예절과 충효예절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기로연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성균관유도회의 한문교육, 평택향교 기로연, 진위향교 한문교육, 진위향교 충효예도 교육, 진위향교 기

로연, 진위향교 추기석전대제 등을 진행한다.

장애청소년에게 문화예술 활동의 기회를 부여하고 자활을 돕기 위해 평택시가 추진하는 '장애 청소년 문화예술교육'과 노동부의 '노인일자리 문화예술교육 강사 파견사업',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 양성사업' 등 타 기관 사업을 적극 유치해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평택문화원의 업무 추진능력을 높이 평가받았다.

평택문화원은 지역사회 소외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예술활동 '꿈의 오케스트라'를 2013년부터 운영해왔다. '꿈의 오케스트라'는 1975년 경제학자이자 음악가였던 호세 안토니오 아브레우 (Jose Antonio Abreu) 박사가 남아메리카 베네수엘라 빈민가 아이들을 위한 음악교육 프로그램인 '엘 시스템아' 설립을 기반으로 2010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한국형 '엘 시스템아'인 '꿈의 오케스트라'를 계획하고, 전국 공모를 통해 8개 지역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시작하였다.



꿈의 오케스트라 평택 합주연습(2016년 5월 3일)



꿈의오케스트라 평택 제4회 정기연주회(2016년 12월 17일)

평택문화원은 2013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공모에 선정되면서 '꿈의 오케스트라TF'를 결성하여 위원장에 이보선 부원장, 위원에 김은호, 이재덕, 강길복, 김성환, 배우학, 신택식, 김희경, 황춘미 이사가 참여하여 단원들의 단복 및 활동지원을 했으며,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와 협력을 통해 강의실 7개소,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을 통해 프로그램 홍보를 지원받았다. 또 심인보 이사를 음악감독으로 선임하였고, 파트별로 주장사와 보조강사 14명 선발했으며, 공고와 면접을 통해 지역 내 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 84명을 선발하여 6월 1일에 첫 수업을 시작하였다.

평택문화원 꿈의 오케스트라는 사회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이 일상에서 즐겁게 음악을 누리는 오케스트라라는 주제로 다양한 악기를 배우고 연주하고 함께 호흡하며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타인과 소통하고 교감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고, 예술을 통해 행복한 아이들이 가족과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며, 나아가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이 꿈의 오케스트라의 목표로 노력해왔다.

평택문화원 '꿈의 오케스트라'는 매주 화, 목 오후 5~8시 3시간에 걸쳐 파트 연습과 합주를 진행하였고, 매년 가을 정기연주회와 향상음악회를 개최하는 등 많은 성과를 가져왔다.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지속되었고, 2019년부터 평택시청소년재단으로 사업을 이관해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에서 운영을 맡아오고 있다.

6) 웃다리문화촌 오픈과 활동

(1) 서탄초등학교 금각분교의 역사

서탄초등학교 금각분교는 1945년 9월 평택군 서탄면 적봉리 현 K-55 평택오산미공군기지 안에 개교해 운영해오다 6.25전쟁으로 공군기지가 필요했던 미군의 요청으로 1952년 미군기지를 확장하면서 우리 정부가 토지를 강제 수용해 1953년 3월 서탄면 금각리 341번지로 이전했다. 이때 서탄면 장동리와 적봉리 마을 주민들은 제대로 된 보상도 없이 최소한의 생필품만을 갖고 강제 이주하게 됐다.

서탄면 금각리는 마을 앞으로 펼쳐진 금각들과 당산을 배경으로 자리 잡은 마을로 금각들 외곽에는 황구지천이 진위천으로 합류해 흐르고 있다. 주민들은 농업을 위주로 생활했으며, 해방 전후 저습한 황무지였던 황구지들을 지나 진위천 갯벌에서 농개와 각종 어패류를 잡았다. 진위천과 가까워 제방을 쌓기 전에는 수해를 많이 입었으며, 수해가 나면 황구지리와 금각2리 주민들은 금각국민학교로 피란했다.

1954년 4월에는 서탄국민학교 금각분교가 금각국민학교로 독립 승격해 학년별 1학급씩 모두 6학급을 운영했으며, 1955년 3월 제1회 졸업식을 거행해 모두 26명(남 18명, 여 8명)의 첫 졸업생을 배출했다.

학생 수가 늘어남에 따라 1966년 3월에는 기존 6학급에서 8학급으로 2학급이 증가했고, 한 때 학생수가 300명이 넘는 학교로 성장했지만 1970년대 후반부터 주민들이 생업을 위해 인근 송탄 등 도시로 빠져나가 학생수가 계속해서 줄어들어 1993년 2월 다시 서탄초등학교 금각분교장으로 격하되어 운영되어오다 2000년 8월 폐교되었다.

폐교 당시 학급수는 3학급, 졸업생 수는 3명, 학생수는 17명, 교직원수는 4명으로 교육부의 재학생 수 100명 이하 학교 통폐합 대상에 포함되어 2학기가 시작되는 2000년 9월 1일 복창초등학교로 통폐합됐다. 당시 재학생들에게는 스쿨버스를 지원해 금각분교와 4km 거리의 복창초등학교로 통학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금각국민학교 가을대운동회(1985년 10월)



금각국민학교 경로효친 예능발표회(1985년 5월 4일)

서탄초등학교 금각분교는 학생수가 급감해 폐교되기 전까지 서탄면 금각리와 황구지리, 고덕면 문곡리에 거주하는 취학기 어린이들이 입학해 학교를 다녔으며, 주민들은 운동회와 학예회, 공개수업, 봄·가을 소풍, 동창회 등을 통해 학교와 지속적인 유대 관계를 유지해왔다. 또 할아버지와 할머니 세대와 아버지와 어머니 세대 등 한 마을, 한 집안에서 3대가 동문 관계를 유지하며 지역사회 공동체의 중심지 역할을 톡톡히 해와 정서적으로도 다양한 기억과 추억을 간직한 소중한 터전으로 기억하고 있다.

(2) 폐교의 무상 임대와 시설 개보수

서탄초등학교 금각분교는 2000년 8월 폐교 이후 수년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방치 상태였기 때문에 시설이 급격히 노후화되고, 교사와 운동장에는 잡풀이 무성해 흉물처럼 보일뿐더러 우범지대로 변해가고 있었다. 인근지역 청소년과 외지인들의 무단출입이 이어져 출입문과 유리창은 파손되고 온갖 쓰레기가 버려져 평택교육청과 금각리 주민들은 시설 관리에 고심하고 있었다. 특히 폐교 활용 붐이 일어나면서 사적 영역에서 상업적으로 활용하려는 계층과 문화예술 창작공간으로 활용하고 싶어 하는 개인이 매입 또는 임대를 요구했지만 경기도교육청의 폐교 정책이 매각은 불가능한 것으로 정해지고, 개인에 임대하는 것도 불가능해 금각분교는 폐교 상태로 몇 년을 이

어갔다.

이런 가운데 평택문화원은 2004년부터 금각분교를 문화예술 활용 시설로 운영하기 위해 평택교육청과 지속적인 협의에 들어갔다. 평택문화원은 금각분교가 마을 주민들의 학교 부지 회사와 열정으로 유지되어 왔다는 점에서 평택교육청과는 별도로 서탄면 금각1리 마을 대표자들과도 꾸준히 만나고 활용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마을 주민들은 전국적으로 폐교 활용 붐이 일면서 일부 예술인들이 폐교를 임대해 사적 영역으로 활용하는가 하면 폐교 인근 지역주민과의 불화가 심화되는 사례를 들어 민간에 폐교를 임대하는 것을 극도로 우려했다.

평택문화원은 처음에는 평택교육청과 단독으로 금각분교를 무상임대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경기도교육청 폐교 임대 정책이 공공기관과 계약해야 한다는 지침에 따라 평택교육청과 평택시가 무상임대계약을 체결하고, 문화기반시설로 분류돼 공공성을 갖고 있는 평택문화원이 평택시로부터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것으로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했다.

금각분교 무상임대 진행 과정은 2004년 12월 17일 평택문화원에서 경기도평택교육청에 금각분교장 사용 협조요청을 했지만 불가 통보됨에 따라 임대 방식을 변경하여 2005년 1월 17일 평택시에 금각분교장 임대사용 협조 요청을 진행했다. 이후 2005년 1월 18일 평택시가 경기도평택교육청에 금각분교장 임대사용 협조를 요청해 4월 18일 경기도평택교육청으로부터 금각분교장 무상임대 사용 승인을 받았고, 5월 25일 평택시가 평택문화원에 금각분교장 무상임대 사용 승인을 해 최종적으로 평택문화원이 금각분교장 운영의 주체가 됐다.



서탄초등학교 금각분교 개보수 전 전경(2006년 2월 24일)



서탄초등학교 금각분교 개보수 전 전경(2006년 6월 25일)

평택문화원이 금각분교장 운영을 맡는 것으로 확정되면서 문화예술 시설 운영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를 진행했다. 2005년 6월 8일에는 금각분교 인근 마을 주민대표와 평택지역 문화예술인,

평택문화원 웃다리문화촌 TF팀원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평택시남부문화예술회관 세미나실에서 금각분교 운영 공개토론회를 진행해 금각분교장의 정체성 확립과 향후 활용 방향 설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



웃다리문화촌 TF팀(2006년 8월 17일)



평택문화원 임원 웃다리문화촌 꽃심기(2006년 8월 5일)

금각분교가 5년 동안 폐교로 방치되었기 때문에 이를 문화예술 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보수 예산 확보도 시급했다. 2006년 평택시 본예산 확보를 위해 평택시 문화예술과와 평택시의회의원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2005년 12월 19일 폐회한 평택시의회 정기회의에서 2006년 평택시 예산 7,800만원을 최종 승인받다.

평택문화원은 자구책으로 공모사업에도 참여해 문화관광부가 추진한 문화소외지역주민 문화공간 조성사업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현장 실사, 박성복 이사의 프레젠테이션 진행과 질의응답 등을 거친 엄격한 심사에서 전국 1위의 성적으로 거뒀다. 2006년 2월 8일 9,000만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했다.

평택문화원은 내부 TF 조직으로 웃다리문화촌 TF팀을 구성해 금각분교 무상임대부터 모범사례 벤치마킹, 시설 명칭 및 상징 마크와 로고 제정, 입주 문화예술인과 강사 공개모집 추진, 문화회원 및 자원봉사자 모집, 시설 개·보수 및 정비사업 추진, 운영위원회 구성, 프로그램 및 활동 방향 수립, 개관식 준비, 운영 평가 활동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갔다.

웃다리문화촌 TF팀은 김은호 부원장을 팀장으로, 한상희 이사를 총무로 선출했으며, 이보선, 김미영, 최철규, 박철순, 장경환, 정종인, 김일강, 오중근, 박성복 이사 등 모두 11명의 팀원으로 구성하였다.

웃다리문화촌 TF팀은 2006년 2월 21일부터 가동을 시작했으며, 2006년 한 해 동안에만 회

의와 벤치마킹, 시설 개·보수 협의, 입주 작가 선정 등을 위해 모두 35차례 모임을 갖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다.

2006년 5월부터는 확보된 시비 7,800만원과 공모사업 확정예산 9,000만 원 등 1억 6,800만 원을 투입해 본관 1개동 개·보수와 별관 1개동 가설건축물 신축, 운동장 배수시설 설치 및 잔디 식재 등을 진행했다. 평택문화원은 1억 6,800만원의 사업비로 일괄 발주인 턴키(turnkey) 방식으로 전체 리모델링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전문성이 요구되는 건축과 전기 분야 등은 전문 업체를 선정해 공사를 진행하고, 운동장 토목공사와 조경 등은 자재를 직접 구매 진행하는 직영 방식으로 시설 개·보수를 진행했다. 특히 문화원 임원과 웃다리문화촌 TF팀원, 직원들이 직접 나서 나무와 초화류를 식재하고, 침목 데크를 시공하는 등 노력 봉사도 수시로 진행해 2006년 8월 10일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 지었다.

웃다리문화촌 개관 이전까지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할 입주 작가와 프로그램 강사요원을 공개모집했다. 전국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입주 작가는 장승과 솟대, 생활도예, 석화·압화 공예, 서양화, 생태체험미술, 놀이미술, 창작동요, 근현대사 전시 등 8명의 문화예술인이 선정됐으며, 프로그램 강사도 한지공예, 클레이아트, 평택농악 등 다양한 장르에 걸쳐 선정됐다.

(3) 웃다리문화촌 오픈



웃다리문화촌 오픈식(2006년 8월 16일)



웃다리문화촌 오픈식 가수 조영남 홍보대사 위촉 (2006년 8월 16일)

평택문화원은 웃다리문화촌 오픈 일을 2006년 8월 11일로 정하고, 웃다리문화촌 TF팀원이 주축이 되어 오픈식 준비에 들어갔다.

오픈식은 폐교를 활용한 문화예술 체험학습 시설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전국적인 홍보가 필요

했다. 오용원 문화원장이 대중가수 겸 서양화가로 인기를 얻으며 활동 중인 가수 조용남 씨 초청 해 미니콘서트 및 전시회를 갖는 것으로 섭외를 진행해 성사되는 성과를 얻었다.

8월 11일 오후 5시 웃다리문화촌 운동장에서 300여명의 시민과 웃다리문화촌 인근 마을 주민,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김미영 부원장과 한상희 이사가 1부와 2부로 나눠 사회를 맡아 진행된 오프닝은 평택농악보존회의 고사굿을 시작으로 현판식, 개관 및 전시회 테이프 커팅, 내빈 기념식 수, 어린이들과 주요 내빈의 학교종 타종, 시설 투어, 기념식, 국민가수 조용남 미니콘서트, 평택농악 판굿 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오픈 기념식은 웃다리문화촌 오픈에 이르기까지의 경과보고, 시설 개·보수 공사에 헌신한 공사 관계자와 TF팀원, 마을 주민 대표에게 감사패 전달, 웃다리문화촌 홍보대사에 가수 조영남 위촉, 오용원 평택문화원장의 기념사, 송명호 평택시장과 배연서 평택시의회 의장, 우제항 국회의원, 권용태 한국문화원연합회장 등의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진 국민가수 조영남 미니콘서트는 운동장에 마련한 특설무대에 피아노가 조명, 음향이 설치된 가운데 화개장터, 사랑 없인 못 살아요, 그대 그리고 나, 지금, 제비 등의 인기곡을 한 시간 동안 선보여 관람객의 많은 박수가 이어졌다. 이날 가수 조영남 씨는 “제가 지금까지 가수로 생활한 가운데 가장 시골 마을에서, 가장 작은 무대에서, 가장 적은 관람객이 모인 가운데 공연을 진행했는데 호응은 가장 좋았다. 또, 작품 전시회까지 함께 진행해 매우 기억에 남고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웃다리문화촌 본관 복도 미술전시장에서는 웃다리문화촌 오픈 초대전으로 조영남 씨의 ‘8월의 태극기展’이 8월 11일부터 8월 24일까지 14일간 전시돼 태극기와 화투를 소재로 그린 조영남 씨의 유화 작품 50여점을 선보여 많은 관람객에게 기존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장르의 작품세계를 보여줬다.

(4) 초창기 웃다리문화촌 운영(2006~2010년)

평택문화원 웃다리문화촌은 오픈을 준비하면서 평택시민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 및 문화 욕구 증대, 평택항 및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신도시 조성 등 급격한 개발에 따른 대내외적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기획됐다. 특히 평택문화원사가 갖춰지지 못했기 때문에 문화원사가 건립되기 이전까지 문화기반시설인 문화원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평택의 문화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것은 물론 소외지역 주민대상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두는 것으로

운영 방향을 설정했다.

웃다리문화촌 오픈 당시 시설현황은 부지 면적이 10,538㎡(3,187평, 국유지 274㎡ 미포함)이며, 이중 운동장이 4,041㎡(잔디운동장 1,320㎡, 야외공연장 115㎡), 임야와 밭 등이 6,497㎡이다. 연건평은 1,100㎡(333평)로, 본관 교실이 8실 541㎡, 현대식 건물로 신축한 세미나실이 172㎡(1실), 장승과 숯대실과 생활도예실 용도로 지어진 가설 건축물이 264㎡(2실), 창고가 38㎡(1동), 관사가 60㎡(1동), 신축 화장실이 25㎡(1동)로 구성되어 있다.



폐교 당시 존치됐던 건물은 본관 교실과 관사, 창고 3동이며, 웃다리문화촌 오픈과 함께 신축한 건물은 세미나실, 화장실, 장승과 숯대실과 생활도예실 가설건축물이다.

웃다리문화촌의 운영 방향은 크게 네 가지로 설정했다. 웃다리문화촌 TF팀에서 확정한 운영 방향은 첫째 문화의 양극화 해소, 둘째 자율적 시민 참여, 셋째 운영의 투명성 제고, 넷째 문화 향유권 확대에 대해 큰 틀에서 운영 방향에 맞게 시설을 운영하기로 확정했다.



웃다리문화촌 짚풀공예체험(2007년 1월 22일)



웃다리문화촌 옛날 교실 체험(2007년 5월 11일)

또한 웃다리문화촌의 3대 핵심 프로그램은 첫째 문화 소외 주민 프로그램, 둘째 청소년 및 가족 프로그램, 셋째 시민 문화향유 프로그램으로 설정했으며, 세부 실행 프로그램으로는 문화 소외지역 주민 대상 프로그램을 비롯해 문화예술 강좌 및 체험 프로그램, 청소년 방과 후 및 주말 학습 프로그램, 주한미군과 다문화 가족 대상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 주말농장 프로그램, 유치원 자연학습·체험 프로그램, 평택 향토사 전시관 운영, 문화예술인의 창조적 공간 운영, 문화예술 교육 연수 프로그램,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군부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지역 특성에 맞게 특화해서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웃다리문화촌이 서탄면 금각리와 황구지리, 고덕면 문곡리 주민의 지역사회 공동체 회복의 공간이라는 점을 감안해 주민 대표로 웃다리문화촌 운영위원회에 참여토록 하고, 솟대와 장승 프로그램과 어르신 일자리사업은 반드시 주민 중심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웃다리문화촌 운영의 자원봉사자로 지역 주민을 참여시키고, 솟대와 장승, 주말농장 등 지역 어르신들만의 특화된 강사 활동을 통해 부가 수입을 창출할 수 있도록 추진해 금각분교가 웃다리문화촌으로 바뀌어 운영되고 있지만 지역주민과 늘 함께한다는 기본 원칙은 지켜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2006년 웃다리문화촌 오픈 이후 진행되어온 프로그램은 크게 정기강좌와 일일 체험학습 프로그램, 특별 및 기획 프로그램, 특색 프로그램 등 4개 프로그램으로 나뉜다.

정기강좌는 생활도자기와 석화공예, 천연염색 등 19개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마다 3개월 단기간 과정으로 주 1~2회 강좌가 진행된다. 입주작가 5명과 프로그램 운영 강사가 참여해 진행하며, 초급반, 중급반, 심화반 등으로 단계를 나눠 체계적으로 진행했다.



웃다리문화촌 도예체험(2007년 5월 13일)



웃다리문화촌 평택농악교실(2007년 3월 6일)

《웃다리문화촌 정기강좌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대상	강좌
생활도예	유아/아동반	매주 토 11:00~12:00시/15:00~17:00시
	취미-초급반	매주 화, 목 ⑩10:30~12:30/⑪14:00~16:00시
	취미-중급반	매주 화~금(2일 택일), 10:30~17:00시
	취미-야간반	매주 화, 목 18:30~20:30시
석화/압화공예	아동반	매주 토 15:00~17:00시
	취미반	매주 화, 목 10:00~12:00시
미술(초급반)	초급반	매주 월, 화 10:30~12:30시
	중급반	매주 월, 화 14:00~16:00시
생태미술	아동반	매주 수, 토 14:00~16:00시
	성인반	매주 금 11:00~13:00시
놀이미술	아동반	격주(1, 3주) 화 ⑩15:30~16:30시/⑪11:00~12:00시
음악	아동반	매주 목 15:00~16:00시
	성인반	매주 토 14:00~16:00시
	가족노래만들기	매주 일 10:00~18:00시(2시간 선택)
한지공예	취미반	매주 월, 수 14:00~16:00시
천연염색	취미반	매주 월, 목 14:00~16:00시
우리음식 만들기	취미반	매주 수, 금 10:00~12:00시
평택농악 배우기	초급반	매주 화, 금 18:00~19:30시
솟대 만들기	취미반(실버반)	매주 화, 목 10:00~12:00시

일일 체험학습 프로그램은 나무곤충 만들기와 농촌 체험학습, 놀이미술, 김치 담그기, 근대사 소품 및 민속체험, 인절미체험 등 40여개 프로그램으로 당일 프로그램으로 1~2시간 소요되며,

웃다리문화촌 이외의 축제나 나눔장터 등의 장소에도 강사가 직접 ‘찾아 가는 문화예술 체험학교’ 방식으로 운영했다.

《웃다리문화촌 일일 체험학습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시간	내용
1 생활도예(손작업)	90분	손으로 도자기 만들기
2 생활도예(물레작업)	90분	물레작업으로 도자기 만들기
3 생활도예(핸드페인팅)	90분	초벌 된 도자기에 그림 그리기
4 석화공예(연필꽃이 만들기)	90분	돌 가루로 연필꽃이 만들기
5 석화공예(액자/동물시계 만들기)	90분	돌 가루로 토끼, 호랑이 그림 시계 만들기
6 압화공예(양초 만들기)	90분	꽃잎으로 양초 만들기
7 압화공예(액세서리 만들기)	90분	꽃잎으로 액세서리 만들기
8 한지공예(거울, 소품 만들기)	60분	한지를 이용해 생활 소품 만들기
9 목공예(곤충 만들기)	60분	나무를 이용해 곤충 만들기
10 생태미술	90분	야생화 및 곤충 채집, 관찰, 그리기
11 놀이미술(하얀 나라-밀가루)	60분	밀가루 느낌(오감체험)
12 놀이미술(우주체험)	60분	우주선 만들기
13 석고 뜨기	60분	석고로 손바닥, 발바닥 모양 뜨기
14 리듬악기 체험	60분	리듬악기 체험하기
15 인절미체험(떡메치기)	60분	떡메 쳐서 인절미 만들고 먹기
16 김치 담그기	60분	한국의 전통 김치 만들어 가져가기
17 근대사 소품/민속체험	60분	사각 딱지 만들어 놀기, 주사위놀이, 윷놀이, 굴렁쇠, 투호, 윷놀이, 연날리기 등(선택)
18 천연염색 체험	60분	천연 재료를 이용해 천연 염색하기
19 마술체험교실	60분	손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마술 체험하기
20 농촌 체험학습	120분	고구마 캐기, 옥수수 따기, 메뚜기 잡기, 미꾸라지 잡기, 허수아비 만들기 등(선택)

웃다리문화촌에서 평택지역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반영해 진행한 특별 및 기획 프로그램은 군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시티투어 연계 체험학습 프로그램, 학교별 체험학습 프로그램, 문화예술 소외계층 대상 프로그램,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했다. 평택지역이 한국군과 주한미군을 비롯한 군인 가족들이 국내에서 가장 많이 주둔 또는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특성을 살려 군 장병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시티투어 연계 체험학습 프로그램과 학교별 체험학습 프로그램은 웃다리문화촌의 오픈 초창기 인기 프로그램으로 웃다리문화촌 조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웃다리문화촌만의 특색 프로그램으로는 실버문화학교와 주말농장, 동물농장 프로그램

을 운영했다. 실버문화학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원연합회 공모사업을 통해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평택문화원의 최장수 프로그램이다.



웃다리문화촌 군 장병 및 주한미군 가족 도예체험 (2007년 7월 7일)



평택문화원 이주민 한국어 문화이해 교육 수료식 (2009년 10월 7일)

실버문화학교는 웃다리문화촌 인근 서탄면과 고덕면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어르신 30명을 대상으로 한 노인 문화실천 프로젝트로 1단계는 문화예술교육 수강활동, 2단계는 청소년 대상 강사 활동, 3단계는 소득 창출 활동으로 진행해 1회성 단기 프로그램이 아닌 지속 가능하면서 선순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해왔다.

사업 첫 회인 2006년에는 웃다리문화촌 시설을 기반으로 어르신들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짚풀공예’를 진행했으며, 2007년에는 쪽동백과 대나무로 가공해 목공예 작품을 만들고 체험하는 ‘희망숫대’, 2008년에는 쪽동백과 한지를 이용해 미니 장승을 만드는 ‘장승세상’, 2009년부터는 쪽동백과 대나무, 한지, 천연염색, 클레이아트 등을 융복합해 ‘장승과 숫대’ 프로그램을 운영해 웃다리문화촌의 특색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이경태 회장을 중심으로 실버문화회원 30여명이 실버문화학교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진행으로 얻은 성과는 문화예술을 통한 문화복지 실현과 실버기업 ‘희망숫대’ 창사, 어르신들의 지속적인 소득 창출, 2007년 실버문화학교 운영 평가 전국 대상 수상(문화관광부장관상), 실버문화의 수범 도시로 평택시 홍보 등을 들 수 있다.

또 하나의 특색 프로그램인 주말농장과 동물농장 프로그램도 웃다리문화촌 이용자의 다양한 욕구 충족에 기여했다. 오픈 때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웃다리문화촌 주말농장은 매년 3월 개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1구좌 5평 단위로 구획정리 된 경작지를 분양해 가족과 어린이집 프

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다. 3월에 진행하는 주말농장 개장식은 채소 모종 나눠주기와 떡메치기체험을 진행하고, 5월에는 삼겹살 파티와 함께 쌈축제를 마련하고, 10월에는 지금은 잊혀진 농경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추수축제를 진행해 주말농장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했다. 농사경험이 없는 도시민들을 위해서는 웃다리문화촌 인근 지역 거주 어르신 20여명을 주말농장 도우미로 위촉해 작물 재배 기술을 지도할 수 있도록 했다.



실버문화사랑축제 참가(2007년 10월 20일)



2007년 실버문화학교 운영 평가 전국 대상 문화관광부장관상 수상(2007년 10월 22일)

웃다리문화촌 운동장 한편에 조성한 동물농장은 어린이들에게 가장 큰 인기를 얻었다. 150평 규모로 5칸의 동물농장을 조성해 사슴과 돼지, 거위, 오리, 러시아 기러기, 원앙, 염소, 토끼, 칠면조, 닭, 타조 등 12종 55마리의 가축과 동물을 키워 어린이들이 직접 만져보고 먹이를 줄 수 있도록 시설을 개방해 1년 365일 어린이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 동물농장에서 사육한 가축과 동물은 연도별로 종류와 마리 수에 변화가 있었으며, 서탄초등학교에서 사슴을 기증하거나 시민들이 키우던 가축이나 동물을 기증하는 사례가 많았다.

웃다리문화촌은 2006년 오픈한 이후 운영 프로그램이 교체되거나 증가하고, 캠핑장 운영 등으로 매년 방문자와 프로그램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성과를 얻어 문화예술 기반시설 불모지였던 평택에서 다양한 시도와 성과를 얻어 지역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 기여했다. 이 같은 운영 실적에 힘입어 2007년 12월 31일 생활친화적 문화 공간 조성사업 운영평가 문화관광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5) 웃다리문화촌 도약기(2011~2020년)



웃다리문화촌 전경(2011년 8월 2일)



웃다리문화촌 캠핑장 운영(2010년 4월)

웃다리문화촌은 2006년 오픈 이후 2000년 이후부터 학교 밖 수업인 체험학습 붐이 일면서 수도권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체험학습 공간으로의 제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였다. 문화예술 정기 강좌와 일일 체험학습 프로그램은 초창기 솟대와 장승, 생활도자기, 천연염색, 한지공예, 클레이아트, 놀이미술, 예절교육, 평택농악 등에서 금속공예, 가죽공예, 캘리그래피, 김치 담그기, 생태체험, 군 장병 문화예술교육, 다문화교육, 미군 가족 체험학습, 시티투어 체험, 우리 동네 예술 프로젝트 등으로 확대해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넓혀나갔다.

특히 평택시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장르의 축제 현장을 초대받아 진행되는 ‘찾아가는 문화예술 체험학습’도 연간 40~50회 이상 진행했으며, 야외공연장과 목재 데크를 활용한 주말 캠핑장 운영도 인기를 끌면서 예약 시작과 동시에 매진되는 인기 프로그램이 되었다.

실내 전시공간의 변화도 진행되었다. 2014년에는 본관 입구 휴게실을 웃다리문화촌 갤러리로 리모델링해 1개월 단위로 지역 작가와 초청 작가의 작품을 전시해 2020년까지 모두 20여 차례의 예술작품 전시회를 개최했다. 또한 평택의 역사와 유물, 문화자원을 전시, 홍보하기 위해 2015년 10월 웃다리문화촌 향토사료관 ‘평택의 잔상’ 개관하였다. 평택문화원에서 유물 구입을 통해 소장하고 있는 지역사 관련 자료를 전시하고, 평택의 시대별 대표적인 사건을 연표로 정리하고 디자인해 청소년과 가족들에게 평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에 대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획하여 많은 시민들이 관람하였다.

웃다리문화촌에서는 진위천 일원에서 자생하는 평택의 대표적인 생태자원인 꼬리명주나비 깃대종사업을 2014년부터 평택자연연구소와 협업으로 진행하였다. 웃다리문화촌 비닐하우스를 활용해 쥐방울덩굴 육묘장을 만들고 식재해 꼬리명주나비의 서식환경을 조성했으며, 죽백동에 위치

한 바다리생태공원과 고덕면에 위치한 소풍정원에도 쥐방울덩굴을 보급해 꼬리명주나비가 평택 시 전역에서 서식할 수 있도록 해 평택시를 환경친화적인 도시로 만들어어나가는데도 일조해오고 있다. 본관 후면과 운동장 전면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생식물과 교목을 식재해 동산으로 조성하기도 하였다.

웃다리문화촌 조형예술사업으로 진행한 예술작품 설치는 2019년 박인성, 조혜경, 조재영, 김중영, 서주현, 권다혜, 이종규 작가가 꼬리명주나비와 쥐방울덩굴을 모티브로 생명의 순환 과정을 형상화 해 스테인레스 스틸과 우레탄 도장을 소재로 한 작품 ‘나비의 꿈’을 운동장 한쪽에 설치했다. 2020년에는 양대원 작가가 과거 금각분교에서 행해졌던 운동회를 상상해 그 때의 추억을 소환하고, 현대인이 사회에 나아가 또 다른 줄다리기의 고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철판 위에 도색을 한 작품 ‘인생(The Life)’을 본관 옥상에 설치했다.

2021년에는 신예진 작가가 기둥과 지붕 콘크리트 구조물만 남은 옛 재래식 화장실을 활용하여 ‘꼬리명주나비 정원’에서 영감을 얻은 꼬리명주나비와 산호랑나비, 사향제비나비 등의 모형을 대형 모빌 형태로 해 UV 필름과 스테인리스 스틸, 식물 화분 설치 방식으로 구성한 작품 ‘숲을 향하여’를 본관 후면에 설치했다.

웃다리문화촌 조형예술사업은 야외에 예술작품을 설치해 웃다리문화촌 이용자 및 방문객에게 조형예술 작품을 관람하게 하고, 이곳에서 인증 사진을 촬영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매년 한 작품씩 설치하고 있다.



웃다리문화촌 SBS-TV 런닝맨 촬영(2011년 8월 1일)



SBS-TV 당신이 대한민국입니다 촬영(2007년 9월 27일)

웃다리문화촌이 폐교를 활용한 우수 사례로 평가받고, 수도권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체험학습장으로 각광을 받게 되자 신문과 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속적인 홍보가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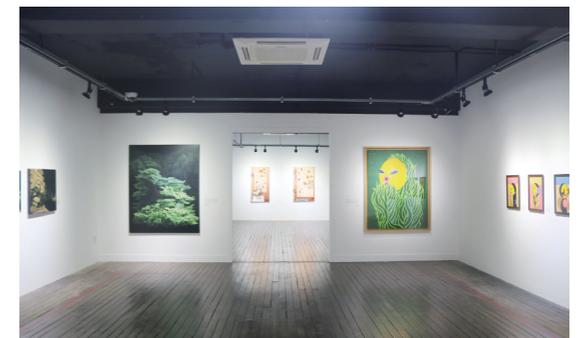
KBS, MBC, SBS 지상파 방송 3개사와 YTN, SK브로드밴드, 아리랑TV 등 케이블TV에 100회 이상 뉴스로 보도됐다. 특히 TV 예능프로그램의 촬영장소로 각광을 받아왔다. 2010년 코미디TV ‘얼짱시대’를 시작으로 2010년 tvN ‘레인보우’, 2011년 SBS ‘런닝맨’, 2013년 MBC ‘무한도전’, 2013년 EBS ‘나도 요리사’, 2018년 EBS ‘사이언스타Q’, 2018년 SBS ‘런닝맨’, 2019년 Mnet ‘에버글로우 랜드’, 2021년 SBS ‘미운오리새끼’ 등 인기 예능프로그램에 30여회 방영되면서 전국적으로 전파를 타 웃다리문화촌을 홍보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였다.

웃다리문화촌은 문화예술 체험학습장 운영과 캠핑, 주말농장, 동물농장 운영을 활성화하여 2007년 12월 31일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조성사업 운영평가 문화관광부장관 표창을 시작으로 다양한 수상 실적을 보여 왔다. 다음은 웃다리문화촌 운영과 관련한 대표적인 수상 실적 및 인증기관 지정 실적이다.

- 2007년 10월 27일 : 2007 실버문화학교 프로그램 전국대상(문화관광부장관상)
- 2007년 12월 31일 :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조성사업 운영평가 표창(문화관광부장관상)
- 2016년 10월 : 경기관광 인증프로그램 기관 인증(경기관광공사)
- 2017년 6월 : 평택시 진로체험 ‘꿈길’ 기관 인증(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 2018년 10월 23일 : 2018 지역문화대표브랜드 우수상 수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 2020년 9월 24일 : 제7회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농촌빈집 유희시설활용 우수사례 금상 수상(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6) 웃다리문화촌 전환기(2021년 이후)

웃다리문화촌은 2006년 오픈 이후 유치원생과 초·중·고등학생의 문화예술 체험학습 장소로, 평택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를 위한 공간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인기를 얻으며 매년 4~5만 명의 수도권 주민들이 이용하는 문화예술 체험학습장으로 각광을 받아 평택시를 대표하는 명소로 자리 잡았다.



웃다리문화촌 감각의정원전(2021년 8월 21일)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학생들의 대규모 체험학습이 중단되고, 이후 체험학습 방향이 안전사고 예방을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옷다리문화촌 문화예술 체험학습 이용자가 급격히 감소하여 프로그램 운영에도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특히 2020년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각 급 학교의 등교는 물론 체험학습이 어려워지면서 문화예술 체험학습 중심으로 운영되어온 옷다리문화촌도 운영 방향의 전환을 모색하게 되었다.

2020년 5월 옷다리문화촌 운영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여 기존 문화예술 체험학습 중심의 프로그램에서 확장성을 넓혀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와 연계해 전시와 체험, 교육이 함께 이루어 질 수 있는 문화복합 공간으로 전환을 위해 논의를 진행하였다. 옷다리문화촌 운영위원회는 조혜경 이사가 총장을, 신태식 부원장과 김혜영, 김규동, 김진수, 안광훈, 김종구, 홍인석, 이형범 이사가 위원으로 참여해 모두 9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2021년 3월 11일 오은영 부원장과 외부 전문가 도종환, 이준희, 조형철 씨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옷다리문화촌 시설 개선과 운영 방향에 대한 자문을 받고 있다.



옷다리문화촌 감각의정원전(2021년 8월 21일)

옷다리문화촌 운영위원회는 2020년과 2021년 모두 7회의 운영회의를 개최해 옷다리문화촌을 문화예술 체험학습 시설에서 복합문화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유사 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파주 헤이리마을과 당진 아미미술관 등을 벤치마킹하였다. 이후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기존 체험학습시설에 6000여만 원의 보조금을 투입해 전시공간으로 리모델링을 진행하였다. 2021년 8월까지 진행된 리모델링으로 모두 9개의 전시장과 전시연계 체험 공간 등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옷다리문화촌 리모델링 후 첫 전시로 기획한 '감각의 정원展'은 15명의 시각 예술가가 참여한 종이공예, 드로잉, 판화, 회화, 조각, 비디오, 설치예술 등 복합 장르의 전시회로 8월 20일부터 10월 22일까지 2개월간 진행되었다.

'감각의 정원展'은 작품 전시와 더불어 관람자가 참여해 함께 만들어가는 관람자 참여형 전시 연계프로그램, 워크숍 등도 진행되어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이 함께 이루어졌다.

7) 평택시티투어 운영

평택시티투어는 버스를 이용해 평택지역의 향토문화유적과 관광자원, 옷다리문화촌 등을 돌며 평택의 역사를 배우고 다양한 체험을 하며 지역을 알아가는 평택문화원의 체험프로그램으로 시민은 물론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얻어왔다. 2007년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부모와 함께 하는 향토문화기행 '평택시티투어'를 시작한 것이 시초이며, 현재까지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진위향교, 평택향교, 원효대사 깨달음체험관, 원균 장군 유적지, 삼봉 정도전 유적지, 평택호관광단지, 팽성 읍객사, 홍학사비각, 심복사, 이대원 장군 유적지 등 평택지역 북부, 남부, 서부지역 유적지를 순회하며 역사에 대해 배우고 익히는 것으로 코스는 상황에 따라 조금씩 변동되기도 한다. 평택시민은 물론 외지인도 누구나 예약을 하면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1인에 1만원으로 점심 식비, 여행자보험비, 문화예술 체험비, 관광버스 임대비 등이 포함된다. 매회 4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는데 오전 9시 평택시남부문화예술회관 앞에서 버스에 탑승한 후 각 코스를 순회한 후 오후 3~4시에 마치게 된다.



평택시티투어(2008년 11월 14일)



평택시티투어(2008년 11월 14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진행하며 일반시민과 초·중·고 학생, 소외계층, 타 지역 주민, 외국인 등 다양한 연령과 계층에서 평택시티투어에 참가하고 있다. 1년에 12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수업과 책으로만 배웠던 우리고장의 문화재를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교육적으로도 뛰어난 효과가 있다. 특히 평택시민뿐 아니라 타 지역 주민들에게 평택의 문화유적, 관광지과 인물, 슈퍼오닝 브랜드 등을 알림으로써 평택시의 브랜드 이미지 상승과 홍보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우리고장에 대한 이해를 높여 향토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군장병 및 가족 평택시티투어에서는 주한미군 장병 및 가족 등을 매회 40~45명씩 구성해

평택시티투어를 진행하고 있다. 평택지역 문화유적지 견학, 전통 문화예술 체험학습, 평택농악 공연 관람 등을 통해 평택시를 알리고 한국의 전통문화를 소개하고 있다. 평택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 장병과 가족들에게 한국문화의 전통과 우수성을 전파하며, 평택시 문화관광 자원을 견학하여 주한미군 장병들에게 주둔지 평택시에 대한 이해를 높임과 동시에 추억을 만들어준다. 한지 공예, 천연염색, 장승과 솟대 만들기 등 한국의 전통공예체험과 인절미 떡메치기, 민속놀이 등 다양한 전통 체험활동으로 한국인의 얼과 정서를 널리 알리고 있다.

8) 주한미군 문화교류 사업



한미 가족 한국 전통문화체험(2010년 9월 4일)



한미 가족 한국 전통문화체험(2010년 9월 4일)

평택문화원은 주한미군들과 함께 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다. ‘미군장병 및 가족들이 함께 하는 평택시티투어’를 비롯해 ‘한국 전통사찰체험’, ‘한·미 청소년 영어캠프’, ‘한·미 어린이 서머스쿨’, ‘주한미군 가족과 함께 하는 한국문화 오감체험’ 등이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미군장병과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평택시티투어’ 사업은 2008년 초기에는 ‘주한미군 가족과 함께 하는 한국문화 오감체험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2007년 평택시티투어가 시작되면서 주한미군을 대상으로 하는 시티투어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008년 당시 주한미군 관련 시티투어는 2,000만원의 평택시 예산이 추진되었다. ‘주한미군 가족과 함께 하는 한국문화 오감체험 사업’은 평택시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 장병과 가족들에게 한국문화의 전통성과 우수성을 널리 전파하고, 평택시 문화관광자원을 견학해 역사 인물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평택시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는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또한 이론 중심의 활동이 아닌 관람과 흥미 중심의 관광, 체험활동을 병행하고 한국의 전통공예나 전통음식을 직접 만들고 시식

하는 과정을 통해 한국인의 얼과 정서를 깊이 체감하는 과정을 통해 미군과 장병의 가족들에게 주둔지인 경기도와 평택시에 대한 감동을 선사하는 한편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해 한미 모두가 하나가 되는 행사를 진행한다는 목적이 있었다.

시티투어 장소는 평택시의 대표적인 문화관광지와 웃다리문화촌 등을 방문했으며, 주한미군 모집은 각종 언론매체와 인터넷 알림마당을 통해 홍보하고 선착순으로 모집하였다. 첫 해에는 주한미군과 가족, 일반 시민을 각각 절반씩 모집해 모두 32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사전 홍보와 참가자 접수, 투어 세부코스 협의, 시설 섭외와 버스임차, 투어진행 및 관계자와 해설사 회의, 투어 자료집 발간, 체험강사와 해설사 통역 회의, 투어 재료 준비, 투어 실시 순으로 진행하였다. 투어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진행하였으며 평택문화원에서 집결하여 평택향교나 진위향교에서 평택농악 관람, 원군 장군 유적지에서 전통무예 관람, 정도전 유적지에서 탁본체험, 웃다리문화촌에서 장승과 솟대 만들기, 윷놀이와 제기차기, 투호, 팽이치기, 굴렁쇠 굴리기 등 한국의 전통문화 체험활동을 진행하였다. 또한 도자기와 칠보 등도 체험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귀가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 사업은 이후 ‘미군장병 및 가족과 함께 하는 평택시티투어’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체험 장소도 진위채소마을이나 산양농장 등이 추가되었고, 대상도 매회 45명씩 진행하는 것으로 늘어나 매년 미군장병과 가족, 한국장병 등 300~4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시티투어와 더불어 ‘한국전통사찰체험’도 진행되었다. 평택 수도사에서 사찰음식을 체험하고 법회를 참관하는 등 사찰체험을 통해 평택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장병에게 우리 문화의 전통성과 지역문화를 전파한다는 취지로 매년 100여명을 대상으로 토요일에 진행하였다.

주한미군 자녀들과 평택시 청소년들이 함께 하는 영어캠프도 추진하였다. ‘한·미 청소년 영어캠프’는 K-55 평택오산미공군기지 안에 있는 미국 중학교에서 진행하였다. 평택지역 중학생 24명이 미군부대 안에 있는 중학교에서 3일간 미국 학생들과 함께 미국 정규 중학교 수업에 참가하는 것으로, 2박 3일간 일정이 종료된 후에는 수료식과 파티를 진행하였다. 미국 가정에서 숙박하면서 영어회화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영어교육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미국 중학생들과 조를 이루어 생활하면서 한국과 미국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과 미국 중학생들로 구성된 영어캠프 외에도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미 어린이 서머스쿨’도 큰 호응 속에 진행된 대표적인 사업이다. 한·미 초등학생이 함께 태권도를 배우고 다양한 전통문화체험을 통해 양국의 문화를 배우고 익히는 시간으로 매년 한국 학생과 미국 학생

250여명과 그밖에도 학부모, 원어민 교사와 활동자 등 모두 500여명이 함께 참여하였다. 미군기지가 주둔하고 있는 평택시의 지역적 특수 환경을 활용해 한국과 미국 어린이들이 서머스쿨을 바탕으로 일류 평택시로 나아가는 지역인재 양성에 기여하였고 체험 중심 프로그램으로 자연스럽게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한미 어린이 서머스쿨(2010년 8월 3일)



한미 어린이 서머스쿨(2010년 8월 3일)

2008년부터 2014년까지 7년간 주한미군 관련 문화교류 사업을 창안, 기획하여 활발하게 진행해온 평택문화원은 2013년 평택시국제교류재단 창립이후 2015년부터 대부분의 사업을 재단으로 이관하였으며, 평택시국제교류재단 현재까지 대부분의 사업을 진행하여 오고 있다.

9) 문화유산(향교) 활성화 사업

평택문화원이 추진하고 있는 '문화유산(향교) 활성화 사업'은 지원처가 경기도와 문화재청,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등으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 경기문화재단이 지원하는 '문화유산(향교) 활성화 사업'은 2009년 처음 사업비 1,000만 원으로 예절교육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이후 예산이 300~500만원으로 변화하다가 2015년부터는 경기문화재단에서 경기도와 평택시 예산 매칭 2,000만원으로 증액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명칭도 초기에는 '진위향교 예절교육'으로 예절 중심 프로그램으로 시작하였고, 이후에는 '진위향교 나들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다가 2021년부터는 '진위향교 오감만족 선비문화축제'로 명칭을 변경해 과거시험을 중심으로 변화하였다. 예절교육에서는 조선시대 교육기관인 향교 소개와 올바른 인사법, 학교예절과 식사예절, 언어예절, 가정예절, 국민의례, 탁본체험, 절의 의미와 배례법, 배례법 실습 등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문화재청이 지원하는 '향교·서원 문화재활용사업'은 2017년 '진위향교 풍류놀이'라는 명칭으로 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진행하였다. 2018년에는 6,000만원의 예산으로 진행하였고, 2년 동안 유지되어 왔다. 주된 프로그램은 향교탐방, 청소년 석전대제, 향교축제 등이었다.



경기도 향교 활성화 우수프로그램(2009년 7월 2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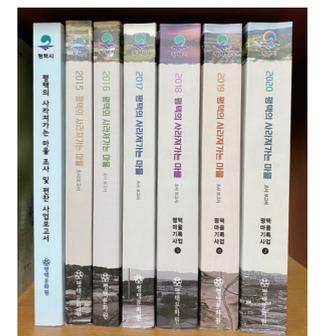


경기도 향교 활성화 우수프로그램(2009년 7월 27일)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과 평택시 교육청소년과가 지원하는 '향교서원 문화재활용사업'은 처음에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으로 진행되었다. 2020년 '우리고장 평택알기 프로젝트-진위향교'로 시작해 2021년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다. 평택지역 초등학교 62개교에 다니는 3학년생을 대상으로 현장답사와 체험을 진행함으로써 지역과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높여 우리고장 평택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문화유산 활성화를 통해 진위향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특히 교·보재는 사회과 교과에 수록된 《우리고장 평택》과 연계해 초등학교 눈높이에 맞춰 제작하였다.

10) 평택의 사라져가는 마을조사 사업

평택문화원에서는 개발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처한 마을을 중심으로 2014년부터 마을기록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마을조사 사업은 전문연구 조사자가 인문지리, 구술조사, 각종 사료들을 수집하고 채집된 자료들은 문서와 영상 기록물로 담아내는 과정을 거친다. 마을이 사라지더라도 공간과 주민들의 삶을 기억하고 마을의 정서와 문화가 기억되도록 한다는 취지이다. 조사한 자료는 1년에 한 번씩 《평택의 사라져가는 마을조사 사업 보고서》라는 제목으로 발간하고 있으며, 평택문화원 홈페이지 아카이브 기록관에 지



평택의 사라져가는 마을 조사보고서 (2014~2020년)

역별로 분류하여 공개하고 있다.

2014년부터 ‘도시화와 산업화로 사라지는 마을’을 주제로 하였고, 이 주제는 2021년 현재까지 일관된 주제로 진행하고 있다. 2018년에는 ‘미군기지 주둔과 관련된 기지촌마을’이라는 주제로 진행하였다. 2019년부터는 ‘전통의 읍치 또는 지방 통치조직과 관련된 마을’, ‘전통의 수로교통이나 어업과 관련된 포구마을’, ‘구릉지대에 위치한 전통마을’, ‘해방 전후 간척지에 형성된 들판 마을’, ‘상업이 발달한 도시와 시장마을’을 주제로 진행하였다.



평택의 사라져가는 마을 조사 활동(2016년)

연도	읍·면·동	마을	비고
2014년	포승읍	희곡리(3), 신영리(4)	황해경제자유구역(BIX포승지구)
	이충동	동령마을	도시개발 추진
	세교동	은실마을	도시개발 추진
2015년	용이동(2), 소사동(3), 동삭동(3), 칠원동(3), 합정동(1배미)		도시개발
	안중읍	현화리(2)	화양지구 도시개발 추진
	현덕면	화양리(2), 운정리(3)	화양지구 도시개발 추진
2016년	현덕면	권관리(5), 기산리(3), 대안리(4), 신왕리(2)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 추진
	진위면	가곡리(7-5), 마산리(4) 등 23개마을	진위2,3 산업단지개발
2017년	현덕면	장수리(1)	도시개발 추진
	포승읍	내기리(6-4), 도곡리(11-5), 원정리(10-5), 흥원리(7), 석정리(9-6)	자연마을 기본조사
2018년	현덕면	방축리(2), 도대리(3), 인광리(7-5), 황산리(3), 덕목리(5) 등 18개마을	자연마을 기본조사
	팽성읍	대추리, 도두리, 합정리, 본정리, 안정리	미군기지로 사라지고 이전한 마을
	서탄면	적봉리, 장등1리, 신리, 야리, 황구지리, 금각리	
신장동	구장터		
2019년	진위면	봉남리(3)	진위현의 읍치
	팽성읍	객사리(6)	평택현의 읍치
	원평동	원평동	근대 도시
2020년	송탄동	도일동(4), 장안동, 칠괴동, 가재동(5), 모곡동	평택브레인시티 개발
2021년	진위면	하북리(4), 견산리(6), 신리, 야막리	진위4산업단지 개발 추진

11) 전통문화 발굴 및 보존, 활성화사업

평택거북놀이보존회는 2013년 ‘평택거북놀이’를 복원한 이후 매년 상설공연과 초청공연 등을 진행하며 지속적인 전승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학술연구와 전통 복원을 거쳐 현재 경기도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평택문화원 부설 평택향토사연구소는 평택 정월대보름 줄다리기 복원, 평택호 풍어제 복원, 마을별 전통우물 복원, 평택두레놀이 복원, 평택거북놀이 복원, 충효도의 사업, 향교 활성화 사업, 평택시문화관광해설사 양성, 향토사 대중화사업, 웃다리 평택농악 보존 및 육성과 세계화, 문화재 지킴이 활동 등을 하고 있다.



제1회 대한민국무형문화재축제(2005년 10월 29일)



제2회 대한민국무형문화재축제(2006년 9월 23일)

2004년 10월 20일 평택시남부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개최된 ‘문화의 날 기념식’에는 기관단체장과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기념식에는 식전 행사로 방송인 이상벽 씨를 초청해 ‘이상벽과의 아름다운 만남’ 강연을 진행하였다. 기념식에서는 예술부문 평택농악보존회 김용래 회장과 체육부문 평택여고 임인성 교장, 사회개발부문 박성재, 교육부문 강명수 씨가 송명호 평택시장으로부터 평택시문화상을 받았다. 오용원 평택문화원장이 수여한 평택문화원 제정 ‘제1회 소사별문화상’에는 ‘신희리예술단’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와 함께 평택팝스밴드가 평택문화원의 새로운 문화가족으로 지정되었다. 이날 행사는 제14호 《소사별》 발간 축하연을 함께 진행하였다.

대한민국 5대 농악이 한자리에 모이는 ‘무형문화재축제’는 국가무형문화재 ‘평택농악’을 모티브로 대한민국 5대 농악을 한 곳에 모으는 특화된 축제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평택농악의 위상을 정

립하기 위해 평택문화원과 평택농악보존회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평택농악발전연구회와 한빛기남 방송의 후원으로 2005년부터 추진되었다. 평택농악 테마를 활용한 복합적 무형문화재 축제로 평택시의 대표 축제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대한민국 5대 농악에 대한 관심으로 대외적인 이미지 효과를 얻으며 한편으로는 문화의 전략적 접근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었다.

행사에서는 국가무형문화재 ‘제11-1’호에서부터 ‘11-5’호에 이르는 전국 5대 농악을 차례로 선보였으며, 국가무형문화재 제8호로 지정된 전남 진도군의 ‘강강술래’, 전라남도무형문화재 제18호로 지정된 진도군의 ‘북놀이’ 등도 선보여 다채로운 공연을 기획하였다. 또한 부대행사로 평택미술협회가 석고 뜨기, 페이스페인팅, 도예 등의 체험행사를 준비하였으며, 전통 떡만들기와 시식코너, 천연염색 체험코너, 숯대와 고깔 만들기, 전통사찰음식 체험 등 다양한 체험은 물론이고 중앙동부녀회에서 국밥과 순대, 막걸리, 빈대떡 등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장터도 마련되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11-1호는 ‘진주삼천포농악’으로 1966년에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군악의 영향을 받아 쇠가락이 빠르고 자반뒤집기 등 상모놀음이 발달하였다. 제11-2호는 ‘평택농악’으로 1985년에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진풀이가 다양하고 화려하며 생동감이 넘친다. 당산벌립 대형과 무동놀이가 가장 큰 특징이다. 제11-3호는 ‘이리농악’으로 1985년에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느린 가락에 설장고의 가락과 춤이 발달하였다. 제11-4호는 ‘강릉농악’으로 무동들의 춤과 동고리, 농경생활을 모의하는 연극적 놀이가 발달하였다. 제11-5호는 ‘임실필봉농악’으로 호남좌도 농악의 대표성을 가지며 뒷굿 중심 놀이에 치중하는 것이 특징이다.

평택문화원은 2005년에 개최한 무형문화재축제를 더욱 확대하여 2006년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 동안 평택 이충분수공원 특설무대와 공원 광장에서 ‘2006 대한민국무형문화재축제’를 개최하였다. 2만 5,000여 명의 관람객이 함께 한 대한민국무형문화재축제는 평택이 우리의 우수한 무형문화유산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보존하며 육성하는 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단초를 마련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5대 농악과 소리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마련된 이 축제는 국가무형문화재 제11-2호로 지정된 평택농악을 모티브로 해서 국가무형문화재 5대 농악공연을 한자리에서 관람하고, 이춘희 명창의 경기민요, 신영희 명창의 판소리 등 우리나라의 내로라하는 소리꾼들도 대거 출연해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여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특히 공연, 전시행사는 어른들에게 큰 볼거리를 제공했으며, 평택농악 캐릭터 색칠하기, 나만의 사진 버튼 만들기, 나무 곤충 만들기 등 20여 가지의 체험프로그램은 7,000여 명의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관람객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다. 사물놀이 체험이나 우리 소리 배우기, 윷놀이나 투호 등 민속놀이도 진행해 가족 간의 소통의 장을 만들었다.

대한민국무형문화재축제는 2008년에는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에 걸쳐 ‘평택평화문화예술축제’와 어우러진 무대로 진행되었다. 축제는 평화무대와 예술무대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평화무대에는 5대 농악을 중심으로 진행하였고, 예술무대는 다양한 예술 공연이 어우러진 행사로 진행되었다. 첫날에는 길놀이와 평택두레놀이, 경기소리보존회, 소리사위예술단, 경기도립국악단 기념공연 등이 진행되었고, 둘째 날과 셋째 날에는 옷다리농악 경연대회, 해외 민속공연으로 대련시와 영파시 예술단 공연이 진행되었고, 오후부터는 5대 농악축제가 이어졌다. 평화무대 둘째 날과 셋째 날에는 사론플룻앙상블, 소리벗예술단, 해오름밴드, 경기휘모리잡가보존회, 해외민속공연, 풀피리보존회, 박성실무용단 공연 등이 이어졌다.



소사벌민속단오제 개최식(2006년 6월 2일)



소사벌민속단오제 창포머리감기(2004년 6월 22일)

평택문화원의 가장 큰 행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평택소사벌민속단오제’는 2006년의 경우 6월 2일 덕동산시민공원에서 2,0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평택농악과 민속씨름, 그네뛰기 종목으로 읍·면·동 경연이 펼쳐졌으며, 창포에 머리감기와 떡메치기, 평택농악보존회의 평택농악 시연도 함께 마련되었다. 이날 경연 결과 평택농악 경연은 세고동이 금상, 진위면이 은상, 포승면이 동상을 수상하였다. 민속씨름은 안중읍이 금상, 진위면이 은상, 현덕면이 동상을 차지했고, 외그네는 송탄동이 금상, 비전1동이 은상, 진위면이 동상을, 쌍그

네는 신장2동이 금상, 신평동이 은상, 지산동이 동상을 각각 수상하였다.

평택문화원은 2007년부터는 ‘어르신 문화나눔 봉사단’을 운영해 문화복지 활동으로 지역에서 활약했다. ‘문화나눔봉사단’은 어르신들이 한국의 대표 전통문화유산인 ‘장승과 솟대’로 평택지역 주요기관과 복지관 등을 찾아가거나 주한미군 또는 결혼이주민이 많은 지역임을 감안해 문화소의 계층에게 장승과 솟대 만드는 법을 가르쳐 문화를 전파하는 것을 말한다. KBS 뉴스광장, MBC 뉴스데스크 등 지상파방송에 소개되기도 했으며, 조선일보와 경향신문 등 각종 언론매체에 보도 되기도 하였다. 평택문화원은 이밖에도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택역사문화알림이’ ‘문화관 광해설사 양성’ 등 시민이 향토사교육에 대한 욕구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2009년에는 정도전, 원균, 안재홍, 홍익한, 김육, 신숙주 등을 담은 평택의 역사인물 달력을 제작해 초·중·고등학교와 주요 기관단체에 배포하였다. 특히 11월의 인물로 지영희를 선정하였으며, 초등학교 사회교과 과정에 지영희 선생과 캐리커처를 포함시켜 교육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악 현대화의 선각자 지영희 선생을 홍보하는데 주력하였다.



평택학 정립 학술대회(2010년 12월 23일)



제25회 전국향토문화공모전 콘텐츠부문 최우수상 수상 (2010년 10월 8일)

2010년도에는 수원대학교 박물관에 의뢰해 ‘평택학 정립 학술대회’를 위한 기초조사 연구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당시 수원대학교 박물관은 평택문화원의 협조를 얻어 평택시의 기본현황 조사에서부터 평택의 문화관광 자원 조사, 평택의 문화유적 정비와 존재가능성 조사, 평택학과 도시개발 등을 면밀하게 조사한 후 평택학의 정립과 문화자원의 활용을 위한 방안을 한 권의 자료

집으로 제출해 지역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평택문화원은 2010년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추진한 ‘제25회 전국향토문화공모전’에서 ‘국악 현대화의 선각자 지영희’라는 주제로 영상 작품을 출품해 콘텐츠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평택문화원의 박성복 사무국장, 서태정 학예연구사, 김창현 평택문화원 문화회원이 함께 하였고, 지역사 연구가이자 한광중학교 교사인 김해규가 참여해 평택 출신의 지영희 선생의 일대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상을 제작했다. 당시 심사평에는 “국악인 지영희가 국악계에 미친 영향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제작한 작품으로 영상과 내용 구성이 모두 훌륭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이 작품은 영상구성, 편집, 기술부분이 모두 안정적이며 지영희 선생이 활동할 당시의 영상을 확보하여 이들로 하여금 좀 더 사실감과 흥미를 느끼게 해주고 있다. 또한 국악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내용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2011년 8월 25일에는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와 경기문화재단이 주최하는 ‘경기도 시군 문화유산 원형 토론회’에 참여해 ‘국악 현대화의 선각자 지영희 관련 지역브랜드 개발’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는 등 지역의 인물과 콘텐츠를 연결하는 부분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지영희예술제와 지영희전국학술대회를 개최하였고, 평택의 인물지로 《국악 현대화의 선각자 지영희》 책자를 발간하였다.

2020년 10월 발간한 《소사별》 통권 제34호에 수록된 평택문화원의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평택의 고유문화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으로 지역의 조사연구, 사료의 수집 및 보존, 문화 관련 자료수집·보존 및 보급과 함께 평택시 문화행사 개최, 지역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및 본원의 목적사업 등을 들 수 있다.

전통문화 발굴·보존사업으로는 소사별단오제, 평택시 정월대보름 행사,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 지역 전통문화 발굴 및 재연 등이 있다. 웃다리문화촌 운영과 관련해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박물관·전시실·운동장 등 시설운영 및 대관, 문화학교 및 축제 등 지역문화사업, 주말농장 등이 있다. 지역사 연구 및 발간사업으로는 평택학연구소 운영, 지역사 발간 및 연구사업, 마을조사 사업, 지역사 사료수집 등이 있다. 지역문화 활성화 사업으로는 문화유산 활용사업, 노을동요제, 평택시티투어, 평택학시민강좌 운영 등이 있다. 기타 지역문화예술 활동으로는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활성화사업 등이 있다.



제1회 노을동요제(2010년 10월 10일)



평택문화원 늘푸른예술단 연습(2010년 9월 15일)

문화행사 가운데 민속분야에서는 소사별단오제, 선현추모제, 향토문화유적탐방, 우리얼 찾기 한마당, 경기도민속예술경연 참가, 대보름웃놀이, 국궁, 충효도의 선양 등을 진행하였다. 2008년 이후부터는 대한민국무형문화재축제, 문화의 날 기념행사, 평택시 성년의례, 주한미군 가족과 평택시민이 함께 하는 오감투어, 평택 세계드림페스티벌, 평택시티투어, 주한미군과 함께 하는 영어체험교실, 한미 청소년 영어캠프, 한미 어린이 씬머스쿨, 한미 가족 한국 전통문화체험, 늘푸른 예술단 문화나눔공연 등이 진행되었다.

전시분야에서는 주부서예전, 민미협 대표작가 초대전, 향토작가 초대전 등을 진행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전시분야에서 국토종단 스케치전이 추가되었다. 공연분야에서는 국악분야에서 국립 국악원 초청공연, 세종국악관현악 초청공연, 소사별국악대공연, 경기도립국악관현악 등이 시민을 찾았다. 음악분야는 푸른음악회, 신년음악회, 가곡과 아리아의 밤, 메트로폴리탄, 전국노래자랑, 추계예술대 오케스트라 초청공연, 경기도립팝스오케스트라 초청공연, 오페라 춘희 공연, 뮤지컬 가스펠 공연 등이 무대에 올랐다. 연극분야에서는 경기도립극단, 징검다리, 마녀가 된 하녀, 마요네즈 등이 진행하였으며, 무용분야에서는 경기도립무용단과 서울발레시어터 공연이 진행되었다.

문화학교 취미교양강좌에서는 농악, 한문, 한지공예, 판화, 퀼트, 칼라믹스, 꽃꽂이, 탈춤, 국선도, 다도, 예절교육, 어르신문화학교, 장애청소년과 함께 하는 문화체험, 외국인대상 한국문화 체험 등을 진행하였고, 점차 노래교실, 하모니카와 핸드벨교실, 모듬북 교실 등 악기를 이용한 교육도 진행되었다.

웃다리문화촌에서는 생활도예, 목공예, 석화와 압화공예, 솟대와 장승, 놀이미술, 한지공예, 우리음식 만들기 등을 진행하였다. 학교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원사업, 주말버스학교, 학교로 찾아가는 실천예절교실 등을 진행하였다.

전통문화 발굴 및 보존 활동으로 금석문 조사와 탁본, 송탄 솟가마터 조성, 향토유적보호와 보수, 사물놀이 강습, 선현 추모제, 동령마을 대보름축제, 오룡마을 대보름축제, 평택호 풍어제 복원 및 시연, 평택두레놀이 복원, 마을별 전통우물 복원, 경기도민속예술제 출전, 평택시문화관 광해설사 양성 및 운영 등을 진행하였다.

12) 학술토론회

평택문화원은 평택의 정체성 확립과 문화예술 활동의 저변 인구확대를 위해 기본 사업 외에도 평택학연구소(2020년 이전은 평택향토사연구소)를 중심으로 다양한 학술토론회를 추진하고 있다. 2005년 12월 31일에는 해군2함대사령부 해군회관에서 '봉수제도 운영과 괴태길곶봉수대의 역할' 학술토론회를 개최했으며, 도일동 내리마을에 자리하고 있는 400년 된 모과나무의 보존을 위한 활동, 평택의 변화하는 모습을 그림으로 담아낸 '그림 속 평택의 자화상' 전시회, 초·중·고교 졸업생 중 우수학생 표창, 각계 인사들로부터 듣는 초청특강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봉수제도 운영과 괴태길곶봉수대의 역할 토론회 (2005년 12월 31일)



평택농악 CIP 제정을 위한 회의(2005년 3월 16일)

13) 발간사업³⁸⁾

평택문화원은 1999년부터 평택 관련 도서를 활발하게 발간해 왔다. 2000년대 중반부터는 지속적으로 단행본을 발간했으며, 매년 평균 1~3종을 발간하였다. 또한 각종 사진집과 도록 등을 발간해 자료를 정리하였다. 사진집으로는 《사진으로 보는 평택의 근현대사》(2011), 《2012년 평택 정월대보름축제 사진집》(2012), 《청북읍 울복리 당제》(2018) 등이 있으며, 도록으로는 《제1회 평택향토사료전시회 도록》(2011), 《평택에코뮤지엄자료전시회 도록》(2019) 등이 있다.

38) 황수근, 《평택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평택문화원 연구 활동을 중심으로, 2021년

(1) 《평택시사》 편찬

1984년 《평택군지》와 1994년 《송탄시사》, 2001년 《평택시사》에 이어 2014년 6월 30일 《평택시사》가 전 4권으로 발간되었다. 2014년 발행된 《평택시사》는 평택문화원 부설 평택향토사연구소를 중심으로 ‘평택시사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2001년 발행 《평택시사》를 근간으로 오류나 중복된 부분을 수정 보완하였다. 또한 2001년 이후 10여 년간의 변화와 발전상 및 기존 《평택시사》에서 담지 못했던 내용을 추가 보완하였다. 1권은 연혁·자연·역사·인물, 2권은 문화재·민속·마을, 3권은 정치·행정·경제, 4권은 사회·환경·문화를 수록하였다.



평택시사 1~4권(2014년)

제1권은 평택의 간척과 개간, 지리지와 고지도에 나타난 평택지역, 인구와 주거부문을 추가하였고, 역사부문에서는 기존의 방대한 분량을 줄여 평택지역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특히 현대 역사부문에서는 농지개혁과 새마을운동, 3개 시·군 분화와 통합, 민선시대 개막 등을 추가하였고, 인물은 근대이전과 근현대로 구분하여 수록하였다. 제2권 문화재에서는 근대문화유산을 추가하였으며, 무형문화재 부문에서는 평택농악과 민요, 평택예인을 따로 기술하였다. 제4장 마을에서는 각 읍·면·동별로 기술하였다. 제3권에서는 평택의 도시화 및 개발 발전과정을 다룬 도시개발을 추가하였다. 경제와 산업은 1~3차 산업으로 분류하고 해운과 항만을 포함하였으며, 지방행정의 경우 기존 현황자료를 인용하였다. 제4권에서는 시민사회운동을 추가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별로 분류하였으며, 10장에는 평택시 마을별 지명유래를 수록하였다.

김은호 평택문화원장은 축간사에서 《평택시사》 발간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부여하였다.

우리 평택시의 소중한 역사와 선조들이 걸어온 삶의 자취를 한곳에 담은 《평택시사》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자칫 역사의 소중함을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과거 없는 현실 없듯이 역사 없는 미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각고의 노력으로 결실을 맺은 《평택시사》 발간은 과거를 토대로 우리의 밝은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평택은 그동안 많은 변화를 경험하며 지금까지 그 역사와 전통을 면면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택의 역사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체계적으로 정리한 《평택시사》는 청소년들에게 지역사회와 향토문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교육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또한 평택의 변화와 역사를 함께해 온 기성세대에게는 지역의 과거 모습과 주민들의 생생한 생활사 복원을 통해 추억과 더불어 자긍심을 갖게 해 줄 것입니다.

‘과거를 성찰하고, 오늘을 돌아보며, 미래를 설계하는 작업’이 향토사연구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발간된 《평택시사》를 통해 앞으로 더욱 지역의 역사와 각 분야에 대한 세밀한 연구와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꾸준한 관심과 체계적인 지원이 요구되는 시점에 발간된 《평택시사》가 그 마중물 역할을 하리라 믿으며 그동안 《평택시사》 편찬사업을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³⁹⁾

2014년 발행한 《평택시사》 편찬조직인 ‘평택시사편찬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 ▶ 위원장 : 김선기(평택시장) ▶ 부위원장 : 김재균(평택시의회 의원) ▶ 위원 : 김은호(평택문화원장), 차송웅(평택향토사연구소장), 강성위(해동문집연구소 부소장), 이진한(고려대학교 교수), 성주현(청암대학교 교수), 이재명(국사편찬위원회 평택시사료조사위원), 최치선(전 평택문화원 부원장), 이철순(평택시 기획문화재정국장) ▶ 상임위원 및 기획·편집 : 이재명(국사편찬위원회 평택시사료조사위원), 최치선(전 평택문화원 부원장) ▶ 간사 : 한병수(평택시 문예관광과장) ▶ 서기 : 한명환(평택시 문화정책계장) ▶ 감수 : 이상권(평택향토사연구소 연구위원) ▶ 교열·교정 : 구자경, 김미연, 김지연, 박성복, 박지혜, 임봄, 진춘석 ▶ 디자인·인쇄 : 손동수, 서윤희, 김효상, 도영순 ▶ 집필자 : 공일영(남양고등학교 교사/평택지역의 민족운동, 평택지역의 민족운동), 권만용(건국대학교 겸임교수/고려시대, 경제와 산업), 김만제(경기남부생태교육연구소장/자연과 생태계), 김방(국제대학교 교수/근대-개항과 평택), 김용겸(평택향토사연구소 연구위원/농지개혁, 새마을운동, 산업화·민주화시대의 변화, 3개 시·군 분화와 통합), 김인덕(청암대학교 교수/간척과 개간, 근현대 인물), 김일(은혜중학교 교사/평택지역의 민족운동), 성주현(청암대학교 교수/간척과 개간, 지리지와 지도, 정치, 종교), 윤혜정(평택대학교 교수/인구와 주거), 이왕호(전 선문대학교 겸임교

39) 《평택시사》, 2014.

수/선사시대, 문화재, 유적과 유물, 이재명(평택시사편찬위원회 상임위원/현대-해방과 한국전쟁·성씨·인물, 지방행정, 국방·치안·소방), 조성운(동국대학교 교수/지방자치시대와 평택시의 성장), 최치선(평택시사편찬위원회 상임위원/주한미군기지와 평택), 한상우(국제대학교 강사/삼한, 삼국, 통일신라, 조선시대, 경제와 산업), 황우갑(평택시민아카데미 회장/근대이전 인물, 체육), 김해규(평택지역문화연구소장, 한광중 교사/평택시 지명유래, 마을, 유적과 유물), 박성복(평택향토사연구소 연구위원/지역 언론과 출판, 예술, 문화기반시설, 문화재), 박철하(수원대학교 강사/정치), 박환우(전 국제대학교 외래교수/평택의 환경), 변백운(평택시 송탄출장소 지역경제과장/경제와 산업), 손영희(평택시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사회복지), 이세재(전 청북초등학교 교장/교육), 이창언(연세대학교 연구교수/평택지역 시민사회운동), 임원택(진위중학교 교사/유적과 유물), 장연환(효명고등학교 교사/유적과 유물), 장정민(평택대학교 교수/도시개발), 최자운(세명대학교 교수/민속), 황수근(평택문화원 학예사/체육) ▶사진제공 : 한국사진작가협회 평택지부, 오산AB 공보실, 캠프협 프리스 공보실, 김만제, 김용환, 김윤오, 김해규, 박성복, 양용동, 임원택, 장연환, 최치선, 황우갑, 2013 평택시 관광사진공모전 입상작(권순조, 김기문, 김영호, 박병호, 이원용, 최재덕, 하은지, 황보혜)

(2) 평택지역 읍·면지 발간

1999년 《진위면지》를 시작으로 발간된 읍·면지는 비정기적이긴 하지만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발간되고 있다. 현재까지 《고덕면



평택시 읍면지(2007~2019년)

지, 《평성읍지》, 《안중읍지》, 《청북읍지》를 발간하였고, 2019년에는 여섯 번째 읍·면지인 《포승읍지》가 발간되었다. 읍·면지에는 시·군지에서 담지 못한 지역의 상세한 자료를 현장조사와 문헌조사를 중심으로 읍·면 단위의 역사, 문화, 경제, 사회, 정치 등의 내용을 담았으며, 읍·면의 특성에 따라 미군이나 간척과 같은 내용도 함께 담아내고 있다.

연번	도서명	발행연도	비고
1	진위면지	1999년	공저/부록-자료집
2	고덕면지	2007년	공저

3	평성읍지	2010년	공저
4	안중읍지	2011년	공저
5	청북읍지	2017년	공저
6	포승읍지	2019년	공저

(3) 평택인물지 발간

2011년부터 발간하고 있는 평택 인물 관련 책자는 첫 번째 발간한 《총렬공 이대원》을 시작으로 《지영희 평전》《원균 평전》, 《평택의 전통예인》, 《원심창 이야기, 심지와 불꽃》 등 평택지역 인물을 중심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인물지는 각 인물의 활동상과 행적뿐 아니라 지역적 배경과 영향까지 담아냄으로써 평택학 연구에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



총렬공 이대원(2011년) 지영희평전(2013년) 원균평전(2014년) 평택의 전통예인(2016년) 원심창 이야기 심지와 불꽃(2018년)

연번	도서명	발행연도	집필자
1	총렬공 이대원	2011	김해규
2	지영희 평전	2013	노동은
3	원균 평전	2014	김인호
4	평택의 전통예인	2016	박성복
5	원심창 이야기 심지와 불꽃	2018	김인호

(4) 평택학 자료집 발간

2017년부터 발간한 평택학 자료집도 현재까지 연속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평택학 자료집은 《평택 관련 기사 자료집》을 시작으로 《병자호란의 충신 삼학사》《진교일기》 등이 발간되었다. 평택

학 자료집은 지역연구의 기초자료를 정리해 발간함으로써 평택학 연구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연구의 수월성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연번	도서명	발행연도	집필자(역자)
1	평택관련 기사자료집	2017	성주현
2	병자호란의 충신 삼학사	2019	지두환
3	진교일기	2020	허경진

(5) 연속 단행본 발간

이밖에도 평택문화원에서 연속적으로 발간된 단행본은 다음과 같다. 《평택의 마을과 지명 이야기》는 전체 3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택지역의 역사와 지명을 읍·면·동으로 구분하고 마을 단위로 나누어 연구 조사하였다. 《평택민속지》 상·하권은 마을의 형성과 변화, 의례와 신앙, 세시 풍속과 놀이, 민속예술, 구비전승, 의식주, 생업, 평택 사람들의 하루와 일생 등 평택지역의 민속과 관련한 내용 등을 전체적으로 다루었다. 《평택의 토종》 1·2권은 지리와 자연, 산업, 생활, 교육, 문화·예술·체육, 음식, 단체, 기타 등으로 구분해 평택지역의 다양한 콘텐츠들을 주제별로 묶어 지역적 특성을 부각시켰다.



평택의 마을과 지명이야기1(2005년) 평택의 마을과 지명이야기2(2007년) 평택의 마을과 지명이야기3(2008년) 이것이 평택의 토종1 (2014년) 이것이 평택의 토종2 (2015년)

연번	도서명	발행연도	집필자
1	평택의 마을과 지명이야기1	2005	김해규
2	평택의 마을과 지명이야기2	2007	김해규
3	평택의 마을과 지명이야기3	2008	김해규
4	평택민속지(상)	2009	공저
5	평택민속지(하)	2010	공저
6	평택의 토종1	2014	임봉, 박성복
7	평택의 토종2	2015	임봉, 박성복

(6) 비연속 단행본 발간

비연속적으로 발간하는 단행본으로는 《평택군지》, 《송탄시사》, 《평택시사》, 《평택시통합사》, 《평택항 개항 20년사》, 《우리고장 평택시》 등이 있다. 이들 단행본은 지방자치단체의 변화와 시대적 요구에 따라 발간해 지역의 변화된 모습과 현황 등을 살펴볼 수 있게 하였다.

《송탄의 민속과 설화》, 《평택향토사》, 《평택의 금석문》, 《평택의 사우재실정문》, 《평택의 항일독립운동사》, 《사진 속 평택의 자화상》, 《문학의 향기-평택의 한시와 기문》, 《근현대 평택을 걷다》, 《평택사람의 길》, 《독립운동가 이석영의 꿈》 등은 주제별로 자료를 정리하고 연구한 내용을 담아 단행본으로 발간하였다. 특히 《평택의 한시》 《내마음 네마음》, 《교운일기》 등은 작품집 성격으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는 자료이다.

연번	도서명	발행연도	집필자
1	평택군지	1984년	공저
2	송탄시의 민속과 설화	1992년	공저
3	송탄시사	1994년	공저
4	평택향토사	1998년	공저
5	평택의 금석문	2001년	공저
6	평택시사	2001년	공저
7	평택의 사우재실정문	2003년	공저
8	평택시항일독립운동사	2004년	공저
9	평택한시	2005년	공저
10	사진 속 평택의 자화상	2004년	박성복
11	평택시통합사	2006년	공저
12	웃다리평택농악	2006년	김호환
13	평택항 개항 20년사	2007년	공저
14	내 마음 네 마음	2008년	조성락
15	교운일기	2009년	이택화/허경진 역
16	문학의 향기-평택의 한시와 기문	2012년	강성위, 설순남 역
17	평택시사	2014년	공저
18	우리고장 평택시	2015년	공저
19	근현대 평택을 걷다	2015년	공저
20	평택사람들의 길	2019년	김해규
21	독립운동가 이석영의 꿈	2020년	공저

(7) 연속 간행물

평택문화원에서 발간한 연속간행물은 1984년 창간호를 시작으로 2021년 제35호까지 발행된 《소사별》과 송탄문화원의 《송탄문화》, 평택군문화원이 발간한 《평택문화》 등의 종합문예지가 있다. 또한 평택문화원 부설 평택학연구소에서 2019년부터 발간하는 학술지 《평택문화연구》 등이 있다.

평택문화원이 가장 오랜 기간 연속 발간한 종합문예지 《소사별》은 중간에 잠시 휴간된 기간이 있었고, 시기별로 발간횟수도 연간 1~2회로 변화가 있었다. 《소사별》은 두 차례의 휴간기를 거쳐 2021년 현재까지 제35호를 발간하였으며, 휴간기간



을 제외하면 연1~2회 발간하였다. 《소사별》 제1~13호의 주요내용은 시·군정의 시책, 교육, 경제, 치안, 문화, 역사, 민속, 인물, 문화유산, 행사소식 등 평택지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원의 활동모습을 담고 있다. 《소사별》 제14~34호의 주요내용은 지역문화를 집중 조명하는 기획특집을 중심으로 문화, 역사, 민속, 인물, 문화유산, 문화행사, 화보 등 평택지역의 다양한 문화소식과 문화원의 활동 모습을 담았다.

송탄문화원이 발간한 종합문예지 《송탄문화》는 1985년 창간호를 시작으로 1994년 제12집이 발간되었다. 대체로 연간 1회 발간하였으며, 연간 2회 발간한 해는 1985년에 창간호와 제2집, 1990년에 제7집과 제8집이다. 주요 내용은 시정시책, 교육, 문화, 역사, 민속, 인물, 문화유산, 건강, 취미, 행사소식 등을 담고 있다.

평택군문화원이 발간한 종합문예지 《평택문화》는 1992년 창간호와 1994년 제2집을 발간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정시책, 교육, 문화, 역사, 민속, 인물, 문화유산, 행사소식 등을 담고 있다.

1995년 3개 문화원이 통합되기 이전에 발간한 문예지로 《소사별》 창간호~제13호, 《송탄문화》, 《평택문화》는 시·군과 정부시책을 홍보하는 내용들과 함께 계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문화유산과 인물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의 문화를 소개하고 있다. 1995년 통합 이후로는 기획특집 등 지역문화에 대한 집중 조명과 함께 지역의 다양한 문화와 이슈 등을 소개하였다.

평택문화원 부설 평택학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평택문화연구》는 2019년 제1집과 2020

년 제2집을 발간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평택학 학술대회 연구논문과 일반논문을 공모를 통해 받았으며, 제1집에서는 2개, 제2집에서는 5개의 평택 관련 일반논문을 실었다.

[소사별 발간 현황]

연 번	호 수	발행연도	비고
1	소사별 창간호~제13호	1984~1996년	연 1회
-	휴간	1997~2003년	-
2	소사별 제14~15호(복간)	2004~2005년	연 1회
3	소사별 제16~17호	2006년	연 2회
4	소사별 제18호	2007년	연 1회
5	소사별 제19~21호	2008년	연 3회
6	소사별 제22~25호	2009~2010년	연 2회
7	소사별 제26호	2011년	연 1회
-	휴간	2012~2013년	-
8	소사별 제27~32호	2014~2019년	연 1회
9	소사별 제33~34호	2020년	연 2회
10	소사별 제35~36호	2021년	연 2회

(8) 평택학 조사 및 연구 활성화



평택학 학술대회-평택지역 민속과 신앙(2020년 7월 11일)



평택학 학술대회-평택지역 나무와 포구 (2020년 12월 5일)

2000년대 후반부터 평택문화원은 비정기적으로 학술행사를 개최해왔다. 2015년부터는 매년 2회 정기적인 평택학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2008년 '평택항일독립운동사 세미나'를 시작으로 2020년 '2020 문화예술 일제 잔재 청산 공모사업 학술세미나에 이르기까지 모두 10회에 걸쳐 비정기적인 학술행사를 진행하였다. 학술행사의 주요 주제는 평택지역의 독립운동, 독립운동가, 3·1 독립만세운동, 평택의 역사인물, 지역학, 행정구역, 마을 등 역사를 위주로 다루었다.

2015년부터는 정기적인 학술행사로 ‘평택학 학술대회’라는 명칭으로 진행되었다. 연간 2회 개최하여 2020년 현재까지 전체 12회에 걸쳐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으며, 내용은 근대사, 고고학, 인물, 민속, 예술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다.

평택문화원이 개최하는 학술행사는 주로 2000년대 후반부터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나 주제가 독립운동이나 인물 등에 국한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2015년부터 정기적인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문학, 마을, 고고학, 민속 등 다양한 주제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종 기관이나 단체, 학회, 사업회 등과도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또한 2010년부터는 비연속적이긴 하나 각종 연구조사도 진행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평택의 사라져가는 마을 연구조사’는 매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마을 사람들의 역사적 사건과 일상생활에 대한 기억, 증언을 영상으로 녹취하고, 옛 사진들과 각종 서신, 가계부, 업무일지, 일기, 수공품, 민속자료들을 수집하며, 기존의 문화재 개념으로 분류되지 않은 형태의 유물이나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조사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 훼손되는 마을을 인문, 지리, 사회, 환경 등 모든 분야를 조사 기록하고 지역사 연구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축적하여 지역연구 활성화와 연구 성과를 축적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조사되고 기록된 자료들은 디지털화 하고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누구나 쉽게 정보를 공유하고 기억을 전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밖에도 평택지역의 도시개발로 인해 사라지는 자연마을에 대하여 역사지리, 경제생활, 사회생활, 가정 및 친족생활, 교육과 종교 등을 중심으로 연구 조사하는 보고서도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비정기적인 연구조사는 어떤 특정 주제나 연속성 없이 민속, 문화유산, 고문헌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고 있다.

[비정기 학술행사 현황]

연 번	학술행사명	개최년도	비 고
1	봉수제도 운영과 괴태길곳봉수대의 역할 학술토론회	2005년	
2	소사벌택지개발지구 명칭에 대한 토론회	2008년	
3	평택항일독립운동사 세미나	2008년	
4	국제화 시대의 평택의 정체성 확립 세미나	2009년	
5	제1회 지역학회전국학술대회	2009년	
6	평택지역 3.1운동 재조명 학술회의	2009년	
7	평택학 정립 학술대회	2010년	
8	제2회 지역학회전국학술대회	2011년	
9	새로 쓰는 평택3.1운동 학술회의	2012년	

10	평택 100년 대토론회	2013년	
11	국사편찬위원회 지역사 토론회	2017년	
12	2020 문화예술 일제잔재 청산 공모사업 학술세미나	2020년	

[평택학 학술대회 개최 현황]

연 번	주 제	개최년도	비 고
1	평택민족운동가 재조명	2015년	
2	평택의 근대 바라보기	2015년	
3	지속가능한 평택마을만들기	2016년	평택대학교 협력
4	평택학 길을 묻다	2016년	용인문화원, 천안연구원 협력
5	박석수의 삶과 문학	2017년	박석수기념사업회 협력
6	평택의 노블레스 오블리제	2017년	
7	새롭게 밝히는 경기도지역의 독립운동과 독립운동가 - 평택지역의 독립운동을 중심으로	2018년	한국민족운동사학회 협력
8	경기천년음악의 맥을 잇는 지역희	2018년	지역희기념사업회 협력
9	평택의 문화유적 발굴현황과 과제	2019년	기념문화재연구원 협력
10	이석영·이회영 육형제의 민족운동과 평택	2019년	우당기념사업회 협력
11	평택지역 민속과 신앙	2020년	평택인문연구소 협력
12	평택지역 나무와 포구	2020년	
13	평택 지역사회 인물 발굴 조명	2021년	
14	평택의 마을조사 현황과 과제	2021년	

[평택의 사라져가는 마을조사 연구 현황]

연도	읍·면·동	마 을	비 고
2014년 (9개 마을)	포승읍	회곡리(3), 신영리(4)	경기경제자유구역(포승BIX지구)
	이충동	동령마을	도시개발 진행 중
	세교동	은실마을	도시개발 논의 중
2015년 (19개 마을)	동지역	용이동(2), 소사동(3), 동삭동(3), 칠원동(3), 합정동(배미)	도시개발
	안중읍	현화리(2)	화양지구도시개발
	현덕면	화양리(2), 운정리(3)	화양지구도시개발
2016년 (23개 마을)	현덕면	권관리(5), 기산리(3), 대안리(4), 신왕리(2)	평택호관광단지 개발 추진 중
	진위면	가곡리(7-5), 마산리(4) 등 23개마을	진위2, 3 산업단지개발
2017년 (27개 마을)	현덕면	장수리(1)	현덕지구 개발 추진 중
	포승읍	내기리(6-4), 도곡리(11-5), 원정리(10-5), 홍원리(7), 석정리(9-6)	자연마을 기본조사
2018년 (18개 마을) 외 미군 기지관련 11개 마을	현덕면	방축리(2), 도대리(3), 인광리(7-5), 황산리(3), 덕목리(5) 등 18개마을	자연마을 기본조사
	팽성읍	대추리, 도두리, 함정리, 본정리, 안정리	미군기지로 사라지고 이전한 마을
	서탄면	적봉리, 장등1리, 신리, 아리, 황구지리, 금각리	
신장동	구장터		

2019년 (10개 마을)	진위면	봉남리(3)	진위현의 읍치
	팽성읍	객사리(6)	평택현의 읍치
	원평동	원평동	근대도시
2020년 (12개 마을)	송탄동	도일동(4), 장안동, 칠괴동, 가재동(5), 모곡동	평택브레인시티 개발
2021년 (12개 마을)	진위면	하북리(4), 견산리(6), 신리, 야막리	진위4산업단지 예정

[비정기적 연구조사 현황]

연번	연구명	연구연도	용역 기관
1	단오 게잡이 연구조사	2005년	하주성/민속학자
2	평택두레놀이 조사 연구사업	2007년	한국전통문화콘텐츠연구소
3	삼봉 정도전 선생 논저목록 연구 및 발간 학술연구용역	2009년	문철영/단국대학교 교수
4	평택문화유산의 현황과 활용	2010년	수원대학교 박물관
5	평택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문화전략	2011년	한국문화연구소
6	알파탄약고의 평화적 활용을 위한 연구용역	2011년	문화기획학교
7	고문헌 평택기록 발체보존 사업	2011년	해동문집연구소
8	소사벌택지지구 지명 연구용역	2014년	평택문화원
9	평택문화유산 연구조사	2014년	평택문화원
11	평택거북놀이 연구용역	2014년	한국문화유산연구소
10	박석수연구용역	2018년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2	알파탄약고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연구사업	2021년	알파문화예술공원추진위원회

(9) 기타 고유사업

평택문화원은 선진생활문화 강좌, 한자 공부방, 역사인물 보존, 학생 사생실기대회, 청소년 바둑대회, 평택농악 발전방안 연구와 세미나, 웃다리평택농악 CIP제정, 평택농악 문화관광상품 개발, 현충탑 건립, 전국문화재사랑 학생글짓기 그림그리기 대회 등을 진행하였다. 또한 평택시향토 문화상품 개발로 동요 '노을'을 문화관광 상품으로 개발하고 노을 브랜드화 사업은 물론 2010년에는 '제1회 노을동요제'를 개최하였다. '제1회 노을동요제'는 평택문화원과 T-broad 기남방송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경기도, 평택시, 평택시의회,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의 후원으로 2010년 10월 10일 오후 2시 평택시남부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개최되었다. 그러나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해 1회 행사를 끝으로 중단되었다가 2015년 제2회 대회부터는 평택문화원과 평택시사신문, 기남방송, 노을문화재단준비위원회 등의 공동 주관으로 매년 꾸준히 개최하고 있다.

'평택문화나누미'는 관내 고등학교 2학년 학생 30여명으로 구성되어 활동했다. 청소년들에게

지역사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되며 지역사 조사 및 발굴활동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면서 창의적 학습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자발적인 활동을 통해 지역사를 발굴, 조사, 연구, 확산시킬 수 있다는 자긍심을 심어주었다.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소속감과 애郷의식을 함양하며 지역의 문화예술 행사에 참여해 진행보조 활동 등을 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청소년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효과도 거두었다.

14) 한국소리터 운영



한국소리터 전경(2018년)



한국소리터 퓨전국악 페스티벌 소리-ON 공연(2017년 4월 8일)

한국소리터는 국가무형문화재 제11-2호 평택농악을 기반으로 해 평택의 전통 무형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민간 연구조직인 '평택농악발전연구회'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 《평택농악의 전통 보존 및 발전적 계승 방안》를 토대로 당시 송명호 평택시장이 채택하여 '평택농악마을'이라는 명칭으로 건립을 추진하였으며, 2011년 11월 11일 '한국소리터'라는 명칭으로 개관하였다.

한국소리터는 평택시 현덕면 평택호길 147, 현덕면 권관리 평택호관광단지 일원 대지 27,183㎡(8,223평)에 건물 연면적 7,275㎡(2201평),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축되었다.

한국소리터의 주요 시설은 대공연장인 '지영회홀'과 야외공연장인 '평택농악마을, 강의·숙박동인 '어울림동', 사무·연습실인 '두드림동'으로 구분되어 시설 특성에 맞게 운영되어왔다. 이후 게스트하우스를 폐지하고, 일부 시설을 지역회국악관과 한국근현대음악관, 평택시 수장고로 리모델링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11년 개관 당시 한국소리터 시설 현황은 다음과 같다.

동 별	지역회 홀	평택농악마을	어울림동	두드림동
규모	지하 1층, 지상 2층	지상 1층	지상 3층	지상 2층
연면적	4,298㎡(1,300평)	1,348㎡(408평)	933.87㎡(282평)	694.10㎡(210평)
시설별	공연장, 분장실, 카페테리아 로비, 매표소, 샤워실, 소연습실	대기실, 분장실, 탈의실, 샤워실, 화장실	게스트하우스, 사무실, 회의실, 강의실	사무실, 대연습실, 녹음 스튜디오

한국소리터는 2011년 개관 후 2012년부터 ‘평택시 한국소리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에 의해 공고를 낸 후 선정된 전문 기관에 위탁 운영해 왔다. 2년 단위로 재위탁 공고를 해 2021~2024년에는 ‘한국문화기획학교’가 처음 수탁 운영자로 결정돼 운영해왔으며, 평택문화원은 제3~4기인 2015~2018년까지 한국소리터 수탁운영자로 결정되어 시설과 인력, 프로그램을 맡아왔다.

평택문화원은 한국소리터 수탁운영자로 결정된 후 2015년 1월 1일 평택시와 ‘한국소리터 운영에 관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 했다. 이후 비상근 명예직 관장에 평택문화원 신태식 이사를 임명하고, 시설 운영과 관리 전반,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을 시작하였다.

평택지역 유아·아동을 대상으로 클래식과 친숙하게 하여 음악 감상의 동기를 부여하며, 즐겁고 쉽게 정통음악을 접할 수 있는 기회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기획공연 ‘2016 달콤한 유아클래식’을 비롯해 전통음악의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는 교육과정을 유아시기부터 호기심과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진행한 기획공연 ‘2016 덩기덕 쿵덕! 신나는 우리소리’, 시민들의 문화 향유의 폭을 넓히기 위해 진행한 기획공연 ‘문화와 당신의 수요일’ 등을 꾸준히 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지역의 음악 영재를 선발해 연주 기회를 제공하여 훌륭한 음악가로 성장하도록 도움을 주기위한 기획공연 ‘영아티스트콘서트’, 전통음악을 춤과 놀이를 통해 접근성 변화와 흥미를 갖도록 하는 기획공연 ‘놀자!놀자!놀자!’, 온 가족이 함께 즐기고 어린이들에게 꿈과 상상의 나라를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기획공연 ‘호두까기인형’ 등 다양하고 흥미로운 음악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였다.

이밖에도 연중 어린이날과 스승의 날 공연 프로그램, 개인 독주회, 지역희기념사업회와 평택민요보존회 공동 공연 프로그램 등을 통해 시민들에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제공함으로써 예술적 정서함양 및 문화 감수성 증대에 기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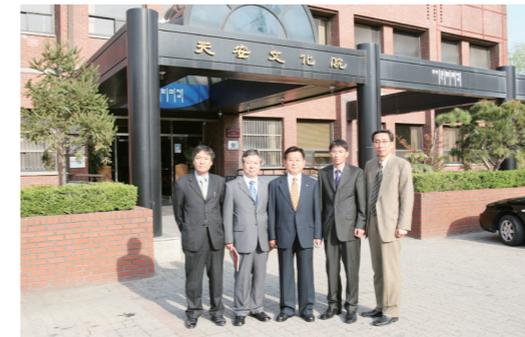
또한 한국소리터를 전통과 현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예술향유의 공간으로 운영하고, 지역 예술단체의 협업을 통한 문화네트워크 형성,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미래 세대의 예술적 감성 제고

에도 기여하였다.

하지만 한국소리터 직원에 대한 복무규정 적용 미흡, 관리감독 기관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수입금 사용계획 사전 승인 미이행 등으로 인해 한국소리터 수탁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불거져 2018년 자체 감사 결과에 따른 개선책 마련 등 비상운영체제로 운영해야 하는 시련도 겪어야 했다.

한국소리터는 2019~2020년 한 차례 더 외부 공모를 통한 위탁운영을 거친 후 2020년 출범한 평택시문화재단이 2021년 1월 1일부터 위탁 관리를 하고 있다.

15) 평택문화원사 및 향토사료관 건립 추진



천안문화원 원사 건축 벤치마킹(2005년 4월 25일)



고양문화원 원사 건축 벤치마킹(2016년 7월 20일)

평택문화원사 및 향토사료관 건립에 대한 노력은 2004년도부터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특히 2011년 《평택문화원사 건립 기본계획(안)》에는 평택문화원 창립 40주년을 맞아 전통문화 연구 및 보급의 장으로 활용할 공간조성이 시급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 염원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은 지역 주민의 문화적 욕구 증대에 대응하고 평택인의 혼과 정신이 깃든 역사문화의 정체성 확립의 장을 조성하며, 향토문화의 체계적 연구 및 보존, 전승, 활용의 계기 마련, 그리고 이미 확보된 사료와 향토유물의 체계화와 보존, 전시공간 확보, 문화원을 통한 시민의 정체성 함양과 향토문화 예술사업 추진, 초등학교 지역화 교과인 ‘우리고장 평택시’의 학습 공간 활용, 시민의 문화 향유권 해소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평택문화원사와 향토사료관 건립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2011년 평택문화원 사무국과 평택시 주무부서가 협의하여 마련한 《평택문화원사 및 향토사료

관 건립 기본계획(안)에는 원사를 평택시유지인 평택시남부문화예술회관 부지 전시장 옆에 대지면적 11,324㎡에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연면적 2,211㎡(670평)으로 1,584㎡(480평)를 증축하고, 기존 건축물 627㎡(190평)를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2011년에 시작하여 2013년 10월 입주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지하 1층에는 향토사료관 수장고, 1층에는 향토사료 전시관과 도서관, 학예연구실, 2층은 소공연장과 사무국, 시청각실, 3층은 강의실, 옥상층은 옥상정원에 휴게시설을 구비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세부 검토 단계에서 대지가 너무 협소하고, 향후 대도시로 성장하는 평택시의 규모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류되었다.

평택문화원은 2016년에는 ‘평택문화원 문화원사건립TFT’를 구성하였다. 오중근 평택문화원 부원장을 TF팀장으로해서 박성복 이사, 오민영 사무국장, 황수근 학예연구사, 최실비 학예연구사, 최치선 평택향토사연구소 상임위원, 김명수 향토사연구소 연구위원을 위원으로 선진 문화원사 벤치마킹과 함께 타당성 연구에 들어갔다.

매월 2회 내외의 회의를 개최해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2016년 7월 6일 경기도 부천문화원, 안양문화원, 과천문화원 답사, 7월 13일 대전광역시 대전서구문화원, 충청남도 논산문화원 답사, 7월 20일 경기도 안산문화원, 고양문화원 답사 등 독립 문화원사를 갖춘 7곳을 방문하여 문화원사 건축 계획부터 예산확보, 건축 진행, 준공, 문화원사 활용, 프로그램 운영, 개선 사항에 대한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 하였다.

특히 7월 20일 2차 답사에는 ‘평택문화원 문화원사건립TFT’ 팀원과 함께 평택시의회에서 김혜영, 유영삼, 김재균 의원, 평택시 문예관광과 차상돈 과장과 담당 공무원이 동행해 문화원사 건립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2016년 6월부터 2년간 활동한 ‘평택문화원 문화원사건립TFT’는 2018년 5월 《평택문화원사 건립제안서》를 채택하고, 주무부처인 평택시 문예관광과에 이를 제출해 평택문화원사 건립 추진을 요청하였다.

《평택문화원사 건립제안서》에는 ▲평택문화원사 건립 목적 및 필요성 ▲국내 지방문화원사 추이 ▲평택문화원사 건립계획 ▲원사 건립 후 평택문화원 운영계획 등을 무려 80여 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으로 담아 평택문화원사 건립 필요성과 의지를 표현했다

지방문화원사는 국비 지원이 가능한데 2010년에는 대전 서구, 경기 군포·고양·의정부, 강원 삼척, 충남 대천, 경북 영양·영덕, 경남 합천·사천 등 10개의 문화원이 신축 또는 개보수로 국비를 지원받았으며, 이후로도 매년 꾸준히 문화원사 신축이나 시설 개보수, 증축 등의 비용은 국

비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문화원은 지역의 정체성과 전통문화의 발굴은 물론 계승과 발전의 중심축 역할을 해야 한다.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주된 역할을 위해서는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고 특성을 반영해 현재와 미래 세대에 문화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3. 지역사회 연계로 역량 강화

평택문화원은 지역사회 구성원과 시민사회단체, 기관 등과도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사회통합 정서를 선도하였다. 지역신문과는 ‘아름다운 노랫말 공모전’을 공동으로 개최하였고, ‘소사별단오제’ 추진에는 있어서는 평택농악보존회 등 프로그램 장르별로 다양한 단체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으며, ‘가족신문 만들기’를 후원하는 등 매년 30~40여건의 사업을 공동주최 또는 후원하면서 지역사회에서 평택문화원의 역량을 강화하였다. ‘대한민국무형문화재축제’ 등 지역의 대표축제를 주최하거나 주관하였으며,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경기평택항만공사, 국제대학교 등과도 상호 업무협약을 통해 다양한 교류 사업을 전개하였다.

평택문화원은 자체 역량강화뿐 아니라 지역사회 기관, 단체, 언론과의 연계를 통한 사업 시너지를 높이는데 주력하였다. 평택문화신문과 공동으로 ‘아름다운 평택사랑 노랫말 공모전’을 개최하였고, 평택문화원이 매년 개최하는 ‘소사별단오제’에서는 평택시생활체육협의회에서 민속씨름 진행을 후원하였다. 평택시우리음식연구회는 단오음식을, 평택시에절교육원에서는 창포머리감기를, 평택시궁도협회에서는 궁도대회를, 평택농악보존회에서는 농악경연 진행과 심사를 맡아하는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과 다양한 협력을 해나가고 있다.

독립운동가이자 언론인인 민세 안재홍 선생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매월 1회 개최하는 ‘다사리 포럼’과 평택시민신문의 ‘가족·학교신문 만들기 대회’ 후원, 평택시사신문과는 ‘노을동요제’를 공동 주관하고 있다. 국가무형문화재 평택농악을 청소년들에게 체계적으로 교육시키기 위한 평택농악보존회 ‘평택어린이청소년 풍물아카데미’ 후원하고, 1994년부터 14년간 매년 ‘전국시조경창평택

대회를 개최 또는 후원했으며, 2005년 제12회 대회 때부터 3년간은 대회장으로 행사의 기획, 홍보, 경연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대회 전국에서 모인 1,000여 명의 시우동호인들에게 행사진행 전반에 걸쳐 호평을 받았다. 또한 어렵게 여겨졌던 시조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를 돕는 등 매년 30~40여개의 사업을 공동주최 또는 후원하면서 지역사회에서 평택문화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단체 간 협력체계를 확고히 하고 있다.

평택문화원 부원장과 고문을 역임한 죽리 조성락 화백이 2008년 5월 질병으로 작고하자 평택문화원이 주도하여 '고 죽리 조성락 선생 평택문화예술인장'을 추진하였다. 고인이 예술인이었다는 점을 감안해 선후배 미술인들의 입장을 배려하여 한국미협 평택시지부와 공동으로 '고 죽리 조성락 선생 장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영결식을 마련하여 고인의 넋을 기림으로써 문화예술계는 물론 많은 시민으로부터 원로 예술인을 기리는 평택문화원의 역할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죽리 조성락 선생 영결식(2008년 5월 26일)

평택문화원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각계각층과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2003년부터 평택을 대표할 상징축제 개발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전국 각 지자체 및 일본, 중국 등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한 결과 국가무형문화재 평택농악을 기반으로 한 전통문화축제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05년부터 '대한민국 5대 농악축제'를 시작으로 2006년에는 '대한민국무형문화재축제'로 확대 개편하면서 '대한민국 5대 농악과 소리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축제를 개최하였다. 2007년에는 '대한민국 5대 농악과 타악의 만남'을 주제로 무형문화재 공연과 전시, 체험을 함께 만끽하는 축제로 승화시켰으며, 국내는 물론 해외 타악공연단까지 초



평택세계두드림페스티벌(2008년 8월 6일)

대한민국 5대 농악과 소리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축제를 개최하였다. 2007년에는 '대한민국 5대 농악과 타악의 만남'을 주제로 무형문화재 공연과 전시, 체험을 함께 만끽하는 축제로 승화시켰으며, 국내는 물론 해외 타악공연단까지 초

청하여 국제적인 축제로 발전시켰다. '대한민국무형문화재축제'는 평택에서 가장 먼저 개최했으며,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농악 전승단체에서도 이를 벤치마킹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2008년 8월에는 우리나라 전통 풍물과 세계 타악의 진수를 한자리에서 맛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미국, 이탈리아, 아프리카 기니 등 해외 6개국 타악 공연단과 평택농악 등 국내 공연단 3개 팀이 참여한 '2008 평택세계두드림페스티벌'을 개최하여 대한민국 타악의 우수성과 세계 타악의 흐름을 공연으로 선보여 대성황을 이루는 축제를 만들어냈다.

평택문화원은 2007년 경기평택항만공사와 협약을 맺고 평택항의 과거와 현재, 미래비전을 집대성한 《평택항 개항 20년사》를 2,000권 발행, 국립중앙도서관과 중앙부처, 대학 도서관 등에 배부하였으며, 2008년에는 국제대학과 협약을 맺어 우리의 미풍양속인 전통문화를 교육하였다. 또한 2008년 평택시성년례도 국제대학 후원으로 개최하여 모델학과 학생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년의식을 전통방식으로 개최하였다. 특히 성년의례는 남녀가 성년이 되면 치르는 의식으로 아이에서 어른으로의 전환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정에서 사회로 존재의 인정 범위가 확대되는 의식이며, 이러한 의식을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하고 성년이 되는 의미를 되새겼다. 전통문화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는 기회로 평택문화원이 매년 5월 성년의 날에 맞춰 진행하였다. 행사 1부에서는 경기민요 등의 식전행사와 개식, 내빈소개, 국민의례, 기념사와 격려사가 진행되었고, 2부에서는 시가례, 재가례, 삼가례, 초례, 명자례, 성년선서, 성년선언이 이어졌으며, 3부에서는 한국전통무용 등의 축하공연이 이어졌다.

평택문화원은 지역의 문화예술전문가 또는 문화예술단체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재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지역 문화예술 전문가 워크숍을 추진하고 있다. 선진지역 사례연구와 탐방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성공한 축제 사례 집중 강의, 지역 문화예술전문가들 간의 소통과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담겨 있었다. 2017년 평택지역 문화예술단체 대표와 실무 담당자 등 25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동해 망상리조트에서 처음 워크숍을 추진하였으며, 사업비 500만 원이 소요되었다. 2018년에는 전라북도 완주에서 30명의 지역 문화예술 전문가들과 함께 워크숍을 추진하였으며, 사업비는 400만 원이 소요되었다. 2019년에는 경주에서 30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었고, 사업비는 400만원이 소요되었다.

4. 무형문화자원 발굴 및 전승

1) 평택민요 발굴 및 육성

(1) 평택민요 발굴과 경기도무형문화재 지정



평택농악 두레소리(1996년 7월)

평택은 동북부지역에 일부 산맥이 형성되어 있지만 서남부지역으로 갈수록 높은 산은 없고 대단위 평야지대가 형성되어 농사를 주로 지었다. 바다와 접한 서해안지역은 대규모 방조제와 항만이 건설되기 전까지만 해도 여러 포구를 중심으로 어업이 발달했다.

민요는 논·밭일이나 딸감을 할 때 그리고 고기잡이 때 부르는 노동요를 비롯해 상여소

리나 회다지소리로 불리는 장례요, 당목과 우물·장독·부엌에서 하는 고사소리인 세시의식요, 물레나 베틀작업과 힘든 시집살이에 대한 꾸밈이나 아이를 재울 때 여성들이 부르는 부녀요, 아이들이 부르는 동요나 장시에서의 각설이타령 등 유희요로 구분된다.

평택의 민요는 조흥·권면·인생무상·풍년기원·충효·연정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요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특히 풍년을 기원하며 부르던 모내기 소리와 논매기 소리, 풍어를 기원하는 노 젓는 소리와 그물 당기는 소리가 많이 전해진다. 또한 해학·풍자·놀림·유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만가는 노동요 다음으로 많은 분포를 나타낸다.

특히 논·밭이 많이 분포한 평택 동북부지역과 중부지역은 농요가, 바닷가에 접한 서남부지역은 어업요가 발달했다. 이와는 별도로 세시풍습과 관련한 고사소리는 두레농악과 걸립농악을 하면서 연행됐는데 태평성대, 농사풀이, 살풀이 등을 주로 불렀다.

두레굿은 두렛일을 할 때 협동심을 북돋우고 힘든 노동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힘을 내게 하는 역할로 모내기에서 시작해 세벌 김매기가 끝나는 날까지 행해졌다. 음력 7월 중순 세벌 김매기가 끝나는 백중날은 백중놀이 또는 호미씻이라고 해 마을 공터에 술과 음식을 차려놓고 풍물을 치며 푸지게 놀았다. 평택의 두레굿(농요)은 1984년 최은창이 주도해 평택농악보존회에서 처음으로 복원한 후 매년 평택군민의 날 행사에 백중놀이의 하나로 재연해왔다.

이후 평택문화원에서는 최은창, 이돌천, 김용래, 이민조, 황홍엽 등을 중심으로 두레놀이단을 구성해 1993년부터 3년간 평택군 대표로 경기도민속예술경연대회에 ‘평택두레놀이’로 참여했다. 1993년 수원시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 제8회 경기도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는 모범상, 1994년 안양시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 제9회 경기도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는 장려상, 1995년 성남시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 제10회 경기도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는 우수상을 수상했다.

2004년부터는 경기민요 이수자인 어영애에 의해 현덕면과 포승읍 등 평택시 서부지역에서 전승되어온 두레소리와 뱃소리, 상여소리에 대한 조사 및 채록 작업에 들어갔다. 어영애와 민속학자를 중심으로 포승읍 방림리 이민조의 두레소리와 현덕면 신왕리 이용구의 뱃소리, 포승읍 홍원리 박용철의 상여소리를 비롯해 평택시 서부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이어져 내려온 민요를 발굴하고, 기록해서 채보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제16회 경기도민속예술축제 평택 포승두레소리 경연(2007년 9월 1일)

1993년부터 1995년까지 3년간 경기도민속예술경연대회에 ‘평택두레소리’로 출전한 이후 12년만인 2007년에는 경기도 안산시 호수공원에서 펼쳐진 제16회 경기도민속예술축제에 ‘평택 포승두레소리’라는 명칭으로 평택시 서부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는 농요를 발표해 우수상을 수상하면서 전승의 기틀을 마련했다.

2007년 제16회 경기도민속예술축제에 ‘평택 포승두레소리’라는 명칭으로 평택시 대표로 출전할 당시 구성원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 고증 : 이민조(농업), 오용원(평택문화원장)
- 지도위원 : 어영애(한국국악협회 평택시지부장)
- 단원 : 기수 김준필·공창원·마대근, 농악 황삼열·심명숙·이진숙·강홍식·유미선·허용임·백은희·이대희·김현우·한상은·황진희·오지희, 소리 이민조·어영애·박승규·최진용·김태옥·김석경·표규승·오세욱, 농군 성민수·정창영·김호성·정창형·백은호·장형배·이순현·조성숙·명춘복·공석봉·강문구·공봉학·홍재규·안영찬·최삼용·하태영·선문옥·김경숙·조성숙·유정희·최영화·김진민·소아지·이항자·김옥선·박광원·권중

장·유재형·이낙영·김정배·공성구·이현재·조남옥·백성기·신관호·채수재·김수진·김다형, 논주인 인효환, 햇불 오철환, 여인네 염상금·윤영례·허선자·박상여·김정희·김중순·강정애·박규옥·조성숙·김광자·오인숙·문길순

평택민요보존회는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2009년 3월 19일 평택민요 단체종목 지정과 함께 3월 19일 ‘민요’에 이민조, 6월 29일에는 ‘어업요’에 이종구, ‘장례요’에 박용철이 각각 경기도무형문화재 제48호 보유자로 지정되었다.



평택민요 농요 공연(2014년 11월 9일)



평택민요 어업요 공연(2014년 11월 9일)



평택민요 장례요 공연(2014년 11월 9일)

(2) 평택민요 전승 및 육성

2009년 경기도무형문화재 제48호로 지정된 평택민요는 매년 꾸준히 전승활동을 이어왔으나, 2010년 상여소리 박용철 보유자, 2014년 뱃소리 이종구 보유자가 작고해 뒤를 이어 전승할 보유자 지정이 필요했다. 상여소리와 뱃소리 보유자는 7년 동안 공백상태에 있다가 2016년 전수조교인 어영애가 상여소리, 전수조교인 인원환과 이의근이 뱃소리 보유자로 지정되어 2009년 두레소리 보유자로 지정된 이민조와 함께 4명의 보유자가 평택민요를 전승하고 있다.

평택민요 전승단체인 평택민요보존회는 이후 매년 상설공연과 정기발표공연, 특별공연, 초청공연, 기획공연, 해외공연 등을 통해 평택지역에서 전해오는 민요를 보존, 전승하고, 학술 세미나와 음원 및 영상 제작 등으로 평택민요의 기록 보존에도 힘쓰고 있다.

이와 함께 2014년에는 경기물류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뱃소리를 교육해 의정부시 의정부체육관에서 개최된 제10회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

에 ‘평택 어업요’로 출전해 대상과 함께 평택민요 어영애 보유자가 지도자상을 수상했으며, 이를 계기로 2015년 평택시 소사벌레포츠타운에서 개최한 제22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에 경기도 대표로 출전해 금상을 수상하였다.

2) 평택거북놀이 발굴 및 육성

거북놀이는 가장(假裝)놀이의 하나로 인물로 가장하거나 동물로 가장하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동물가장 놀이에는 사자, 거북이, 호랑이, 소 등이 등장하는데, 각 동물이 분포권을 형성하며 전승되고 있다. 거북놀이는 경기도와 충청도를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그 특징은 성스러운 동물인 거북이 바다를 건너와 지계(地界)를 방문하



제19회 경기도민속예술축제 평택문화원 평택거북놀이 출전 (2013년 9월 28일)

는 수평이동형(水平移動型)인 특징이 있어 다른 가장놀이와 차별화되고 있다. 따라서 거북놀이는 평택과 같이 바다에 근접한 반농반어민(半農半漁民)에 의해 전승되어온 놀이이다.

거북놀이는 특히 기호지방에서 청년들이 주로 즐기던 민속놀이로 평택지역은 거북놀이가 전승되는 내륙지역과는 달리 바다와 인접한 지역이기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평택시 20여개 마을에서 전승되어 왔다.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노와리 거북놀이는 거북이 제작부터 각 과장별 놀이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추석날 성묘를 다녀오면 오후에 마을사람들이 마당에 모여 수수잎으로 거북을 만들고 거북놀이 준비를 한다. 와야골거북놀이 특징은 대장거북, 일반거북으로 나누어 놀았다. 놀이꾼이 타원형의 거북이의 등을 들면 그 속에 들어가 떡메로 땅을 치면서 나아가고 이에 보조를 맞춰 일반 거북들은 발을 구르며 논다. 또 대장거북은 마당을 돌며 일반거북은 부엌, 우물에 가고 대청, 방에도 올라가 발을 구르며 논데, 집집마다 돌며 음식을 얻어먹는다. 놀이의 목적은 동네의 여러 잡귀 잡신을 쫓고 마을 사람들이 무병하고 장수하며 아울러 풍년을 기원하는데 있다.

평택지역 거북놀이는 2010년대 들어서면서 정덕근 잔다리예술단장이 자신의 고향마을인 팽성읍 노와리 와야골에서 전승되어온 거북놀이와 서탄면과 고덕면 등 평택시 북부지역에서 연행되어온 거북놀이를 발굴, 조사하면서부터 다시 복원작업이 이루어졌다. 정덕근은 2012년 평택문화원에 의뢰해 평택거북놀이 학술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그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2013년 포천시 포천

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 제19회 경기도민속예술제에 ‘평택거북놀이’로 출전해 대상을 수상하였다. 대상 수상팀에는 전국대회 출전 자격이 주어져 2015년 강원도 정선군 아라리공원에서 열린 제55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 경기도 대표로 참가해 은상을 수상하였다.



평성읍 노와리 와야골거북놀이 재현행사(2019년 9월 13일)

경기도 대표로 출전한 전국대회에는 ‘평택 와야골거북놀이’라는 명칭으로 출전했으며, 평택지역에서 연행되어왔던 거북놀이를 재현했다. 평택와야골거북놀이는 다른 지역 거북놀이와 달리 거북이 24마리와 동네 사람들이 집집마다 돌면서 떡메로 땅을 치며 지신을 달래고 행운과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독특한 모습을 선보였다.

특히 마을 사람들의 무병과 풍년을 기원하는 와야골거북놀이는 거북이 제작부터 길놀이-문들여가기-우물돌기-터주 빌기-정지 고사-마당놀이로 이어지는 원형을 그대로 살리고 연희성을 가미해 80여명의 출연진들이 흥을 돋우었다.

2013년 제19회 경기도민속예술제에 ‘평택거북놀이’라는 명칭으로 평택시 대표로 출전할 당시 구성원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 단장 : 정덕근
- 자료조사 : 고아름, 황수근(평택문화원 학예연구사)
- 고증 : 김정석, 김종식, 성선용, 김진신, 이경태(거북놀이 전승지역 주민)
- 단원 : 회장 원유덕, 총감독 박성숙, 사무국장 최선옥, 총무 정해권, 관리 정말례, 소품 김종환, 자문 박승규, 소리연출 허성자, 출연출 김규미, 소품장 김종환, 쇠 김재훈·김진신, 징 오수남·한선영, 장구 황지영·정해권, 북 이지은·김소현·서은정, 법고 최선옥·지보근·이승수·박명웅·손진경·김성규·오지환, 무동 황정원·심선경·김도엽·송수빈·김호정·유채민·유소현·진아연, 태평소 정성일, 거북이 채수재·김정용·장형배·김진민·이보영·최병녀·김혜경·김명호·김현미·김영옥·유영삼·양우석, 양반 정홍수, 남정내 장보래·박인숙·노영희·김해숙·장민숙·엄명숙·원영애·장정애·최원경·이옥자·박성숙·김효순, 아낙 최연숙·교유자·홍은희·배영선·안희숙·최범숙·이향숙·강춘

옥·황선옥·정민선·이현옥, 거북기 진종일, 보존회기 하두남, 청룡기 유만중, 흑룡기 김훈태, 농기 정지식, 영기 백종근·최미자, 오방기 최정자·이향녀·김환준·차길순

5. 평택학연구소 활동

평택문화원 부설 연구기관인 ‘평택학연구소’는 문화원 창립 이후부터 2019년까지 ‘평택향토사연구소’로 운영되어왔다. 평택향토사연구소 소장과 연구위원은 연구소 ‘운영규정’에 따라 모 기관인 평택문화원 원장의 임명 절차를 거치며, 평택문화원의 지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평택향토사연구소 연구위원 위촉식 및 2016년도 제1차 회의 (2016년 4월 25일)

평택향토사연구소는 사단법인 평택문화원 창립에 따라 평택문화원 부설로 운영되어 왔으며, 송탄문화원과 평택군문화원으로 문화원이 분리되면서 ‘송탄향토사연구소’와 ‘평택군향토문화연구소’로 각각 운영되어오다 1995년 통합 평택문화원 출범으로 ‘송탄향토사연구소’와 ‘평택군향토문화연구소’는 폐지되고, 평택문화원 부설 ‘평택향토사연구소’로 흡수 통합되어 운영되어 왔다.

평택향토사연구소의 주요 활동은 ‘평택향토사연구소 운영규정’ 제5조 ‘연구과제’에 우리고장 사료의 발굴 조사 및 기록을 위한 조직적 활동과 우리고장 사료의 분석 고증 및 연구를 위한 체계적 활동, 우리고장 지역학의 편집을 위한 관계 활동 등으로 명시되어 있다.

평택향토사연구소는 2006년까지는 문화원 사무국장과 별도 위촉된 연구위원을 중심으로 비상근 체계로 운영되어왔기 때문에 지역사 발굴 및 연구, 보급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지 못하였다. 별도의 비상설 조직을 구성해 《평택군지》, 《송탄시사》, 《평택시사》 등 시·군지를 간행하거나 2~3년에 1권의 지역사 관련 단행본을 발간하고, 비정기적으로 학술토론회를 개최해왔다.

평택향토사연구소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기 시작한 것은 2007년 학예연구사 1명을 평택문화원 정원에 새롭게 포함시키면서부터이다. 2007년 평택문화원 창립 이래 최초로 역사 전공자인

서태정 학예연구사를 채용하고, 2009년 고아름 학예연구사를 추가 채용했으며, 2011년 황수근 학예연구사 채용 이후 2021년 현재까지 평택문화원은 정원 2명의 학예연구 인력을 갖춘 문화원으로 지역학 연구의 체계를 갖추었다. 이처럼 전문 인력과 예산 확보를 통해 지역사 연구의 활력을 찾아나갔다. 특히 평택향토사연구소는 지역사 연구조사사업과 학술토론회, 지역사 발간사업으로 빛을 발했다.

지역사 연구조사사업은 평택두레놀이와 평택거북놀이 등 전통 민속분야 연구와 평택문화유산 현황과 활용, 평택문화유산 연구조사, 평택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문화전략 등의 문화유산 연구, 삼봉 정도전 논저목록, 박석수 시인의 문학 활동 등 인물연구, 소사벌택지지구 지명 연구, 알파탄약고의 평화적 활용을 위한 연구 등 매년 1회 이상의 연구로 최근 10년간 10여 차례 이상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정기와 비정기적으로 진행한 학술토론회는 정기 학술토론회를 매년 2회, 비정기 학술토론회를 매년 1회 등 2005년부터 30여회 진행하였다. 정기토론회는 ‘평택학 학술대회’ 명칭으로 2015년 ‘평택 민족운동가 재조명’, ‘평택의 근대 바라보기’를 시작으로 2021년 ‘평택 지역사회 인물 발굴 조명’, ‘평택의 마을조사 현황과 과제’ 등 매년 2회 개최해오고 있다. 평택학 학술대회는 용인문화원, 천안연구원, 한국민족운동사학회, 지역희기념사업회 등 다양한 단체 및 기념사업회와 협력을 통해 진행해 학술대회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왔다.

비정기 토론회는 2005년 ‘봉수제도 운영과 괴태길곶봉수대의 역할 학술토론회’, 2008년 ‘소사벌택지개발지구 명칭에 대한 토론회’를 시작으로 2020년 ‘문화예술 일제잔재 청산 공모사업 학술세미나-독립운동가 이석영’ 등 12차례 진행해왔으며, 민세안재흥기념사업회, 국사편찬위원회, 평택3.1독립운동선양회 등 각계 단체들과 공동으로 진행해 지역학 연구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평택학연구소 자문위원·연구위원 위촉식(2020년 6월 10일)

평택향토사연구소는 특히 지역사 발간사업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비연속 단행본으로는 2004년 《평택시향일독립운동사》, 《사진 속 평택의 자화상》, 2005년 《평택한시》, 2006년 《평택시통합사》, 《웃다리평

택농약》, 2007년 《평택항 개항 20년사》, 2008년 《내 마음 네 마음》, 2009년 《교운일기》, 2012년 《문학의 향기-평택의 한시와 기문》, 2014년 《평택시사》, 2015년 《우리고장 평택시》, 《근현대 평택을 걷다》, 《평택사람들의 길》, 2020년 《독립운동가 이석영의 꿈》을 발간하였다. 연속 간행물로는 2005년과 2007년, 2008년 《평택의 마을과 지명이야기 1~3권》, 2009~2010년 《평택 민속지 상·하》, 2014~2015년 《평택의 토종 1~2》를 평택향토사연구소 연구위원과 지역학 연구자를 필진으로 위촉해 출간하여 지역사 관련 간행물이 부족했던 평택지역에서 평택시민과 청소년들에게 평택에 대한 역사·문화적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평택학에 대한 토양을 기름지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문인과 무인, 전통예인, 독립운동가 등 평택의 자랑스러운 인물을 책으로 펴내는 《평택 인물지》 간행도 진행했다. 《평택 인물지》는 2011년부터 간행을 시작해 첫해에는 《충렬공 이대원》, 2013년 《지영희 평전》, 2014년 《원균 평전》, 2016년 《평택의 전통예인》, 2018년 《원삼창 이야기 심지와 불꽃》 등 5권을 발간하여 평택 역사인물을 재조명하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점차 도시화되어가는 읍·면 지역 지형과 역사, 민속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읍·면지》 발간 사업은 1999년부터 진행해 첫해에는 《진위면지》, 2007년 《고덕면지》, 2010년 《팽성읍지》, 2011년 《안중읍지》, 2017년 《청북읍지》, 2019년 《포승읍지》를 차례로 발행하였으며, 20년이 지난 현재는 변화된 읍·면 지역의 모습을 기록으로나마 남길 수 있는 아쉬움이 남는 간행물이 되었다.

평택향토사연구소는 이밖에도 이충동 동령마을, 진위면 마산마을, 진위면 대정마을, 포승읍 매상마을의 전통 줄다리기와 대보름 민속놀이를 발굴·복원하고, 지역의 전통 축제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으며, 평택시티투어 탐방 코스 개발, 향토 문화재 신규 지정을 위한 연구 활동,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에서 발행하는 초등학교 3학년 지역화교과서 자료 제공 및 자문 활동, 지역 원로 지도자 구술활동 등 매년 활동의 폭을 넓혀나가고 있다.

평택향토사연구소는 국내 지역학 연구의 흐름에 맞게 2020년 평택문화원 정기총회에서 명칭을 ‘평택학연구소’로 개칭한 후 기존 연구위원 중심으로 운영되어 오던 기구를 연구위원과 자문위원으로 세분화해 개편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다음은 평택향토사연구소 및 평택학연구소 조직 및 구성 현황이다.

[평택향토사연구소 조직 및 구성 현황]

2008년 3월 1일

구분	성명	소속	비고
소장	차송웅	평택향토사연구소장	재위촉
부소장	오중근	평택문화원 부원장	재위촉
연구원	석희균	전 평택여자중학교 교감	재위촉
	이대성	전 소사벌초등학교 교장	재위촉
	최익민	전 정당인	재위촉
	황근수	전 죽산중학교 교장	재위촉
	이광섭	덕동초등학교 교장	재위촉
	윤석규	평택문화원 이사	재위촉
	백운기	평택문화원 이사	재위촉
	이상권	전 상명대학교 강사	재위촉
	김 방	국제대학 교수	재위촉
	김해규	한광중학교 교사	재위촉
	임원택	진위중학교 교사	재위촉
	장연환	효명고등학교 교사	재위촉
	황우갑	민세안재흥기념사업회 사무국장	재위촉
	이진한	고려대학교 교수	재위촉
	김용겸	전 송탄문화원 사무국장	재위촉
	봉원학	전 안성문화원 사무국장	재위촉
	김성경	송탄여자중학교 교사	재위촉
박병욱	청담정보통신고등학교 교사	재위촉	
상임위원	박성복	평택문화원 상임이사	재위촉
간사	서태정	평택문화원 학예연구사	-

[평택향토사연구소 조직 및 구성 현황]

2018년 3월 1일

구분	성명	소속	비고
소장	오중근	평택문화원 부원장	재위촉
연구원	김 방	국제대학교 교수	재위촉
	김용겸	전 송탄문화원 사무국장	재위촉
	김해규	한광중학교 교사	재위촉
	박성복	평택문화원 이사	재위촉
	박준서	실천예절지도사	재위촉
	변백운	평택향포럼 수석대표	신규위촉
	성주현	송실대학교 연구교수	재위촉
	이광섭	평택시문화관광해설사	재위촉
	이대성	전 소사벌초등학교 교장	재위촉
	이재덕	평택문화원 감사	신규위촉
	이종석	평일초등학교 교장	신규위촉
	임 불	시인/문학평론가	재위촉
	임원택	진위고등학교 교사	재위촉
	장연환	효명고등학교 교사	재위촉
	황우갑	민세안재흥선생기념사업회 사무국장	재위촉
	최치선	전 평택시사편찬위원회 상임위원	재위촉
	오민영	평택문화원 사무국장	재위촉
간사	황수근	평택문화원 학예연구사	-
	최실비	평택문화원 학예연구사	-

[평택학연구소 조직 및 구성 현황]

2020년 5월 1일

구분	성명	소속	비고
소장	박성복	평택문화원 이사	재위촉
자매위원	김용겸	송탄문화원 전 사무국장	재위촉
	이광섭	평택시문화관광해설사	재위촉
	변백운	평택향포럼 수석대표	재위촉
	이대성	소사벌초등학교 전 교장	재위촉
	이재덕	평택문화원 부원장	재위촉
	임원택	향토사연구가	재위촉
	강호흔	사양재강호호보연구소장	신규위촉
	허홍범	과천추사박물관 학예사	신규위촉
	정규위원	오중근	평택문화원 이사
김 방		국제대학교 총장	재위촉
김해규		평택인문연구소장	재위촉
박준서		실천예절지도사	재위촉
임 불		시인·문학평론가	재위촉
성주현		평택박물관연구소장	재위촉
장연환		효명고등학교 교사	재위촉
황우갑		평택시민아카데미회장	재위촉
오민영		평택문화원 사무국장	재위촉
최치선		평택학연구소 상임위원	재위촉
권행안		건국대학교 겸임교수	재위촉
공일영		송탄고등학교 교사	재위촉
김명섭		단국대학교 연구교수	신규위촉
김 일		은혜중학교 교사	재위촉
윤한택		동국대학교 연구교수	신규위촉
이창언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대학협력위원장	신규위촉
입정미		중앙대학교 외래교수	신규위촉
간사	황수근	평택문화원 학예연구사	-
	강하늘	평택문화원 학예연구사	-

6. 평택문화원 도약기 연혁(2004~2021년)

2004년 3월 22일	평택시문화원 정기총회(경기관광호텔 회의실)	2005년 2월 17일	평택시문화원 정기총회 및 평택향토사연구소 현판제막식
2004년 4월 13일~6월 12일	제1회 평택시 문화유산 안내자 교육	2005년 3월 9일	'평택시문화원'에서 '평택문화원'으로 명칭 변경
2004년 6월 22일	소사벌민속단오제(덕동산체육공원)	2005년 3월 16일	평택향토사연구소 월례회의
2004년 7월 12일	평택문화유산해설사 교육(15명, 평택시남부문화예술회관 강의실)	2005년 4월 18일	금각분교장 무상임대 사용 승인(경기도평택교육청→평택시)
2004년 8월 10일	평택시장 초청 문화원사 건립 추진 간담회(소락천)	2005년 5월 21일	웃다리 평택농악 CIP 선포(덕동산시민공원)
2004년 8월 15일	《평택독립운동사》 발간	2005년 5월 25일	금각분교장 무상임대 사용승인(평택시→평택문화원)
2004년 8월 28일	푸른음악회(이충례포츠공원)	2005년 6월 8일	금각분교장 운영 공개토론회
2004년 8월 31일	평택 문화 발전을 위한 세미나(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	2005년 10월 29일	무형문화재축제 '대한민국 5대 농악의 만남'(이충분수공원)
2004년 9월 16~17일	청소년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효명중학교 풍물놀이)	2005년 12월 19일	2006년 평택시 웃다리문화촌 예산 확정(사업예산 : 7,800만원)
2004년 10월~12월 국	내외 지역축제 현지답사	2005년 12월 30일	《소사벌》 제15호 발행
2004년 10월 15일	민세 안재홍 선집8 발간기념식 후원(고려대학교 LG포스코경영관)	2005년 12월 31일	봉수제도 운영과 괴태길곶봉수대의 역할 학술토론회(해군2함대사령부 해군회관)
2004년 10월 20일	문화의 날 기념식(평택시남부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2006년 1~12월	평택문화원 문화유적 보존관리(연중)
2004년 10월 20일	《소사벌》 제14호 발행	2006년 2월 8일	문화소외지역 주민 문화 공간조성사업 신청(9,000만원 확정)
2004년 10월 22일	삼봉 정도전 선생 추모제향	2006년 2월 21일	웃다리문화촌 TFT 가동(2006년 10월 현재 총 30회)
2004년 10월 23일	공간통합예술제	2006년 2월 22일	동령줄다리기 재연(중앙동 동령마을)
2004년 10월 31일	제4회 평택농악경연대회	2006년 4~12월	충효도의 선양 사업
2004년 10월 31일	푸른음악회 개최	2006년 4월 28~29일	향토문화탐방(안성 금광관광농원, 충주호)
2004년 11월 24일	삼봉 정도전 선생 기념관 개관	2006년 5월~	웃다리문화촌 시설 개보수, 입주자공모, 프로그램 확정
2004년 11월~2005년 3월	평택농악발전연구회 결성 및 연구 활동(민·관 공동참여)	2006년 6월 2일	평택소사벌민속단오제(덕동산시민공원)
2004년 11월 8~11일	국토중단 스케치여행(평택시남부문화예술회관)	2006년 6월 9~10일	전국시조경창 평택대회(송탄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2004년 12월 17일	금각분교장 사용 협조요청(평택문화원→경기도평택교육청)	2006년 8월 1일	문화예술체험학습장 웃다리문화촌 개관
2005년 1월 13일	평택문화예술인 신년인사회(평택시남부문화예술회관 전시실)	2006년 8월 11일	웃다리문화촌 오픈
2005년 1월 17일	금각분교장 임대사용 협조 요청(평택문화원 → 평택시)	2006년 8월 11일~12월	평택문화학교 운영(웃다리문화촌)
2005년 1월 18일	금각분교장 임대사용 협조 요청(평택시→경기도평택교육청)	2006년 9월 7~8일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축제(효명중학교 웃다리농악팀)
2005년 2월	평택지역 중고등학교 졸업식 우수학생 표창	2006년 9월 21~23일	2006 대한민국무형문화재축제(이충분수공원)
2005년 2월 11일	평택시문화원 외부 도로용 간판부착	2006년 9월 22~24일	대한민국무형문화재축제(이충분수공원)
		2006년 10월 10일~11월 31일	실버문화학교 운영(웃다리문화촌)

2006년 10월 30일	《소사벌》 제16호 발행	2007년 10월 22일	실버문화학교 프로그램 전국 대상 수상(문화관광부 장관상)
2006년 12월 9~23일	평택문화원 가족과 함께 하는 향토문화기행	2007년 11월 3~4일	평택문화원 향토문화탐방(경상북도 경주)
2006년 12월 30일	《소사벌》 제17호 발행	2007년 11월 29일	웃다리 주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한마당(웃다리문화촌)
2006년 12월 31일	평택문화예술지표 지도제작	2007년 12월 1일~2008년 1월 31일	평택문화관광상품 개발 보급(고지도 보급사업)
2006년 12월	《평택근현대사 사진집2》 발행	2007년 12월 1일~2008년 1월 31일	평택두레놀이 조사 연구사업
2006년 12월	《문화유산 안내 자료집》 발행	2007년 12월 1~31일	부모와 함께 하는 향토문화기행 '평택시티투어'(평택시 향토문화유 적지, 웃다리문화촌)
2007년 1월 1일~12월 31일	평택문화학교 운영(웃다리문화촌)	2007년 12월 31일	생활친화적 문화 공간 조성 및 운영평가 표창(문화관광부장관상)
2007년 1월 25일	평택문화원정기총회(평택시남부문화예술회관 3층 세미나실)	2007년 12월~2008년 2월	평택농악 홍보기념품 제작(소형 장구 조형물)
2007년 3월 4일	동령마을 대보름행사(동령마을)	2007년 12월	《지명 유래집2》 발행
2007년 3월 4일	진위 마산리 대보름축제(오룡동마을)	2007년 12월	《문화유적 안내책자》 발행
2007년 3월 6일~5월 31일	평택농악 정기 강좌(웃다리문화촌)	2008년~현재	어르신문화학교 '장승과 솟대' 프로그램 운영
2007년 3월 10일~12월 15일	군 장병 문화예술교육(웃다리문화촌)	2008년 1월~6월	전통 민속놀이 발굴 복원사업(오룡마을 대보름, 무예도보통지)
2007년 3월 31일	《소사벌》 제18호 발행	2008년 1월~6월	2007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 사업(웃다리문화촌)
2007년 3~12월	주말농장 운영(고덕면 문곡리, 서탄면 금각리)	2008년 1월 29일	평택문화원 정기총회(평택시남부문화예술회관 3층 세미나실)
2007년 4월	금각분교장 무상임대 사용 연장 승인	2008년 1월 31일	《소사벌》 제19호 발행
2007년 4월 1일~12월 31일	땡땡땡! 실버문화학교 운영	2008년 2월 10~21일	동령마을 줄다리기 재연사업(동령우물, 서정우물, 동령마을회관 앞)
2007년 4월 25~26일	제14회 전국시조경창 평택대회(송탄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2008년 2월	《고덕면지》 발행
2007년 5월 3일	평택문화원 향토문화탐방(전라남도 함평군)	2008년 2월	《평택항 개항 20년사》 발행
2007년 6월 19일	소사벌단오제(청북 공설운동장)	2008년 2월	《평택시 문화관광 안내책자》 발행
2007년 7월 10일~9월 21일	평택역사문화알림이 양성교육(평택시남부문화예술회관 세미나실)	2008년 4월 29일	평택문화원 향토문화탐방(전남 함평군)
2007년 8월 1일	제11대 평택문화원장 오용원 취임	2008년 5월 1일~2008년 11월 9일	땡땡땡! 실버문화학교 운영(웃다리문화촌)
2007년 8월	웃다리문화촌 솟대 만들기 첫 강사활동(오산시자원봉사센터)	2008년 5월 1~11월 30일	노인 일자리사업 방문형 강사활동
2007년 9월 제6회	전국평생학습축제 평택시 대표 '실버기업-희망솟대 창업'	2008년 5월~12월	실버문화학교 노풍당당 장승세상 체험(웃다리문화촌)
2007년 9월 1~2일	제16회 경기도민속예술축제 우수상 수상(포승 두레소리, 안산시 호수공원 중앙광장)	2008년 5월 17일	성년의례(시청 앞 광장 특설무대)
2007년 9월 14~16일	대한민국무형문화재축제(이충분수공원 특설무대)	2008년	평택향토사연구소, 소사벌택지개발지구 명칭에 대한 토론회(평택 시남부문화예술회관 세미나실)
2007년 10월 19일	문화의 날 행사(평택시남부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전시실)	2008년 5월 30일	향토문화 한시집 《죽리시집》 발행
2007년 10월 21일	평택호 풍어제(평택호관광지 수변데크)		

2008년 6월 11일~9월 30일	장애청소년과 함께 하는 문화체험 '문화야 놀자'	2008년 11월 14일	다문화 가정과 함께 하는 평택시티투어
2008년 6월 7일	소사벌단오제(서부공설운동장)	2008년 12월 9~31일	웃다리문화촌 프로그램 발표전시회(웃다리문화촌)
2008년 6월 31일	《소사벌》 제20호 발행	2008년 12월 20~28일	주한미군 평택시티투어
2008년 8월 6일	평택세계두드림페스티벌	2008년 12월 31일	《소사벌》 제21호 발행
2008년 8월 27~28일	평택문화원 향토문화탐방(충남 태안)	2009년 1월 1일~12월 31일	삼봉 정도전 선생 논저목록 연구 및 발간 학술연구용역
2008년 9월 5~6일	제7회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평택농악청소년농악단 예운 장려상 수상)	2009년 1월 29일	평택문화원 정기총회(평택시남부문화예술회관 3층 세미나실)
2008년 9월 26일	경기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이충문화체육센터)	2009년 2월 4~9일	동령마을 대보름축제(서정우물, 동령마을회관 앞)
2008년 9월 26~27일	제7회 지역희전국국악경연대회(평택시북부문화예술회관 및 이충 문화체육센터)	2009년 2월 9일	오룡마을 대보름축제(마산1리 오룡마을회관 앞)
2008년 9월 26~28일	웃다리문화체험(웃다리문화촌)	2009년 2월 21일	무예도보통지 및 군사례(원군장군 유적지)
2008년 9월 27~28일	대한민국무형문화재축제, 평택평화문화예술축제(이충레포츠평원)	2009년 3월 1일~2009년 11월 9일	어르신 문화학교(웃다리문화촌)
2008년 10월 20일	문화의 날 기념행사	2009년 3월 1일~11월 30일	성균관유도회 충효도의 선양교육
2008년 10월 25일	평택호 풍어제 복원 및 시연	2009년 4월 1일~5월 31일	헤초기념비 건립(평택항)
2008년 11월 1일~12월 31일	《평택시 문화유적 안내》 발행	2009년 4월 1일~9월 30일	한미장병과 함께 하는 평택시티투어
2008년 11월 3일~12월 29일	평택시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2009년 4월 1일~9월 30일	주한미군과 함께 하는 영어체험교실(관내 문화관광유적지 및 웃다리문화촌)
2008년 11월 27일	《지명유래집》 3권 발행	2009년 4월 3일	2009년도 평택문화원 향토사연구소 제1차 회의(평택문화예술회관 귀빈실)
2008년 12월 1일~2009년 2월 28일	부모와 함께 하는 향토문화기행(평택시티투어)	2009년 4월 9일	평택향교 기로연(평택향교)
2008년 12월 20일~28일	주한미군 가족과 평택시민이 함께 하는 오감투어(4일 진행)	2009년 4월 24일~9월 30일	이주민 한국어·문화이해 교육(웃다리문화촌)
2008년 12월 31일	《평택시 문화관광 안내책자》 발행	2009년 5월 1일~6월 30일	전통무물 복원사업(현덕면 대안4리 우물)
2008년 12월 31일	《소사벌》 제21호 발행	2009년 5월 8~9일	향토문화탐방(전남 여수)
2009년 8월 31일	《소사벌》 제22호 발행	2009년 5월 15일	국제화 시대와 평택의 정체성 확립 세미나(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 대강당)
2008년 9월 8~20일	장애청소년과 함께 하는 문화복지 프로그램 작품전시회(웃다리문화촌)	2009년 5월 30일~6월 4일	평택농악 해외 초청공연(독일)
2008년 9월 9일	새터민 가족과 함께 하는 한마당(웃다리문화촌)	2009년 6월 1일~7월 31일	3.1운동 90주년 기념 학술대회(평택시남부문화예술회관 세미나실)
2008년 9월 26~28일	평택평화문화예술축제(이충레포츠평원)	2009년 6월 3~4일	총력공 이대원 장군 문화유적 탐방(전라남도 고흥군, 여주시 일원)
2008년 10월	《평택시 문화관광 안내서》 발행(향토사연구소)	2009년 6월 22일~7월 24일	실천예절 지도강사 양성교육(평택시청 대회의실)
2008년 10월 20일	이동진 초대전 '노을'	2009년 6월 26일	평택항일운동 학술세미나 '기억과 전승'(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 시
2008년 11월 1일~12월 29일	평택시문화관광해설사 양성과정 교육		

	청각실)	2010년 3월~2011년 6월	평택의 정신적 철학 정립 연구용역
2009년 6월 31일	《안중읍지》 발행	2010년 4월 1일~6월 30일	평택문화원 향토문화교육 연구
2009년 7월 3일	진위향교 한문교육(진위초등학교 대강당)	2010년 4월 22일	주말버스학교 사업 협약식
2009년 7월 15일	진위향교 충효예도 교육사업(태광고등학교 대강당)	2010년 5월 1일~11월 30일	평택시 실천예절지도강사 양성사업
2009년 7월 27일~8월 21일	경기도 향교·서원 활성화 우수프로그램 '누구나 쉽게 배우는 우리 예절'	2010년 5월 16일	평택시 성년례(평택시청 앞 광장)
2009년 7월 31일	《평택시 문화 관광안내》 책자 발행	2010년 5월 18~20일	한미 청소년 영어캠프(오상비행장 내 미국중학교)
2009년 8월 31일	《소사벌》 제22호 발행	2010년 5월 20일~12월 31일	어르신문화학교
2009년 9월 4~5일	제17회 경기도민속예술제(용인시종합운동장)	2010년 5월 30일~6월 4일	평택농악 호주 초청공연(호주 시드니 일원)
2009년 10월 1일~12월 31일	평택시 문화자원 제작 및 순회전시(도서관)	2010년 6월 11일	평택문화원 향토문화탐방
2009년 10월 7일	이주민 한국어·문화이해 교육 수료식	2010년 6월 16일	소사벌단오제 및 평택시 성년례(서부공설운동장)
2009년 10월 13일	평택문화원 하반기 향토문화탐방(인천세계도시축전)	2010년 6월 28~29일	총렬공 이대원 장군 문화유적 탐방
2009년 10월 15일	진위향교 기로연(진위향교)	2010년 6월 30일	평택 항일운동 학술대회 '기억과 전승'(평택시립도서관 3층 시청각실)
2009년 10월 16일	문화예술발전 유공 화관문화훈장 수상(오용원 평택문화원장)	2010년 7월 1일~12월 31일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 양성사업
2009년 10월 24일	평택 들녘축제(합정초등학교 옆 들녘) 후원	2010년 7월 2~3일	평택문화원 향토문화탐방(전남 진도군, 부안군)
2009년 11월 1일~12월 31일	평택의 역사인물 이미지브랜드화	2010년 7월 27일~8월 20일	평택 어린이 예절 교실(평택향교)
2009년 11월 30일	《이택화 선생 한시집》 발행	2010년 7월 27일~8월 20일	평택 어린이 예절교실(진위향교)
2009년 12월 1일	진위향교 추기석전대제(진위향교)	2010년 7월 31일	《소사벌》 제24호 발행
2009년 12월 11일	평택문화원 기획공연 국악 옛지콘서트(평택시남부문화예술회관)	2010년 8월 1~30일	한미어린이 씬머스쿨
2009년 12월 15~24일	이정재, '아! 독도 그 민족혼' 전시(평택시남부문화예술회관 전시실)	2010년 9월 1일~10월 30일	학교로 찾아가는 실천예절교실 및 평택 어린이 예절교실
2009년 12월 28일	제1회 지역희 전국학술대회(평택시남부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2010년 9월 4일	한미 한국전통문화체험(웃다리문화촌)
2009년 12월 31일	《소사벌》 제23호 발행	2010년 9월 9~10일	제8회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 오성중학교 웃다리평택농악 출전 (용인시체육관)
2009년 12월 31일	《평택역사 민속지-하》 발행	2010년 10월 8일	제25회 전국향토문화공모전 콘텐츠부문 최우수상(국악 현대화의 선각자 지역희)
2010년 1월 1일~12월 31일	평택시문화관광해설사 운영	2010년 10월 11일	제1회 평택 주부가요열창(평택시남부문화예술회관)
2010년 1월 21~28일	평택농악 호주 시드니 초청공연(호주 시드니 일원)	2010년 10월 13일	평택문화원 향토문화탐방(경북 영주군)
2010년 2월 1일~12월 30일	충효도의 교육사업	2010년 10월 15일	문화의 날 기념행사(평택시남부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및 전시장)
2010년 2월 3일	평택문화원 정기총회(평택시남부문화예술회관 세미나실)	2010년 10월 23일~11월 6일	제4회 웃다리문화촌 생활도예 회원전
2010년 2월 28일	동령마을 및 오룡마을 대보름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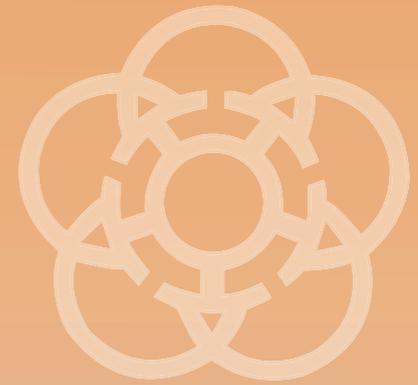
2010년 10월 30~31일	제5회 한·미 한마음축제	2012년 2월 10일	평택문화원 정기총회(평택시남부문화예술회관 세미나실)
2010년 11월 10~20일	웃다리문화촌, 작은학교의 신나는 문화마당(2010년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	2012년 2월 29일	《소사벌》 제26호 발행
2010년 12월 11일	늘푸른예술단 문화나눔공연제회 정기 발표회(평택시여성회관 대강당)	2012년 3월 1일	제12대 김은호 평택문화원장 취임
2010년 12월 18일	국악캠프 '야단법석 병영놀이' 결과발표회	2012년 4월 9일	평택문화원-서탄초등학교 업무협약 체결
2010년 12월 21일	2010년도 제3차 평택문화원 이사회의	2012년 5월 17~19일	한미 청소년 영어캠프(오산비행장 내 미국중학교)
2010년 12월 23일	평택학 정립 학술대회(평택시북부문화예술회관)	2012년 6월 8일	평택향토사연구소, 새로 쓰는 평택 3.1운동 학술대회(평택시남부 문화예술회관 세미나실)
2010년 12월 31일	《소사벌》 제25호 발행	2012년 6월~11월	군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병영 도예공방(웃다리문화촌)
2010년 12월 31일	《평택문화유산의 현황과 활용》 발행(수원대학교박물관 편찬)	2012년 6월 22일	소사벌단오제(서부공설운동장)
2011년 1월 31일	인물지 《이대원장군》 발행	2012년 7월 4~5일	평택문화원 향토문화탐방(여수, 남원 일대)
2011년 2월 25일	평택문화원 정기총회(평택시남부문화예술회관 3층 세미나실)	2012년 7월 9일	새로 쓰는 평택 3.1운동 학술회의(평택시남부문화예술회관 세미나실)
2011년 2월 28일	《안중습지》 발행	2012년 9월 21~22일	제9회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웃다리평택농악 오성중학교 출전)
2011년 5월 1일~2012년 4월 30일	고문헌 평택기록 발췌 보존사업(문학의 향기)	2012년 10월 19일	문화의 날 기념행사(웃다리문화촌)
2011년 5월 17~19일	한미 청소년 영어캠프(오산비행장 내 미국중학교)	2012년 11월 8~9일	제14회 경기도 문화가족 합동연수(안성시 너리굴문화마을)
2011년 7월 11일	굿네이버스 '좋은이웃상' 수상(오용원 평택문화원장)	2013년 2월	평택시정월대보름 행사(진위 오룡마을, 진위 대정마을, 포승읍 신영리 매상마을)
2011년 8월 2~6일	한미 어린이 씬머스쿨	2013년 2월 5일	평택문화원 정기총회
2011년 8월 9~19일	한·미 어린이 향교나들이(진위향교)	2013년 5월 13~15일	한미 청소년 영어캠프(미51시단 공군기지 내 미국중학교)
2011년 8월 25일	경기도 시군 문화유산원형 토론회 참가, '국악현대화의 선각자 지역회 관련 지역브랜드 개발' 발표(경기문화재단)	2013년 5월 25~26일	한국전통사찰체험(수도사 일원)
2011년 8월 27일	평택시문화관광해설사 선진지 견학(제주도 일원)	2013년 7월 4일	찾아가는 한국전통문화체험(오산에어베이스 부대 내)
2011년 9월 30일	제18회 경기도민속예술제 오성틀 풍물놀이 출전(양주 별산대놀이 마당)	2013년 8월 3~6일	문화의 날 기념행사(강릉시 안반데기)
2011년 10월 1일	《우리가 살고 있는 터전 평택-평택의 문화 관광자원》 발행	2013년 8월 6~9일	한미 어린이 씬머스쿨(평성국제교류센터)
2011년 10월 12~18일	제1회 평택 향토사료 전시회 1차 전시(평택시남부문화예술회관 전시실)	2013년 8월 26일~9월 2일	제1회 대한민국 삼봉정도전 서화대전(평택호예술관)
2011년 11월 1일	제2회 지역회 전국학술대회	2013년 9월 28일	제19회 경기도민속예술제 대상 수상(평택거북놀이, 경기도지사상)
2011년 11월 24일~12월 3일	제1회 평택향토사료 전시회 2차 전시(평택호예술관)	2013년 10월 1일~2014년 8월 31일	평택 100년 사진전(순회사진전 5회, 회당 전시기간 14일)
2012년 2월 1~6일	평택시 정월대보름 행사(오룡마을, 동령마을, 대정마을, 매상마을)	2013년 10월 17일	문화의 날 기념행사(평택시남부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2013년 10월 18~19일	평택문화원 향토문화탐방(양구군 두타연계곡 및 동해안 일원)
		2013년 10월 19일	풍어제(한국소리터 모래톱공원 일대)

2013년 10월 19~20일	평택항·평택호 물빛축제(한국소리터 일원)	2014년 12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역문화진흥 표창(김은호 평택문화원장)
2013년 10월 20일	손짓 몸짓으로 만드는 하모니 합창대회	2015년 1월 1일	한국소리터 수탁운영
2013년 11월 9일	제7회 평택시 평생학습축제(평택시청 광장 및 평택시남부문화예술회관 일원)	2015년 2월 12일	평택문화원 정기총회
2013년 11월 13일	평택 100년 대토론회(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	2015년 2월 28일	평택문화나눔미 입단식(평택시남부문화예술회관 세미나실)
2014년 2월 12일	평택문화원 정기총회	2015년 4월 6일~5월 31일	평택문화원 업무용 승용차 구입(티볼리)
2014년 3월 2일~12월 31일	꿈의오케스트라 평택 운영	2015년 4월 10일	제1차 평택지역 사료 소장가와의 만남
2014년 5월	한미 청소년 영어캠프(K-55 미51전투비행장 미군중학교)	2015년 5월 29일	제2회 경기지역학 포럼 '사라져가는 마을과 민속'(평택시남부문화예술회관 세미나실)
2014년 5월 12일~6월 31일	미군장병 전통 사찰체험	2015년 5월 31일	《소사벌》 제28호 발행
2014년 6월 13일	소사벌단오제(서부공설운동장)	2015년 9월 18일	평택박물관 토론회
2014년 6월 30일	《평택시사》 발행	2015년 9월 19~20일	전국대학 실용음악 페스티벌(한국소리터)
2014년 7월 22~25일	한미 어린이 서머스쿨(평성국제교류센터)	2015년 10월	웃다리문화촌 향토사료관 '평택의 잔상' 개관
2014년 7월 24일	청일전쟁 120주년 기억포럼(평택시남부문화예술회관)	2015년 10월 3~4일	평택항·평택호 예술축제-풍어제(한국소리터 모래톱공원 일대)
2014년 7월 29일	평택거북놀이 학술연구조사(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	2015년 10월 9일	제22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평택어로요' 최우수상 수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2014년 8월 13일	평택문화원-경기남부생태교육연구소 업무협약	2015년 10월 15일~11월30일	통북시장 다문화축제
2014년 9월 14~28일	진위향교 나들이	2015년 10월 16일	문화의 날 기념행사(한국소리터 지영회홀)
2014년 9월 15일	《소사벌》 제27호 발행	2015년 10월 18일	제2회 노을동요제(평택시남부문화예술회관)
2014년 9월 25일~12월 4일	평택학 시민강좌	2015년 10월 23일	평택 민족운동가 재조명(평택시남부문화예술회관)
2014년 10월	웃다리문화촌 갤러리 개관	2015년 11월 20일	평택의 근대 바라보기(평택시남부문화예술회관)
2014년 10월 5일	제55회 한국민속예술축제 '평택와야골거북놀이' 은상 수상(강원도지사상)	2015년 12월 17일	명사 초청 인문학 강의(전. 문화재청장 변영섭 고려대 교수)
2014년 10월 14일	문화의 날 및 평택문화원 개원 43주년 기념식(웃다리문화촌)	2015년 12월 30일	평택문화원 송년의 밤(JNJ아트컨벤션)
2014년 10월 15일	합창으로 여는 평택하모니 페스티벌(평택시북부문화예술회관)	2016년 2월 25일	평택문화원 정기총회(평택시남부문화예술회관 세미나실)
2014년 10월 17일	제10회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 평택어로요 경기물류고등학교 참가 대상 수상(경기도지사상)	2016년 4월 25일	평택향토사연구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
2014년 11월 27일	평택농악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기념 학술토론회(평택시남부문화예술회관)	2016년 5월 28일	전국하모니합창페스티벌(한국소리터)
2014년 12월 19일	경기도 우수문화원상 수상	2016년 8월 11일	웃다리문화촌 개촌 10주년 기념식(웃다리문화촌)
		2016년 8월 25~31일	제4회 대한민국삼봉서화대전(평택호예술관)
		2016년 9월 30일	평택문화나눔미 스마트사진전 작품집 발간

2016년 10월	경기관광공사 경기관광 인증프로그램 기관인증(웃다리문화촌)	2018년 2월 1~29일	청북읍 율북리 당제 개최
2016년 10월 7일	평택학 정기 학술발표대회(지속가능한 평택 마을 만들기)	2018년 2월 12일	평택문화원 정기총회
2016년 10월 15일	《소사벌》 제29호 발행	2018년 3월 23일	평택시 지역문화예술전문가 워크숍(충남 논산 및 전북 완주 등)
2016년 10월 22일	문화의 날 기념행사(웃다리문화촌)	2018년 4월 10일	평택문화원 이사회의(평택시남부문화예술회관 세미나실)
2016년 12월 2일	평택학 학술포럼 '평택학 길을 묻다'(평택시남부문화예술회관 세미나실)	2018년 5월 5일	웃다리문화촌 어린이날 행사
2016년 12월 17일	제4회 꿈의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평택시남부문화예술회관)	2018년 6월 18일	소사벌단오제(서부공설운동장)
2016년 12월 26일	문화예술관광 유관기관장 간담회(평택시남부문화예술회관 세미나실)	2018년 7월 26일	평택문화원 이사회의(평택시남부문화예술회관 세미나실)
2017년 2월 12일	평택문화원 정기총회	2018년 8월 10일	경기도지역 독립운동과 독립운동가 학술회의
2017년 2월 22일	기획공연 판소리 '수궁가'(한국소리터 지영희홀)	2018년 8월 15~19일	평택문화원 해외 문화탐방(중국 곤명 일대)
2017년 3월 29일	기획공연 오페라 '사랑의 묘약'(한국소리터 지영희홀)	2018년 10월 15일	《소사벌》 제31호 발행
2017년 5월 5일	어린이날 '이영진 마술사의 매직쇼'(한국소리터 지영희홀)	2018년 10월 19일	문화의 날 기념식(평택시청 대회의실)
2017년 5월 18일	국사편찬위원회 지역사 워크숍(평택지역의 근대적 공간변동과 유지 및 농민들)	2018년 10월 19일	평택문화원 이사회의
2017년 6월	평택시 진로체험(꿈길) 기관 인증	2018년 10월 23일	웃다리문화촌 지역문화 대표브랜드 우수상 수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2017년 6월 22일	한예중 찾아가는 문화행사 '사라진 아랑'(한국소리터 지영희홀)	2018년 10월 25일	웃다리문화촌 추수축제 행사
2017년 6월 29일	기획공연 방타 타악기 앙상블(한국소리터 지영희홀)	2018년 11월 2일	평택문화원 추계 문화탐방(여수, 순천 일대)
2017년 6월 29일	박석수의 삶과 문학 세미나(평택지산초록도서관 시청각실)	2018년 11월 17일	평택 도당대제(한국소리터 야외공연장)
2017년 7월 28일	평택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및 박물관건립을 위한 유물조사 설명회(평택시)	2018년 12월 27일	평택문화원 송년회(JNJ아트컨벤션)
2017년 8월 24~25일	평택시 지역문화예술 전문가 워크숍(동해망상오토캠핑리조트)	2019년 2월 18일	평택문화원 정기총회
2017년 8월 30일	평택문화원 2017년도 제1회 이사회의	2019년 3월 7일~4월 4일	3.1운동 100주년 기념 평택학 시민강좌
2017년 10월 15일	《소사벌》 제30호 발행	2019년 3월 22일	평택시 지역문화예술전문가 워크숍
2017년 10월 20일	평택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의 날 행사	2019년 10월 15일	《소사벌》 제32호 발행
2017년 12월 7일	기획공연 잼스틱 콘서트(한국소리터 지영희홀)	2019년 10월 17일	제47회 문화의 날 기념식
2017년 12월 9일	평택학 학술포럼 '평택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2019년 12월 7일	평택학 학술대회 '이석영·이회영 육형제의 민족운동과 평택(진위도서관)
2017년 12월 10일	꿈의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2020년 3월 1일	제14대 이보선 평택문화원장 취임
2017년 12월 29일	평택문화원 송년회(JNJ아트컨벤션)	2020년 6월 30일	《소사벌》 제33호 발행
		2020년 9월 24일	웃다리문화촌 제7회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금상(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2020년 10월 30일	《소사벌》 제34호 발행

68

VII. 평택문화원의 과제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 할 만큼 ‘문화’가 커다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 집단이 자연과 어우러지며 변화시켜온 물질적, 정신적 과정의 산물인 ‘문화’라는 용어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불가능하다. 그것이 속한 담론의 맥락에 따라 매우 다양한 의미를 갖는 만큼 ‘문화’는 우리사회를 구성하는 총체라고 볼 수 있다.



제50차 평택문화원 정기총회(2020년 1월 2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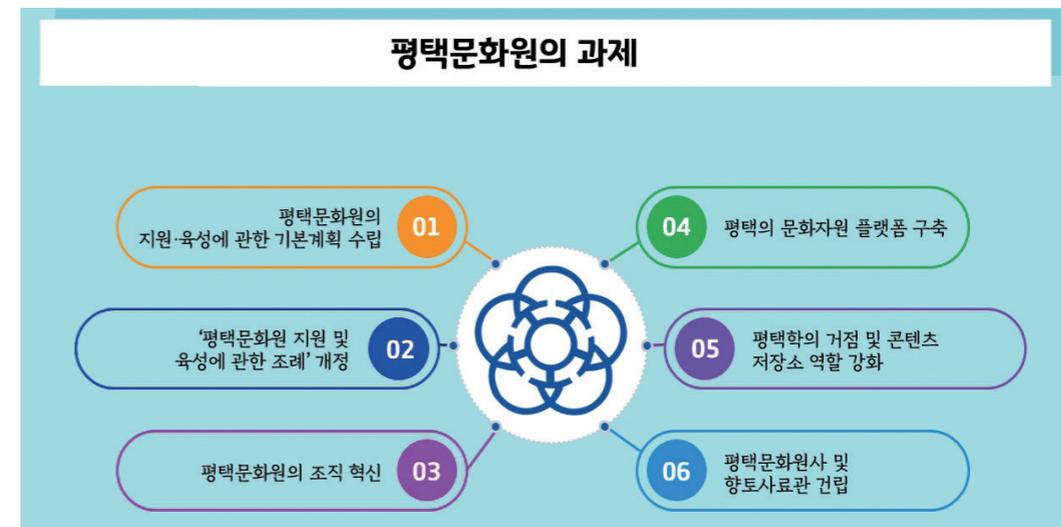
‘문화’는 단순히 시대가 변함에 따라 진보하는 것이 아니다. 옛날의 문화가 모두 뒤떨어진 것도 아니고 미래의 문화가 모두 앞서가는 것도 아니다. 다만 문화는 그 시대를 반영하는 것인 만큼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의식주는 물론이고 예술이나 정신적 측면, 상징체계, 생활양식 등 다양한 방면에서 살펴야 하고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평택문화원은 많은 시민의 기억에서 사라질 수 있는 우리 지역 고유의 문화유산을 발굴 보존하고 정체성을 계승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의 조사와 기록, 보존사업은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이며 그러한 전통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전통문화 축제는 지역의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줄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공동체 정서를 함양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1. 평택문화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평택문화원 1953년 문화원 개원과 1971년 법인 창립 이후 현재까지 평택문화원 운영과 사업 전반을 다룬 ‘중장기발전계획’을 한 번도 수립하지 못했다. 물론 필요에 따라 사안별로 ‘평택문화원 사 건립계획’, ‘평택향토사연구소 운영 중장기계획’, ‘웃다리문화촌 중장기 운영계획’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해오기도 했지만 문화원 운영과 사업 전반에 대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

이는 전국 230곳의 지방문화원이 대부분 그러하듯 문화원 사업예산과 인력운영 등 지방비 의존도가 늘어나다 보니 문화원 자체적인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 자체가 어려움에 직면한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예산의 대부분을 지방비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의 독립성과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해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문화원연합회 2020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2020년 5월 현재 문화원의 전반적인 운영이나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3년 이상 중장기 발전계획을 갖고 있는 지방문화원이 40.9%(94개), 갖고 있지 않은 문화원이 59.1%(135개)로 나타났다. 발전계획을 갖고 있는 94개(40.9%, 전년 대비 9개 증가) 문화원 중 44개(19.2%, 전년 대비 2개 증가)는 ‘종합적인’ 중장기 발전계획, 그리고 50개(21.7%, 전년 대비 7개 증가)는 ‘일부사업에 한한’ 발전계획이 있는 경우였다. 호남과 제주권 소재

지방문화원들의 수립 비율(53.5%)이 높았다.

2020년 6월 9일 ‘지방문화원진흥법’ 개정으로 제3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의해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지방문화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라는 강제 조항에 의해 중앙정부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2021년부터 5년 단위로 ‘지방문화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올 12월말까지 법 시행 처음으로 ‘지방문화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제3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등)에는 ▲지방문화원 육성·발전을 위한 기본목표와 정책방향 ▲지방문화원의 활동에 필요한 전문인력·프로그램·시설·재원 확충 등에 관한 사항 ▲지방문화원과 지역 내 문화예술 기관·단체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지방문화원의 진흥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문화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지역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수립한 시행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지방문화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기 때문에 지방문화원의 체계적 지원·육성의 단초를 마련하게 되었다.

하지만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6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한다”와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4조(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따라 “① 시·도지사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군·구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평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5년마다 시·군·구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추진

실적과 평가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시·군·구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마다 시·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추진 실적과 평가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된 내용처럼 ‘지방문화원진흥법’과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에는 ‘시·군·구 시행계획’이 빠져있다는 점이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향후 ‘지방문화원진흥법’과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지방문화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시·군·구 시행계획)’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지방문화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시·군·구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지방문화원의 중장기적 육성·발전을 위한 기본 목표와 정책 방향 수립을 통해 지방문화원에서 가장 필수적인 사항인 전문인력 육성과 프로그램 운영, 시설 및 재원 확충 등의 방안을 지방문화원 단위로 수립해 지방문화원의 생태 환경을 확고히 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2. ‘평택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

평택시는 2016년 12월 19일 지방문화발전과 지역문화사업을 목적으로 평택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평택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평택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인 ‘지방문화원진흥법’을 좀 더 구체화해 실질적으로 평택문화원 목적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조례로 제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인 ‘지방문화원진흥법’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규칙’ 보다 체계적이지 못한 측면이 크다.

평택시가 평택문화원의 체계적 육성을 통한 지방문화 발전과 지역문화 사업 활성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평택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시급히 진행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전면 개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평택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 시에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지방문화원진흥법 시

행령,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규칙'에 담긴 정부 및 광역자치단체의 역할과 지원을 기초자치단체 인 평택시에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담겨야 한다.

특히 2020년 6월 9일 '지방문화원진흥법' 개정으로 신설된 후 2021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제3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등)' 지방문화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기초자치단체인 평택시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는 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지방문화원 지원·육성 정책을 기초자치단체까지 연계해 정부의 지방문화원 지원·육성 의지가 기초자치단체까지 연결되지 못하고 단절돼 실효성을 거두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미연에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지방문화원 지원·육성 정책이 모세혈관인 지방문화원까지 잘 전달되어 정책의 일원화 및 체계적 완성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평택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것이다.

특히 '평택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에 있어서 반드시 수정되어야 하는 조항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6조(시설) ①지방문화원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지방문화원은 그 목적사업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시설 중 일부를 지역주민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라는 연장 선상에서 '평택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7조(공유재산의 사용) ①시장은 문화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하여야 한다"로 개정해야 한다.

지방문화원은 문화의 기능이나 문화 행위를 실현할 수 있는 시설로 분류되어 문예회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화의집 등과 함께 정부에서 '문화기반시설'로 분류하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때문에 '지방문화원진흥법' 제6조(시설)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로 강제하고 있다. 반면 '평택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7조(공유재산의 사용)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로 완화되어 있어 상위법처럼 강화된 조문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평택시는 '평택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체계화를 위하여 '평택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을 시급히 진행하여야 한다. '시행규칙'에는 ▲평택문화원의 활동에 필수적인 전문 인력 채용과 보수 ▲평택문화원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평택문화원 증장기 발전계획 수립(평택문화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평택문화원 시설 및 재원 확충 ▲평택문화원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평택문화원의 진흥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3. 평택문화원의 조직 혁신

평택문화원은 향토문화의 발굴과 보존, 전승이라는 향토성과 함께 평택시민의 문화향유권 증대를 위한 문화지치 확대라는 큰 틀에서 사업을 수행해오고 있다. 이 같은 사업 수행은 평택시와 평택시민이라는 두 축의 중간조직으로서 역할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방점을 찍을 수 있다. 목적사업 수행은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상과 함께 평택문화원 조직 구성원들의 사고와 인식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지방문화원의 한계점일 수도 있겠지만 평택문화원은 의사결정의 최고 의결기구인 총회와 이사회가 운영되고 있고, 총회와 이사회 의장인 원장은 무보수 명예직이면서 비상근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 연간 사업비 가운데 대부분이 국비와 지방비, 공모사업비로 충당되고 있으며, 자부담 전입금은 전체 사업비의 5~10%에 불과하다. 문화원사를 확보하지 못해 자체 수익사업을 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인건비 등 경상운영비와 목적사업에 사용되는 사업비를 지방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확장성에 한계가 있고, 자체 기획사업을 확대하는데도 한계가 있으며, 직원들의 안정적 근무 환경을 마련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 같은 문제들은 법과 조례 개정을 통한 '지방문화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이 선결되어야 해소될 수 있겠지만 법과 조례 개정과 함께 평택문화원 조직 혁신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만 서비스 수혜자인 시민들에게 선한 양향이 미칠 수 있을 것이다.

평택문화원 조직 혁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지점은 시민 서비스의 접점에 있는 직원의 근무 환경 개선과 인적 역량 강화일 것이다. 평택문화원은 급변하는 외부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내부 직원에 대한 역량강화 시스템이 부족하다. 사업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직원들이 많은 사업을 수행하다보니 사업 수행에만 매몰되어 직원 역량강화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직원 채용 시점부터 전문성을 갖춘 직원을 채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평택문화원의 경우 다른 지방문화원보다 학예연구 인력을 체계적으로 갖추고 있는 점은 장점



평택문화원 개원 제68주년 기념포럼 포스터 (2021년 12월 13일)

이지만 웃다리문화촌의 경우 시설운영과 프로그램에 맞는 인력 채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직률이 매우 높은 편이다. 근로계약도 매년 재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직원들의 안정적 근무여권이 갖춰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목적사업 및 공모사업의 유형에 따라 채용하는 단기계약직 근로자의 경우는 근로 여건이 더욱 취약한 상태이다.

이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택문화원의 연간 목적사업 분석을 통한 '평택문화원 직제 및 정원 제도' 도입과 '평택문화원 직원 보수 규정' 신설, '평택문화원 직원 평가제도' 신설 등이 필요하다. 특히 '평택문화원 직원 보수 규정'은 전국 지방문화원 가운데 우선 도입한 지방문화원의 사례 연구와 함께 평택시체육회, 평택시사회복지협의회 등 평택문화원처럼 법령으로 지원되는 평택지역 사례를 통해 평택문화원에도 도입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이 같은 제도들은 평택문화원 임원들의 관심과 함께 평택시 행정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되어야만 가능하다. 전국 지방문화원 가운데 인력지원 규정이 마련된 문화원은 39.4%(74개 문화원)로 해당 지방문화원의 사례를 적극 검토 및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도 평택문화원은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재정 분석과 함께 수익모델의 적극적인 개발이 필요하며, '평택문화원 조직 혁신 TF팀' 운영, 평택시 문화환경 변화에 따른 사업 재편 등 종합적인 조직 혁신이 필요하다.

4. 평택의 문화자원 플랫폼 구축

평택문화원 1953년 개원, 1971년 사단법인 창립 이후 70여 년간 시대적 상황 변화와 많은 부침이 있었던 가운데 ▲지역문화의 계발·보존 및 활용 ▲향토자원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사업 ▲문화예술교육 사업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지방문화원과의 공동 사업 등의 목적사업을 수행하여 왔다.

이처럼 다양한 목적사업을 수행하여 오면서 가장 특화된 사업으로 성과를 구체적으로 발현하고 있는 분야가 '지역문화자원의 데이터베이스' 역할 수행이다.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평택지역 문

화자원의 플랫폼 구축을 강점으로 들 수 있다. 물론 평택문화원이 갖고 있는 조직 및 예산의 한계성으로 인해 오랜 역사만큼 평택의 문화자원을 더욱 체계적이며, 지속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지 못한 반성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평택은 수천 년 이어온 농경문화와 어로문화, 개간과 간척, 장시와 산업, 전통 예인과 예술, 교육, 나무와 포구, 향만, 군사문화와 기지촌, 인물과 사건, 음식문화 등 평택만의 특유한 문화를 지니고 있음에도 이를 잘 살리지 못하고 있다.

또 평택시가 점차 도시화되고, 광역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측면에서 평택문화원에서 '평택지역 문화자원의 플랫폼 구축을 위하여 앞으로 더욱 강화해야 할 부분은 소멸 위기에 있는 당대 기록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수집하여 지역의 원천콘텐츠로 개발함과 함께 이를 평택만의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개인과 공동체의 생활사를 기록하고, 이를 기억하고 저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기억하고 저장하는 방법은 지역에서 다양한 삶을 살아온 각계 선배들의 삶을 구술로 남기고,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사진, 생활용품, 공동체 용품 등을 꾸준히 수집하여 보존하는 일들이다.

이를 통해 확보한 구술과 기록물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연구하여 학술토론회를 개최하고, 연구서로 발간해 평택문화원이 지역학의 거점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공유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앞으로 개관하게 될 평택박물관과 평택시기록관, 공공도서관, 지역학 연구자들과의 끊임없는 네트워크는 평택의 문화자원 플랫폼으로서 평택문화원의 역할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5. 평택학의 거점 및 콘텐츠 저장소 역할 강화

민선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이후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 고유의 정체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정체성을 정립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방문화원을 중심으로 한 자원 발굴 및 연구사업을 꾸준히 진행해 나아가고 있다. 지역학의 핵심자료인 삶의 기억을 기록하는 구술조사와 생활사 자료의 수집, 인물 연구 등을 통한 지역 콘텐츠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역학은 기존에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진행되어온 것을 사회적, 지리적, 역사적 삶에 근거한

동일 문화권 내의 지역 특성을 발굴하여 구술 채록, 민속지와 지명사전 발간, 학술 총서, 사진집 출간을 통해 민속문화 아카이브와 근현대 자료 DB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확대된다. 지역학의 체계적인 구축은 콘텐츠 개발로 이어지며, 중국에는 지역의 문화관광산업은 물론 도시재생, 상품개발, 교육·홍보 수단으로 확장할 수 있는 근간이 된다.

평택문화원은 올해로 개원 68년을 맞았지만 실질적으로 지역학 정립을 위해 구술 채록 및 향토지 발간을 전개하기 시작한 것은 50여년이 경과되었다. 특히 평택은 최근 20~30년 사이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어 평택문화원이 추진하고 있는 원천콘텐츠의 체계적인 보존 및 관리 사업은 지역 문화자원의 소실을 방지하고, 평택지역 원천콘텐츠의 의미와 가치를 제고하는 매우 소중한 일이다. 이처럼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 확립의 중요한 기초가 되는 콘텐츠 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있다.

평택문화원이 지역학의 거점으로 정보관리를 할 수 있는 기반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기반의 평택문화원 원천콘텐츠 관리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원천콘텐츠 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평택문화원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의 다양한 콘텐츠를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 종사자와 각계각층의 시민, 지역학 연구자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 제공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다.

평택문화원이 수십 년간 쌓아온 자료 수집 노하우와 민간 및 공공 콘텐츠를 많은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공공재로 확산해 나간다면 이용자들은 평택문화원을 평택학의 거점으로, 평택 관련 콘텐츠 저장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6. 평택문화원사 및 향토사료관 건립

평택시는 고덕국제신도시와 삼성전자 등으로 인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고, 세계 최대의 해외 주둔 주한미군기지가 있는 곳인 국제화도시인 만큼 지역민은 물론이고 외지인, 외국인들을 위해서도 지역의 전통을 지키고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평택문화원사와 향토사료관 건립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평택문화원이 시민의 문화향유를 위한 전당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문화기

반시설로서의 필수 구비하고, 현대문화에 적합한 공연장과 전시실을 갖추어야 한다. 평택시민의 문화 활동에 대한 참여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현재 평택시남부문화예술회관을 일부 무상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평택문화원사는 시설공간이 부족해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어렵고 수용 인원이 제한되는 등 지방문화원 목적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지방문화원진흥법’과 경기도 및 평택시의 ‘문화원 관련 조례’에 명시된 330㎡ 이상의 필요시설을 갖추지 못한 평택문화원은 중장기적 평택문화원사 건립 추진에 앞서 주무부처인 평택시에 지속적으로 시설 확충을 요청해왔다. 평택문화원은 문화원 설립 취지 및 ‘지방문화원진흥법’, ‘평택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평택문화원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에 부합하기 위해 평택문화원사 건립계획의 기본적인 향토사료관과 한국문화체험관, 문화예술 커뮤니티센터 등 중요한 세 가지 테마로 구성한다는 계획을 갖고 추진해왔다.

향토사료관은 지역의 정체성과 전통문화의 발굴 및 보존 계승의 공간이다. 한국문화체험관은 평택지역에 있는 주한미군과 가족, 다문화가정에 한국문화와 평택문화를 전파할 수 있는 공간이다. 문화예술 커뮤니티센터는 지역문화예술 관련 단체 및 관계인들의 소통공간이 될 것이다.

평택문화원은 정부의 ‘1지자체 1문화원’ 정책에 의해 운영되는 문화기반시설로 특히 평택문화원은 1953년 민간 문화원 개원, 1971년 법률에 의한 문화원 창립 등 전국 230개 문화원 가운데서도 최초 설립일자가 20~30년이나 앞서 있다. 3개 시·군이 분리되기 이전인 1970년에는 평택읍 평택리에 2층 규모의 평택문화원 단독원사를 갖춰 사무국과 도서관, 전시실을 운영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해 왔다. 송탄읍과 평택읍이 시로 승격된 이후에는 3개 문화원이 별도로 운영되었다. 이처럼 과거 단독 문화원사가 갖춰졌을 때는 시설을 기반으로 한 각종 문화예술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했으나 1995년 3개 시·군 통합 이후에는 현재의 통합 평택문화원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원사가 없어 시설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에 한계가 있다. 평택시가 평택항 개발과 산업단지 입지, 대기업 입주, 주한미군 이전 등 각종 개발 호재로 성장 발전하는 도시로 급부상하는 상황에서 평택시의 정체성 확립과 시민의 높아진 문화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단독 평택문화원사를 건립해 미래에 대비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고덕국제신도시 입주, 행정타운 이전 등 우리시 개발이 완료되기 이전에 문화원사를 갖추기 위해서는 더 이상 시기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시의성이 매우 중요하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문화원은 수익성 보다는 공공성·공익성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무형의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공익적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건립·운영되고 있다.

평택문화원사 건립은 2019년에 평택시 죽백동 797 배다리생태공원 일원에 ‘배다리생활문화센터’를 신축하여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추진되었으나 시설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추진되지 못하였다. 다시 2021년 7월 현재는 고덕국제신도시 민세 안재흥 고택이 위치한 ‘민세안재흥역사공원’ 내에 평택문화원사를 신축하는 것으로 ‘평택문화원 원사 건립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평택문화원사 건립은 2022년 ‘평택문화원사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과 ‘평택문화원사 건축 기본 설계용역’ 등을 거쳐 국·도·시비를 확보한 후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이 같은 계획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평택시와 평택문화원의 유기적인 협력이 절실하다.

2021년 현재 인구 56만 명의 평택시는 국제화 중심도시, 일류 문화도시를 지향하며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있는 곳이다. 이처럼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평택시의 유구한 역사와 빛나는 전통을 지키기 위하여 평택문화원은 평택지역의 문화 창달을 위해 지역의 문화유산 발굴 보존, 향토사 연구를 통한 전통문화 보존, 시민을 위한 문화사업, 다문화 특성화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왔다. 특히 일회성 사업이나 단기적인 사업이 아닌 지속가능하고 장기적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많은 시민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의 역사와 정서에 대한 근간을 만들어가는 한편, 평택시티투어와 문화예술 교육사업, 지역 학생들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사업에도 주력하고 있다.

시민이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 소외계층이 없도록 사회 교육 활동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함에 있어 문화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단순히 강좌를 열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 모든 시민이 접근성에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 각종 문화역사 자원의 QR코드 제작은 수용자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생활 전반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되는 사업이다.

평택문화원은 앞으로도 지역에 흠어져 있는 기록과 사료를 보존하고, 지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이를 체계화시키기 위해 향토사료 발간사업을 매년 꾸준히 전개하게 될 것이다. 연간 2회 발행되는 종합문예지 《평택문화의 향기-소사벌》에는 문화원이 진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 동향과 사진, 지역사, 문화예술 등에 관한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을 것이다.

평택문화원은 정도전, 원균, 이대원, 홍익한, 조광조, 오달제, 신숙주, 김육, 박문수, 심순택, 안재홍, 원심창, 이석영 등 평택의 역사인물을 학술토론회 등을 통해 조명하고, 각종 프로그램으로

지속적인 선양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 평택의 자랑인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자 국가무형문화재인 평택농악을 비롯해 평택민요, 평택거북놀이와 모흥갑, 김부역쇠, 유준홍, 지영희, 이동백, 방용현, 유세기, 송창선, 최은창, 방돌근 등 지역의 전통예인 선양에도 앞장서서 시민이 우리의 뿌리를 잊지 않도록 든든한 기둥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평택지역의 문화를 살지게 하는 소중한 성과이며 향후에도 지역의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이에 대한 결실을 위해 매진하는 것은 평택문화원이 해야 하는 과제라고 볼 수 있다.

평택문화원은 많은 시민이 친근감을 가질 수 있는 기관이 되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들은 꾸준히 진행될 것이다. 많은 시민은 물론이고 외지인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는 평택시티투어는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하면서 단순한 관광에서 벗어나 평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체험학습이 병행되면서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사업은 평택이 점차 발전하고 유입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우리고장에 대한 관심도도 늘어나는 만큼 확대 되어야 하는 사업이다. 같은 맥락에서 자라나는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을 위해 ‘무동이와 함께 떠나는 우리고장 평택’을 비롯한 찾아가는 역사교육을 통해 지역 청소년들이 올바른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시민에게 다가가는 문화예술 교육사업 추진으로 문화소외계층이 없도록 하는 것이 평택문화원의 목표이며, 이를 위해 평택문화원은 목적사업을 충실히 이행함과 동시에 외연을 확장기 위해서는 정부가 규정한 문화기반시설로서 평택문화원사와 향토사료관 건립을 위해 매진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경기도에 있는 지자체들 중에는 안양, 과천, 안산 등 20여 곳의 문화원이 문화원사와 향토사료관을 건립해 문화기반시설로서 시민의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해 기여하고 있으며 수원, 성남, 의왕시 등 대부분의 문화원들이 문화예술회관 등의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평택문화원은 정부가 정한 필수 시설인 ‘문화기반시설’로서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 ‘지방문화원의 사업’과 ‘평택문화원 정관’ 제4조 ‘사업’에 해당하는 목적사업과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평택 시민이 고르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의 계발·연구·조사 및 문화진흥을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할 소명을 갖고 있다. 또한 시민이 중심이 되는 문화자치 실현과 문화도시를 향한 선한 발걸음을 계속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평택문화의 중심 ‘평택문화원’

박 성 복

《평택문화원史》 집필위원장/평택학연구소장



최근 10여년 사이 평택은 외형적인 모습이 빠르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평택에서 육십 여년 가까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데도 이 같은 변화에 마음과 몸이 적응하지 못하고 무엇인가 남기려는 조바심을 갖게 됩니다.

《평택문화원史》 집필을 맡아 내 나이보다 열 살이나 많은 문화원의 역사를 이미지로, 텍스트로 갈무리 하는 데는 많은 난관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기록의 힘이 위대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낀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1984년 창간호로 시작해 꾸준히 발행을 이어오다 1997년부터 7년여 간 중단된 시기도 있었지만 올해로 제36호까지 엮어낸 《소사별》은 평택문화원의 역사를 담은 기록이었으며, 어디에 내놔도 손색없는 평택의 실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국 곳곳을 수소문해 하나의 낙권도 없이 창간호부터 전체를 찾아낸 평택문화원 학예연구사들의 노력은 이번 《평택문화원史》 발간의 최고 일등 공신이었습니다.

이번 집필 작업 과정에서 얻은 가장 큰 결실은 평택문화원이 경기도 31개 지방문화원 가운데 1953년 가장 먼저 문화원을 개원했다는 사실을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해 《평택문화원史》에 담아낸 것입니다. 1967년 다시 한 번 평택문화원을 조직한 내용도 발굴했고, 1971년 사단법인 설립 당시의 평택문화원 자료와 1981년 송탄문화원, 1989년 평택군문화원 설립 당시의 기록들도 찾아냈습니다. 평택문화원은 1971년 사단법인 설립과 동시에 당시 다른 곳에서는 엄두도 내기 힘들었던 2층 규모의 단독 문화원사를 민간의 힘으로 신축해 무료 강좌를 열고, 미술 전시회도 개최해 ‘문화창달’이라는 구호를 현실화 시켜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던 집필 작업이 새롭게 발굴한 내용들로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평택문화원의 역사를 하나하나 꿰맞춰 가는 과정에서 6.25전쟁 후 먹고살기도 힘든 상황에서 문화원을 만들고 지켜온 선배들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왔는지, 지방문화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문화원 원사에서는 다양한 강좌로 학생과 군민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었고, 마땅한 전시장 하나 없는 평택에서 연중 쉬 없이 전시회를 개최했으며, 평택군에서 수탁 받아 운영한 군립 도서관은 대학생과 공무원, 직장인에게는 형설지공(螢雪之功)이 되었습니다. 평택 사회를 이끌고 있는 기성세대들치고 군립 도서관에서 꿈을 키우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평택문화원 사업은 시대가 변화하면서 흐름도 바뀌었습니다. 초창기 문화원의 주력사업이 ‘주민 계몽활동과 지역문화 창달’이었다면 현재는 ‘시민 문화 향유권 확대와 생활문화 활성화, 지역 문화유산 아카이브의 기능에 초점을 맞춰 목적사업을 충실히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의 흐름을 《평택문화원史》에 담으려고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평택문화원史》 집필 마무리 단계에서는 쓰인 원고를 털어내고, 소중한 사진들을 버려야 하는 고뇌도 뒤따랐습니다. 즐거운 비명일 수 있겠지만 이번 기회가 《평택문화원 100년사》 발간 이전의 마지막 책 일 것이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털어내는 작업이 더욱 힘들었습니다.

집필이라는 다양한 퍼즐을 맞춰 가는 과정에서 《평택문화원史》에 미처 담아내지 못한 부분들도 많았고, 부족한 부분, 오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화원의 발자취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만난 지역사회 선배들, 이보선 평택문화원장을 비롯한 문화원 임원, 사무국 직원 여러분의 협조가 없었다면 《평택문화원史》가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을 밝혀둡니다.

끝으로 《평택문화원史》 집필을 통해 평택문화원에 더 많은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2021년 12월

《평택문화원史》 집필위원장/평택학연구소장 **박 성 복**

《집필 후기》

평택지역 문화예술의 주춧돌 ‘평택문화원’

임 봄

《평택문화원史》 집필부위원장/시인·문학박사



문화예술은 인간의 뿌리이자 근원입니다. 문화예술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고, 살아있는 의미를 부여하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하는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삶에 있어 이처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문화예술은 어느 한 순간에 만들어지거나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시행착오를 거치고 어려움을 극복해야 조금 완성된 모습으로 인간을 더 이롭게 하는데 쓰일 수 있습니다.

《평택문화원史》를 쓰겠다고 처음 마음을 먹었을 때만 해도 평택문화원의 존재는 우리지역의 전통과 뿌리를 지키는 일에 종사하는, 다른 문화예술 단체와 그리 차별화되지 않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다만 68년의 역사를 써야한다니 생각보다 오래 됐구나 생각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평택지역에는 평택문화원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책이 없었고, 평택문화원의 역할과 위상에 대해 지역에서 논의하거나 이야기하는 자리가 마련된 적도 없었으며, 단편적이고 파편적인 자료들만 흩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 둘 자료들을 모으고, 정리하고, 체계를 잡아가는 동안 점점 더 확고해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평택지역의 문화예술은 바로 평택문화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평택문화원이 없었다면 현재 평택의 문화예술은 어쩌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한국전쟁으로 참혹했던 시기에도 평택문화원은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사람을 위로하고 정신적인 세계의 빛을 잃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로 인해 사람들은 팍팍한 삶의 중간에서도 잠시나마 숨을 쉴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었으며, 조금 더 사람답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후의 역할도 그러했습니다. 시기를 거치는 동안 문화원의 역할은 더 다양해지고 더 풍성해졌으며 현재는 지역의 뿌리와 역사를 지키는 주춧돌로서 확고히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평택문화원은 지역의 뜻 있는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공식 역사인 50년보다 18년이나 더 앞선 시기에 사설 문화원으로 개원한 적이 있었다는 것도 이번 집필을 통해 구체적으로 밝혀진 사실입니다. 막연히 몇 년 앞섰다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역사적 근거를 찾아낸 것도 이번 집필의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택문화원은 이후에도 문화예술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지역 문화예술 단체의 뿌리가 되어 평택예총과 송탄예총이 있을 수 있게 했다는 것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평택문화원에서 발행하는 책자 《소사별》이 지역에서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책인가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집필한 《평택문화원史》는 그동안 문화원에서 발행한 책자가 아니었다면 완성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시대를 알 수 있게 하는 기록의 힘, 어려운 가운데서도 꾸준히 오랫동안 책자를 발행해 준 문화원 가족들의 노력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이러한 책자는 앞으로도 더 심혈을 기울여 발행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뜻에 따라 가는 역할을 했던 지방 문화원은 점차 지역의 문화예술을 책임지는 독립기관으로서, 지역의 역사와 뿌리와 전통을 지켜가는 중요한 기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지역의 문화예술을 확장시키고 올곧게 보존하기 위해 노력해 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올곧게 걸어온 평택문화원은 앞으로도 지역 문화예술의 주춧돌이자 만행으로서 문화원 원사를 건립하고 향토사료관을 건립하는 등의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시민은 그동안 평택문화원이 해 왔던 많은 일을 바탕으로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 과정에 작은 일조를 하게 되어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존에 정리된 자료가 부족했던 탓에 여기저기 자료들을 꺾어내는 동안 내용에 오류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부족한 제 탓입니다. 혹여 그런 부분을 발견하시거든 다음 번 문화원 역사서를 발간할 때 다른 분이 정확히 집필할 수 있도록 꼭 관계자에게 알려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평택문화원의 무궁한 발전과 영광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12월

《평택문화원史》 집필부위원장/시인·문학박사 임 봄

참고문헌

- 평택문화원, 《소사벌》, 창간호~제35호(1984~2021년)
- 송탄문화원, 《송탄문화》, 1980년대
- 평택군문화원, 《평택문화》, 1980년대
- 평택군지편찬위원회, 《평택군지》, 1984년
- 평택시사편찬위원회, 《평택시사》, 2001년
- 평택시사편찬위원회, 《평택시사》, 2014년
- 송탄시사편찬위원회, 《송탄시사》, 1994년
- 평택시, 《평택시 통계연보》 등 각종 통계연보, 1950년대~2020년
- 한국문화원연합회, 《한국의 문화원》, 1974년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경기도문화저널》, 창간호~제24호(1984~2020년)
- 한국문화원연합회, 《우리문화》, 창간호~제290호(1984~2020년)
- 한국예총 평택지회, 《평택예술30년사》, 2020년
- 각 지방문화원 역사서, 2010~2020년
- 평택문화원, 평택문화원 누리집 <http://www.ptmunhwa.or.kr/>, 2021년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경기도문화원연합회 누리집 <http://kccfgg.org/>, 2021년
- 한국문화원연합회, 한국문화원연합회 누리집 <https://kccf.or.kr/>, 2021년
- 평택문화원, 평택문화원 발간 각종 단행본, 1970년대~2020년
- 평택시, 《민선 평택시정 20년사》, 2014년
- 평택시, 《평택시정백서》, 1990년대~2010년대
- 박중호, 「지방(지역)문화원의 설립배경과 발전과정」, 『충북학 3』, 충북연구원, 2001.
- 전국문화원연합회, 『전국문화원 사업총람』, 2003.
-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지방문화원 실태조사 연구』, 1996.
- 2016년 지방문화원 실태조사 보고서

평택문화원史

발행일 | 2021년 12월 31일 초판 1쇄 인쇄

발행 | 평택문화원

편찬 | 평택문화원사 편찬위원회

발행인 | 평택문화원장 이보선

기획 | 사무국장 오민영

집필 | 집필위원회 위원장 박성복, 부위원장 임봉

사진 | 평택문화원, 이미지뱅크코리아

행정 | 학예연구사 황수근
경영지원팀장 유언주

편집디자인 | 김은정, 김수현

출판진행 | 김정화

발행처 | 평택문화원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277 (비전동)
031)655-2002, 031)654-8808

인쇄 | 나무기획/031)654-0104

ISBN 978-89-93983-61-6

- ※ 이 책의 원고 저작권은 평택문화원에, 사진 저작권은 평택문화원과 이미지뱅크코리아에 있습니다.
-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내용 및 사진을 도용할 수 없습니다.
- ※ 이 책의 원고 및 사진을 사용해 2차 저작물을 만들 경우 필자와 사진 저작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 이 책은 평택시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